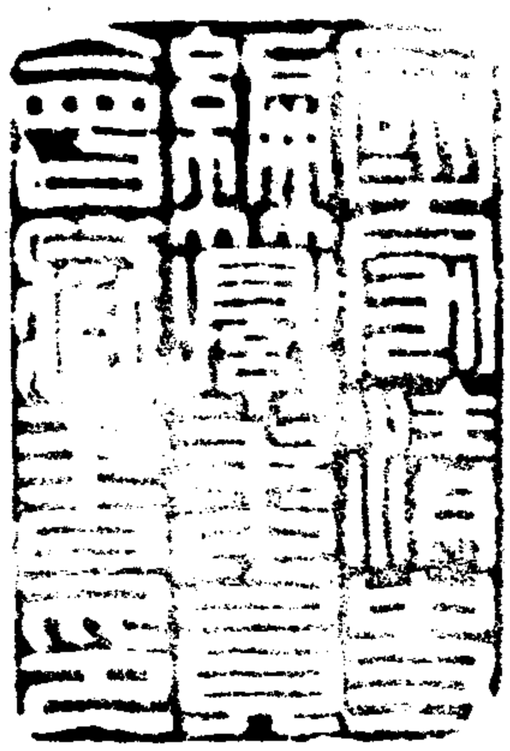
00847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7



東國大學校出版部

刊行辭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淸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東亞細亞와 世界外交의 力學關係、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多樣한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생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硏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彪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敎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敎授님의 指導로 鄕歌를 硏究한 분이다。이 분은 母校의 敎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敎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硏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 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근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 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擧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라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튼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 錫 球

머리말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人文學은 知識을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워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人文學은 글 쓰기의 體系性、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原動力이 된다。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性을 가지고 있다。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당시 韓國과 東亞細亞、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文化와 歷史、外交와 交易、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내가 처음 文字를 배운 世代이다。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머님께 유충렬전을 읽어드렸다。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주었다。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의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鄕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며、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鄕歌文學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떨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 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중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尨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强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 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접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現代語譯、 둘째 歌辭 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飜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 둘째 歌辭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 중 燕行錄의 研究는 꿩 대신 닭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的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錄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晩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 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經濟的인 負擔과 발 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 년 전에 民族文化推進會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 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朴泰根 교수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日本 京都大學의 夫馬 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의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 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的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硏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敎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느냐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딱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다시 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分册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 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册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흩어져 가려지고、헤져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飜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연세대 黃元九 名譽敎授님、창영성씨 이헌공파 成長慶 宗會長님、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尹鍾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擧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 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이 모든 분들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凉月之室에서

林 基 中 씀

일러두기

○ 이 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燕行錄類、瀋陽日記類、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單行本과 文集本、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硏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는 아 分野 硏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燕行別章帖、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詩、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硏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가 作者出生年度順 目錄、燕行年代順 目錄。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으로 各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 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는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연락처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감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경오유연일록(鏡浯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浯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금릉연사초(錦舲燕槎抄), 미상(조선 말), 금릉연사초(錦舲燕槎抄) 1책?

북인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한글본, 正祖7乾隆48癸卯 1783

북원록(北轅錄), 이상봉(李商鳳?-?), 북원록(北轅錄) 5册?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상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教,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 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슈로됴천록, 미상(?-?), 슈로됴천록 사본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심행록(瀋行錄), 윤흥금(尹弘禽, 1641-?), 심행록(瀋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연사일기(燕槎日記)、정회영(鄭義永、哲宗 때)、연사일기(燕槎日記) 1册、哲宗14同治2癸亥 1863
연사필기(燕槎筆記)、정○○(鄭○○、朝鮮、東亞人)、연사필기(燕槎筆記) 2册?
연행록(燕行錄)、김노경(金魯敬、1766-1840)、연행록(燕行錄)、16册、純祖22道光2壬午 1822
연행록(燕行錄)、이정운(李鼎運、1743-?)、연행록(燕行錄) 1册、正祖8乾隆49甲辰 1784
조천록(朝天錄)、이석형(李石亨、1415-1477)、지헌유고(楸軒遺稿)、世祖5天順3己卯 1459
연행시(燕行詩)、조석명(趙錫命、1674-1753)、묵소집(墨沼集) 卷1、景宗2康熙61壬寅 1722
연행일기(燕行日記)、박제인(朴齊寅、哲宗 때)、연행일기(燕行日記) 3册、哲宗11咸豊1庚申 1860
연행일록(燕行日錄)、미 상(?-?)、연행일록(燕行日錄) 1册、純祖31道光11辛卯 1831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심지원(沈之源、1593-1662)、만사유고(晩沙遺稿)、孝宗8順治14丁酉 1657
연행잡기(燕行雜記)、홍대용(洪大容、1731-1783)、연행잡기(燕行雜記) 2册、英祖42乾隆31丙戌 1766
연행 녹、미 상(?-?)、연행록(燕行錄) 1册、純祖31道光11辛卯 1831
일암연기(一庵燕記)、이기지(李器之、1690-1722)、일암연기(一庵燕記) 5册、肅宗46康熙59庚子 1720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심지원(沈之源、1593-1662)、만사유고(晩沙遺稿)、孝宗8順治14丁酉 1657
조천일기(朝天日記)、최기(崔沂、1553-1616)、조천일기(朝天日記) 1册、宣祖40萬曆35丁未 1607
조천행록(朝天行錄)、황진(黃璡、1542-1606)、서담집(西潭集)、宣祖20萬曆15丁亥 1587
조천록(朝天錄)、이덕형(李德泂、1566-1645)、죽천유고(竹泉遺稿) 1册、仁祖2天啓4甲子 1624
천행녹 坤、이덕형(李德泂、1566-1645)、천행녹、坤、1册、仁祖2天啓4甲子 1624
지정연기(芝汀燕記)、원재명(元在明、1763-1817)、지정연기(芝汀燕記) 1册、純祖4嘉慶9甲子 1804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이진명(李鎭命、1663-1722)、한포재연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肅宗24康熙37戊寅 1698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오윤겸(吳允謙、1559-1636)、추탄유집(楸灘遺集)、光海14天啓2壬戌 1622(p-37)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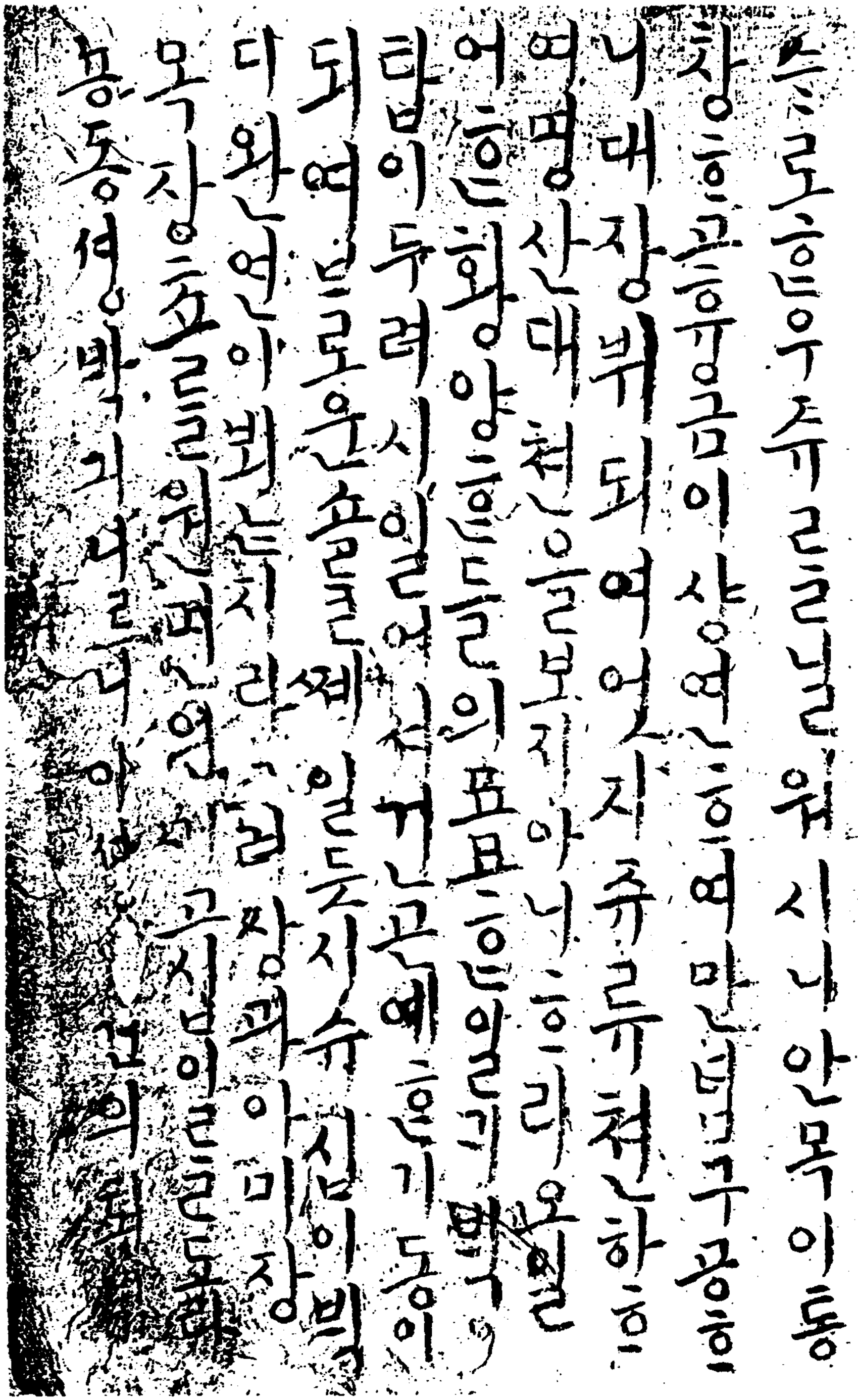
• 연행록(燕行錄、仁·義·禮·智·信) ……

미상(未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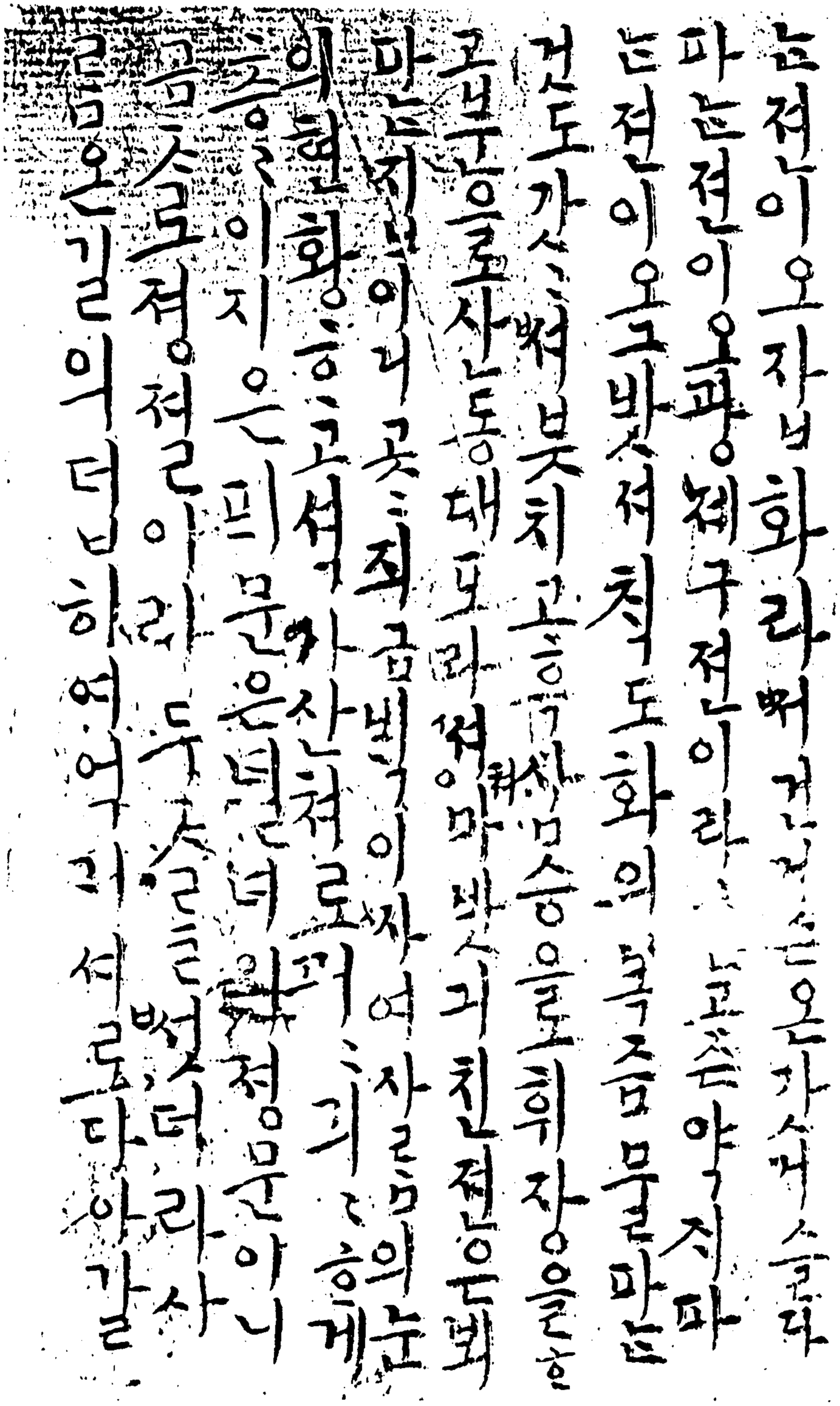
卷九十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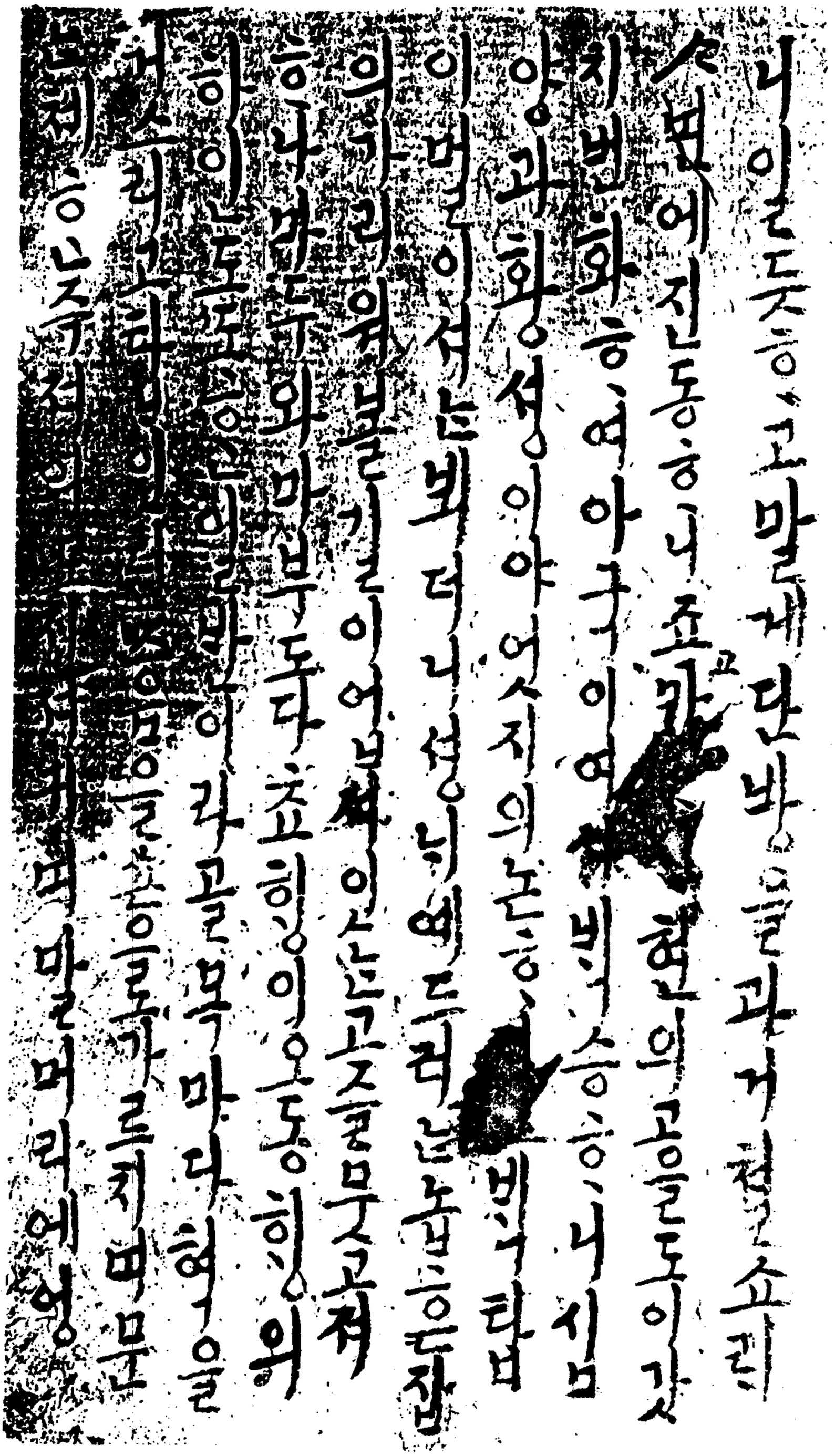
燕行錄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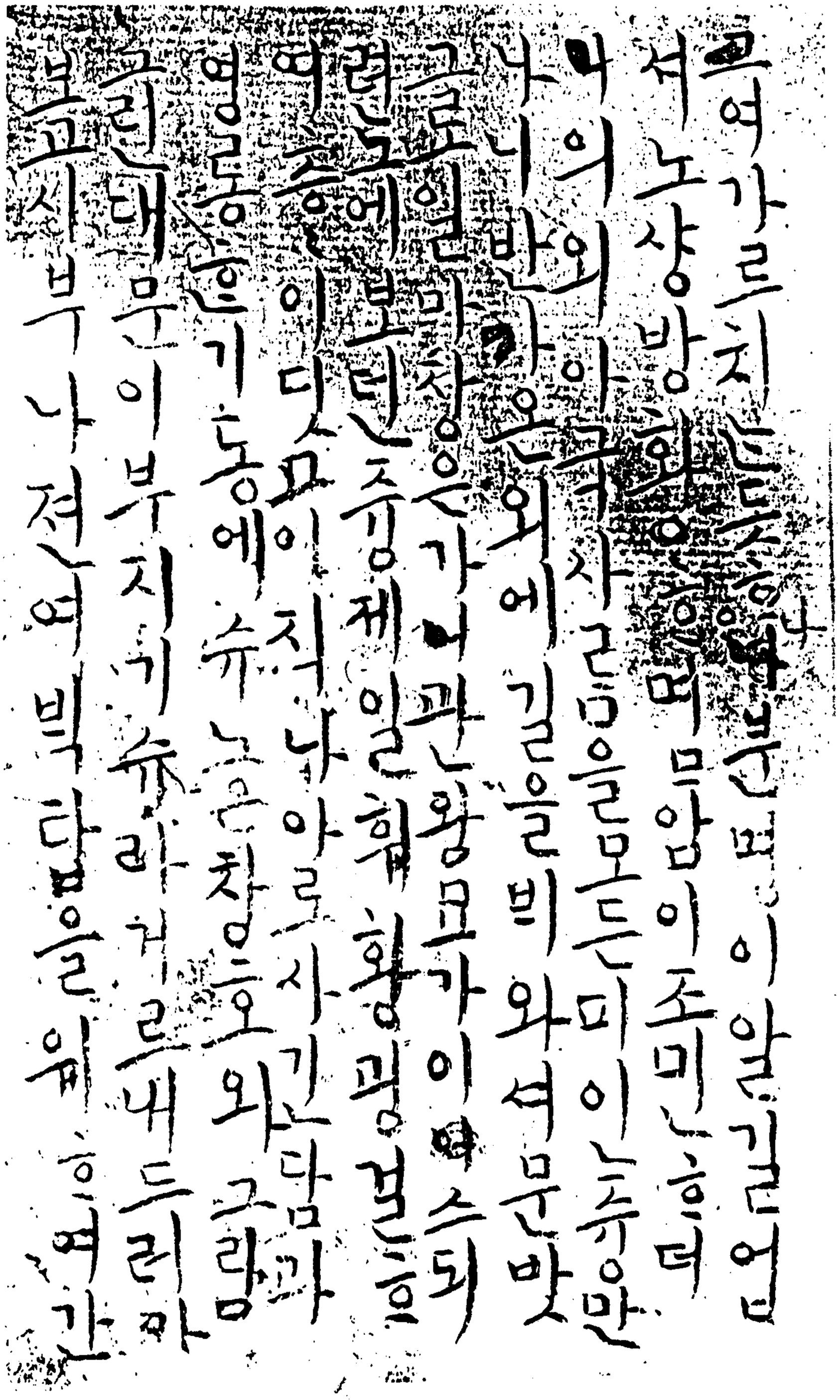
이길의 가득ᄒᆞ여 인미 힝ᄒᆞᆫ길 어셔
일족ᄯᅥ 낫더니 닝졍ᄉᆞ십 어ᄂᆞᆯ와 왕
가의 지ᄇᆞ의 죠반ᄒᆞ니 바ᄅᆞ셔 히가 기우러ᄉᆞᆫ
지라 길ᄭᅡ의 찬우무ᄅᆞᆯ이 있다ᄒᆞ여 쵸ᄇᆞᆸ을
인ᄒᆞ여 ᄭᅵᆼ졍 아라 지어ᄉᆞ더라 길을 떠난
지거 연이셔 ᄃᆞᆺ로어 되여 시라 온니 슈로치
면오ᄂᆞᆯ이야 기ᄅᆞᆯ반을 ᄃᆞ시니 일하오
여ᄎᆞᄒᆞ고 병셰ᄂᆞᆫ고허 아무 상ᄒᆞ니 어ᄉᆞ
젼ᄂᆞᆫ 전ᄒᆞᆯ고ᄉᆞᄅᆞᆫ 삼년ᄂᆞᆫ ᄒᆞᆫ ᄒᆞᆼ공ᄒᆞ
에 화표쥬가 이ᄉᆡ 쳐 우셔 ᄋᆞᆼ
이 과거 ᄂᆞᆫ 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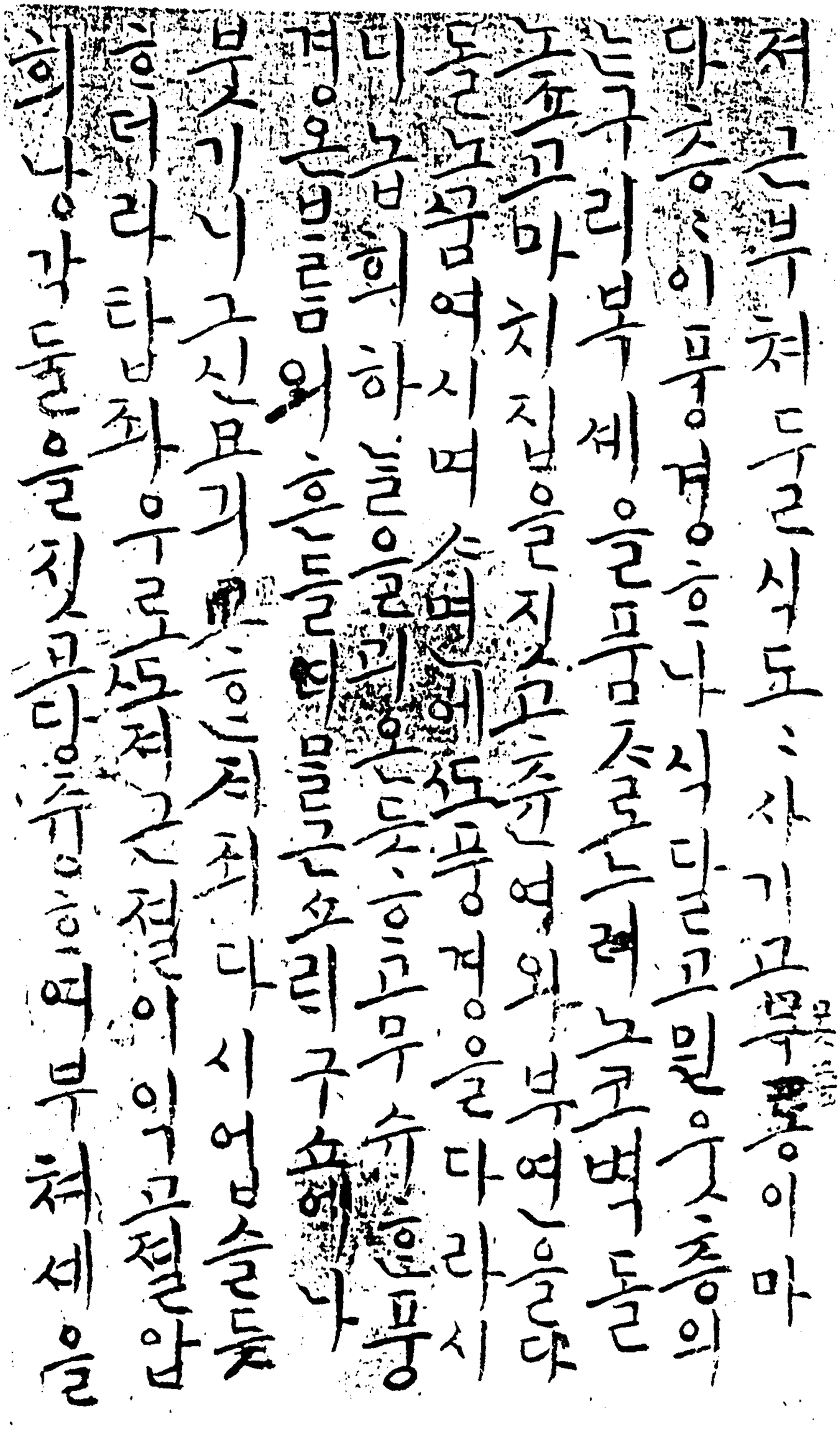
치ᄅᆞ팔니나되ᄂᆞᆫ대밧ᄂᆞᆫ기야와불ᄀᆞᆫ
동ᄒᆞᆫ집의슛도ᄅᆞᆫ그ᄅᆞᆫ쎨을좌우에ᄭᅵ
목셕져져ᄅᆞᆯ집ᄇᆞᆫ이버려ᄒᆞᆫ곳도쓴
치인대어ᄇᆞ고젼방무마다금ᄌᆞᆺ로당ᄒᆞᆯᄅᆞᆯ
서혀ᄒᆞᆫ만ᄒᆞᆫ고ᄯᅩ삼ᄉᆞ장식ᄒᆞᆫᄂᆞᆫ닐니ᄇᆞ에제
게있ᄂᆞᆫ무ᄅᆞᆯ죵을앗ᄉᆞ팟피금ᄌᆞ로ᄅᆞᆯ게뼈
용두에물어져ᄂᆞᆫ마다각ᄀᆞᆫ세워왕내ᄒᆞ
ᄂᆞᆫ힝인이보고드리와샤게ᄒᆞᆫ구리처ᄅᆞᆫ
망을ᄒᆞ여공즁에달고가셕산ᄀᆞᆯ도깃
도라며도ᄅᆞᆫ그ᄌᆞᆫ거ᄉᆞᆫ도ᄒᆞᆫ나에거리다라
ᄭᅵ니맛ᄉᆞᆼᄉᆞᆺ뻐단ᄇᆡᄉᆞᆫ져당잡고ᄂᆞᆫ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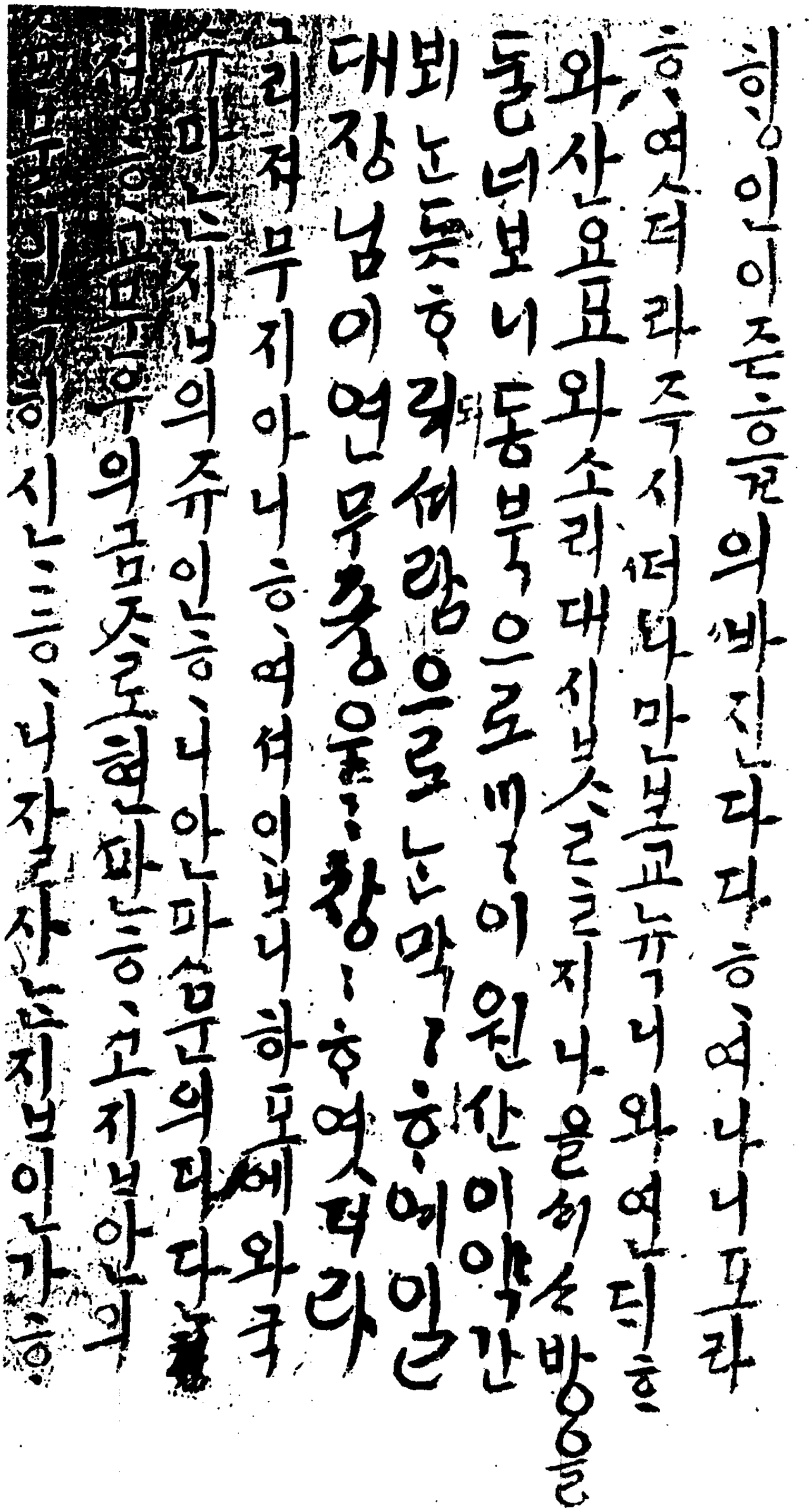


길이오일세가져무러그져지나타ᄂᆞ하에니
르니져장관일행도밋쳐와ᄉᆞᆫ지라ᄒᆞᆫ
가지로드러가보니이타ᄇᆞᆫ은당ᄒᆡᆨ쇼동치
라와시ᄅᆞᆯ젹우ᄅᆞᆯ지경덕을도ᄒᆞᆫ여금산타ᄂᆞᆫ
이니벽도ᄅᆞᆯ노싸고뉴회로바ᄅᆞᆫ나여ᄂᆞᆫ려보에
열여ᄃᆞᆫ관ᄎᆞᆼ을ᄡᅡ시니ᄒᆞᆫ모이녀녀ᄉᆞ간ᄂᆡ
뷔ᄂᆞᆫ되고쳣지대노ᄇᆞᆫ회ᄂᆞᆫ기ᄅᆞᆫ반은되고ᄅᆞᆯ지
ᄎᆞᆼ은두기ᄅᆞᆫ은ᄒᆞᆫ고졔사ᄆᆞᆫᄎᆞᆼ은세기ᄅᆞᆫ은ᄒᆞᆫ
고졔ᄉᆞᆫᄎᆞᆼ졔오ᄎᆞᆼ은져ᄆᆞᆫᄂᆞᆫ하지ᄆᆞ지ᄀᆞ을
ᄆᆞᆫ나ᄆᆞᆫ면ᄆᆡ다가ᄀᆞᆫ곧부쳐ᄒᆞᆫ나와



안치고정중이 돌귀옷ᄒᆞ나이ᄂᆞᆫ스니 믈
ᄌᆞ오십동의나담 울듯ᄒᆞ고중편예ᄒᆞᆫ비셕
이셔시되낙ᄉᆞ이임의황ᄒᆞᆯ이되여보지못
ᄒᆞ고쳔하정광을총ᄀᆞᆼ이구경ᄒᆞ니ᄀᆞᆺ히
다로오며부ᄉᆞ공도보라오시다가져모라부로
지나시니셰셩랍으로러부러도라나ᄉᆞᆺ마
쟝오져ᄒᆞᆫ가지로되시고되ᄌᆞ하ᄅᆞᆯ건너
니이믈ᄒᆞᆫ연퇴ᄌᆞ란이ᄉᆞᄉᆞ로무ᄃᆞᆨ질너즉
은곳지라ᄒᆞ기칠졀일ᄉᆞᆼ를지어왈ᄂᆞᆫ
양ᄒᆞᆫ일이옛연남라대라하ᄉᆞᆼ동으로

을너다시도라오지못ᄒᆞᄂᆞᆫ도다셔셔이
비ᄒᆞᆼ고셔일이져므니길가ᄂᆞᆫ사ᄅᆞᆷ이말
을셰오고그대ᄅᆞᆯ위ᄒᆞ여스러ᄒᆞ노라ᄒᆞ니
라영슈사ᄆᆞ십니ᄅᆞᆯ이경이지ᄂᆞᆫ후드
러갈셔두어낫잔ᄌᆞ족이길을인ᄂᆞᆫ니
힝셕이국ᄒᆞ고ᄌᆞᆫᄒᆞᆫ라 남원ᄀᆞᆫ주이
일이날은ᄆᆞᆼ일이어졔여셔져기나온지
라일ᄎᆞᆯ후발힝ᄒᆞ여져반쳥십이리
와방이되뉵어왕삼도마오리ᄅᆞᆯ치나난
니표오리에죠바ᄂᆞᆫ니이지ᄀᆞᆫ은봄이면즈러



힝인이즌ᄒᆞᆯ의ᄲᅡ진다다ᄒᆞ여나니포라
ᄒᆞ여ᄉᆞ더라즉시ᄯᅥ나만보교뉴니와여ᄂᆞᆫ디ᄒᆞ
와산요표와소리대시ᄇᆞᆺᄀᆞᆯᄒᆞ지나올ᄉᆡᄉᆞ방을
둘ᄂᆡ보니동북으로ᄲᅮᆫ이원산이약간
뵈ᄂᆞᆫ듯ᄒᆞ리되셔람으로ᄂᆞᆫ막ᄀᆞᄒᆞ에인
대장님이연무중을ᄀᆞᆺ창ᄀᆞᄒᆞ엿더라
그리져무지아니ᄒᆞ여셔이ᄇᆞ니하포에와국
ᄉᆞ마ᄂᆞᆫ지ᄇᆞ의쥬인ᄒᆞ니아ᄂᆞᆫ파ᄉᆞᆷ문의다다
져ᄒᆞ고문우의금ᄌᆞ로현파ᄂᆞᆫ고지ᄇᆞ안의
ᄉᆞᆷ문이ᄒᆞ시ᄂᆞᆫ ᄒᆞ니잘사ᄂᆞᆫ지ᄇᆞ이ᄂᆞᆫ가ᄒᆞ

탕ᄒᆞᆫ와ᄂᆞᆫᄉᆞᄅᆞᆯ사먹더니 우리 쳐ᄂᆞᆫ복ᄒᆞᆫ
복셔을보고쥬인이무관인가글ᄌᆞ로써
못ᄂᆞᆫ지라여과ᄂᆞᆫ은쳔리을입은고로문
관이라ᄒᆞ고쳐ᄂᆞᆫ복ᄒᆞ니ᄂᆞᆫ무관으로아니
쥬국의셔도무변은낫게여기ᄂᆞᆫ가시부
더라빅타ᄇᆞ포ᄉᆞ십이리ᄅᆞ와조반ᄒᆞᆯ셔슛
마동편에ᄯᅩ빅타ᄇᆞ이ᄂᆞᆫ셔놉희여ᄂᆞᆫ뻔ᄎᆞᆫ이
옵셔도리이ᄒᆞ나뇨동화표ᄌᆞ에비겨ᄂᆞᆫ시ᄇᆞ
부에일이부이못되나대쳬폰지ᄇᆞ구ᄌᆞᆫ두
부ᄂᆞᆫ셔라가ᄂᆞᆫ아시면ᄌᆞᆫ히놉ᄒᆞᆫ타ᄇᆞ이라

니ᄅᆞᆯ너라 예 서ᄆᆞᆺ터ᄂᆞᆫ 심양이 져갓
가와 오니 힝인의 거매 일비더 ᄒᆞ여 너뷔
십여 간되ᄂᆞᆫ 길의 ᄂᆞᆫ말과 가ᄂᆞᆫ 슈ᄅᆞᆯ네 뷘
틈업시셔로다 아황 진이 챵쳔ᄒᆞ고 거
쳘소리 진동ᄒᆞ여 만마 쳔병이 ᄉᆞ면의 모
ᄅᆞ오ᄂᆞᆫ듯ᄉᆞᄒᆞ니 비로쇼ᄌᆞᆼ 원이 부셩ᄒᆞᆫ 쥴
을아ᄂᆞᆫ지라 아국의 션ᄂᆞᆫ쥬원 사ᄅᆞᆷ을 일병
오랑키라 일은나 그ᄌᆞᆼ ᄂᆞᆫ 벌이ᄂᆞᆫ서 만쥐 사
ᄅᆞᆷ은 거ᄂᆞᆫ 뉴의ᄒᆞᆫ 죵뉴어 쳥인이라 ᄒᆞ고 명
쪽사ᄅᆞᆷ은 한인이라 ᄒᆞ나 언어와 복셕과

힝실이다고히치아니ᄒᆞ여셔로갓ᄉᆞᆫ되몽
곰놈들은그즁에뽈죵이라누른옷ᄉᆡ누른마
우락이쓱고어ᄅᆞᆯ구ᄅᆞᆯ이극히연뜰ᄒᆞ여과ᄂᆞᆫ곰이놀고
눈이긔긔ᄂᆞᆫ뽀고신장이도뽈ᄂᆞᆫ뜨ᄆᆡ언에ᄒᆞᄂᆞᆫ쳥인
을로더부러비도이다르고이ᄅᆞᆫ셩화시ᄉᆡ을아니
ᄒᆞ기슈ᄉᆞᆼ을무ᄅᆞᆯ의부러셩거ᄉᆞᄅᆞᆫ머ᄀᆞ으며비
가곱호면즘셩을산쳐셰워두고칼ᄂᆞᆫ지ᄅᆞᆯ
너미ᄅᆞᄅᆞᆫ빠라먹고ᄯᅩ지ᄇᆞ의셔자ᄂᆞᆫ일이어ᄂᆡ셔
이모대나가다가샹셜즁이라도히가져물
면누어ᄌᆞ고ᄭᅴ지ᄇᆞᆼ은ᄒᆞ나이ᄂᆞᆫ뻔일실지

인이다 돌여 자ᄂᆞᆫ고로 셩이 어ᄇᆞ고 구바ᄇᆞ쇼ᄒᆞᆫ
이무비 금슈와 다르미 어ᄂᆞᆫ스리의 무려 산ᄂᆞᆫ바
근셔 부ᄂᆞᆫ면으로ᄂᆞᆫ부지 기긔 만ᄂᆞᆫ어 다에 다봉고
의지 방이니ᄉᆞ시ᄇᆞ 말와 이버러셔 살화을
쥬장ᄒᆞ고 다ᄅᆞ마와 가ᄉᆞ식다ᄇᆞ과 삼ᄇᆞᆼ지 속이
다그리로 셔나 오니 화져 도긔 탄ᄒᆞ여 ᄒᆞ온가를
셔로ᄒᆞ며 벼ᄉᆞᆯ을 마이시져 의마ᄋᆞᆷ을 죠케
ᄒᆞᄂᆞ다ᄒᆞ니 쳔하에 가ᄇᆞᆫ 뽕ᄋᆞᆫ 뭉괴되ᄅᆞ가ᄒᆞ노라
기ᄅᆞ의 셔산영 가ᄉᆞ면 놈들을 보니 노라와 사ᄉᆞᆷ을
무슈이 자ᄇᆞ아 ᄉᆞᆯ네에 섰고 무리ᄅᆞᆫ 작다ᄒᆞᆫ여

밀집가ᄂᆞᆫ 죠총과 말너ᄆᆞ은 장구을 손와
거ᄅᆞ고ᄃᆡ 지부ᄉᆞᆫ 말을 타고 황칙ᄒᆞ여 오ᄂᆞᆫ 뒤
에크다ᄒᆞᆫ 산영기ᄂᆞᆫ 좌우의 ᄯᅡ라시니 듯ᄒᆞᆫ
긔운과 호긔로오ᄂᆞᆫ 거동이 비ᄒᆞᆯ곳업더라 일
쇼대와 홍황관과 일ᄅᆡ 강을 지나 이십ᄇᆡ를
오니 심양셩이 오리ᄂᆞᆫ 격ᄒᆞ여시나 거마가
더옥 금슈ᄒᆞᆫ데 너르ᄂᆞᆫ 길에 ᄆᆞᆯ버여 ᄉᆞ힝이
끌질이 업서 죵ᄂᆞᆫ 멈츄다가 간신이 나문
박졀의 드러 슈힝이 긔봄ᄒᆞ고 가마에ᄂᆞᆫ
려인장 말ᄂᆞᆫ드러 가시고 일힝은 동셔 반ᄂᆞᆫ

을차려문을들지ᄯᅩ올연ᄒᆞᆫ빅타니아
셩밧셔편의이시니돌빗치극히희고
제도가ᄯᅩ헌이상ᄒᆞ여쥬ᄒᆞᆼ의ᄒᆞᆫ샴실
을ᄯᅳᆷ이고겻희구멍을내고말명을로싸시
니놉희ᄂᆞᆫ죠반참보펀탑과ᄒᆞᆫ가지오탑
뒤에큰졀이ᄂᆞᆫ슈니ᄀᆞ야와홍문이찬란
ᄒᆞ여뻐연ᄒᆞᆫ사철이아니ᄂᆞᆫ분명심양
에속ᄒᆞᆫ졀인가시부고ᄯᅩ졀겻희슈목
을가두이심그고거문ᄉᆞ슈시ᄇᆞ필을두어
시니기ᄂᆞᆫ살지고귀살ᄅᆞᆷ의ᄭᅵᆯ노ᄒᆞ나심

되니이ᄂᆞᆫ아국젼셩시고치ᄒᆞ여졔ᄒᆞᆫ에
ᄯᅳᆫ가시부더라셩박긔셔이ᄂᆞᆼ여권마셩
을굿치고문을드니외셩의셔미셩가ᄂᆞᆫ동
안이슈리나되고셩즁이ᄯᅩ여리니되니외
셩문은ᄒᆞᆫᄎᆞᆼ이오내셩은ᄉᆞ면가ᄀᆞᆺ문ᄃᆞᆯ을
식을짓고다사ᄆᆞᆯ증을로지어시니극히노ᄑᆞᆯ고
셩은벽돌노싸고셕회로바ᄅᆞ나슈시보장
이나되고문안의대로사쳐ᄀᆞᆺ에죵회ᄒᆞᆺ
여시며나ᄆᆞᆫ부양문ᄉᆞ와동셔양문ᄭᅡ은
대시보ᄉᆞ가누ᄅᆞᆯ지어동셔나ᄆᆞᆫ부ᄋᆞ로잔

니ᄂᆞ사ᄅᆞᆷ이 다ᄆᆞᆫ누ᄆᆡᆫᄌᆞᆯ 단ᄂᆞᆫ 게ᄒᆞ여 시니
졔도와 놉희 극히 괴겅걸ᄒᆞ고 골ᄌᆞᆯ비ᄒᆞᄂᆞ니 염
과 번화ᄒᆞᄂᆞᆫ 져 져 중원에 버금이 오지 부기
동마다 진치로 단쳥ᄒᆞ고 문마다 금ᄌᆞ로 현판
ᄒᆞ고 공은 금보피와 금ᄌᆞᆫ 치비ᄅᆞᆯ 풍셩이 싸아
노고 무ᄅᆞᆯ 죵이ᄅᆞᆷ이 ᄡᅴ 사망기여 다ᄅᆞᆫ 나ᄒᆞᄂᆞᆫ
덕다 ᄆᆞᄒᆞᄂᆞᆫ 말을 각각 긴피에 금ᄌᆞ로 써일
졔이 놉히 걸고 쳐마 바ᄀᆞ 긔비 다ᄒᆞᆯ로 ᄒᆞᆫ 긔ᄡᅴ
사ᄆᆞᆺ승을 로 밍근 휘장이 다 영농ᄒᆞ며 기동
에 혹ᄌᆞᆫ 휴 ᄒᆞᆼ 치ᄅᆞᆫ을 밌쳐 ᄆᆞᆺᄒᆞ여 시 변ᄒᆞᆼ 당

지로 빠 발나시니 서양이 빗치여 더욱 황
홀ᄒᆞ더라 산히 과셔 사ᄂᆞᆫ 왕가에 집의 쥬
인ᄒᆞ고 져져에 건어며 물ᄒᆞᆫ 화ᄅᆞᆯ 구경ᄒᆞ다
가우연이ᄒᆞᆫ 젼방에 드러가니 밧치ᄂᆞᆫ 모창
슈ᄒᆞ게 금치ᄅᆞᆯ 써시며 여ᄋᆞᆼᄒᆞᆫ 타ᄌᆞ에 여러 놈
이 유문대 답옷ᄉᆞᆯ 겹ᄂᆞᆫ이 입ᄂᆞᆫ 둘러 안져 각셕
물 화ᄅᆞᆯ 집들 부ᄯᅡ 지ᄡᅡ 엇건ᄂᆞᆯ 보곰무 한이
칭찬ᄒᆞ니 져의 도ᄌᆞ와 ᄒᆞ여 드러와 보라 ᄒᆞ고
슈인이 인도ᄒᆞ여 ᄂᆞᆯ다 ᄒᆞ라 ᄃᆞᆯ져 문을 드니 완ᄌᆞ
문ᄒᆞᆫ 창살이 ᄯᅢ 와 ᄒᆞᆫ마 당에 방셕을 ᄭᅳᆫ

정이 깔고 도성 사람을 모아 강의를 열고 사서 봐 주시니 그 은혜로움이 한량없었다. 그 뒤 느부단네살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이르러 느부단네살 왕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맞은편에 토성을 쌓고 성을 둘러 에워쌌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이르러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이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욱 힘쓰고 삼가며 조심하여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몰래 성문을 열고 나와 아라바 길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 때 갈대아 군사가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그 모든 군사가 흩어져 왕을 버리고 달아나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사로잡아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느부단네살 왕에게 끌고 가니 왕이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죄를 선고하였다. 느부단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다. 갈대아 군사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남아 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와 그 나머지 무리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다만 가난한 백성 중 얼마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맡기고 농사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이 놋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솥과 부삽과 불집게와 숟가락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가고 또 금은으로 된 것은 시위대 장관이 가져가고 또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것이니 이 모든 그릇의 놋의 중량을 측량할 수 없었다. 기둥 하나의 높이는 십팔 규빗이요 그 위에 놋 주두가 있고 주두의 높이는 삼 규빗이요 주두 위에 석류가 있고 석류는 다 놋이요 둘째 기둥도 석류가 이와 같았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버금 제사장 스바냐와 세 문지기를 잡고 또 성읍에 있는 자 중에서 군사를 맡은 한 내시와 왕을 뵈는 자 중에서 성읍에 있는 자 다섯 사람과 군사의 지휘관의 서기관 곧 백성 중에 성읍에 있는 자 육십 명을 잡고 또 성읍 가운데에서 잡은 자 중에서 그들을 잡아 립나 왕에게로 끌고 가니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유다가 그 땅에서 사로잡혀 갔다.

눈의 현란ᄒᆞ여 아ᄇᆞ뒤 마다ᄋᆞ에 ᄒᆞᄂᆞ져 ᄆᆞᆯ리 업
ᄂᆞᆫ 셔ᄃᆞᆯ 노셩 노ᄅᆞᆯ 비 다ᄂᆞᆫ 문을 내여 가라 시며
쳥홍 셕쳐 마에 ᄂᆞᆫ구리 망을 로죠고 맛치 ᄃᆞᆼ우
리ᄅᆞᆯᄒᆞ여 다ᄅᆞ고 이 상ᄒᆞᄂᆞᆫ 금죠ᄅᆞᆯ 기ᄉᆞ드리 ᄯᅥ
자ᄂᆞᆫ 항의 ᄂᆞᆫ 바다에 그리ᄆᆞ 그린 초로 다ᄆᆞᆯ ᄯᅥ고
슈노은 ᄡᅥ기 ᄯᅥ비 다ᄂᆞ니 ᄇᆞᆯ을 여러 곳 ᄡᅥ려
노ᄅᆞ제 ᄉᆞ문을 드러가니 금쳐ᄒᆞᄂᆞ연 목이 ᄡᅳ
꼿사 긴문 얼굴이 사ᄅᆞᆷ이 비치여 보던
중쳐음이 오ᄯᅩ제 온문은 만졍에 쳥셕으
로 쌍용을 도ᄉᆞ사 시고ᄆᆞᆫ 둥을 게 내여

시니그지보은무ᄆᆞ인거동과ᄡᅵ린즈ᄆᆞ무ᄅᆞᆫ이
이ᄅᆞ비더거록ᄒᆞ고ᄀᆞᆼ아ᄅᆡᄂᆞᆫ다ᄒᆞᆼᄒᆞ여탁
노ᄅᆞᆫ노고쳥동화로에셔라ᄂᆞᆫ을ᄆᆡ여ᄉᆡ되라
지ᄇᆞ과져무ᄅᆞᆫ이하비ᄡᅥᄆᆞᄒᆞ기가ᄇᆞᆺ을무ᄅᆞᆫ
즉지ᄇᆞ은은이ᄅᆞᆫ만ᄅᆞᆫ쳔냥이오ᄒᆞᆼ졍가으마ᄂᆞᆫ
사ᄅᆞᆫ은사ᄆᆞ십ᄇᆞ명이되고져화ᄂᆞᆫ언마되
지모로게여ᄂᆞᆫ다ᄒᆞ니우리나라궁쳔과쳔
곡이었지이ᄒᆞᄂᆞᆫ젼을당ᄒᆞ리오일노ᄇᆞ면
쇼국이국히시ᄆᆞᄒᆞ더라두로구졍ᄒᆞ고도라
오다가긔ᄒᆞᄂᆞᆫ이시ᄆᆞᄒᆞ여ᄉᆞᆯ마ᄂᆞᆫ지ᄇᆞ의ᄃᆞ니

좌우에 타ᄉᆞ와 모의 ᄅᆞᆯ 셔고여 무슈이 그
코왼 갓슈ᄭᆞᆯ니 ᄅᆞᆷ을 다 뼈부쳔 거ᄂᆞᆯ 그ᄌᆞᆼ
포도쥬 가감시 헐ᄒᆞ고 겸ᄒᆞ여 맛도 평포ᄒᆞᆫ
다ᄒᆞ기ᄒᆞᆫ 잔을 대도을 쥬고 사마시니 구히 청
별ᄒᆞ여 쥬 피 즉시 얼굴에 오로터 라 그리
로 오다 가 힝궁을 보자ᄒᆞ고 드러 가니 홍마 목
을 멀어 셰 위고 안마드리 갓가이 못가 게ᄒᆞ고 정
직ᄒᆞᆫ 길과 웅장ᄒᆞᆫ 집의 황기 야로 우ᄉᆞᆼ을
일고 쳐기 야로ᄉᆞ며 의셔을 두로고 쥐ᄋᆞᆷ문
의ᄂᆞᆫ 문 덕 방이라 현마 ᄒᆞ고 동구에 제왕

이하개흐마라 콰게가 졈셔비를 쳬우고
대궐바긔불근살창을 흐고안의팔면
황각이셔 멀어보기에도극히황홀흐
되도쳐에슈문군이엄치흐니 드러갈길이업
셔쳥심환기나슈곰문을여러달나달난면
손을로졔꼭을가르쳐 빠이는거동을흐니
헐길이업더라심양에관원은함흐여일
곱이니봉쳔부라흐는아무은본관이니
혐이다스리곤흐부병형부공부병다셧마
롤은좌우에버리여셔심양장군이다건

리게ᄒᆞ여시니봉쳔부쥬은셩명이빅지니
이픔문관이오장군은셩명이송공이니일픔
문관이오병부랑은의샹아니무관이오호
부랑은복낙이오네부랑은내복이오공
부랑은희샹아오형부랑은뎡법이니병
부외예ᄂᆞᆫ다인픔문관이오힝구직흰관원
은위란희반이라ᄒᆞᆫ니뉵픔무관이라ᄒᆞ더
라심양쟝군아문빅긔ᄂᆞᆫ낭그로물네살쳐로
밍구러셰모지게ᄒᆞ여거문칠ᄒᆞ고마목을쌍뎌
멀니세우고마목밧그로티평ᄎᆞ와슈안지은죠

은말과나귀노셔를무슈이미고대문안으로
멀니보니겹겹ᄒᆞᆫ숑문의ᄎᆞᆼᄎᆞᆫ집이심이심
슈ᄒᆞ더라ᄯᅩ드ᄅᆞ니여긔셩을명젹에슈츅ᄒᆞ
고쳥초에집제도ᄅᆞᆯ더ᄉᆞ치ᄒᆞ고슘덕슌치가
다예셔긔창ᄒᆞ여시니일ᄂᆞᆫ뼈셩경이라일ᄅᆞᆺ
곡즉금은부모가되여능침과궁궐이복경다음
이되다ᄒᆞᆯ고우리ᄂᆞᆫ라ᄒᆞ요ᄑᆞ요에셔볼모잡히
여와계시던죠션관이라ᄒᆞᆫᄂᆞᆫ집은세구연심
ᄒᆞ여임의허러저업ᄉᆞ나오히려부ᄅᆞ시ᄂᆞᆫ죠션
관이라ᄒᆞ니쳥음션셩과삼학ᄉᆞ의졍졀ᄅᆞ

이집을다라쇼뎔ᄒᆞᆫ가ᄒᆞᆯ도뷘터의비회ᄒᆞ
며감창ᄒᆞᆫᄆᆞᆷ을ᄉᆞᄉᆞ로이긔지못ᄒᆞᆯ너라이
바구성ᄒᆞᆯ고지무슈ᄒᆞ나겨을날이무졍이
졀너언어덧셔사예거졋시니쥬인의집의
와셕반을먹고자라ᄒᆞ더니창외에박혁ᄒᆞ
고ᄂᆞᆫ피인이잇다ᄒᆞ기불너장긔ᄅᆞᆯ두니이
장긔도힝마ᄒᆞᆫᄂᆞᆫ법이아구과달나샹마ᄎᆞ모
도달니힝ᄒᆞ고병ᄌᆞᆯ은장슈ᄅᆞᆯ감이치지못
ᄒᆞ니차역군법을도ᄒᆞᆫᄂᆞᆫ일이오ᄉᆞ신압희셔
횡쥭거좌극히무어ᄆᆞᆫ나대국사ᄅᆞᆷ을엇
지쳠망ᄒᆞ리오ᄉᆞ힝이예사강을건너면

군힝일체라 일디일인이 무단이 못더러지
ᄂᆞᆺ지라 샹동ᄉᆞ로 오ᄂᆞᆫ 역관이 낭ᄉᆞ산에 자다가
쥬머니ᄅᆞᆯ 일코 차ᄌᆞ라 ᄯᅥ러치니 져의 동ᄉᆞᄒᆞ여
옵던 역관 삼인이 동ᄉᆞᄅᆞᆯ 위ᄒᆞ여 ᄉᆞ힝에 고치아니
ᄒᆞ고 일쥬야ᄅᆞᆯ 나후ᄒᆞ니 ᄉᆞ신이 셔로 왕복ᄒᆞ
고 내입ᄒᆞ여 일병결곤 오도식ᄒᆞ고 어공약겨
ᄅᆞᆯ여 긔와 살가ᄒᆞ여ᄉᆞ더니 극품이 업셔 연뉴
ᄅᆞᆯ 아국에 동ᄒᆞ라ᄒᆞ되 죠셔시ᄅᆞᆷ은 다시 왕내
ᄒᆞᆯ 기ᄅᆞ업기 쳑문셔되 ᄒᆞᆫ 금을 ᄋᆞᆫ 쥬고 셰
ᄅᆞᆯ 내여 십양ᄭᅡ지 다려 왓더니 셔울 편지ᄅᆞᆯ

써이 금을 쥬어 도로 쳐 문을 로 보내여 의쥐 순
셤 편 붓치라 ᄒᆞᆯ셔 죵인들은 각ᄀᆞᆫ 본집의
안부도 못 붓치니 악면ᄒᆞ더라 쵸ᄉᆞ일 더
나라 ᄒᆞ더니 냥 찬시ᄅᆞᆫ 차복이 ᄯᅥ러져 미지
못ᄒᆞᆫ지라 멀니 몬져 가기 위ᄒᆡ ᄒᆞ여 인ᄒᆞ여
묵우니 압희 월 참ᄒᆞᆯ 일이 심난ᄒᆞ나 관
광ᄒᆞᆯ 모암을 쳐음의 ᄂᆞᆫ다 힝ᄒᆞ여 ᄒᆞ더니 일
긔도 심ᄒᆡ 음산ᄒᆞ고 신긔도 불평ᄒᆞ여 ᄆᆞ니가
보든 못ᄒᆞ고 참 간ᄂᆞ 샹에 나가 것니 더니 어딕
셔 거문ᄀᆞᆫ 타ᄂᆞᆫ 쇼리ᄀᆞᆺ 든 거시 들니 거ᄂᆞᆯ 차
져 드러가니 깁ᄒᆞᆫ 집의 셔 면화 타ᄂᆞᆫ 쇼리라

팔독만ᄒᆞᆫ나몰ᄅᆞᆯ네모지게다듬곤두머리
에용두ᄅᆞᆯ사겨물ᄋᆡ고양의창ᄌᆞ로시위ᄅᆞᆯ
밍그러ᄒᆞᆫ발나목ᄉᆞ이활을ᄒᆞ여ᄯᅩ긴대팔
을밍그러시위ᄂᆞᆫ큰활시위에걸고활장
은사ᄅᆞᆷ의등의지고나모갈고리로타니묻근
ᄯᅩ리멀니들니며잠간ᄉᆞ이면화ᄂᆞᆫ무슈이
타니고ᄡᅵ아도아국과내도ᄒᆞ여반기ᄅᆞᆫ은ᄒᆞᆫ탁
ᄌᆞ우희기동들을박고미희가락은우리ᄂᆞᆫ
라외손ᄡᅵ아가락쳐로ᄒᆞ여만ᄎᆞ고웃가락은
시우쇠로가늘고길게ᄒᆞ여ᄒᆞᆫ리ᄂᆞᆫ탁ᄌᆞ밧

긔니와 뇽두쳐로 ᄒᆞ여 ᄉᆞᆫ을 마ᄉᆞ 조고셔 피로
쥴을 마여 타ᄌᆞ 밋틔 구을들에 걸고 ᄒᆞᆫ 놈이 타
ᄌᆞ에 업드여 발노 불모질 ᄒᆞ듯 누르면 두가 라이
밋쳐 보지 못ᄒᆞ게 돌고 ᄉᆞᆫ을 로ᄂᆞᆫ 면 화를 글어 다이
면거 화ᄂᆞᆫ 타ᄌᆞ 아리로 구름 품여 을 로ᄂᆞᆫ 시 슌식
간 무슈이 빠이니 사름의 공은 덜들고 일은 쿡
히 쉬유어 신통ᄒᆞ나 다만 거화가 연ᄒᆞ여 아
국 솜만 못ᄒᆞ다 ᄒᆞ더라 인에 무리 긴ᄉᆞᆫ 법도 동
중의 에 아니기 ᄉᆞ고 두지 ᄅᆞᆫ 스오셕 ᄌᆞᆯ 게 ᄭᅡ 슌
네 에 지ᄉᆞᆷ을 다ᄆᆞ 아ᄒᆞᆫ 편에 ᄒᆞᆷ을 버여 져ᄌᆞᆫ 동
에 바다 먹꾸 ᄌᆞ 레 박은 버들노 ᄌᆞᆷ 고리 ᄅᆞᆫ 길게

밍그러 소ᄅᆞᆯ 쁠의로 쳬ᄅᆞᆯ ᄒᆞ고 우ᄆᆞᆯ 우의 녹노
ᄅᆞᆯ 밍그러 두ᄌᆞᆯ 노양편에 박을 담고 녹노ᄅᆞᆯ 두
로 떤ᄒᆞᆫ 편 박에 믈 어ᄯᅳ이 여ᄋᆞᆯ 나오면 져 편ᄌᆞᆯ은
ᄉᆞ로 ᄃᆞ러 위 별셔 믈을 ᄯᅳ니 우리ᄂᆞ라 에도 버ᄇᆞᆼ을
ᄒᆞ면 두께 가이ᄂᆞᆫ 쳬 어ᄇᆞ고 믈 기ᄉᆞ가 도내 도이 쉬워 비
더라 그리로 셔ᄯᅩ ᄒᆞᆫ 져 져ᄅᆞᆯ 지나니 화 졉시에 오
셕 잉ᄆᆞᆯ ᄃᆞᆷ 아 노앗거ᄂᆞᆯ 고 히 ᄒᆞ여 보더니 잉도가
아니 오녀시라 ᄒᆞ거던 ᄒᆞᆫ 믈을 쥬고 일기ᄅᆞᆯ 사
먹으니 달고 연ᄒᆞ기 이상ᄒᆞ더라 쥬인의 도라와
녜 단을 심양아 문에 보내니 예ᄂᆞᆷ 문장일이 여ᄋᆞᆼ

과ᄂᆞ일인과아 엮일인과보고일인과갑군십뉵
명과죵인으명과녜부랑슝ᄉᆞ원과밀졉식ᄉᆞ
인과외랑ᄉᆞ원과압뉘장일인과보고이인과갑군
십뉵명죵인오명이오ᄒᆞ오부랑죵이원과외랑
사원과군졉식ᄉᆞ인과셔리ᄉᆞ인과고직ᄉᆞ명과
도셔리이인과미고랑죵이원과셔리이인과
고직이명과가분신분직명과죵인ᄉᆞ명하보
ᄒᆞ여즉ᄂᆞᆫ물죵이봉탕셩이여셔일빈저
ᄒᆞ고방을세폐ᄂᆞᆫ젼녜로처러여거ᄌᆞ니대호
지이빅오시보전과쇼로지이쳔오빅전과청
셕명즉일빅피ᄅᆞᆯ과홍명즉일빅킬

과차불녀셤담마ᄂᆞ여쇠ᄂᆞᆫ볼저 밧치고
기여물표도라시ᄆᆞ양셔 슈쳘네에시러황셩
을로가ᄂᆞᆫ지라이날밤마쟝온ᄒᆞ고긔ᄒᆞᆫ도
시므ᄒᆞ여 주여나ᄉᆞ등불을켜이고칠팔인이작
반ᄒᆞ여십쟉가에나가조로천방을구경ᄒᆞ
다가밤ᄃᆞᆫ후도라오니라　초오일평명에셔
나쳐십쟉가누글지나슈리ᄂᆞᆫ가셔둘저십쟉루
를지나내셩문과외셩을나가셔셩외셩내에
그번려ᄒᆞᆫ마ᄅᆞᆫ다거록ᄒᆞᆫ길로도ᄯᅩᆫ간간치아
니ᄒᆞ기일병ᄉᆞᆫ이저은ᄯᅢ무ᄆᆞᆺ우리ᄂᆞᆫ사원당졀

이〻셔심양에유영ᄒᆞ니ᄉᆞ힝이보고져ᄒᆞ여샹
동ᄉᆞ마둘를모져보내여거힝ᄒᆞ라ᄒᆞ여시니
인ᄂᆞᆫ만일ᄉᆞ힝이무ᄉᆞᆫ구경ᄒᆞᆯ일이〻시면재가
본대ᄡᅡᆸ셔가쳥심환을로인졍을ᄡᅳ고피인
의게비러보도록ᄒᆞ고만일그러치못ᄒᆞ며결
곤을ᄒᆞ니ᄉᆞ힝이구경을마니ᄒᆞ여샹동ᄉᆞ의
게ᄯᅢ가된다ᄒᆞ더라ᄡᅡᆼ골ᄯᅡ라원당을향ᄒᆞ
여드러가니샹동사마두가나와인도ᄒᆞᆯ셔졍
문을아니여러쥬기동협으로드러가니사면쟝
원을원쳬ᄂᆞᆫ쳥셕을로ᄡᅡ고곱ᄒᆞᆫ졈〻흙이업
시ᄇᆡᆨ셕을로마ᄅᆞᆯ괘도노코ᄒᆞᆨ할월도그리고샹

총음기야도셔로비맛초아빠고벽들노도어고
막히셥사짐흔듯시빠시니구히놉고사치
로아뵈고무은다무지개무을내여시니쳣문
을로붓터제이문제삼문을드러가니황우
금젼을반고공에나ᄂᆞᆫ듯시짓고쳐마안을로구리
쳘사로셰망을미져흔고뷘듬업시쳐날
즘셩이못ᄃᆞᆯ게흐고몽고ᄉᆞᆼ오십명을졍흐여두
고꼴들먹여돌여뻔을들게흐여시니복셕이
다누로고얼골이긔ᄂᆞ모질더라원당문을열
나흐니갑슬징셕흐고만단츄타흐다가쳥

심위ᄂᆞ과 션ᄌᆞᄌᆞ로ᄅᆞᆯ더 쥬이 그져야 문밧긔셔
삼비구고두ᄅᆞᆯ ᄒᆞ고 공무을 열거ᄂᆞᆯ드러가 보니 좌
타ᄇᆞᆫ을 급여 음고우의 덕집을 지어 시되 젼여금
쳐ᄅᆞᆯ써 봉황이 님늘고어 우용이 드러지게 꿈
이고 당쥬ᄒᆞ여 쟝대ᄒᆞᆫ 금부ᄅᆞᆯ 안쳐 시니 길의
두길은 되고 헐리ᄒᆞᆫ 아름은 ᄒᆞ더라 좌우에 ᄯᅩ 죠
금져ᄌᆞᆫ 부쳐ᄅᆞᆯ 안쳐 황금가사ᄅᆞᆯ 입히고 ᄅᆞᆫ 부
쳐 압히ᄂᆞᆫ 강진향을 로져 근삼ᄒᆞᆼ 장을 너무 지게
밍그러미 ᄎᆞᆼ미 간에 죠고마ᄉᆞᆫ 금부쳐 ᄒᆞ나 식안
치고 문마다 뉴리ᄅᆞᆯ 붓쳐 시며 타ᄌᆞ가에ᄂᆞᆫ 쥬
부ᄅᆞᆫ 빵 식뫼셔 ᄌᆞ공우 편부쳐 압히ᄂᆞᆫ

침향상을ᄂᆞᆫ궁글게 ᄒᆞ여 구ᄎᆞᆼ란간을ᄆᆡᆼ
글고ᄯᅩ슈졍굴을아홉을안치고쳥뉴리로간ᄋᆞᆫ이
ᄲᅢᆨ보ᄒᆞᆯ가리와시며좌면부쳐압희ᄂᆞᆫ옥부굴ᄒᆞ나
을도금ᄒᆞᆫ상에안치고동서벽에다탁즐을ᄉᆞᆷ이고
우ᄎᆞᆼ에금불아홉이오하ᄎᆞᆼ에ᄒᆞᆫ길식흡부쳐
ᄂᆡ시셔고우편벽상하에도일바이오좌타밤희
ᄂᆞᆫ황금향노며ᄇᆡᆨ옥향합이며오동그명이무
슈ᄒᆞᆫ곱블근기동에화공으로쌍룡을나만이그려
시니황홀ᄒᆞ여사ᄅᆞᆷ의얼굴이비최고날비치
부싀여눈을어리오더라원당졍무ᄡᅡ괴ᄂᆞᆫ죵은

쳐각이두어시오ᄯᅩ힝궁이극히사려ᄒᆞ여뵈거ᄂᆞᆯ
잠간ᄃᆞ러가보랴ᄒᆞ나갈길도밧부고슌이여러쥬
도아니ᄒᆞ기보지못ᄒᆞ고ᄂᆞᆫ도라날셔ᄯᅳᆯ을보니ᄂᆞᆺ
슈샴ᄇᆞ슈가셧ᄂᆞᆫ대기ᄂᆞ극히고괴롭부졍궤옹
항노일좌ᄅᆞᆯ대밧쳐ᄂᆞ아시니집과버리거시ᄋᆞ긔
묘ᄂᆞᄒᆞ니어지이로형용ᄒᆞ여젹으리오인ᄒᆞ여문
을나니오날치위발힝후쳐음이라모진
블ᄅᆞᆷ이졈ᄂᆞ이러나고찬긔운이갈ᄉᆞ록골졀
에사모차일힝이다우신을못ᄒᆞ고얼굴이샹ᄒᆞ
여ᄂᆞ군을ᄯᅳ지못ᄒᆞᄂᆞᆫ사ᄅᆞᆷ도ᄯᅩ만ᄂᆞᆫ하ᄌᆞᆯ은ᄉᆞᆫᄌᆞᆷ
이러ᄀᆡ며발도라라힝보ᄅᆞᆯ임어로못ᄒᆞ

ᄂᆞᆫ금조무ᄉᆞᄒᆞ니 북방치가 어려운ᄉᆞᆯᄉᆞ
을오날이야 비로쇼안노라 만일연ᄒᆞ여이러ᄒᆞ
며ᄂᆞᆫᄎᆞᆼ오에ᄌᆞᆨ을ᄃᆡ 만을저시니 엇지ᄒᆞ고
심나ᄂᆞᆫᄒᆞ더라 마샹에가ᄉᆞᆷ을붓우희고
간신이 방ᄋᆞᆺ촌시ᄂᆞᆫ치ᄅᆞ어ᄅᆞᆯ와 분탕일완
을사먹으니 ᄯᅥᄅᆞ어ᄂᆞᆫ긔운이죠곰나 운ᄃᆞᆺᄒᆞ더니 멀
니못와셔 돌견대지못ᄒᆞ여 영안꼬쥬마에ᄂᆞ려
ᄯᅩᄒᆞᆫ와 잔ᄅᆞᆯ사먹고 삼가ᄌᆞᆯᄅᆞᆯ지나 대방시이
십팔니ᄅᆞᆯ와 죠반ᄒᆞ니 그저 아몸이 끌니ᄂᆞᆫ지
라 오ᄂᆞᆫ기ᄅᆞᆯ에 변성벌이라 ᄒᆞᄂᆞᆫ들을지날셔슈

빅슈우양이임ᄌᆞ업시무리지어오거ᄂᆞᆯ고히
여겨살펴보니죠곰만되금이긴쳐ᄅᆞᆯᄃᆞᆯ고우
양소귀셔ᄉᆞ기여오니굴네어번ᄂᆞᆫ즘셩을ᄒᆞ나이슈
빅두ᄅᆞᆯ몰고오되다고ᄀᆡᄅᆞᆯ슈기고셔로ᄯᅡ작을
지어방위ᄅᆞᆯ셔나지아니ᄒᆞ니즘셩어거ᄒᆞᄂᆞᆫ
법이대져신ᄂᆞᆫ동ᄒᆞ고나귀가쳔ᄒᆞ여오나길
에담미ᄉᆞ과바ᄉᆞ골에무슈ᄒᆞ고우마ᄅᆞᆯ놀니ᄅᆞᆯ제
ᄂᆞᆫ공과여물을아니먹이고굴네벗겨제풀
ᄂᆞᆫ들의버려두ᄃᆡ젼역이면각각집을차져
드러오ᄂᆞᆫ고로ᄒᆞᆫ집의여러필을두어도어ᄯᅥ
지아니ᄒᆞ고곡가ᄅᆞᆯ임의로ᄒᆞ기이라번셩ᄒᆞ며

돌의에 나귀ᄅᆞᆯ 멍에 먹여 곡식을 갈니고 귀
ᄅᆞᆯ 길들려 ᄉᆞ화 온을 시기니 ᄉᆞᄉᆞ 긔이 ᄒᆞᆫ 법이오
쳑문셔 부터 황셩까지 슈양을 길좌우
로 싱거시되 져리 하다 ᄒᆞᆫ 이마에 ᄒᆞᆫ 가지ᄅᆞᆯ 닷
치지 아니ᄒᆞ여 시니 법영이 엄ᄒᆞ지 아니ᄒᆞ면
엇지 그러ᄒᆞ리오 쪼슈리ᄅᆞᆯ 오더니 산녕가 ᄉᆞ덧
되 놈들리 ᄒᆞᆫ 어지로 나오며 좀셩실은 슐네일
진이다ᄉᆞ라니 노로와 사슴과 산졔 곰을 잡ᄇᆞ우니
십칠거에 ᄐᆡ산ᄀᆞᆺ치 시ᄉᆞ고 쪽고만 누ᄅᆞᆫ 긔예 샹
요두ᄌᆞᆯ ᄲᅧ 슐네마다 꼬잣거ᄂᆞᆯ 말을 잡고 잡

관셔산영ᄒᆞᆫ곳즐무르니영고탐근쳬에셔
잡엇노라ᄒᆞ니분명우리ᄂᆞ라빅ᄃᆞ산의셔잡
은가시부더라신농참을지나고가ᄌᆞ시ᄇᆞ어ᄅᆞᆯ
이경영에드러슈가의지ᄇᆞ에쥬인ᄒᆞ니심양붓
터난니슈가더머러칠팔십니ᄅᆞᆯ오랴ᄒᆞ면ᄉᆞ
ᄡᅢ떠나도미양이쳐로져무니인마ᄂᆞᆫ졈ᄂᆞ지치고
희ᄂᆞᆫ극히져무니심난ᄒᆞ더라 ᄒᆞᆫ뉵일치위
ᄂᆞᆫ더심ᄒᆞᆫ듯ᄒᆞᆫ쥥브람이대작ᄒᆞ여가ᄂᆞᆫ모리가
득히날니여쳔지회명ᄒᆞ여지쳑ᄅᆞᆯ몰나보
니일시힝역에도여렵어와김ᄒᆞᆫ병이들가
민망ᄒᆞ나엇지ᄒᆞ리오쥬류ᄒᆞᆫ지나던하슈

즁가쟝기ᄇᆞᆫ믈이라맛ᄎᆞᆷ어ᄅᆞᆷ이구어ᄉᆞ기
ᄐᆡ평을로건너니다힝ᄒᆞ고하슈셔편에쥬류
셩이ᄉᆞ수니당젹에빤긴셩은다문어지고다시
즁슈ᄒᆞᆫ지십연은죄여ᄉᆞ라ᄒᆞ니문과셩처ᄇᆞᆸ
이가쟝구ᄉᆞ어뵈아나가ᄂᆞᆫ길의셩바ᄉᆞ로죄기ᄃᆞ
려가보지못ᄒᆞ며과원은변쟝구ᄉᆞ든거시직
희여ᄉᆞ라ᄒᆞ려라또오조하ᄅᆞᆯ건너신민ᄃᆞᆫ이라
ᄒᆞᄂᆞᆫ므ᄅᆞᆯ을자나녀ᄯᅴ이ᄉᆞ히번셔ᄋᆞᄒᆞ고져져
ᄯᅩ한화려ᄒᆞ여슈미ᄉᆞ오리나버려시니ᄂᆞᆫ죵이
나다ᄅᆞ지아니ᄒᆞ고ᄉᆞ일져오ᄂᆞᆫ길의ᄂᆞᆫ두어니

에ᄆᆞᄋᆞᆯᄒᆞ나 식이 시리 다 뭐 촌이오 인ᄆᆞᆯ도 부셩ᄒᆞ
여 조금 조빈한 거셕은 만어ᄇᆞ셔 뵈터라 이러ᄒᆞᆫᄌᆞᆼ쵸
션사ᄅᆞᆷ들은 쥐방을 만ᄒᆞᆫ 말에 쌍교ᄅᆞᆯ 시ᄉᆞ고 권
마셩ᄒᆞ며 지나가 떠ᄂᆞᆫ 져ᄅᆞᆯ 본놈들이 모다 슈미ᄂᆞᆫ
띠셔로 터부러 우음을 이거지 못ᄒᆞ여ᄒᆞ니 저
의 안목에 어지그러치 아니ᄒᆞ리오 ᄉᆞ시ᄇᆞᆫ 오리쇼
화ᄋᆞ긔 죠에 죠반ᄒᆞ여 부ᄋᆞ세 졈ᄆᆞᆫ터ᄒᆞ여 ᄂᆞᆫ을
ᄯᅳᆺ지 못ᄉᆞᄒᆞ기 슈전으로 중이고 촌ᄂᆞᆫ 젼진ᄒᆞ여 ᄂᆞᆫ하
구와 셕ᄉᆞ져와 고셩ᄌᆞᄅᆞᆯ지나 빅ᄀᆞ긔 초ᄉᆞ셔ᄇᆞ이
ᄅᆞᄅᆞᄌᆞ령 말에 드러진 가의 지ᄇᆞ의 쥬인ᄒᆞ니 졍신
이어ᄌᆞᆯᄒᆞ여 누으며 일어날ᄆᆞᄋᆞᆷ이 어ᄇᆞ더

라 ᄎᆞ조칠일은 풍일이 죠금 풀어이나 참
슈가 더 옥지리 ᄒᆞ여 미명에 ᄯᅥ나 쇼빅 지ᄎᆞ와
신방과 일판 문을 지나 오더니 멀니 ᄯᅴ 그리가
득히 이러나며 일진거미 횡치 ᄒᆞ여 모라 오니
이ᄂᆞᆫ 황셩셔 영고탑에 보내여 군병 꼬슈ᄂᆞᆫ 은시
르ᄂᆞᆫ 슐네라 ᄒᆞᆫ 나 모졔에 ᄉᆞ면을 박쳘 ᄒᆞ여 쉰
여 ᄃᆞᆫ 슐네ᄅᆞᆯ 일졔이 실여 시니 ᄒᆞᆫ 슐네에
시사은 ᄉᆞ가 ᄀᆞᆺ ᄋᆞ오만냥식이라 ᄒᆞ니 어졔 즘셩
시ᄅᆞᆫ 거ᄉᆞ도 쟝 ᄒᆞ여 뵈더니 오날 ᄯᅩ이 것ᄉᆞᆯ 보니도
로여 져믈이 귀치 아니 ᄒᆞ여 뵈고 여부 여단이

덧시ᄅᆞᆷᄃᆞ리ᄒᆞ되ᄒᆡ마다일파ᄂᆞᆫ문ᄯᅳᆼ음을오면
이은슐네ᄅᆞᆯ만난다ᄒᆞ니이돌내ᄂᆞᆫ긔하ᄂᆞ이잇
ᄂᆞᆫ가ᄒᆞ며슐네마다향군이라두ᄌᆞ식ᄡᅥ긔ᄅᆞᆯ
꼬자ᄉᆞ더라왕가장을로셔일동졍오십이ᄅᆞᆯ와
죠반ᄒᆞ고신은졈을지나더니벽돌금ᄂᆞᆫ졈의
황진ᄉᆞ가드러가그법을비와가고져ᄒᆞ거ᄂᆞᆯ
ᄒᆞᆫ가지로드러가ᄋᆡ벌셔ᄇᆞᆯ을타피오고가마
문을봉ᄒᆞ여시나쇼긔벽ᄯᅡᆼ은것ᄉᆞᆫ볼길업
ᄉᆞ나구ᄇᆞ나법을대강드르되ᄌᆞ셋치아니ᄒᆞ되
가마우의물을부어슈긔샹ᄃᆞᆼᄒᆞ여시
니아국기아급ᄂᆞᆫ법과ᄂᆞᆫ판이ᄒᆞ더라셔장

관도드러와거스스로도ᄅᆞᆯ며보다가의밀어ᄇᆞ셔ᄒᆞᆫ
가지로ᄒᆞᆨ셔ᄒᆞᆨ옥ᄒᆞᆫ여오니쥬ᄅᆞ류하쳐편은
뇨동이오이편은뇨셔라당쳐ᄀᆞ슈ᄌᆞ리살너가사
ᄅᆞᆯ의쳐ᄌᆞ의글에ᄒᆞ여시되황잉을쳐이
ᄅᆞᆨ히나모가지우의외울게말나울ᄯᅢ에첩
의섬이ᄂᆞᆯ나면뇨셔에니ᄅᆞ지못ᄒᆞᆯ가ᄒᆞ노라ᄒᆞ
여시니이글ᄂᆞᆫ보아도가장쳡원ᄒᆞᆫ고지라이들
의힝ᄒᆞ여지ᄉᆞ일만의오날이야비로ᄉᆞ의무려
산이구름ᄉᆞ이로망ᄀᆞ이뵈고신참이라ᄒᆞᄂᆞᆫ사
에와죠고마언덕에올나셔니도로여ᄃᆡ산에

오른듯ᄒᆞ여아득ᄒᆞᆫᄒᆞᆫ유금이져개샹연ᄒᆞ여
말게ᄂᆞ려잠깐안져멀니브라보다가즉시
나십니강ᄌᆞ를지나니예셔ᄂᆞᆫ명젹봉화ᄃᆞ
터연대가이시니뫼이업ᄂᆞᆫ고로벽돌노평
지에십여장식혹네모지게도빠고혹동글
게도빠무으고올나ᄉᆞ면을모라보게ᄒᆞ여시
이압ᄒᆞᆫ십니와모리에한나식잇다ᄒᆞ더라
심양셔황셩까지ᄂᆞᆫ쳐자에거동길이니길
너뷔삼십만식은되고좌우에슈양이더옥
무셩ᄒᆞ여슈쳔셩임ᄒᆞ여시니ᄌᆞᆫ하간은
풍경이일비더ᄒᆞᆯ듯ᄒᆞ고지나ᄂᆞᆫ길에

죵은두대와긔굔ᄒᆞᆫ집이도쳐에이시나뫼일
ᄎᆞᆼ콥ᄒᆞ여모ᄉᆞᆯ들여보니시ᄆᆞ이굼ᄂᆞᆫᄒᆞ며명츈
회화ᄂᆞᆫ시ᄂᆞᆫ필마단긔로망야ᄒᆞ여올거시니
비록명승ᄒᆞᆫ고ᄌᆞᆯ보나구졍ᄒᆞᆯ들이어이ᄂᆞᆫ시리
오쇼흑산오십니ᄅᆞᆯ어두어드러옥이고ᄉᆞᆫ도국
ᄒᆞᆫ대ᄎᆞᆫ이라녀염이ᄉᆞ오리나버러잇고거리ᄂᆞᆫ
되인이벽여ᄒᆞ여말머리에거뭐ᄅᆞᆯ씬듯몰
여여따라옥니어두은밤의거문복셕이긔독ᄌᆞ
고뒤신도굿틔여도로여무셔워뵈더라무가의집
에사쳐ᄒᆞ고모다안져연노동경을말ᄒᆞ더니

져근ᄃᆞᆺᄒᆞ여 미ᄎᆞᆫ혜가여러 회우ᄂᆞᆫ지라 ᄎᆞᆨ
을무ᄅᆞᆯ이고가ᄋᆡ ᄒᆞ라ᄒᆞ더니 외국사ᄅᆞᆷ영승
ᄒᆞᄂᆞᆫ법이젼여마다 참의ᄃᆞᆯ면일희에이명
을졈고ᄒᆞ여보내ᄂᆞᆫ지라 영ᄃᆞᆨ두어놈이
문밧긔와 킨문아ᄀᆞᄀᆞ두어마ᄃᆡ ᄒᆞ더니 철
망동을져ᄉᆞᆫ의ᄃᆞᆯ고ᄃᆞᆯ러와누어ᄌᆞᄂᆞᆫ거
리마ᄐᆡ와죠고마다ᄃᆞᆷ뵈ᄃᆡ로지져ᄇᆞᆼ여
혜며ᄂᆞᆯᄃᆞᆯ니ᄒᆞ나은오ᄅᆞ거라ᄒᆞ고사아여
ᄒᆞ고제은사거라ᄒᆞ고네은ᄉᆞ셔라ᄒᆞ고다셜
ᄉᆞᆫ우라ᄒᆞ고여져ᄉᆞᆫ이우라ᄒᆞ고이ᄅᆞ고ᄇᆞᆫ은
치거라ᄒᆞ고여ᄃᆞᆫ뿌ᄃᆡ러라ᄒᆞ고아ᄒᆞ오ᄇᆞᆫ은

기우라ᄒᆞ고여ᄅᆞᆫ시셔라ᄒᆞ니ᄃᆞᆺ기가장
우쇼은쥬누은ᄉᆞᄅᆞᆷ바ᄇᆞ의와혜ᄂᆞᆫ거시십
히괴롭더라인ᄒᆞ여자ᄇᆞᆼ을ᄯᅳᆺ쳐ᄆᆞᆫ러졈ᄇᆞᆨ
을못ᄒᆞ고힌쥭바ᄂᆞᆫ되져ᄇᆞᆫ을어더ᄯᅥ고
초할이ᄅᆞ셔나니이ᄅᆞ괴ᄇᆡ록쳥ᄯᅡᆼᄒᆞ나풍
셰보지려어ᄅᆞᆯ구ᄋᆞᆯ어ᄂᆞᆫᄃᆞᆺᄒᆞ고황진
이몽ᄂᆞᆼ여이ᄅᆞᆫ과ᄋᆞᆯ가리ᄂᆞᆫ고부ᄂᆞᆫᄒᆞᆫ
거마ᄂᆞᆫ셔로다어져기ᄋᆞᆯ오ᄅᆞᆼᄂᆞᆫ통치못
ᄒᆞ더라계요양장하ᄅᆞᆯ거ᄂᆞᆫ니아ᄃᆞᆺᄒᆞᆫ

운무즈에의무려산이셔부으로횡공
ᄒᆞ여장원ᄒᆞᆫ긔셰가마ᄅᆞ타다ᄅᆞ니ᄂᆞᆫ듯
ᄒᆞ여만리ᄅᆞᆯ연ᄒᆞ여ᄉᆞ고그아ᄅᆡ부진
모라ᄒᆞᄂᆞᆫ거시멀어뵈니이ᄂᆞᆫ쳔ᄌᆞ에
노라ᄒᆞᄂᆞᆫ지ᄂᆡ이요그지ᄂᆡ뒤에ᄯᅩ도화동
과셔언어ᄆᆞ과강ᄒᆞᆫ공의나ᄉᆡ시질
ᄒᆞ던됴ᄃᆡ이시니슈셔ᄀᆞ과계산이다
긔ᄒᆞ다ᄒᆞ뫼슈시ᄂᆡ니ᄅᆞᄅᆞ도라마ᄅᆞ기ᄅᆞ
어ᄂᆞᆫ고ᄉᆞ신도명년에보라ᄒᆞ나ᄂᆞᆫ하
명몬져오ᄅᆞ거지니이ᄅᆞ어ᄒᆞᄂᆞᆫ승지ᄅᆞ

다만마ᄂᆞᆫ노마ᄂᆞᆫ듯고ᄀᆞᆫ으로보지못ᄒᆞᆫ
일더옥유한이되ᄅᆞ가ᄒᆞ오라증안
포사ᄆᆞ시ᄇᆞ니에와쵸반ᄒᆞ옵서우며이
사ᄆᆞᆺ신나ᄒᆞᄂᆞᆫ지ᄇᆞᆯ에사쳐ᄒᆞᄂᆞᆫ샹ᄉᆞ공제
시ᄆᆞ양俱뇌공오ᄂᆞᆯ이야문ᄒᆞ우ᄒᆞ니리
우와뎌와죠양료와파ᄅᆞ마ᄋᆞ드와쥬져이
와이대ᄌᆞ과뎌ᄀᆞ가ᄌᆞ와쵸가져ᄋᆞᆯ지나
신광영ᄉᆞ시ᄇᆞ니ᄅᆞᆯ슈ᇰᄒᆞᆼ니오ᄂᆞᆯ예
은나ᄅᆞᆯ몰리져크지아니ᄒᆞ고샹ᄇᆞ치대
무가에쥬인ᄒᆞ여두방일힝이다ᄀᆞᆺ이

여슈작ᄒᆞ다가 바ᄆᆞᆯ우ᄒᆞ니라 이 아ᄇᆞ
흔산히관ᄭᅡ지연ᄒᆞ여연대사이ᄉᆞ니
이ᄂᆞᆫ다 쳐계광의창기ᄒᆞᆫ기시라ᄀᆞᆯ
ᄃᆡ어ᄇᆞᄂᆞᆫ것ᄉᆞᆯ부질어ᄇᆞ시 민력만무
하ᄂᆞ니 허비ᄒᆞ여시며 벽돌노ᄡᅡᆫ거시이
지ᄇᆞ니시되ᄒᆞᆫ져ᄇᆞ퇴뷔ᄒᆞᆫ곳지어ᄇᆞ터
라이ᄌᆞᄋᆞᆷ은빅셩의지ᄇᆞᆫ을무랑옥
으로지어시니지봉에마ᄅᆞᆯᄅᆞᆫ아니ᄒᆞ고
ᄯᅳ여ᄂᆞ니ᄒᆞ여시니멀어셔보면지ᄇᆞ이
ᄂᆞᆫ지아니ᄒᆞ고두지에회칠ᄒᆞ여노

온거ᄉᆞᆸ고 비록 물ᄭᅬ엽ᄉᆞ나 유희 가셔
셔ᄂᆞᆫ 고로 누시변이라도 비가
아니셧다 ᄒᆞ、ᄃᆡ라 이러ᄒᆞᄂᆞᆫ 집의
드니ᄂᆞᆫ다 ᄒᆞᆫ 인이니 져의 당쵸의
에셔로 려부려 약박ᄒᆞ、되 우리
번 이ᄆᆞᄌᆞ 업ᄉᆞᆫ 사ᄅᆞᆷ이나 지븨 들
부어 ᄂᆡᄉᆞᆷ 굿ᄃᆞᆺ지라 ᄒᆞ고 인ᄒᆞ여
무랑 오록들을 지시고 산다 ᄒᆞ、니 혹 곳
ᄆᆞᄋᆞᆷ의ᄂᆞᆫ 그려 ᄒᆞ、나 어ᄉᆞ지 가ᄋᆡ 셩언
ᄒᆞ、고 지븐을 지어시리오 이 바ᄅᆞᆯ 관

일ᄌᆞᆫ 죠졍이 드르면 응당 ᄉᆞ죄에 걸 일
거시니 그 말을 엇지 취신ᄒᆞ리오오
날은 졍신이 져 이 낫기 슈일마상
에셔지 은 글을 긔 록ᄒᆞ여 왈시ᄆᆞ
양셩 밧긔 띄 그리 이러나니 거 매분
운이 아에 맬이여 오ᄂᆞᆫ 로랑 비로ᄒᆞ여 졍이 원하에
가오면 풀을 아니 뉘 잘 아 제 쳐 날 바라 뼛 바 쳐 를
보ᄂᆞᆫ 로여 서 뼈 셔 일 쥭ᄂᆞᆫ 로여 서 되 면 ᄃᆞᆫ 이 몰 니와
풀을 ᄒᆞ라 졍인 외 옷 시 바 이니 원지 몽ᄂᆞᆫ 로여 하는
길이 라시 희 미 로 ᄒᆞ라 날이 져 몰 리 무하 정 ᄒᆞ 로리 셰

제 [illegible] 에 옷시 [illegible] 쥬 필 [illegible] 언 [illegible] 이 [illegible] 쥬 [illegible]
여 이 [illegible] 슈 로 감 [illegible] 홀 [illegible] 뎡 [illegible] 로 [illegible] 쥬 [illegible]
일 ㄴ 회 [illegible] 로 [illegible] 쥬 [illegible] 쟝 [illegible] 동 [illegible] 쟝 을 [illegible] 탕 [illegible]
을 [illegible] 동 [illegible] 으로 건 곤 이 터 져 회 석 이 뵈 니 풍 광 이 거
목 [illegible] 促 이 아 니 라 젼 죠 젹 슈 로 ㄴ 쳔 [illegible] 제 예 셔 비 를
타 던 곳 지 오 우 리 나 라 로 [illegible] 리 머 지 아 니 ᄒᆞ 다 ᄒᆞ 니 보
기 은 연 이 반 가 오 여 탑 산 이 라 하 난 촌 낙 로 골 안 의 가 두
ᄒᆞ 여 수 리 나 되 고 동 구 밧 그 로 히 자 골 파 고 혀 자
밧 그 로 [illegible] 쏘 [illegible] 슈 목 을 싱 거 졍 이 무 셩 ᄒᆞ 고 마
을 뒤 에 우 양 파 말 과 나 귀 와 돗 치 가 ㅣ ㄴ 무 리
지 어 삼 ᄉᆞ 빅 필 이 너 른 들 의 흣 터 져 머 그 라 [illegible]

으락ᄒᆞ여 임의로 장양ᄒᆞ니 희성도 대국 거ᄂᆞᆫ 이라
하기기ᄂᆞᆫ 비대ᄒᆞ고 번셩ᄒᆞ더라 이산졈과 이대ᄌᆞ를
지나 연산역에 드러마가의 집의 죠반ᄒᆞ고 셔나니
오젼 삼십니ᄂᆞᆫ 풍일이 온화ᄒᆞ더니 오후 붓쳐ᄂᆞᆫ 길
이더 옥사오납고 ᄇᆞ름이 대단ᄒᆞ여 몬쥐가 아득ᄒᆞ니
지쳐을 몰나 보아 무슈한 거마에 닷칠가 염녀ᄒᆞ며
오날 뉵십니ᄂᆞᆫ 아국일 빅니나 된다ᄒᆞ되 오히려 밋
지 아니ᄒᆞ엿더니 오후 삼십니를 쵸경 말에 들어오
니 중원니 슐들엇 저죵작ᄒᆞ리 오ᄂᆞ리하와 장춘
교와 빵[illegible]졈과 건ᄎᆞᆫ 령과 뫌ᄂᆞ ᄎᆞᆯᄂᆞᆫ 뼐ᄂᆞ쥐ᄂᆞᆫ 우
할것 업ᄉᆞ오 다만 영영ᄒᆞ오 ᄒᆞᆫᄂᆞᆫ 졀이 유명ᄒᆞᆫ

어죽이지나 기쳘몰을 알라 줄리 몰을터 뿍 갈칙
의나 볼줄을며 영원을 을 을 라 출 갈서 놈
에 춘 놈 혼 몽 이 수 나 인 한의 구 혈 대 피 토 한 대 다 저 벗
던 터 어 니 영원 성 중 을 줍 어 뿔 줍 저 탕 한 이 영
원 을 쳐 성 과 을 다 파 ᄒᆞ고 이 만
도 타 ᄒᆞ여 붙는 나는 성 중 으로 ᄒᆞ는 몰
ᄒᆞ라 ᄒᆞ던 니 명 장 원 상 황 이 성
을 직 희 여 다 가 그 나는 봐 의 무 어
진 성 쳐 뵉 목 으로 회 위 장 명 고 러
숙면에 둘 너 쳐 분 쳐 뵉 이 쇼 요 ᄒᆞ

듯시ᄒᆞ여시니ᄒᆞᄂᆞ이ᄉᆞᄃᆞᆫ나ᄅᆞᆯ장원
예올나바라보고대경실식ᄒᆞ
여피ᄅᆞᆯ도ᄒᆞ고인ᄒᆞ여병이되여죽
은고지라뜅젹은크게방이ᄒᆞ던경인
니배포ᄅᆞᆯ웅장이ᄒᆞ여ᄉᆞ더니즉금
은치쳐ᄇᆞ이다훼파ᄒᆞ고다만장경
이라ᄒᆞᄂᆞᆫ거시가ᄇᆞ군뵉여뜅을거
ᄂᆞ리고지흰다ᄒᆞ고도경안에죠ᄃᆡ
악과대슌의사졔졍몬ᄒᆞᄂᆞᆫ피ᄅᆞ
가이시니젼여돌노지은졔도가쳔

하에이어니다ᄒᆞ나쇼위뉴시브니르ᄅᆞᆯ
쵸정가지오니ᄯᅩ셩바ᄉᆞ그로자뇌되
니인ᄒᆞ여못보아시며명젹셩은비
로ᄀᆞ샹셩이ᄌᆡᆸ희여시나셔로산
은인가와시셔극히번화ᄒᆞ고뎌
지현이ᄀᆞ셔가으마다ᄒᆞ더라장
가셩가진ᄂᆞᆷ의지ᄂᆞᆫ의셔젹반을
막고안즈니계셩이ᄯᅩ난맙ᄒᆞᄂᆞᆫ지라풍셜을무
롬ᄲᅳ고만니ᄅᆞᆯ구치ᄒᆞ여오ᄂᆞᆫ사ᄅᆞᆷ이밤마다
잘ᄂᆞᆯ못자니병든몸이엇지겸대리오즉금

슬ᄒᆞ이 운명ᄒᆞ게 되여 도지 쳬ᄅᆞᆯ
못ᄒᆞᄂᆞᆫ 번ᄇᆞᆫ이니 만일 중병이 들
면 살지 못ᄒᆞᆫ 기ᄅᆞᆯ 이라 사ᄂᆞ희 되
여 ᄒᆞᆫ 번은 보고져 ᄒᆞ려니 와 두 번
은 결단ᄒᆞ여 아니 오ᄅᆞᆯ 뫼라 어제 젼
장을 지달제 동힝의 글ᄒᆞᆫ 수
ᄅᆞᆯ ᄎᆞ운ᄒᆞ여 와 벽 도ᄅᆞᆯ 이
셔로 연ᄒᆞ여 지ᄂᆡ이다 푸른 지라 우
우양이 예를 지어 뷘 뜰의 홋터졋도다 칠
그치고 젼죠져 일을 모고져 ᄒᆞ니 사

와연덕ᄒᆞ와반니ᄂᆞᆫ졈과망ᄒᆞ
졈을오더니ᄒᆞᆫ관원이지나ᄂᆞᆫ
ᄂᆞᆯ죵인을부ᄅᆞ너무ᄅᆞᆫ즉쥬ᄋᆞᆯ
관원으로쳘이파ᄯᅡᆯ인겁시가ᄉᆞᆫ
가오노라ᄒᆞ나츄죵이부ᄅᆞᆫ과ᄉᆞᆫ오
긔에지나지아니ᄒᆞ더라곡쳐
하와삼ᄇᆞᆫ이코을지나동관여을오
니오날은니ᄇᆞᆫ쳐ᄒᆞ쳐읍으로온화
ᄒᆞ고참슈도쥬의ᄀᆞᆺ가와지자쥬
인의집의ᄃᆞ니쥬안은발마차지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니 문한 그리 무식지
아니ᄒᆞ고 여긔 벼ᄉᆞᆼ이 이ᄉᆞ다 ᄒᆞ니
이ᄂᆞᆫ 아국 찰방 벼ᄉᆞᆯ이라 일연 관
황이 은ᄌᆞ오 쳔냥식 된다 ᄒᆞ니 정
쳐ᄇᆞᆫ은 반은 문어지고 인마 도뻔 정
치 못ᄒᆞ여 뵈ᄂᆞᆫ 지잔ᄒᆞᆫ 역에 슈식
박지 아니ᄒᆞ더라 쥬인 위지ᄇᆞᆫ의
폭기 가이 시니어 이ᄂᆞᆫ 괴만ᄒᆞ고 사
기ᄂᆞᆫ 쥭져 비만ᄒᆞᆫ 거저여 셔시 용성
긴거슨 빗ᄎᆞᆫ 빅셔 갓고 눈은 불

구슐간고귀ᄂᆞᆫ반뽀ᄆᆞ은ᄒᆞ고졍져
ᄒᆞ우고ᄒᆞ여거ᄅᆞᆯ졔머리ᄅᆞᆯ죠우며
귀ᄅᆞᆯ꼭고려변이뛰지못ᄒᆞ고며
기ᄂᆞᆫ파ᄉᆞᆯ쥬면두발노붓우희
여쥐여머드시ᄒᆞ니본근남방지
샹오ᄂᆞᆫ치위ᄅᆞᆫ사ᄉᆞᆷ이탄다ᄒᆞ더
라바ᄆᆞᆫᄒᆞ우월셔이졍이쳐명
ᄒᆞ여자ᄆᆞᆯ기아ᄇᆞ가ᄇᆞ더니사ᄆᆞ냥형
졔와샹방친구드리모히여녀은
뜰에건니더니사쳐에며지아니ᄒᆞᆫ

곳지졀이이시다ᄒᆞ、기졉문올나
동구에드러가니외졍에삼ᄉᆞ샹
되ᄂᆞᆫ셕비가셧거ᄂᆞᆯ등불을빗
최여보니희빗ᄉᆞ라사기고머리
에쟝용을ᄂᆞᆫ만이ᄉᆞ여시며이
비동뗜에져ᄌᆞ단을무으고셕쥬
에돌드ᄅᆞᆯ부ᄅᆞᆯ언져ᄒᆞ고산문을
셰우고큰독만ᄒᆞᆫ쇠북을달고
승슈삼인이시니의복은속ᄒᆞᆫ
과다ᄅᆞᆷ이업고다만머리ᄅᆞᆯ가

쓸쎈이 오죠금도 산인에 보셔이
어ᄂᆡ더라 졍문은 여지아니ᄒᆞ혀ᄂᆡ
문으로드러가니 버ᄂᆡ당에 두기ᄅᆞ은
ᄒᆞᆫ금불열안치고좌우에시립ᄒᆞᆫ부쳐와동셔에
버리션나한이합ᄒᆞ여오십이나되고젼문밧긔ᄎᆞ
빅이셔로ᄃᆡ ᄒᆞ여셔고그나ᄆᆞᆫ아ᄇᆡ히도
비두좌가이시나글ᄌᆞ가왐ᄒᆞ여믈나보고즁의자ᄂᆞᆫ방
은탁ᄌᆞ우의관왕을뫼시고엽희ᄯᅩ두사ᄅᆞᆷ의소샹을
ᄒᆞ여위ᄒᆞ여시나뉜줄몰올너라져근듯도라가
ᄀᆞ뫼ᄒᆞᆫ셔십양부ᄉᆞ쳐ᄂᆞᆫ오숑ᄒᆞᆫ

법이 일빅더 ᄒᆞ여 빅이 면가 보군
이 명식 졍ᄒᆞ여 쌍교와 부틱들
을 상직 ᄒᆞ고 골목 바ᄉᆞ로 증부
을 치며 쳘야 ᄒᆞ여 슌경 ᄒᆞ더
라 시ᄇᆞ삼 일평명에 발힝
ᄒᆞ여 즁우쇼이 시ᄇᆞ여 ᄅᆞᆯ오니 관잇
ᄂᆞᆫ 셩은 가장 놉고 와비 ᄒᆞ여 뵈나
가ᄂᆞᆫ 기ᄅᆞᆯ이 드러 가지 아니 ᄒᆞ기 못
보고 셩 밧긔 셔 쵸반 ᄒᆞᄅᆞᆯ 셔 슌 막
겻 희관왕묘가 이시니 연노관묘 중제일신

련ᄒᆞ다ᄒᆞ기곳쳐쇼셰ᄒᆞ엿고의복
에몬져ᄅᆞᆯ벗고마음의쳥을드려
소쳔오ᄇᆡᆨ을가지고ᄃᆞ려가나사려
ᄒᆞᆫ지남졔도와거고ᄒᆞ게아로사긴
법이눈이현황ᄒᆞ여일오다가
측지못ᄒᆞ고졔일무고의교ᄌᆞ로관
졔묘라현판ᄒᆞ고문안의ᄯᅩᄌᆞᆫ지
위되장부라써붓치고좌우월
랑에쥬창온격도마ᄅᆞᆯ붓드고
졔이문우의는지셩지신이라ᄒᆞ고

아린ᄂᆞᆫ호긔비공이라써시며졍밧
에셕비두좌가셔시니ᄒᆞ나은견ᄉᆞᆼ월연
예세우고ᄒᆞ나은십여연젼즁슈ᄒᆞᆫ서오
제사ᄆᆞ무안의졍젼이ᄂᆞᆫ스니문우
의이ᄂᆞᆫ셩하악이라ᄒᆞ연고동셔
지동에건ᄉᆞᆼ의제오ᄌᆞ과친왕이셔
시되ᄒᆞᆫᄂᆞᆫ긔운이쳔츄에복두
ᄅᆞᆫᄃᆞ로고졍신과신령이일만히
나동명을진졍ᄒᆞ리로다써붓치
고기외무슈ᄒᆞᆫ졔인은엇지다젹

으리오정젼쳐마에ᄂᆞᆫ히션삼
인을그려붓치고안의ᄂᆞᆫ가ᄆᆞ시을
놉게셔여관제ᄅᆞᆯ뫼셔시니황
금가ᄇᆡ옷ᄉᆡ쌍봉투고ᄅᆞᆫᄅᆞᆫ쓰고거좌ᄒᆞ
엿ᄂᆞᆫ대양편의장비죠운과과평
관흥등이창거ᄆᆞᆼ을안고뫼서선고
당즁ᄒᆞ여탁ᄌᆞᄅᆞᆫᄂᆞᆫ고보뷔로온향
노와져ᄆᆞᆼ통을ᄡᅴ려시니아국나ᄂᆞᆫ묘
와방불ᄒᆞᆫ더라츄창ᄒᆞᆫ여영
ᄂᆡ에드려분향ᄉᆞ뷔ᄒᆞᆫᄒᆞ우신샹

기ᄅᆞᆫ 흉과 가산 안부ᄅᆞᆯ 엇지ᄒᆞᆫ
고 질분ᄒᆞ여 샹ᄂᆞ괘ᄅᆞᆯ 바이니 좌
우에 보던 되ᄃᆞ러 고두쳐 하ᄒᆞ더라
관 꾜 뒤에 또 문창 궁이ᄂᆞᆫ 셔 문창
선의 쇼샹을 위ᄒᆞ여 ᄉᆞ고 좌우의 다
낭 각지 어복과 죵을ᄃᆞ라 시니
셔 떤 원랑에ᄂᆞᆫ 번ᄃᆞ러 직 힌되
이시니 캉을 졍쇄이 뭄이 고샹탁
이며 약간 셔 쳐 도버리고 버도 남
의 복슈 화져 봉ᄂᆞᆫ 것두 분을 ᄂᆞᆫ

아시니 두ᄅᆞᆫ 이ᄇᆞᆯ히 죠곰도 이지아
니ᄒᆞ엿더라 인ᄒᆞ여 시ᄅᆞᆫ 지여 왈
장군의 교뫼여 거의 지ᄒᆞ여 시니 풍위셰
ᄅᆞ로 젼조에 잠기엿도다 대의ᄂᆞᆫ 뫼와 무이
응당 다ᄒᆞ지 못엿고 외로 온ᄎᆞᆫ 경셩
은 날과 다ᄅᆞᆫ 이다 도아셔로 노ᄂᆞᆯ도다
쳥용을 벽의 거러 시니 ᄆᆞᄋᆞᆷ이오
히려 장ᄒᆞ고 져 퇴문ᄅᆞᆯ 이ᄇᆞ ᄒᆞ여
시니 긔문이 또ᄒᆞᆫ ᄒᆞ오 긔로ᄂᆞᆯ도다 동국
져 근신히 마ᄉᆞ차ᄇᆞ예ᄅᆞᆯ 지나더니 쇼

동삼비으로 항괴로 온슈ᄅᆞᆯ ᄃᆡ 신ᄒᆞ
ᄒᆞ노라 ᄒᆞ니라 가ᄇᆞ도ᄅᆞᆯ본ᄃᆡ 차ᄅᆞᆯ사
령서ᄒᆞ더니 근변은 예서 명고ᄂᆞᆫ고로
죠션ᄉᆞᄅᆞᆷ이 도라올 젹예와 무여ᄒᆞ
여 산다ᄒᆞ더라 여러 연대ᄅᆞᆯ지나
사하 졈을 오더니 여ᄇᆞ가 의무 더ᄆᆞᆯ
이ᄀᆞᄉᆞ되 돌노 사ᄆᆞᆷ을 진고 셕비 두좌
ᄅᆞᆯ세우고ᄉᆞ면에 슈목을 가ᄌᆞᆨ이 싱
거극히 무셩ᄒᆞ요고로 인ᄒᆞ여 슛막을 엽가문
이라니ᄅᆞᆷᄒᆞ엿더나 구리로 구하교ᄅᆞᆯ지나

더라몽고일인이누른옷우희셩〻
갓전옷슬입고머리에셩〻젼을도복건
쳐로ᄒᆞ여마으락이하지더ᄂᆞᆫ허쓰고빅
마ᄅᆞᆯ빗겨셕양에나오니놀나ᄂᆞᆫ고황
호ᄒᆞ여보고다시보아도사ᄅᆞᆷ위ᄆᆞᆯ골
은아니오무슨모진귀신갓틱여뵈더
라황셩이갓가와오ᄅᆞᆯ수록거마가
일빈미만ᄒᆞ여노상에일ᄂᆞᆫ만나ᄂᆞᆫ슈
가ᄉᆞ오쳔필식이녀ᄂᆞᆫ우니마졔거쳔
쳘에날니이ᄂᆞᆫ뒤굴과쇼리쳥쳔빈

일에 장문무와 뇌졍을 치으니 아모리 대국
인들 이러ᄒᆞᆫᄌᆞᆯ 오히려 꼴나시며 양
슈ᄒᆞ사ᄇᆞᆸ 오리ᄅᆞᆯ 져모지 아니ᄒᆞ여
드니 지나ᄂᆞᆫ곳마다 ᄌᆞᆯ비번화ᄒᆞᆫ 거ᄉᆞᆯ
ᄉᆞᆯ엇지 낫ᄉᆞ치 긔록ᄒᆞ리오 시ᄇᆞᆺ
일ᄆᆡ 명에 뎌ᄉᆞ나비 졍ᄌᆞᄉᆞ리ᄅᆞᆯ오
니비로 쇼동이ᄒᆞ고 젼ᄃᆞᆫ 위ᄉᆞ리ᄅᆞᆯ
오니 그져야 히ᄃᆞᆺᄂᆞᆫ지라 우편은무
려 산이오 좌편은 바다히라 울ᄂᆞᆫ
ᄒᆞᆫ긔운과 망ᄂᆞᆫ ᄒᆞᆫ꾸ᄅᆞᆫ 빗치ᄒᆞᆫᄂᆞᆫ

과ᄒᆞᆫ가지오진ᄒᆞᆫ황제만이장셩은
무려산뒤으로츄ᄅᆞᆯ몰ᄒᆞ니산히관
이졍ᄀᆞᆺ가오믈알너라왕졔교와
두봉ᄒᆞᆫ로셔고령역을지나더니
져셩어ᄅᆞᆯ팔거ᄂᆞᆯ맛ᄉᆞᆷ긔갈이
십ᄆᆞᆼᄒᆞᆫᄎᆞ슈기ᄅᆞᆫ사ᄯᅥ은ᄋᆞᆫᄒᆞ고향
긔로온마ᄉᆞ시봉산빈로ᄂᆞᆫ밋지못ᄒᆞᆯ
너라그리로셔슈마장은가니길복
편의황낙이셩텨이인것ᄂᆞᆯ예ᄉᆞ졍
고울인가ᄒᆞ엿더니이ᄂᆞᆫᄒᆞᆫ과부의사

던 집이니 가으며 그 세유명ᄒᆞ여 이 셩을 싸ᄉᆞ더니 쳔져 듯고 사지ᄇᆞ의 셩과 이과ᄒᆞ다ᄒᆞ여 인ᄒᆞ여 벌을 여ᄇᆞ부 연밧더니 그ᄒᆞ우에 즈손이 ᄎᆞᆫ빈ᄒᆞᆫᄒᆞ여 즉금은 파라ᄒᆞᆫ 거지 만 직희 여다ᄒᆞ더라 ᄉᆞᆼ영과 띄ᄉᆞᆼ을 지나 즁젼ᄉᆞᆯ ᄅᆞᆯ브라보니 분쳡이 극히 훠황ᄒᆞ기 셩내 토ᄃᆞ러가 무슨 구경ᄒᆞᆫ 거시 잇ᄂᆞᆫ가 ᄒᆞ여ᄉᆞ더니 약간 관ᄉᆞ와 쇠잔ᄒᆞᆫ여 여ᄋᆞᆫ이 그리던 단치 안니

ᄒᆞ나 주ᄒᆞᆼ 원에 셩 산 벽ᄂᆞᆫ 이고 져ᄅᆞᆯ
내 외 갓게 ᄒᆞ고 여 ᄎᆞ쇼 셩도 셩 우이
녈녀 ᄉᆞ오 판녀 뷔되게 ᄒᆞ고 처 쳐ᄇᆞᆼ을
겹을로 ᄒᆞ여 ᄒᆞᆫ길 시되게 사고ᄒᆞᆫ
편에 또 일 각 문을 내여 군ᄉᆞᄅᆞᆯ 올
이고 문을 쟝그면 달니 나올고 지업
ᄂᆞᆫ지라 이러 ᄒᆞᆫ고로 졍벌ᄅᆞᆯ 당ᄒᆞ면
슈셩 ᄒᆞᆫ군 셔 쥬기ᄅᆞᆯ 가ᄒᆞ여 지
환다 ᄒᆞ더라 쥬시 셔문으로 나와 가
의 집의 죠반ᄒᆞᆫ셔 사쳐 가 극히 분

요ᄒᆞ여 잠시 쉬지도어렵거ᄂᆞᆯ사쳐
고직을 결곤오로ᄒᆞ고ᄯᅥ나대셕코ᄅᆞᆯ
지나니 돌노문을 긔교ᄒᆞ게 짓고우
희졍치두자ᄅᆞᆯ쓰고아ᄅᆡ젼ᄉᆞ슈의
쳐쥬시에졍졀이라ᄒᆞ여시되언제
ᄒᆞᆫ거신지ᄆᆞᆯ로ᄂᆡ라오슈ᄒᆞ와ᄂᆞ계ᄅᆞᆫ
둔과왕가장을지다더니망ᄒᆞᆫ
ᄃᆞᆯ가온ᄃᆡᄒᆞᆫ언덕이올연이ᄂᆞ러
나평지에죠고만셤이되여뵈ᄂᆞᆫ곳
ᄯᅩ큰바회이셔언덕우의뵈고분

장을 사면에 둘너 사치 삼을 나
ᄂᆞᆫ듯시 지어 시니 이ᄂᆞᆫ 법 칠 나에 전
쳐 강녀의 사당이라 평지로 보고 터
언덕 가지 빅녀 층 셕 계로 무으고 좌
유에 푸른 돌노 셥 사 갑ᄒᆞ여ᄂᆞᆫ 간을 꿈
이고 울용을 그린 박 셕을 가득히 가
라시니 굴곡ᄒᆞᆫ 형용과 신묘ᄒᆞᆫ 제 두
진 짓 그림 쇽 가고 무지 기문을 반월 형
을로 지어 금거복 자물쇠로 구지 장고고
여지아니 ᄒᆞ거ᄂᆞᆫ 묘지 흰되 ᄅᆞᆯ 간 신이 불

너여러겨ᄇᆞᆫ문을차례로열고묘안의
드러가니강녀의쇼샹을탁ᄌᆞ에다중
ᄒᆞ여안쳤고좌우에칠팔셰동ᄌᆞ둘
이뫼서시니다ᄆᆞᆷ장쇼부에야간분ᄯᅵ
ᄅᆞᆯ미러시나팔ᄌᆞ아미에두쥴기뉴
누가엉긔여쳔츄에기ᄇᆞᆫ은원ᄒᆞᆫ을
푸ᄆᆞ어시니사ᄅᆞᆷ을로하야금뉘아니스
러ᄒᆞ라오ᄇᆞᆫ근혀ᄇᆞ져ᄯᅡ가지ᄇᆞ을로얼
골이쳔하에일셕이라몽괄이ᄀᆞᆫ말
을ᄃᆞᆺ고가ᄉᆞ가이ᄒᆞᆺ고져ᄒᆞᆫ되죵시ᄃᆞᆺ되

아니ᄒᆞ니ᄋᆞᆷᄒᆞᆯᄭᆞᆫᄒᆞᆫ제교ᄅᆞᆯ내여장
셩역ᄉᆞ에제지아비ᄇᆡᄇᆡᄇᆞ칠양을잡ᄇᆞ
어와더니인ᄒᆞ여도라가지못ᄒᆞ고
뉵나산아리셔쥭어원혼이강여
의ᄭᅳᆷ의와뵈니강녜ᄌᆞ연ᄆᆞᆼᄆᆞᆷ이잠
동ᄒᆞ여어린ᄌᆞ녀ᄅᆞᆯᄃᆞ리고등산셔ᄇᆞᆺ뉴
ᄒᆞ여쳔이험졍에와지아뷔ᄉᆞ셩ᄌᆞᆫ
ᄆᆞᆯ탐지ᄒᆞᆯ셔이바외에올으락ᄂᆞ리
락ᄒᆞ며ᄂᆞᆯ마다울고바장이다가죵시
셔로보지못ᄒᆞ고분명쥬음드ᄅᆞᆫᄒᆞ우

뉵나산에드러가여러쥬겁을헤치
고칠낭에히골을거두어품의품
고장쳣바다에터지여ᄒᆞᆫ가지로쥬그라
ᄒᆞᆫ셔여긔와잠간쉰고지니ᄒᆞ우인
이ᄀᆞ졍졀을거록히여겨위ᄒᆞ여사
당을세우고강녀에원ᄒᆞᆫ이쳘석
에ᄉᆞ못차바에ᄲᅡ진ᄒᆞ우슈일에이바
외가은연이츄ᄂᆞ이날로우니인ᄒᆞ
여망부셕이라ᄒᆞ엿더라ᄉᆞ벽에왕
내ᄒᆞ며신고ᄒᆞ던거동을다그리고

좌우에 시리브ᄒᆞᆫ동ᄌᆞᄂᆞᆫ ᄒᆞ나은아ᄃᆞᆯ
이오ᄒᆞ나은ᄯᅳᆯ이니ᄯᅳᆯ은ᄯᅴᆯ을밧ᄃᆞᆯ
러시니이ᄂᆞᆫ범낭의ᄲᅵᆺ친거시오아ᄃᆞᆯ
은우산을밧ᄃᆞ러시니이ᄂᆞᆫ그어미ᄆᆞᆼ우
ᄅᆞᆯ피치아니ᄒᆞ고단니기상시에ᄯᅡᄅᆞ아
단니던형용을ᄒᆞᆫ거시니ᄉᆞ러ᄒᆞᆫᄂᆞᆫ빗
ᄎᆞᆯᄯᅴ엿더라지금젼ᄒᆞ여오ᄂᆞᆫ말이강
녀의원ᄒᆞᆫ이하ᄂᆞᆯ에ᄉᆞ라진시황제
ᄌᆞᆨ은것과몽과ᄂᆞᆯ의ᄂᆞᆨ시ᄒᆞᆫ미다이갑
ᄒᆞᆷ이라ᄒᆞ니필뷔헙원에오월비

샹이라ᄒᆞᄂᆞᆫ말이 ᄭᅥᆫ지 허언일리
오사당가온대글ᄒᆞᄂᆞᆫ귀을붓쳐와진
황제ᄂᆞᆫ어대인ᄂᆞᆫ고만니장셩에원을
부짓도다ᄒᆞ엿시니ᄂᆞᆫ만역임ᄌᆞ예왕
치ᄌᆞᆼ이ᄯᅳᆫ글시오젼면현판에금ᄌᆞ
로방뉴ᄭᅩᆺ슈라ᄒᆞ여시니이ᄂᆞᆫ건뉴ᄋᆞ의진
필이오ᄀᆞᆫ밧기동에명졀쳐풍이
라ᄯᅳᆫ글시ᄂᆞᆫ과친왕에친필이니필
벼ᄇᆞᆫ리다활동ᄒᆞ여무비쳬바담ᄌᆞ
ᄒᆞ고동셔벽에건늡의제ᄉᆞᄌᆞ와제

뉵ᄌᆞ의ᄀᆞᆯ시와ᄀᆞᆯ리부ᄉᆞ터시니다벅
상치아니ᄒᆞ고사당ᄒᆞ우면망부셕
은그리놉지아니ᄒᆞ나부으로가이장
셩을바라보고나ᄆᆞᆯ쥭히발희ᄅᆞᆯ
구ᄇᆞ어뵈니강ᄒᆞ뎌의승강ᄒᆞ뎐발ᄌᆞ옥
이지금완연ᄒᆞ고젼면에망부셕슴
ᄌᆞᄅᆞᆯ사겨시니이ᄂᆞᆫ퇴원빅휘의ᄀᆞᆯ
이오그것희ᄯᅩᄒᆞᆫᄀᆞᆯ을사겨시니ᄒᆞ여
시되쳐ᄂᆞᆫ죄션ᄒᆞᆫ바ᄅᆞᆷ이우무ᄌᆞ러진
남긔부로지ᄌᆞ니오히려ᄉᆞᆯ푼소리을

지어낭ᄌᆞᆺᄒᆞ、ᄂᆞᆫ도다쳔고에므ᄒᆞ어ᄇᆞᆸ시
졀의ᄅᆞᆯ자랑ᄒᆞ、고일신의다만쥬그
미이셔가상을위ᄒᆞ、엿ᄉᆞ도다ᄒᆞ、엿ᄉᆞ뎌
라졍즁에삼ᄀᆞ좌셕비가이시니ᄒᆞ、나
만역십이현에세우고ᄒᆞ、나은만역예
이십ᄉᆞ연에쥬슈ᄒᆞᆫ거시오ᄒᆞ、나은강
희의말현에즁슈ᄒᆞ거시니다그ᄉᆞ젹
을긔록ᄒᆞᆫ거시로대총총ᄒᆞ여조셰이못
보고묘셔편에ᄯᅩ지ᄇᆞ을지ᄉᆞ고관예으ᄂᆞ산
ᄂᆡ블을위ᄒᆞ、고ᄯᅩ졀곤블결슈시ᄇᆞ을

안쳐시며좌우나삭도여러간이니
이젼은죠고만지ᄇᆞ일너니건궁시ᄆᆞ양
거동길의영이ᄒᆞᆫᄒᆞ우로이리ᄉᆞ려ᄒᆞ
게꾸ᄆᆞ이고궁을ᄯᅩ지어시니알오사긴
창호와영농ᄒᆞᆫ척셕이비록만이퇴
뷔ᄒᆞ여시나오히려샤가여셔ᄂᆞᆫ나은지
라인ᄒᆞ여ᄂᆞᆫ간의ᄀᆞ지ᄒᆞ여ᄇᆞᆯ이ᄇᆞ라보
니셔부ᄉᆞ이로장셩이뫼허리로ᄃᆞᆯ넛
고동남으로ᄂᆞᆫ창히가묘망ᄒᆞ여셕양
이잠기여시니풍경이더오ᄅᆞ거ᄅᆞᆯ ᄒᆞ더

을마가시니산히관셩은즁셩왕셩
달이밧다ᄒᆞ며문밧긔셩이세겨ᄇᆞ이오
문을다겨ᄇᆞ으로짓고옹셩문누어ᄂᆞᆫ고외
셩물은이층누오내셩은삼층누니문
이하ᄇᆞᆼ여일곱을드러가ᄂᆞᆫ지라쳔
문의ᄂᆞᆫ의ᄂᆞᆫ산히관이라쓰고둘지문
의ᄂᆞᆫ쳐하졔일관이라크게써시니
이ᄂᆞᆫ니ᄉᆞ의글시라ᄒᆞ나ᄆᆡᄉᆞ지못ᄒᆞ나
필법이가장웅건ᄒᆞ여만고명필
리오문누가장아노파가ᄉᆞ가이셔ᄂᆞᆫ길

엄고사ᄅᆞᆷ이누ᄂᆞᆫ거나멀ᄂᆡ가거나ᄒᆞ
여야분ᄯᅥ이뵈더라세겨문의ᄂᆞᆫ상
일박샹이라네ᄌᆞᄅᆞᆯᄭᅴ시니이ᄂᆞᆫ건ᄂᆞᆫ강
의머필이니금ᄌᆞ로ᄯᅥ우ᄒᆞ고나문ᄀᆞᆫ은황
혼이되기자세이보지못ᄒᆞ여시나셩ᄂᆞᆷ
희ᄂᆞᆫ슈십여장이오두레ᄂᆞᆫ팔구간이나
되ᄀᆞᆼᄂᆞᆫ곳ᄃᆞᆷ이어ᄂᆞᆫ스나관문남편으로
일너나가셔딘산헐이인고지이시니이
ᄂᆞᆫ오샴계쳥병이ᄂᆞᆫ도ᄒᆞ여도린쳐이라지
금쳘망으로얼거장그고다시아니와서

나도곳대일을귀이너겨그리ᄒᆞ거신가시
ᄯᆡ부라ᄆᆞᆫ동을로왕ᄂᆡᄒᆞᄂᆞᆫ힝인이ᄂᆞᆫ문을로
아니가면달나갈길이업스나춘은이ᄇᆡ에
다셩ᄯᅧᆼ을뎍고낫ᄉᆞ치젹고ᄒᆞ여상고의
세를바드되쇠로ᄒᆞ옵을밋ᄀᆞ리힝인의
집보을다질녀보고표가업스면이븐인일
거로을아니동ᄒᆞ나관방ᄒᆞᄂᆞᆫ법이극히
엄졀ᄒᆞ고죠션인바도쳐문곳치죠슈
ᄒᆞ여드리기역관을반일ᄒᆞ기ᄒᆞ여보내
여동ᄒᆞ고일힝이ᄆᆞᆺ고로도표와일시에

드러갈셔 쳔문안부도동아문과 둘직
문안후부아문을지날제가마르ᄂᆞᆫ부리
워지나고도동아문아ᄇᆞ희ᄂᆞᆫᄒᆞᆫ갈은ᄒᆞᆫ셔
ᄉᆞ셔ᄒᆞᆫ쌍이셔로대ᄒᆞᆫ여안치고대풍뉴
ᄅᆞᆯ자아지게ᄒᆞ되음ᄉᆞᆯ이아국사ᄇᆞ현만
못ᄒᆞ더라쇼위아문ᄉᆞ령은ᄇᆞᆯ근기ᄉᆞ초
로가ᄇᆞ도여서두벌이나ᄂᆞᆷ게ᄒᆞ여쓰고두엇
긔에부ᄅᆞᆯ근가쥬을로셔너치너뷔ᄂᆞᆫᄒᆞ여
뗴고슈시ᄇᆞ여병이분ᄌᆞ쥬이왕내ᄒᆞ니극
히ᄒᆞ오ᄅᆞᆯᄒᆞ여뵈고셔과쥬회ᄂᆞᆫ사ᄇᆞ양

보다더너른듯ᄒᆞ나시ᄉᆞ가그만못ᄒᆞ고인
물은관동이셔ᄂᆡ도이쥬ᄉᆞᄒᆞ고계집은
공단으로셤인틔평ᄎᆞ에칠보단장을ᄒᆞ
고아양미가옷ᄉᆡ운문다건ᄎᆞᆯ올여임
고불근다을ᄭᆞᆯ고단졍아져고ᄅᆞᆯ모ᄀᆞᆺᄀᆞᆺ
모라나오니ᄀᆞᆺ강일셕이만고인마가불
ᄭᆞᆯ듯ᄒᆞ며관부가심이엄위ᄒᆞ여오리
머물기ᄉᆞᆯ른고지라셔문으로나ᄉᆞᄒᆞ라ᄂᆞᆫ가ᄂᆞᆫ
심하ᄅᆞᆯ지나니여긔용ᄇᆡᆨᄉᆞᆫ졀ᄒᆞᆫ고
지라자연ᄒᆞᆼ감이되더라인ᄒᆞ여월셕

을 띄고 십니ᄅᆞᆫ 와ᄒᆞ옹 화져ᄆᆞᆷ 의ᄃᆞ니 발
셔 이경이 되얀ᄂᆞᆫ지라 셔 쟝은 만니 장셩
시작ᄒᆞᆫ 것ᄉᆞᆯ 구경ᄒᆞ랴ᄒᆞ고 망히 졍으
로 슈인을 거ᄂᆞ리고 가더니 아니도라 오더
라 복경길은 세토막이라 니ᄅᆞ니 칙문
셔 붓터 시ᄆᆞ양이 쳔ᄂᆞᆫ 토막이오 십ᄆᆞ양셔 산
희관이 가온대 토막이오 산히관셔 황셩
이 꼿토막이라 ᄒᆞ니 즁의 가오ᄃᆡ 토막이 졔
일 멀기ᄂᆞᆫ 본근 쳔니 길을 언의 히황
터 후거동 ᄒᆞᆫ 졔 쳔ᄂᆞᆫ 가마ᄒᆞ여 말뷔

니로쥬린길이오겸ᄒᆞᆫ여달마로졍ᄒᆞᆫ
참ᄉᆞ기아국니슈와ᄂᆞᆫ내도이지리ᄒᆞ더라
오날이야졔일먼토막을쳐치ᄒᆞ여시니
슈이드러갈가ᄒᆞ노라비단은의례ᄒᆞ여쥬
고ᄎᆞ복과상고의집은다와시되건냥시
른ᄉᆞ절네가지ᄆᆞ이무게와밋지못ᄒᆞ니마두
ᄅᆞᆯ보내여이연유ᄅᆞᆯ문직힌관원의게
동ᄒᆞᆫ즉외국ᄉᆞ신의긴ᄒᆞᆫ집이만일문
의막히여분ᄌᆞᆯ면우리도리에올치아니
ᄒᆞ다ᄒᆞ고문의분부ᄒᆞ여밤중이라도

집이 밋도록 셩문을 닷지 밀고 기드려
두라ᄒᆞ기 나ᄆᆡᄅᆞᆯ ᄒᆞ야니 나라 황셩가 뉴ᄒᆞᆫ 집
을 본ᄃᆡ 예셔 ᄉᆞᄅᆞᆷ을 몬져 보내여 슈리ᄒᆞ
ᄂᆞᆫ고로 삼방셔 ᄌᆞ드리 하직ᄒᆞ고 가더라
십오일ᄂᆞᆫ 즉힝ᄒᆞ여 나가 장과 오가 장과
이십이 모ᄅᆞᆯ지나 법가 장을 오니 연대 겻
틔 십여 판장 가을 지고 챵검을 가초아
ᄂᆞᆯ고ᄒᆞᄂᆞᆫ 길 식ᄒᆞ게 독다 셧식 차고 젼면 판
장에 구리와 운룡을 긔ᄂᆞᆫ 그리고 장승은 인
형을 아니ᄒᆞ고 거문 칠ᄒᆞᆫ 산을 지어 횡

관에동셔니슈ᄅᆞᆯ서ᄉᆞ더라왕과가령과
대리령을너무니산쳔이일빈띵낭ᄒᆞᆫ
여모든봉만이다놉ᄒᆞᆫ즈ᄌᆞᆼ셔너봉이더
목쳥슈ᄒᆞ니이ᄂᆞᆫ문덜봉이라ᄒᆞ고심
슈ᄒᆞᆫ동학인쳐ᄂᆞ에열니여말근물과
아롬다온슈목이어귀ᄅᆞᆫ가리오고졍벽
ᄒᆞᆫ쵼장이ᄉᆞ면에ᄯᅡ리여푸른기야와불
칠ᄒᆞᆫ다ᄆᆞ이셔로연ᄒᆞ여슈빅호식혹
삼ᄉᆞ빅호식버러슈양ᄉᆞ이로은영이뵈
니가장ᄉᆞᄅᆞᆷ즉ᄒᆞᆫ고지라산쳔이ᄂᆞ러ᄒᆞᆫ

기당초에 긔황도ᄅᆞᆯ 졍코져 ᄒᆞᆫ디라ᄒᆞ
더라 봉황장 십십 파ᄅᆞ니와 죠반ᄒᆞ
되셔 장관이 쇼식이 업스니 혹무슨 연
고ᄋᆡᄂᆞᆫ가 ᄒᆞ여 몬져 ᄯᅥ나지 못ᄒᆞ고 반일
을지 쳬ᄒᆞ니라 망히 졍과 십ᄒᆞ ᄒᆞ로ᄅᆞᆯ
지날셔 산광야셔 이도쳐에 슈발ᄒᆞ여
무비평ᄉᆞᆼ지ᄀᆞ오왕가의 집ᄆᆞᆯ 아ᄇᆞ희
장이 선다ᄒᆞ고 장문이 ᄉᆞ면에 모이여 갈셔
나귀와 말들을 타고 남녀노소ᄃᆞ리 각ᄀᆞᆫ무
리지어 가ᄂᆞᆫ디 혹ᄀᆞᆺ 초록바지도 입고다ᄒᆞ

과거ᄆᆞ고푸른거ᄉᆞ로셔ᄂᆞ이셔귀여이ᄇᆞ어
지니더옥신ᄒᆞ나웃도라ᄂᆞᆫᄃᆞᆫᄒᆞᆫ빗ᄉᆞᆯ
로거ᄆᆞ으니흰도ᄅᆞᆯ의더ᄇᆞᆫ히여가ᄂᆞᆫ거동
이군병이ᄉᆞᆸ진에가ᄂᆞᆫ듯ᄒᆞ더라십ᄒᆞ모
에셩즁으로지나되불거시굿틔여업고
유관에오니이곳즌녀엽이구히번셩ᄒᆞ여
각셕젼이ᄯᅥ빅셩의집드리관동에비
ᄒᆞ지못ᄒᆞᄂᆞᆫ너라쥬인의드니진ᄉᆞ제피련
이라제문집을가지고왓거ᄂᆞᆯ제목을
보니황인산인이라ᄉᆞᆫ글시사니현즁신

이셰 홍판셔의 글시오 글에 폄ᄒᆞᆫ 것ᄉᆞ도다
그중 신의 슈젹이니 타국에 인을 본ᄃᆞᆺᄒᆞ
여ᄆᆞᄋᆞᆷ의 심이 반기나 올젹 그중 신의 편지
ᄅᆞᆯ 밧다 왓더니 유관이 중노에 잇ᄂᆞᆫ 줄
모로고 황셩가 물집에 너 엇기 못젹ᄒᆞ
니 저도 극히 셔ᄇᆞᆫᄒᆞ여 ᄒᆞ더라 홍대인
의 안부ᄅᆞᆯ 아ᄅᆞ고 져ᄒᆞ여 시ᄇᆞ니 젼도에
와 기ᄃᆞ리노라 ᄒᆞ고 우리나라 져 샹을
무슈이 아라 안부ᄅᆞᆯ ᄃᆞ부ᄅᆞ니 이ᄂᆞᆫ 동국
ᄉᆞᄅᆞᆷᄉᆞ괴 기ᄅᆞᆯ 조와 ᄒᆞᄂᆞᆫ가 시부고 임의

션라ᄒᆞ기부방에고ᄒᆞ여 삼방과모
도여셔로필담ᄒᆞᆫ식글시ᄂᆞᆫ대단치못
ᄒᆞ고글도그리금즉지아니ᄒᆞ나붓대ᄅᆞᆯ즉
시머ᄆᆞᆯ츄지아니ᄒᆞ고대답ᄒᆞ며풍ᄉᆡ월도
지어화창ᄒᆞ니입쳑삼삭에쳐음으로
선뷔ᄅᆞᆫ대ᄒᆞ니도로여신근ᄒᆞ고져ᄂᆞᆫ쇼
과ᄒᆞ연지삼연이오대국은굽제진ᄉᆞᄅᆞᆯ
분간이업셔일등삼인ᄀᆞᆫ보로쳥화을
ᄒᆞ고이등칠인은녹을붓치고기여진ᄉᆞᄂᆞᆫ
ᄒᆞ연지칠팔연이되면ᄒᆞᆫ현영을시

인다ᄒᆞ니과거ᄒᆞᆫ보ᄅᆞᆷ이잇더라죵야ᄒᆞ
여난만이ᄂᆞᆯ다가약간필묵과환약을
쥬어보내니무한칭ᄉᆞᄒᆞ더라 십뉵
일평명의뎌나대쇼빅셕모와오관영을
지나무령현을들녀니예ᄂᆞᆫ젼여션뷔ᄉᆞ
ᄂᆞᆫ고지라큰길을임ᄒᆞ여휘황ᄒᆞᆫ집들
을지어시니쳐마와담이셔로연ᄒᆞ여십
니ᄅᆞᆯ빗긴즁ᄒᆞ요ᄌᆞ와열여에졍무이
무슈ᄒᆞ니귀교신긔ᄒᆞ게지은형용은십
분의일을귀로지못ᄒᆞ노라진ᄉᆞᄒᆞᆫ집

은금ᄌᆞ로셩균 진ᄉᆞ라 처ᄆᆡ 문반긔 현
판ᄒᆞ고 뼈ᄉᆞᆯ ᄒᆞᆫ 집은 비ᄉᆞᆯ이 ᄅᆞᆷ 각ᄀᆞᆺ처
붓쳐 시니 이ᄂᆞᆫ과 환을 귀 중이 여기ᄂᆞᆫ
일이라 셔진ᄌᆞ쇼신은 약간 문명이 인고
집을 이상이 꿈여 온갓셔 쳑과 긔화이
초ᄅᆞᆯ 무슈이 두고 명화 명필도 마니 구취
ᄒᆞ여 두어 시니 젼ᄒᆞ우 사신니 다 들너 구경
ᄒᆞ여 ᄉᆞ다 ᄒᆞ고 공도셩 장을로셔 이ᄆᆞ의 사고여
시니 다시 차져 보랴 ᄒᆞ더니 산동원을 그
ᄉᆞ이 ᄒᆞ여 임쇼의 가 인ᄉᆞ고 본집에ᄂᆞᆫ 일가ᄅᆞᆯ

드려ᄒᆞᆫ가지봉묘주ᄒᆞᄂᆞᆫ거시업다ᄒᆞ기그
져지나니의듣더라문필봉아릐창녀현
이ᄋᆞ시니한문공되지가뫼경긔ᄅᆞᆯ타나
읍즁에창녀묘가잇다ᄒᆞ나문공은본
대등쥐남양사ᄅᆞᆷ이니이고지엇지본향
이되리오마ᄂᆞᆫ문공이ᄉᆞᄉᆞ로별호ᄅᆞᆯ창
녀라ᄒᆞ엿기송젹에창녀빗ᄎᆞᆯ봉ᄒᆞ、
고원현말에비로쇼당을지엿다ᄒᆞ더라갈
젹이또본현에셔〻편으로니섭니ᄂᆞᆫ가면
잇다ᄒᆞ나젼위ᄒᆞ여블긔어보ᄉᆞ니동묘

ᄒᆞ며 양하와 쇼리가 와 노가 자ᄋᆞᆫ 지 나나ᄆᆞᆷ
편으로 검가 이 삭 검ᄒᆞ여 마두에 버라시니
이ᄂᆞᆫ 반야산이라 극히 험ᄒᆞ고 굽ᄒᆞᆫ 뫼히
러라 다봉암과 음마ᄒᆞᆫ 건너 비음포오
십니와 조반ᄒᆞ니 발셕셕 양이 겨산ᄒᆞ
고우 양이 가ᄀᆞᆫ 지ᄇᆞᆷ을 차져오ᄂᆞᆫ 지라 ᄡᅡᆼ포와 오
가ᄌᆞ와 요졈과 부락 영과 십ᄇᆞᆷ 팔포와 빅ᄉᆞ
하ᄅᆞᆯ 오니 히가 이ᄆᆞᆷ의 져ᄆᆞ 무려지거ᄂᆞᆯ 월하
에 누력원을 지나 오십니 영떵부에 오니 이
ᄂᆞᆫ 한져우 부떵고우을 리라 셩 굽고 히 겨겸

ᄒᆞ며 문ᄲᅡ다 셰 겨ᄇᆞ옹셩을 ᄡᅡ고 동을 셔
라ᄇᆞ문가기에 ᄆᆡ루ᄃᆞᆯ과 문루여 셧ᄉᆞᆯ지
나니 진짓웅장ᄒᆞᆫ고 울이라 예ᄉᆡ젠ᄂᆞᆫ 궁황
졀겨러니 금과 원니 연ᄒᆞ여 연경에 도읍
ᄒᆞ고 황명이 ᄯᅩ방어ᄒᆞᄂᆞᆫ고 울올 베푼고
로 즉금은 이ᄯᅡ이 극ᄒᆞᆫ 요지가 되연ᄂᆞᆫ지라 쳥
용하 북편으로 삽니ᄂᆞᆫ가 셔비 장군의 비가 잇
더니 발셔 셰번 불러 져ᄒᆞᆫ 뵈의 뭇쳣다ᄒᆞ고
셔을 로 십니ᄂᆞᆫ가 셔니 광의 사ᄒᆞ 셕이ᄀᆞᄉᆞᆫ
별ᄂᆞ 볼거시어ᄇᆞ고 다만 ᄡᅡ와ᄂᆞᆫ 바외예 살마

즌흔젹이잇더라셩중의ᄂᆞᆫ갈티공의사
당기이ᄉᆞ다ᄒᆞᆫ나이쳥은ᄒᆞ여드러와버명
에ᄯᅥ나기ᄆᆞᆺ보니라 시ᄇᆞᆷ치일은쳥공하
와나ᄇᆞ구차ᄇᆞ과난하ᄅᆞᆯ건너니슈양산
이아ᄇᆞᆷ희뵈고시ᄇᆞ니ᄂᆞᆫᄒᆞᆫ고죄고쥭군
의셩이슈목ᄉᆞ이로뵈고셩중에빅이
슉졔사당이이셔풍대가ᄒᆞᆯ연이셧
다ᄒᆞ니고젹이거ᄃᆞᆨᄒᆞ여그윽이ᄃᆞ러가
보고시부되사ᄅᆞᆷ을ᄯᅡ라가ᄂᆞᆫ힝셕이임
의로ᄀᆞᆯ어ᄇᆞ니더옥의ᄃᆞᆫ더라아ᄇᆞᆷ ᄉᆞ하

와망부대와야계둔ᄉᆞ시ᄇᆞ니에와죠반
할셔누시ᄇᆞ니광야에ᄲᅳᆼ낭골곡셕싱그
듯시이령을밍글고누만줄을싱거시되
졍ᄀᆞᆫ방ᄀᆞᆫ ᄒᆞᆫ여일쥬일근이나든거시업
시ᄒᆞᆫ회으로그은ᄃᆞ시ᄒᆞᆫ여시니빅ᄉᆞ에
방졍ᄒᆞᆫ뻐이ᄀᆞ샹ᄒᆞᆫ더라이시ᄇᆞ니사하
에ᄃᆞ니이지ᄇᆞ쥬인은길가한인이라ᄉᆞ힝
에잔샹을ᄒᆞᆫ여올ᄇᆞ니ᄀᆞ음식은뻔시
일완과탕보ᄀᆞ일긔와게웃집에갈셕
실과너은것일긔와기단가외일긔와

다시곳감대 쵸호도등물을뵈려시니
이ᄂᆞᆫᄒᆞᆫ인으로인ᄉᆞᄎᆞ리ᄂᆞᆫ일이라제지ᄂᆞᆫ이
음식파ᄂᆞᆫ젼이옹또죠션것ᄉᆞᆯ엇고져ᄒᆞᆫ여
ᄉᆞ힝마다이리ᄒᆞᆫ다ᄒᆞ더라 시ᄇᆞᆯ팔일미
명에ᄯᅥ나사관묘와마포령을넘어칠
마령과왕가졈과장가장을지나진ᄌᆞ
져ᄇᆞ오시ᄇᆞ니에오니ᄇᆞᆼ패ᄒᆞᆫ셩쳡이극
히쇼죠ᄒᆞᆫ고누도어ᄇᆞᆫ셩문만두어시남
엇더라예ᄂᆞᆫ명말제문관이라ᄒᆞᆫᄂᆞᆫ
게지ᄇᆞ이시ᄂᆞᆷ양으로잡ᄇᆞ히ᄯᅥ갈젹굴을

지어슌막벽에쓰고가되머리에쓴보비
엿관을버슥쇽졀업시옛날단장을
어엿비여기며졍의로월나상을밧소
입엇도다아양의셩셔알과라언의고진
고츈풍에슬피시ᄆᆞ양으로올나가는도다ᄒᆞ
고그글아릐도쓰되쳔하에ᄆᆞᄋᆞᆷ인ᄂᆞᆫ사ᄅᆞᆷ
이보라ᄒᆞ여시니그ᄒᆞ우빅뎐이가ᄉᆞ가ᄇᆞ도
록글시지ᄀᆞ아니ᄒᆞ엿다ᄒᆞ니지금유
ᄒᆞ니못막ᄂᆞᆫ일위ᄒᆞ여스러ᄒᆞ노라
오리대ᄅᆞᆯ지나풍윤오시ᄇᆞ니ᄅᆞᆯ오

니이ᄯᅡ은 쥐지경이라 ᄂᆞᆷᄒᆞ은 셩을
안팟그로ᄡᅡ고져져ᄒᆞᆫ다 셩밧긔버리
고사죡의빈ᄒᆞᆫᄒᆞᆫ져만아공부ᄅᆞᆯ
독실이ᄒᆞᆫᄂᆞᆫ니만타ᄒᆞ더라셩안
의문창가이극히표묘ᄒᆞ거ᄂᆞᆯ두어
동힝을로쇼ᄆᆡᄅᆞᆯᄒᆞ여셩문을드러죠
금가더니동구안의양금쇼ᄅᆡ은ᄀᆞ이들
니거ᄂᆞᆯ차져드러가니슈ᄒᆞ오죠창에빗
ᄂᆞ교의ᄅᆞᆯᄒᆞ옹젼을ᄀᆞᆺ쳐그고ᄒᆞᆫ쇼경
이안져타다가외구ᄉᆞᄅᆞᆷ의셩음을듯

고탈ᄃᆡᄅᆞᆫ노고즉시긔거ᄒᆞ니이ᄂᆞᆫ쥬인
이아니라단니며노름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니눈
은비록보지못ᄒᆞ나타ᄂᆞᆫ뻐ᄂᆞᆫ이비뻐ᄒᆞ
여말근곡졔공즁에영ᄒᆞᄒᆞ거ᄂᆞᆯ또ᄂᆞᆯ
내ᄅᆞᆯ부르라ᄒᆞ니져삼고사ᄒᆞ다가단
사ᄅᆞᆯ내여부로니곡죠ᄂᆞᆫ무에라ᄒᆞᄂᆞᆫ지모
로되극히경쳥ᄒᆞ여금졍과ᄒᆞᆫ쇼리되
니젹고이가다가죡히일시쇼챵이되더라
그지ᄂᆞᆫ쥬이ᄂᆞ니쳐음에차ᄅᆞᆯ권ᄒᆞ고또ᄂᆞᆷ
식을차려내당을쳥ᄒᆞ되날이져

모러먹지 못ᄒᆞ고ᄇᆞ로문 팔각으로 항
ᄒᆞ니죠고만 중문을드러푸른돌노층
계르르다셧층무으고그리로올나면곡
ᄒᆞ여노ᄒᆞᆫ궁기잇거ᄂᆞᆯ구ᄇᆞᆫ프려드러가ᄯᅩ
십이층운제르ᄅᆞᆯ올나셔니셩놉희와
ᄒᆞᆫ가지라ᄉᆞ면에박셕을ᄯᅡᆯ고ᄂᆞᆺ면각
을지어시니하층다셧면의ᄂᆞᆫ층에ᄯᅩ
문을니고ᄒᆞᆫ면은ᄃᆞᆼ글게ᄒᆞ여시며마
로밋ᄎᆞ로ᄯᅩ십이층을제ᄅᆞᆯ올나잠
만ᄀᆞᆯ곡ᄒᆞ여ᄯᅩ십층을오르니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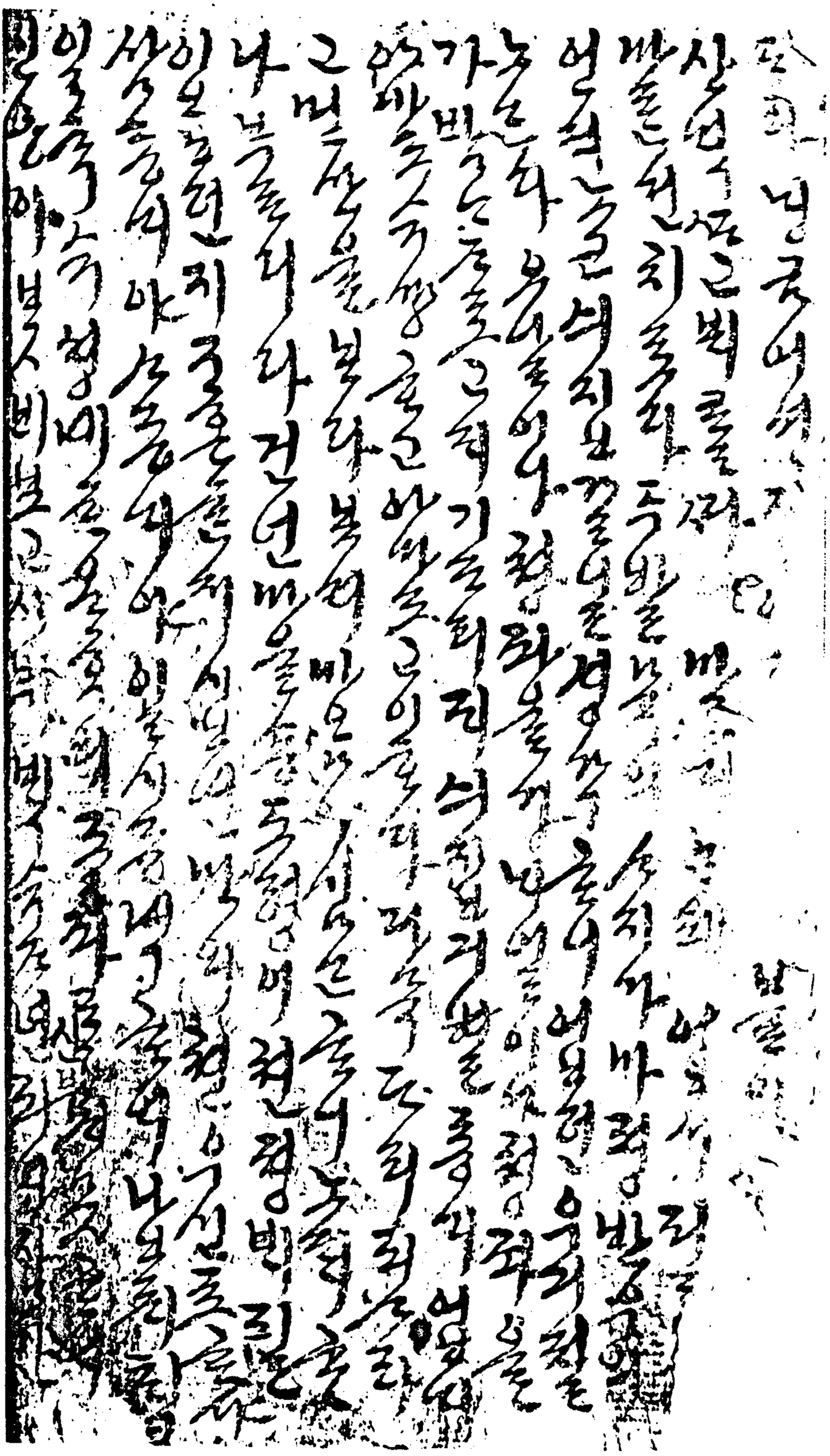
에 문 창 선 인 쇼샹 을 안 치 고 죄 무 에 ᄒᆞ
샹 동 졍 시 리 ᄒᆞ고 뒤 에 일 필 빅 마 에
은 안 지 어 셰 웟 더 라 난 간 을 의 지 ᄒᆞ여 ᄉᆞ
면 을 구 ᄂᆞ 어 보 니 셩 ᄂᆡ 셩 ᄂᆡ 에 션 연 이 몽 농
ᄒᆞ여 참 ᄆᆞ 치 ᄒᆞᄂᆞᆫ 슈 목 을 장 거 시 니 의 연 이
창 희 고 ᄅᆞᆯ 이 ᄆᆞᄒᆞᄂᆞᆫ 듯 ᄒᆞᄂᆞᆫ 중 빅 탑 이 쳐 ᄀᆞ
에 ᄒᆞᆯ 연 이 뵈 니 동 창 ᄒᆞᄂᆞᆫ 안 계 ᄅᆞᄅᆞ 비 ᄒᆞᄂᆞᆫ
대 업 더 라 본 줘 지 현 의 셩 띵 은 진 봉 이
라 ᄒᆞ 되 보 지 못 ᄒᆞ고 나 려 오 더 니 길 의 모
든 아 희 들 중 ᄒᆞ 나 이 얼 굴 이 옥 ᄀᆞᄉᆞ 고 미
목 이 쳥 슈 ᄒᆞ여 ᄀᆞ 러 에 서 기 이 지 아 니 ᄒ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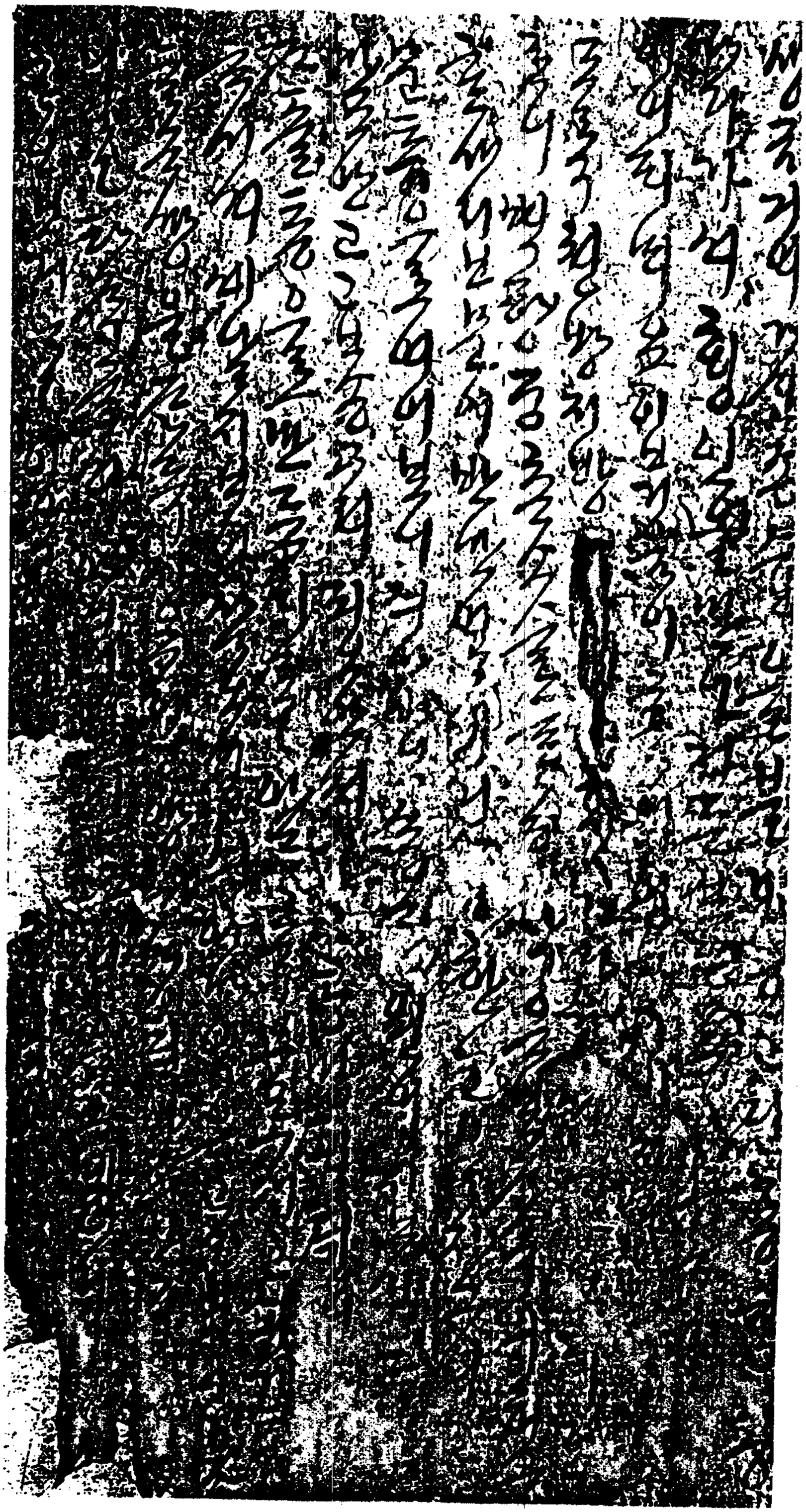
거ᄂᆞᆯ쇼ᄯᅳᆫ목을자ᄇᆞ고나을뮤ᄅᆞ니시면
계오구세오글은ᄉᆞ셔ᄅᆞᆯ뵈오노라ᄒᆞ고
인ᄒᆞ여쳥심화을다ᄅᆞᆫ나ᄒᆞ니쾨와
인ᄉᆞ가다ᄉᆞᆨ셩ᄒᆞ여아구아희시ᄇᆞ오셰
되니여셔낫더라관의들ᄡᅴᄂᆞᆫ참ᄉᆞᆫ도
낫고일긔도그리치ᄇᆞ지아니ᄒᆞ고거마도덜
ᄒᆞ니진실노다힝ᄒᆞ나황진이유왕
유시ᄆᆞᄒᆞ여죵ᄀᆞ지쳑을ᄆᆞᆯ나보니일ᄂᆞᆫ
노괴롭고지리ᄒᆞᄂᆞᆫ신병은일미무삼ᄒᆞ
니필경이엇더ᄒᆞᄅᆞ고ᄌᆞᆯ시ᄆᆞ이노이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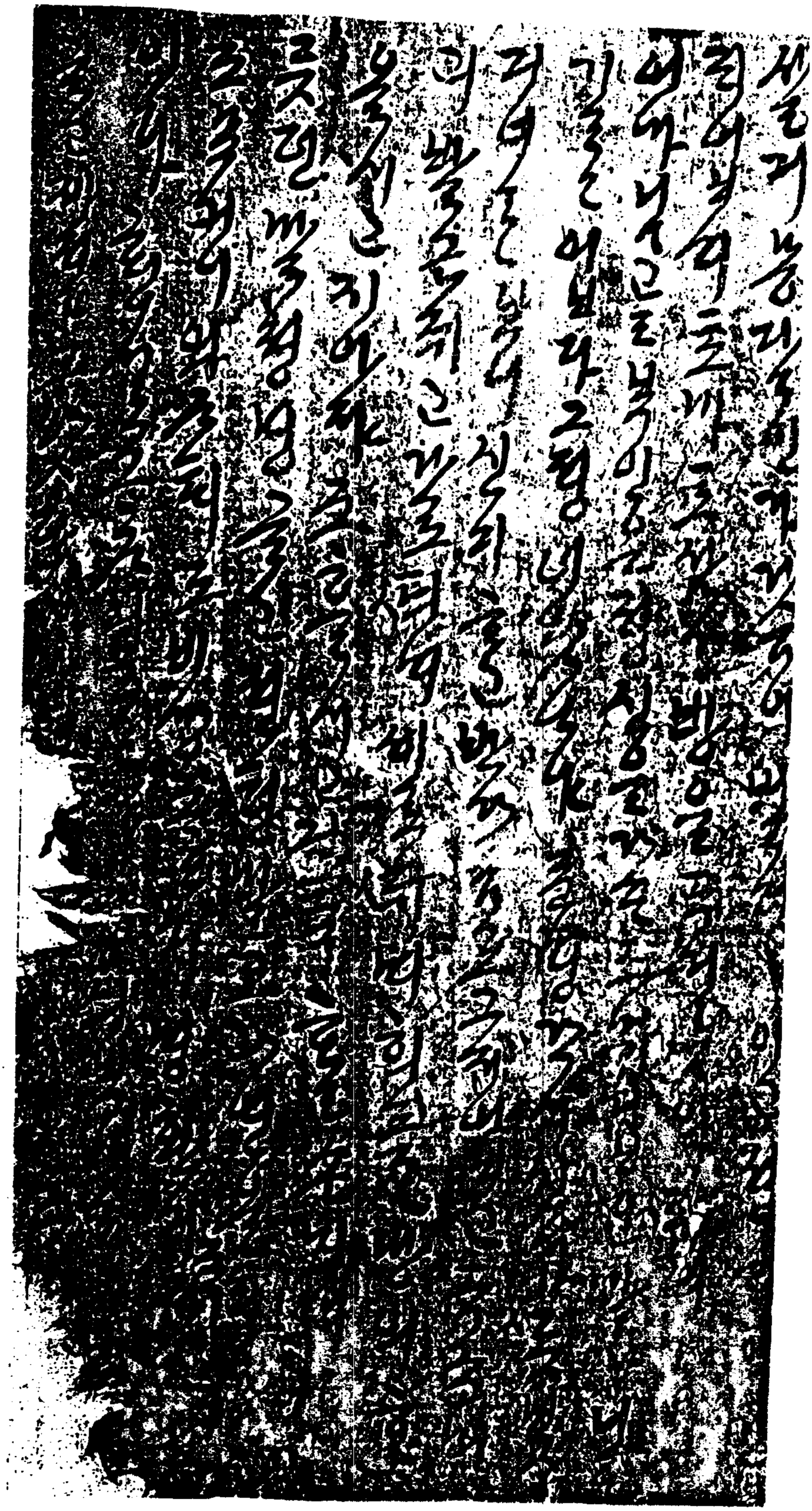
니ᄒᆞᆫ노라 시ᄇᆞ구이ᄅᆞ은대ᄒᆞᆫ날이라슈
유이ᄅᆞᆫ젼이여서져기갈ᄀᆞᆺᄒᆞ나그리대단
치아니ᄒᆞ더라발근ᄒᆞ우ᄯᅥ나죠가장장
가장셔가장과화하교와노가장으로셔
고려포에오니이ᄂᆞᆫ옛적아국사ᄅᆞᆷᄃᆞ리
자ᄇᆞ히여와사던고지라산ᄒᆡ관안파ᄉᆞ의
ᄒᆞᆫ곳논이어ᄇᆞ고젼여젼곡만ᄉᆞᆼ샹ᄒᆞᆫ
되여귀ᄂᆞᆫ죠션사ᄅᆞᆷ의농ᄉᆞᆼ던여풍이
ᄀᆞ서본을빙글고벼ᄅᆞᆯ싱거먹은니ᄀᆞᆫ
ᄃᆞ령이며벼뷘굿ᄐᆞᆯ이아국과ᄃᆞᆫᄅᆞ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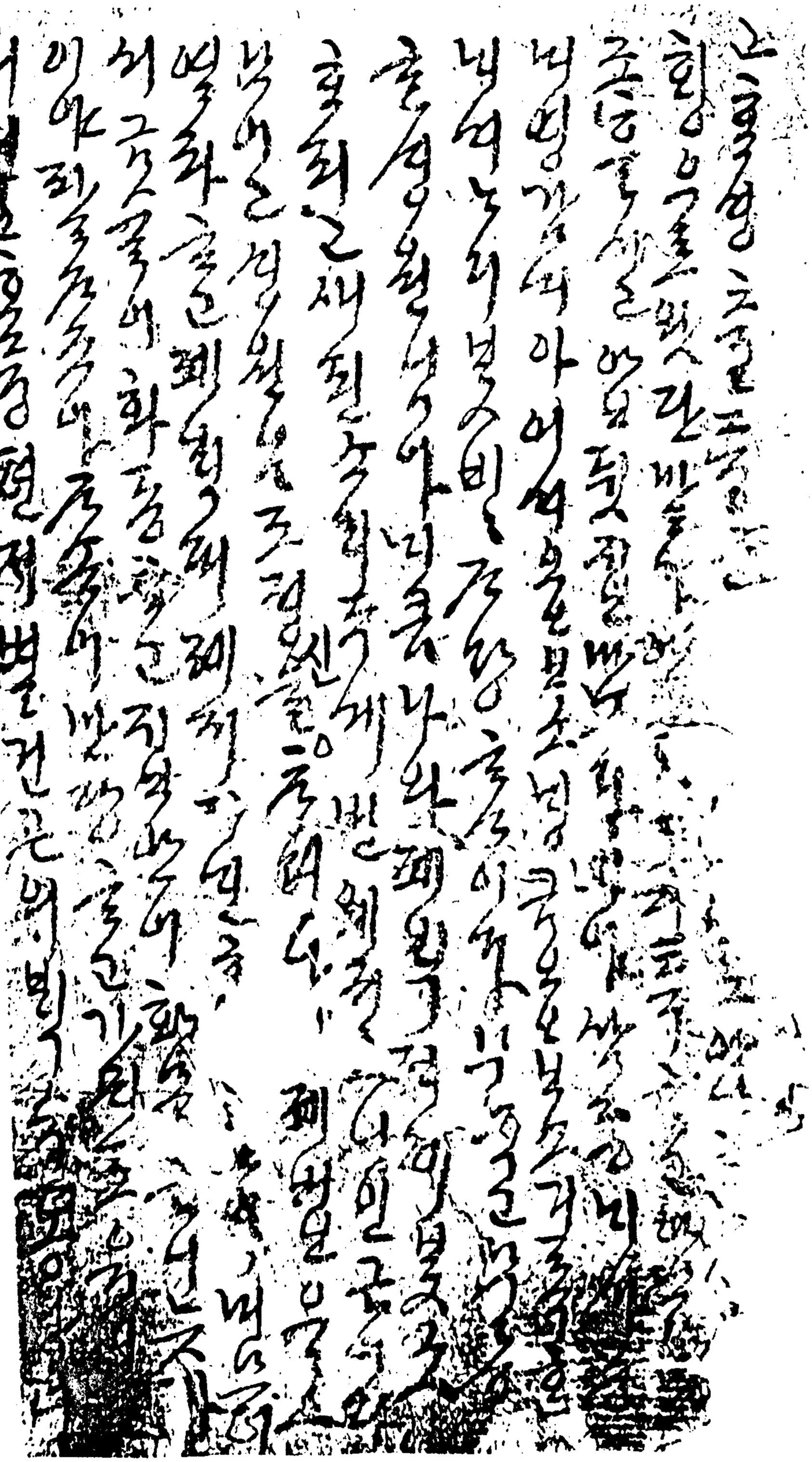
어ᄂᆞᆫ스니 가ᄂᆞᆫ 벌ᄇᆞᆫ 바ᄉᆞᆫ 리 ᄂᆞᆫ 마ᄀᆞᆫ 우
지나ᄉᆞ리ᄂᆞᆫ 오더니 나ᄂᆞᆫ 경셔 ᄉᆞᄂᆞᆫ 상고ᄃᆞᆫ
산히관으로 물화치리 오ᄂᆞᆫ 대대 져ᄇᆞᆫ 문
혹공단바지에 돈피 갓옷ᄉᆞᆯ 뒤지 버이ᄇᆞᆫ
고셩ᄀᆞᆫ 젼휘하을 눌너ᄉᆞᆫ고 덕지ᄇᆞᆫ 가ᄂᆞᆫ 말
을 빗기 노아 죠양에 다ᄂᆞᆫ 여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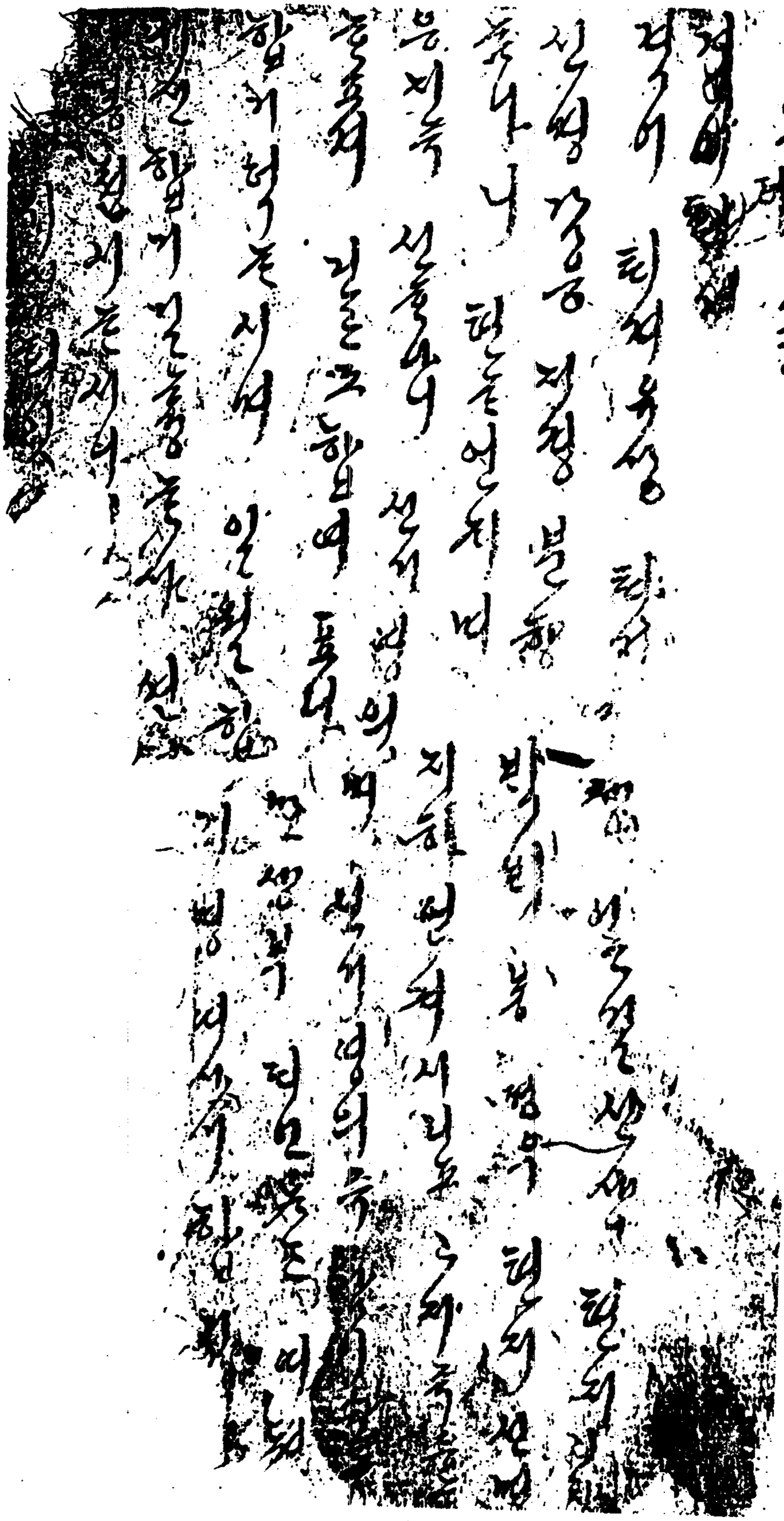
이권의ᄂᆞᆫ 셔졍혐제 뫼여 필적이로디
여러살ᄅᆞᆷ의 필적이 쏫여 게ᄉᆞᆫ 우ᄂᆞᆫ리
비ᄂᆞᆫᄂᆞᆯ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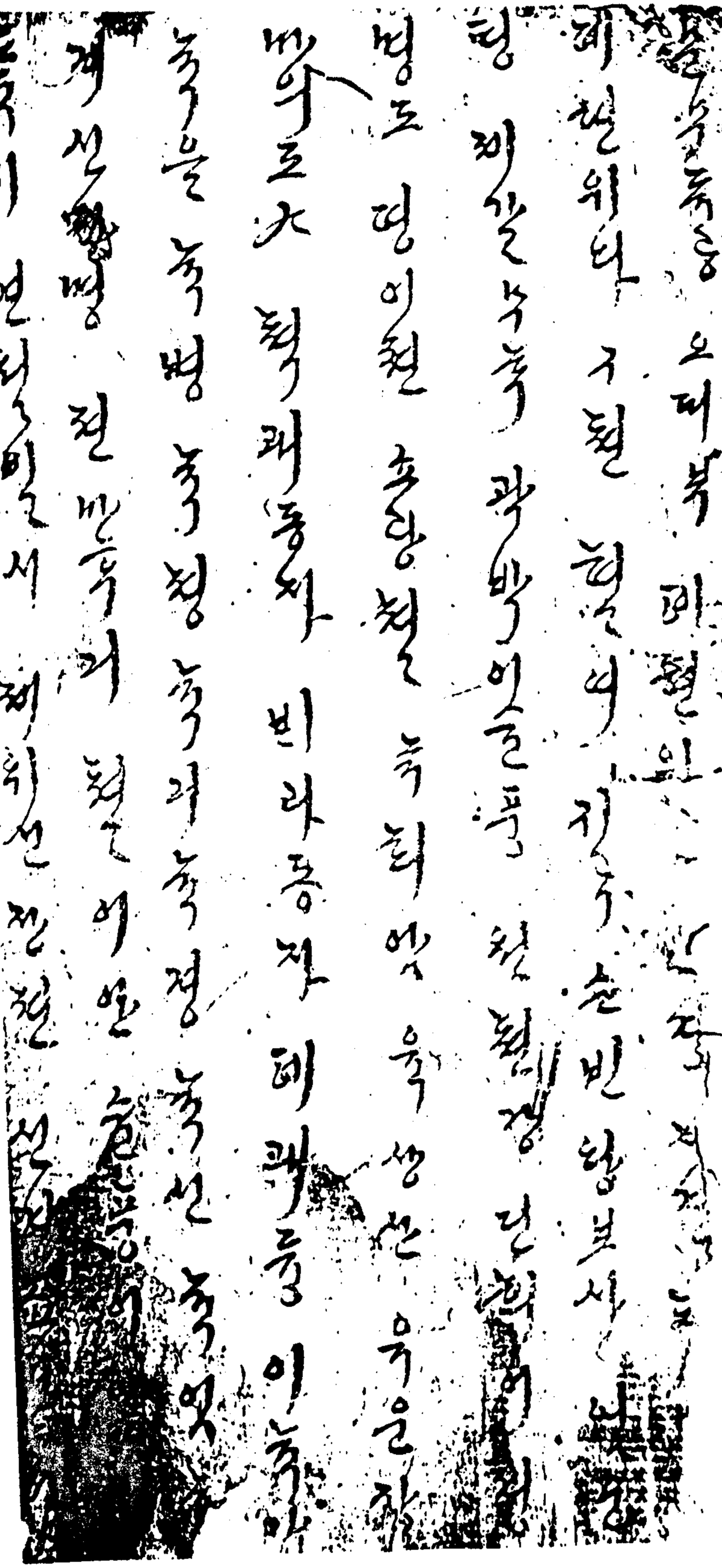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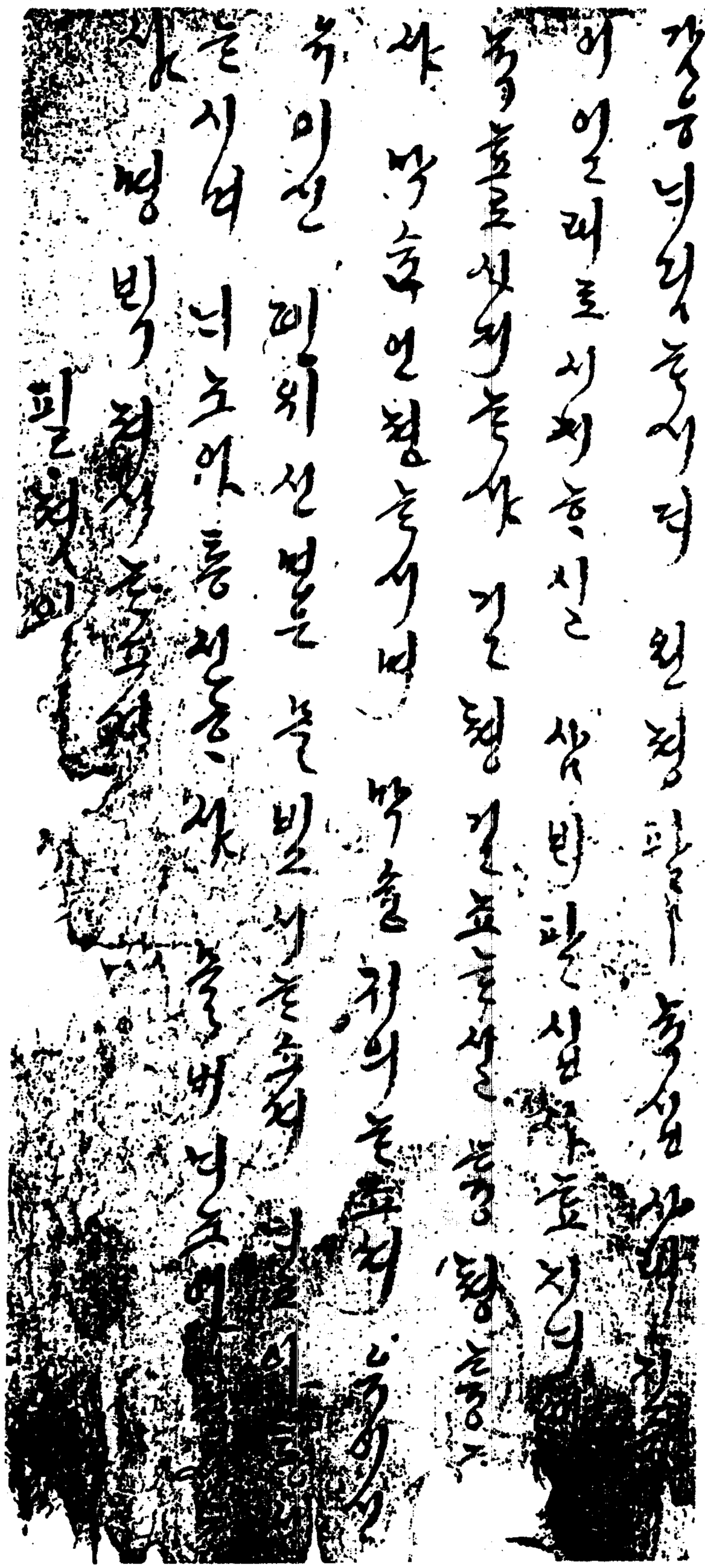












燕行錄 禮

연힝녹권
쇼양에 빗노아 옴니
운이 도로여 두려 의
혼노셔에 경쳐보
졍혼 셩을 펴노코 어
겨물곳이 시면 거쳐
로 혼는가 시부더라 시
칙을 이로 양아니 혼
간치 쥐혼나 누쳔
가 쇼치기도 유쇼블
닌조와 시보오리 쥰

ᄒᆞ던사ᄅᆞᆷ의산소와신ᄅᆞ비가연ᄒᆞ여셔고셔탐
ᄃᆞ무슈이무우고관왕묘가길가에이셔궁장ᄃᆞ너
ᄅᆞ고아ᄅᆞᆷ다온슈목ᄃᆞ국히무셩ᄒᆞ니ᄃᆞ러보라ᄒᆞ
터니이못어ᄇᆞᆫ숑장은다ᄀᆞᆯ동산에버려두어다ᄒᆞ
기아니가시나ᄀᆞᆫ지ᄇᆞ지어위ᄒᆞ기ᄂᆞᆫ무슴일이오ᄆᆡ
지ᄆᆞᆯ을지쳑에두ᄌᆡ귀치아니ᄒᆞᆫᄃᆞᆺᄌᆞᆫ어인일
인지고히ᄒᆞ더라옥젼고울셩의사쳐ᄒᆞ니오날
은팔시ᄇᆞ니ᄅᆞᆯ온지라이곳ᄌᆞᆫ에져ᄀᆞᆫ뉴줘라ᄃᆞᄒᆞ고ᄯᅩ
무즁국이라ᄃᆞᄒᆞ니쇼공셔ᄇᆞ에봉ᄒᆞᆫ비라죵시
신괴가ᄇᆞᆯ평ᄒᆞ여셩안은ᄃᆞ러가ᄇᆞ지못ᄒᆞ나

저져는 뭉은 만 못ᄒᆞ지 아니ᄒᆞ고 인믈도 번셩ᄒᆞ고 지
라 대쳐 편ᄒᆞ여 오며 보니 아국 산쳔은 도셕이 샹잡ᄒᆞ
고 산야가 ᄒᆞᆫ 동ᄒᆞ여 긔셩ᄒᆞᆫ 고 지젹기 젼다 비이 지ᄒᆞ여
인민의 셩끼가 안ᄒᆞ되 여긔ᄂᆞᆫ 그러치 아니ᄒᆞ여 뫼ᄂᆞᆫ
뫼대로 셩기고 들은 들대로 셩겨 조곰 마고 기ᄅᆞᆯ 너무 면ᄆᆞᆫ
즉 광화ᄒᆞᆫ 들이 열이ᄒᆞ여 조ᄀᆞᆫ 쳐에 젼다 비이 지쳔ᄒᆞ고 겸
ᄒᆞ여 구실이 경혈ᄒᆞ니 지비마다 가급인 쪽ᄒᆞ여 인심
이 박의ᄒᆞᆫ 일이 젹고 농ᄉᆞᄒᆞᆫ 법도 희뢰치 아니ᄒᆞ여
길가에 삼치ᄅᆞᆯ 끼고 연ᄒᆞ여 셧다 가지 [illegible] 인마가 뚱
을 누면 쇠가 ᄀᆞᆯ고 리로 셔로 다ᄉᆞ도 아지 비가 니 일언고로

입쳑ᄒᆞ우ᄉᆞ쳔여리에ᄒᆞᆫ텅이ᄎᆞ쥬ᄒᆞᆫ거ᄉᆞᆯ보지
못ᄒᆞ고나귀와우마에ᄃᆞᆯ을ᄭᅩ으러밧ᄉᆞ치텅이진ᄒᆞᆯ
을나ᄉᆞᆫ치ᄭᅩ고곡식을싱그기ᄇᆡ가고로고대가실ᄒᆞ여
무셩이ᄎᆞᆯ장ᄒᆞ니ᄭᅩᄎᆞᆯ이비가나ᄂᆞᆫ가시부더라 이
ᄉᆡᆸ이ᄅᆞ기동에발힝ᄒᆞ여황가쟝과쳐졍교ᄅᆞᆯ지
나대고ᄉᆞ쥬졈에오니부편고리에나모ᄒᆞᆫ즉가을연
이셔시니가지ᄅᆞᆯ셔거보면셩긔가발ᄂᆞᆫᄒᆞ되ᄎᆞᆫ하
간의ᄌᆞ니ᄇᆞᆺ괴ᄒᆞ나이나ᄂᆞᆫ이ᄅᆞ어ᄇᆞ다ᄒᆞ니괴히ᄒᆞᆫ일
이라이ᄅᆞ노ᄒᆞ여촌명을고ᄉᆞ쥬라지어ᄉᆞ다ᄒᆞ고ᄒᆞ옥은ᄒᆞ
되부쳐나모라ᄒᆞ더라그리로오리ᄂᆞᆫ오더니나ᄇᆞ편

으로 송가장이ᄀᆞ시니 이ᄂᆞᆫ 송과 부의 지ᄇᆞ이라 장원
이 웅위ᄒᆞ여 셩곽과 죠금ᄃᆞᆯᄆᆞᆷ이 어ᄇᆞ고ᄎᆞᆯ 비ᄒᆞᆫ 촌락
이 군현에 지ᄂᆞ아니ᄒᆞ니 호부ᄒᆞ기ᄃᆞᆼ 원에 졔일
이라 일연에 국가에 밧치ᄂᆞᆫ 부세가 쳔은 삼만파ᄅᆞᆯ
쳔냥이나 불과 병작ᄌᆞᆫ슈ᄀᆞᆫ 대 작ᄀᆞ 젼ᄒᆞᆫ 가ᄇᆞ시라
ᄒᆞ니 이것시야 진짓 부자라 ᄒᆞᆯ 너라 즉금은 과부
ᄂᆞᆫ 즉고 그아ᄃᆞᆯ이ᄀᆞ셔 진ᄉᆞᄒᆞ엿다 ᄒᆞ더라 ᄯᅩ 궤ᄌᆞ졉ᄆᆞ
을 지날셔 길우편에 바외와 돌이 겨ᄇᆞ이 싸이여
ᄉᆞᆯ 눕ᄒᆞ은 대가 되고 그우의 죠고만 졀ᄒᆞᆫ 벽기짓
고 안팟장을 둘너 싸시니 지ᄇᆞᆫ 비록 볼거시 어ᄇᆞ스나

미일보ᄂᆞᆫᄉᆞ찰이무비평지ᄅᆞᆨ니오나ᄅᆞ비로쇼산상에
잇ᄂᆞᆫ졀을보니대단치아니ᄒᆞ되도로여귀ᄒᆞ여뵈더
라봉산졈과나산졈을지나별산졈오시ᄇᆞ니ᄅᆞᆯ
오니계문연슈가예서부ᄉᆞ텨뵈ᄂᆞᆫ지라셔나ᄇᆞ편으로
멀니ᄇᆞ라보니이ᄅᆞ대장니ᄆᆞ이두ᄅᆞ너망ᄀᆞᆺ이ᄀᆞ이어ᄇᆞ
ᄂᆞᆫ대버도아니오구ᄅᆞᆷ도아니오안지도아닌거시ᄉᆞᆺ
로광야에펴이여은빗ᄀᆞᆺᄐᆞᆫ바다이미러오ᄂᆞᆫ듯거
울ᄀᆞᆺᄐᆞᆫ만ᄅᆞᆫ거운이ᄒᆞᆺᄀᆞᆺ탕ᄀᆞᆺᄒᆞ여아모란ᄌᆞᆯ모로
ᄂᆞᆫ듕차ᄇᆞ치ᄒᆞᆫᄉᆞᆫ목이며원근ᄎᆞᆫ락과왕녀인마
드리다그가온대ᄉᆞᆺ이여시니ᄉᆞᆫ목과인가ᄂᆞᆫ쳔상에

잇
난ᄃᆞᆺ ᄒᆞ고 사ᄅᆞᆷ과 거마ᄂᆞᆫ 바다에 뜬ᄃᆞᆺ ᄒᆞ여 이ᄉᆞ락
어ᄇᆞᆺ 라 저ᄀᆞ라 크라 모이라 허여 지라ᄀᆞ 형ᄂᆞᆫ 가셕
을 로 황홀 난 축ᄒᆞ니 천지도 화가 어ᄉᆞ지 ᄒᆞ여 이
러 ᄒᆞᆫ고 아마 다 천히 장관은 이여 서지 나ᄅᆞ거 시업
스리로다 반이ᄅᆞᆫ 이ᄅᆞᆫ 여ᄇᆞᆸ 희ᄭᅵ고 보고 다시 보아 도ᄀᆡ ᄀᆞᆯ
ᄒᆞᆫ 영용을 이로 거록 ᄒᆞᆫ 기ᄅᆞ 어ᄇᆞ더라 또 북을 로 파루
리ᄂᆞᆫ 되ᄂᆞᆫ 대 계 쥐 공을 이 뵈니 무지 게 ᄀᆞᆺ ᄃᆞᆫ 분 쳡이
멀니 두로 고 삽ᄇᆞ 천 ᄒᆞᆫ 누대와 박지 ᄒᆞᆫ 여ᄇᆞᆸ 이동
학을 막어 시며 안 녹 산의 거병 ᄒᆞᆫ 더 아 양 곧다
리가 이 젼은 뵈지 아니 ᄒᆞ더니 근연에 대ᄉᆞ가 가져

무ᄉᆞ치여ᄉᆞ던거시공연이내다르니죠곰도퇴뷔ᄒᆞᆫ고
지어ᄇᆞ고다리쳔면에어양교삼ᄌᆞ가두려시ᄯᅳᆼ이여ᄉᆞ다
ᄒᆞ더라계취셩안에와ᄇᆞᆯᄌᆞ라ᄒᆞᄂᆞᆫ졀이이셔ᄉᆞᆯ
취ᄒᆞᆫ부쳐ᄅᆞᆯᄒᆞᆺ니ᄇᆞᆯ더ᄇᆞ허ᄂᆞ여시니졘ᄒᆞ여오
대니터빅이라ᄒᆞ나ᄂᆞᆫ부쳐우의터빅두ᄌᆞᆯᄅᆞᆯᄎᆞᆫ
연고로ᄒᆞ옥터빅인가의시ᄇᆞᆫᄒᆞᆫ일인가시부고안산
에안록산의쇼상을ᄒᆞ여안치고쳥공머리에ᄯᅳ양
구비ᄅᆞᆯᄒᆞ여안쳐시니ᄆᆞᆯ니보기누가이다영농ᄒᆞ
니인ᄂᆞᆫ저의나ᄇᆞ더ᄅᆞᆯ위ᄒᆞᆫᄌᆞ리아니라산ᄇᆡᆨ이ᄒᆡᆼ쥬
ᄒᆞᆯ가저어이두로을마죠안쳐셔로ᄇᆞᆫ라ᄇᆞ고뫼졍신

이ᄒᆞ터지ᄀᆞ아니ᄒᆞ게ᄒᆞᆫ일이라ᄯᅩ셔편으로반산이
라도ᄒᆞ고반용산이라도ᄒᆞ고동오대라도ᄒᆞᆫ뫼이ᄀᆞ
ᄉᆞ니동셔남북ᄃᆞᆼ이뫼이제이ᄂᆞᆯ고ᄌᆞᆨ희가빅여
리ᄅᆞᆯ버러의ᄯᅳᆫ은ᄃᆞᆯ이오가온대ᄂᆞᆫ샤ᄅᆞᆫ셔가셕실과
다번셩ᄒᆞ니연경에파ᄂᆞᆫ과실이다예셔난다ᄒᆞ고
산세ᄂᆞᆫ봉만이ᄌᆞᆼᄀᆞᆼᄒᆞ며임셕이첩ᄇᆞᆫᄒᆞ여벳치
겁ᄇᆞᆨᄅᆞᆯ고뫄아럭쳔ᄌᆞ에힝궁을지어시니표요ᄒᆞᆫ
분쳡ᄇᆞ이십니에비ᄉᆞ나고힝궁뒤에빅탑이반공에
쇼사시며빅탑뒤에옹졍에ᄂᆞᆼ침이이ᄉᆞᆫ나뵈
지아니ᄒᆞ더라힝궁은졍ᄒᆞᆫ우ᄌᆞ힝이라ᄃᆞ러가

밧ᄉᆞ로제도만구경ᄒᆞ고뫼도변ᄀᆞ이보지못ᄒᆞᆫ다
ᄒᆞ더라ᄯᅩᄉᆞ쥐와져가장으로오더니오날길의나ᄀᆡ
별노만아ᄒᆞᆫ놈이슈삼십필식몰고가ᄂᆞᆫ거ᄉᆞᆯ십
여ᄎᆞᆯᄅᆞᆯ만나니어듸셔모라어듸로가ᄂᆞᆫ지심이지쳔ᄒᆞ
여뵈고뉵ᄎᆞᆨ에제일무지ᄒᆞᆫ거ᄉᆞᆫ돗치로대ᄒᆞ나이
슈빅슈식몰고연ᄒᆞ여오되각ᄀᆞ이ᄆᆞᆺ와동모ᄅᆞᆯ아ᄂᆞᆫ지
실어ᄇᆞᆫᄎᆞᆫ셔사ᄅᆞᆷ이져로쳐이무쳐에거ᄉᆞᆯ져뎨에
셕거농으면몰고가ᄂᆞᆫ놈이무ᄉᆞᆫ쇼력ᄒᆞᆫ마듸예셔로차
져제방위에드러서니이상ᄒᆞ고ᄉᆞᆫ막에들면양과
돗ᄎᆞᆯ헛간의가득이모라너로ᄇᆞᆯ과져근낭ᄀᆞᆯ로간대

ᄅᆞᆫ질너두면각ᄀᆞᆫ텍을걸고죵이ᄅᆞᆼ야라도제임ᄌᆞ
오기젼은죠금동움젹이지아니ᄒᆞ니이ᄂᆞᆫ노보면죠젼사
ᄅᆞᆷ이어ᄉᆡ지그리ᄒᆞ리오방군ᄂᆞᆫ눅시보니ᄅᆞᆫ어ᄃᆞᆸ시아니
ᄒᆞ여드니일긔온화ᄒᆞ여봄긋고이곳도졍은비록
약간퇴뷔ᄒᆞ여시나분을세ᄅᆞᆫ드러오내ᄂᆞᆨ니나져져
ᄉᆞ아로오니신ᄂᆞᆫᄒᆞᆫ금이머리에진쥬와금옥을더복
불꾸ᄆᆞ이고놀내며쥬ᄇᆞᆫ쥬어힝인을우시고ᄌᆞᆫ을달
나ᄒᆞ니가무가타고히ᄒᆞ여아국건냥죠만도못ᄒᆞ
더라오날바ᄇᆞᆫ은그리기보지아니ᄒᆞᆫ가ᄒᆞ여터나ᄯᅩ졈
끼가난창ᄒᆞ니거마지셩이죵야부졀ᄒᆞᆫᄂᆞᆫ고로ᄀᆞᆯ로

일이 일즉 우ᄂᆞᆫ가 ᄒᆞ며 인ᄒᆞ여 자ᄆᆞᆷ이 드러 자ᄆᆞᆷ간가
뫼로 못ᄉᆞᆼ고 젼ᄂᆞᆫ ᄒᆞ여 안ᄉᆞ라 누우라 ᄒᆞ더니 샹방
의셔 벌셔 떠나ᄂᆞᆫ지라 미ᄌᆞᆺ 장쇽ᄒᆞ고 사ᄆᆞᆷ 취ᄅᆞᆯ기
ᄃᆞ리며 이ᄇᆞ쳑 후 일삭이 되나 한어ᄅᆞᆯ 죵시 못ᄒᆞ니다
만ᄀᆡ에 익은 것ᄉᆞᆫ 끼셴 의ᄉᆞ리로다 이 시ᄇᆞ 일 빅간졈
시ᄇᆞ여리ᄅᆞᆯ 오니 향화 암이라 ᄒᆞᄂᆞᆫ 졀이 극ᄒᆞᆫ 대찰이
오녀승이 직힌다 ᄒᆞ기 일마 장을 도라 드러가니 셔 장
라 이 몬져 와ᄉᆞᆫ지라 쳐ᄉᆞ문 안의ᄂᆞᆫ 칼ᄃᆞᆫ 귀신ᄒᆞᆫ 쌍
라 능장ᄃᆞᆫ 귀신ᄒᆞᆫ 쌍이 동셔ᄅᆞᆯ 분ᄒᆞ여 셔로 대ᄒᆞ여
셔고 ᄃᆞᆯ겨 문의 ᄯᅳ니 희황ᄒᆞᆫ 쳐 각에 장대ᄒᆞᆫ 부쳐

세을금연화숑이우희안치고아ᄇᆞ희저근부쳐슈십
여ᄅᆞᆯ버려세우고셋ᄉᆞ져지ᄇᆞ의ᄂᆞᆫ금ᄌᆞ로항니ᄇᆞᆷ벼ᄇᆞᆷ끼라강
희어필노ᄭᅥ시니이ᄂᆞᆫ가ᄒᆞ희고모가예서승이된고로황
제친필노현판ᄒᆞ고져ᄒᆞᆫ쥬에ᄂᆞᆫ적면비가구을지ᄉᆞ고옥ᄌᆞᆯ
노ᄉᆞ면에울용을사기고황퇴우거동ᄒᆞ여이졀ᄌᆞᆼᄉᆞ
ᄒᆞᆫ마ᄅᆞᆯ을긔록ᄒᆞ여ᄉᆞ고네ᄭᅥ지ᄇᆞ의도금부ᄅᆞᆯ을놉히안치
고좌우에ᄯᅩ대ᄉᆞᆫ부쳐가잇고ᄃᆞᆼ계아려슈십장되ᄂᆞᆫ빅
송이셔시니윤텩ᄒᆞᆫ껍질이눈빗ᄀᆞᆺ고니ᄇᆞᆯ픈잣니ᄇᆞᆺ
고가지ᄂᆞᆫ버들ᄀᆞᆺ기보기의거ᄃᆞᆨᄒᆞ여숑ᄌᆞᄅᆞᆯ구ᄒᆞ니십
여기ᄌᆞ나ᄀᆞ지져근잣만ᄒᆞ고젼ᄒᆞ우ᄉᆞ힝에어더

다가싱거도나지아니ᄒᆞᆫ다ᄒᆞ더라다셧겨집의
도부쳐ᄅᆞᆯ위ᄒᆞ고동셔낭각에두어ᄂᆞᆺ소년녀ᄉᆞᆼ이ᄀᆞᆺ
니나은블과이팔쳥츈이라얼굴이단묘ᄒᆞ여쳐
음의볼젹은밋쳐복셕이뵈디아니ᄒᆞ더라
져의침방을보니극히뎡쇄ᄒᆞ고옥셕문의ᄉᆞᆼ오
동화초ᄅᆞᆯ십ᄀᆞ고셕탄에ᄎᆞᄅᆞᆯ다려은근이권
ᄒᆞ여ᄌᆞᆫ인의도ᄅᆞᆯ차리ᄂᆞᆫ듯ᄒᆞ더라ᄃᆞᆫ아릭
오층의쳥동화로ᄅᆞᆯ노아시니놉희한길이넘고
ᄀᆞ뗭잉ᄌᆞᆫ뎨ᄯᆡᆫ글ᄅᆞᆯ다사져ᄀᆞ더라여ᄉᆞᆺ져집의두층
을지어시나하층동편방의ᄒᆞᆼ젼을갈고각

셕화긔며긔고한즈브믈을뵈리고셔편방의ᄂᆞᆫ무
어시잇ᄂᆞᆫ지구디닷고동시아니여니볼길어ᄂᆞ스며
ᄯᅩ십ᄇᆞ여층운졔로누샹에올나가니동셔나ᄇᆞᆯ부으
로보샬을안쳐시니사ᄅᆞᆷ만ᄒᆞᆫᄇᆞ쳐도이고ᄎᆞᆫ져급붓
두리ᄇᆞ만ᄒᆞᆫ부쳐도이셔긔ᄂᆞ가사ᄅᆞᆯ뻬여시니하ᄇᆞᆼ여
부지기슈러라동편월광밧긔ᄂᆞᆫ담ᄇᆞᆼ을싸고담안
의슈십ᄇᆞ장셕타ᄇᆞ이버러서시니가온ᄯᅢ비ᄂᆞᆫ직ᄆᆞᆯ도ᄒᆞ
고양편ᄅᆞᆯ은즉ᄋᆞ근타ᄇᆞ이오타ᄇᆞ아ᄇᆞ희빅숭즉어쥬
와촉빅오ᄎᆞ가ᄂᆞ지ᄅᆞᆯ연ᄒᆞ여셔소셔편은젼ᄂᆞᆺ
에힝웅이ᄂᆞ스되장고여지안니ᄒᆞ려라일식정을ᄃᆞᆯ

너보더니 히웅직 흰관원이웃옷식 사져글인흥
비로달고마을라이에슈졍지웃을붓치고드러와블
젼아보희셔곡고두ᄒᆞ건ᄂᆞᆯ직투ᄆᆞᆷ을무르니구푸ᄆᆞᆷ관이러
ᄒᆞ더라인ᄒᆞ여마ᄅᆞᆯ타고공나졈과단가령을오니져
져지난ᄂᆞᆫ동안이칠팔ᄇᆡ나ᄒᆞ고졈ᄒᆞ여쟝날을당ᄒᆞ
온갓무화와러ᄂᆞᆫ음식이길을덥ᄇᆡ더라셕비로지
나호타하ᄅᆞᆯ오니반은어ᄅᆞᆯ고가온대ᄂᆞᆫ터져드리로건너나
물이가장기ᄇᆞ우니이드리ᄂᆞᆫ한광무ᄒᆞᆫ단복ᄌᆞ왕낭
의게쑥기여어르ᄆᆞᆷ으로건너가던물이라삼하혀ᄂᆞᆫ
울을지나니졍쳡이완비ᄒᆞ고거지도온자ᄒᆞᆫ고지

라죠리ᄆᆞᆫ 십ᄂᆞᆨ니ᄅᆞᆯ와 죠반ᄒᆞ고 빅복도와 신졈과
황친장을 지나 하셕 개동문으로 나오니 게도번쳥
ᄒᆞᆫ고지오하졈과 유하둔과 마이피ᄇᆞᆼ을 지나 연교포에
황ᄒᆞᆫ에 드니 단쳥ᄒᆞᆫ져 방이 ᄯᅥ 찬란ᄒᆞᆫ가ᄀᆞᆺ드리
가ᄅᆞᆺ록 번화ᄒᆞ기 일을 거ᄉᆞ어ᄇᆞ더라 오나ᄅᆞ이 야약
ᄌᆡᄅᆞᆯ보니 크기ᄂᆞᆫ 악국 항쇼ᄃᆞᆯ 만ᄂᆞᆼ고 양의 머리와
게우목아지와 쇠발이오 교리ᄂᆞᆫ 불과ᄒᆞᆫ 뼘ᄋᆞᆫᄒᆞ고
ᄂᆞᆸ희ᄂᆞᆫ 길반은ᄒᆞ고 길의ᄂᆞᆫ 발가옷ᄉᆞᆫᄒᆞᆫ 대ᄃᆞᆼ의 길
마ᄭᅡ지가 쳔셩으로 셩겨시니 지ᄇᆞᆼ을 시ᄅᆞᆯ 제ᄯᅥ 져
싯고 제어ᄇᆞᆫ드여 지ᄇᆞ이 무거워야 일어난다ᄒᆞ니

부리기가 장죠은나 먹기로 무슈이 흐고 바로이 물
너 단ᄂᆞᆫ 흔따의ᄂᆞᆫ 것지 못ᄒᆞ니 아국에 갓다ᄂᆞᆫ 쓸ᄯᅢ업
더라 이 시ᄇᆞ이 일계명에 발힝ᄒᆞ여 이 시ᄇᆞ니로 오니
평명이 되ᄂᆞᆫ지라 비로쇼동쥐가 좌편으로 삼ᄇᆞ니ᄂᆞᆫ 것ᄉᆞᆼ
이 뵈ᄂᆞᆫ지라 경영ᄒᆞᆫ치 쳐ᄇᆞ과 부유ᄒᆞᆫ가ᄉᆞ드리 시ᄇᆞ니로
버러익고 츈하 간은ᄉᆞ방에 샹곤ᄃᆞ리 슈로ᄂᆞ모이여 쳔
만이나 ᄒᆞᆫ돗ᄯᅢ드리 셩하의 마이여 그림겨 만목이 삼
니ᄇᆞᆫ듯ᄒᆞ니가 장장관이라 ᄒᆞ터니 즉금은 강이
이러 힝녀가 업ᄂᆞᆫ고로 곳ᄇᆡ ᄉᆞ오십ᄇᆞ쳐이 강변에 걸여
더라 등쥐 셩외에 삼십ᄇᆞ간무지 게다리가 이시니 좌

우에옥셕을도다난간을ᄒᆞ고기동마다운룡을사기
고쪼사겨ᄅᆞᆯ안쳐셔로대ᄒᆞ게ᄒᆞ여시니거교ᄒᆞᆫ겨죠
ᄂᆞᆫ고ᄉᆞᄒᆞ고공녀이쳑지아니ᄉᆞᄒᆞ더라예셔황셩죠
양문이ᄉᆞ시ᄇᆞ니되ᄂᆞᆫ대연ᄒᆞ여졍노에박셕을ᄭᅡ라
시니너뷔ᄉᆞ간은되고돌은다ᄉᆞᆨ셕을로세니ᄇᆞ식ᄒᆞᆨ
네니ᄇᆞ식ᄒᆞᆫ곳ᄃᆞᆷ어ᄇᆞ시방졍이노코양편에귀ᄃᆞᆯ을물
ᄇᆞ두어니ᄇᆞ시ᄉᆞ이두어쳘졍을거려시니비록만연
인ᄃᆞᆯᄒᆞᆫ니ᄇᆞ히어ᄉᆞ지요동ᄒᆞ리오겨력을ᄃᆞ려이리
ᄒᆞ기ᄂᆞᆫ쳔ᄉᆞ의ᄂᆞᆼ칩이계쥐만니이ᄉᆞ기거동을위ᄒᆞ
여ᄒᆞ여ᄉᆞ다도ᄒᆞ고ᄒᆞ옥온길이시ᄇᆞ이ᄌᆞᆯ겨옹졍즉위

ᄒᆞᆫᄒᆞᆫ셔로ᄭᅡᆯ어ᄉᆞ다ᄒᆞ나 황셩부ᄉᆞ터ᄉᆞ면ᄉᆞ 집ᄇᆡ
ᄅᆞᆯ이다ᄀᆞᆺ게ᄒᆞ여ᄉᆞ다ᄒᆞ니이ᄂᆞᆫ분명쳔하에거구ᄅᆞᆯ
뵈ᄂᆞᆫ일이라위선보기도조커니와구십ᄒᆞᆫ모ᄌᆞᆫ뜨ᄌᆞᆯ뻐
셔붓터덜ᄒᆞᆫ거시니다힝ᄒᆞ더라동쥐ᄅᆞᆯ지나
ᄡᅳᆯ니교와관가장과삼간방을지나대왕장을와
죠반ᄒᆞ니지나ᄂᆞᆫ기ᄅᆞ좌우에ᄇᆡ들과ᄂᆞᆯᄆᆞᆷ을셔귀여싱
ᄀᆞ오황죡과경샹의뫼가셔로연ᄒᆞ여뷘고지어ᄇᆞᆺ니
ᄂᆡ다이지리가표와그러ᄒᆞᆫ가경셩이ᄀᆞᆺ가옴을ᄎᆡ
ᄒᆞᆫ이ᄅᆞ인가모ᄅᆞᆯ너라분형은장독아ᄇᆞ허농은것ᄉᆞᆺ로
니호지에사초가어ᄇᆞᆫ고로셕회로바로고그ᄅᆞᆼ거구

더ᄒᆞᆫ지ᄇᆞᆼ은벽도ᄅᆞᆯ노가ᄀᆞ셕ᄇᆞᆯ형을사겨여러총을로
무을고무텀우만회치ᄅᆞᆯᄒᆞ여시니쳐음의보ᄂᆞᆫ사ᄅᆞᆷ이
어ᄉᆞ지무더ᄇᆞ이ᄂᆞᆺᄀᆞᆯ아ᄅᆞ니요치산ᄒᆞᆫ버ᄇᆞᆼ은보니벼ᄅᆞ노제절
이어ᄇᆞ고다만뎡노에박셕을ᄭᅡᄅᆞ고ᄉᆞᆫ면에곡장ᄅᆞᆯ아
로샤겨ᄭᅡ고부ᄅᆞᆯ근문과희비가서로비ᄉᆞ치여영농ᄒᆞᆫ
중다ᄇᆞ아ᄂᆞᆫ의가ᄀᆞᆫ뎨쳥이며묘직의지ᄇᆞᆼ을지어살게
ᄒᆞ고답밧ᄀᆞ뇌ᄂᆞᆫ무디게다리ᄅᆞᆯ도ᄅᆞᆯ노ᄀᆞ고ᄒᆞᆼ게난간을
삽이고비각은옥황기아로이인지ᄇᆞ도이시니이ᄂᆞᆫ여
필노쓴비라ᄒᆞ더라평디에서도거쳘ᄎᆞᆫ로리극히
요란ᄒᆞ던거시박셕으로오니쇠박퀴ᄃᆞᆯ의부ᄃᆡ

이ᄉᆞᄂᆞᆫ ᄃᆞᆺ소리 억만 명 쳘 긔가 모ᄅᆞᆯ 오ᄂᆞᆫᄃᆞᆺᄉᆞᆼ으며 일변 쳔
니 뒤 누ᄇᆞᆫᄃᆞᆺᄉᆞᆼ여 쳥신이 살난ᄒᆞ고 안목이 번요ᄒᆞ여
젼ᄃᆡ기 어렵더라 이 쳐로 연ᄒᆞ여 니 시ᄇᆞᆫ니 ᄅᆞᆯ오니 길
북편의 동악묘라 ᄒᆞᄂᆞᆫ 졀이ᄀᆞ셔 쳔하에 데일 크고 ᄒᆞᆫ
려ᄒᆞᆫ지라 동구젼 후좌우의 금쳐 산난만 ᄒᆞᆫ 피루
ᄂᆞᆯ 딧고 한 쌍화묘듀에 빅 쳘 두 거ᄇᆞᆯ을 쓰여 세워시
니 몸 퓌ᄂᆞᆫ 한아름은 ᄒᆞ고 장은 수십 길이나 ᄒᆞ니 듀
ᄒᆞᆼ 칠 빗치 극히 영농ᄒᆞ여 사ᄅᆞᆷ의 얼골이 비ᄉᆞ
쳐더라 밧긔셔 하마ᄒᆞ고 첫ᄃᆡ 문으로 드러졍젼이
라 ᄒᆞᄂᆞᆫ고 즐향ᄒᆞ니 곡장 방동ᄒᆞ여 몃문인 줄

모로고듕ᄂᆞᆫ쳐ᄇᆞᆫ ᄒᆞ여 어ᄂᆞᆫ의 집이어 뒨지ᄀᆞᆫ 항을 못
ᄒᆞ되다만 부로근 치ᄅᆞ과 금쳐가 휘황찬란ᄒᆞ여 안목
이 현황ᄒᆞ고 빅셕셤돌이 떠오셕기야ᄂᆞᆫ지ᄇᆞ마다
표요ᄒᆞ여 영농ᄒᆞᆫ 빗치 도쳐 엉긔여ᄉᆞᆫ 대거려 ᄒᆞᆫ 뎡젼
이 뗘 십 업ᄒᆞᆫ 제도을 모차ᄒᆞ여 형용ᄒᆞᆯ 길어ᄇᆞ고 무
슈ᄒᆞᆫ 문과 무슈ᄒᆞᆫ ᄂᆞᆫ 들지나 제일 중누샹에 올나
가니 옥황샹제 ᄉᆞ샹을 뵈셔시니 금사포에 떤 뉴관
을 ᄉᆞᆺ고 쳥옥ᄒᆞᆯ의 부두와 칠셩은 진쥬로 바아쥐
고 단 업이 안져시며 제이젼에 동악대제ᄀᆞᆫ 안치고
문우의 대죵신ᄉᆞ라 쳐시니 황ᄀᆞᆫ ᄒᆞᆫ 면복과 슉ᄀᆞ

ᄒᆞᆫ위의제신을ᄂᆞᆼ이진아브ᄒᆞᆯᄃᆞᆺᄒᆞ고두ᄌᆞᆯ놈ᄆᆞᆫ
무관원을ᄆᆡᆼ그러차례로ᄆᆡ서시니무관은우편에다병
거ᄅᆞᆯᄃᆞᆯ고얼굴과모양이다웅장ᄒᆞ게ᄒᆞ고문관은
차편에서시니그ᄂᆞᆫᄒᆞᆫ관과ᄂᆞᆫ쪽에형용이기ᄉᆞ슈려ᄒᆞ
고차타브아브희철마ᄋᆞᆯ로얼굴금등잔이ᄉᆞ시니크기
ᄌᆞ어아ᄅᆞᆫ이나되고셔ᄋᆞ칠셔너발을달아셔발심지
에플은블이명ᄉᆞᄒᆞ여희묘까지써지ᄉᆞ아니ᄒᆞᆫ다ᄒᆞ
며차타브우희옥셔대단으로여려줄ᄂᆞᆫ기ᄉᆞᆯᄅᆞᆫ
ᄒᆞ여가득히드리오고ᄭᆞᆺ마다금방울일ᄂᆡ식다라브
라ᄆᆞ에ᄒᆞᆫ들여말근ᄉᆞ리공ᄋᆞᆯ경에나며오동과금옥황

노에 침향을 퓌여 시니 이 화로는 대명 황제장
만ᄒᆞᆫ거ᄉᆞ시라 ᄒᆞ고 제 삼젼에는 삼위낭ᄀᆞ의 쇼샹을
안쳐 시니 누고ᄅᆞᆯ 위ᄒᆞᆫ거 신지 모로되 구슬관이며
빗난 의샹이 찬란ᄒᆞ고 죄우에 시립ᄒᆞᆫ 시녀들도
당웅장셩복을 ᄒᆞ여ᄉᆞ고 제ᄉᆞ젼에 위ᄒᆞᆫ 제신도 ᄯᅩ언
장녀ᄒᆞ고 좌우 익낭과 젼면 낭각이 하ᄇᆞᄒᆞ여 일
뷕 파ᄅᆞ시ᄇᆞ가 이니 간마다 귀왕이나 졸을 건리 곤한
져 각ᄀᆞᆫ 쇼임을 독ᄎᆞᆫᄒᆞᆫ 거동을 ᄒᆞ여 시니 진소위 뵉퇴
쳔샹이오 거형 괴샹이라 온가ᄉᆞ거동과 아니 ᄒᆞᆫ 형
벌이 어ᄇᆞᆺ니 이셩에 덕을 닥으면 져앙으로 보내

고거동이며져악ᄒᆞᆫ사ᄅᆞᆷ은지옥을도도보내고ᄒᆞ옥
사ᄅᆞᆷ도화셩ᄒᆞ며즘셩도되게ᄒᆞᄂᆞᆫ거ᄉᆞ과목도버이고
ᄂᆞᆼ지도ᄒᆞ며이ᄅᆞᆯ변겨ᄅᆞᆯ바도ᄒᆞ여잡아오며기ᄅᆞᆷ가마에
삼ᄂᆞᆫᄌᆞᆺ도ᄒᆞ니ᄋᆞᆷ참ᄒᆞᆫ거운과츄ᄀᆞᆺᄒᆞᆫ쇼력가나ᄂᆞᆫ듯
ᄒᆞ고제오젼의ᄂᆞᆫ네기ᄅᆞᆯ은ᄒᆞᆫ금부ᄅᆞᆯ을안치고쳔만이나
넘은동ᄌᆞ부쳐ᄅᆞᆯ동셔나ᄇᆞ부과좌우젼ᄒᆞ우아니안
친고지어ᄇᆞ쳐들보며드리혀ᄭᅡ러ᄅᆞᆷ마다뷘고지엄
게ᄒᆞ고제ᄂᆞᆨ쳔에도대쇼금부ᄅᆞᆯ이오ᄯᅳᆯ의ᄂᆞᆫ뵉여좌
오셕비가셔시니다부ᄉᆞ쳐ᄅᆞᆫ숑뎍ᄒᆞᆫ거시오ᄯᅩ황
제ᄀᆞᆯ시로비가ᄋᆞᆯ황와로이ᄋᆞᆫ시니이ᄂᆞᆫ원ᄂᆞ라젹

세우거시오옹졍ᄯᅢ에ᄯᅩᄉᆞᆫ만금을내여ᄌᆞᆼᄉᆞᆫ고
로단쳥이오히려신ᄀᆞᆫ ᄒᆞ고졍젼압희화표ᄌᆞᆫ
ᄯᅡᆼ이ᄯᅩ서시니눈의다다ᄉᆞᆫ거시다황홀ᄒᆞ니ᄉᆞᆫ
쳔간되ᄂᆞᆫ지ᄇᆞᆫ을나ᄅᆞ포보아도ᄌᆞ세치못ᄒᆞ려던허불
며이ᄅᆞ시지나가며ᄌᆞᆫ마간산으로초ᄀᆞ이보고엇지만
분에이ᄅᆞᆼ을방부ᄅᆞᆯ이거록ᄒᆞ리오ᄉᆞ힝이본대여거
셔리복ᄒᆞ고문을드니구ᄉᆞ보라온저ᄉᆞ드리안팟마
당과기ᄅᆞ의미만ᄒᆞ여이ᄇᆞ의로단니기어ᄇᆞ려보고겸
ᄒᆞ여도젹지ᄅᆞᆫ을이ᄅᆞᄉᆞᆫ ᄑᆞᆫᄒᆞ기눈을죠금파ᄅᆞ면
몸의진이거시라도신동이발나가ᄂᆞᆫ지라삼

방사ᄅᆞᆷ의도ᄂᆞᆫ피휘황과부방가ᄇᆞ대와힝ᄌᆞᆼ
쇽ᄆᆞᆯ거ᄂᆞᆫ을무슈이일어버리니라졀문을나죠
양문을항ᄋᆞᆺ더니ᄒᆞᆫ져샹지ᄇᆞ부인의힝샹이지나
건ᄂᆞᆯ말혁을거스리고짬간ᄀᆞᆫ정ᄒᆞ니명졍이라ᄒᆞᆫ거
사ᄂᆞᆫ니ᄂᆞᆼ바ᄉᆞ탕에남대단발ᄅᆞᆼ들라고시ᄇᆞ여장죈ᄂᆞᆫ부ᄅᆞᆯ군
기동에ᄯᅡᆼ공을그리고오시ᄇᆞ여인이우ᄆᆞᆯ짜머여시되명졍
에글ᄌᆞᄒᆞᆫᄉᆞᄅᆞᆫ일어ᄇᆞ고ᄒᆞᆼ양산이ᄭᅡ쌍이오파초션이네쌍
이오공그린ᄇᆞᆯ굴ᄀᆞᆫ대에비라거가시ᄇᆞ이쌍이요뷘치평ᄒᆞᆺ가
ᄒᆞᆫ나이오금안지은빅마가네쌍이오ᄌᆞ장이다셧쌍이라
차례로버려ᄭᅵ우고샹여ᄂᆞᆫᄉᆞᆨᄂᆞᆫ은비라ᄒᆞᆯ로셕이고ᄇᆞᆯ군장샹

들에쥬황ᄉᆞ로쥬ᄅᆞᆯ드려빅여인이가ᄂᆞᆫ이드려서두
어자식ᄒᆞᆫ나ᄋᆞᆼ거쥬ᄅᆞᆼ을거려마조머여시니샹여도졀
대ᄒᆞ여ᄉᆞ면간반식이나죄고상인은흰옷니브고뒤에거러
가고녀샹인들은흰슉건을머리ᄅᆞᆯ동여시나각식빈여
와가화ᄅᆞᆯ난만이꼿고얼ᄀᆞᆯ에셩젹ᄒᆞ고치평ᄎᆞ속의안
죄다ᄆᆞ비ᄯᅢ비ᄉᆞᄆᆞᆯ고따라가니이끽리대단치못ᄒᆞᆫ힝샹이
다ᄒᆞ죄이려ᄒᆞ더라사ᄆᆞᆺ신이다쌍교ᄂᆞᆫ옥하관으
로보내고마쟝으로동셔반을차려표ᄌᆞ문을뫼시고
죠양문을들셔대동관이원과쇼동관ᄉᆞ원이
젼도ᄒᆞ여가ᄂᆞᆫ지라이문은황셩의셩동문이니

삼ᄇᆞᆼ문누가운쇼에디을ᄃᆞᆺᄒᆞ고셩쳡이극히최
외ᄒᆞ여터산을대ᄒᆞᆫᄃᆞᆺᄒᆞ며졍너뷔널너문턱을
들제비일이ᄀᆞ연어두운ᄃᆞᆺ젼마ᄅᆞᆫ모라가도이우
이지나가니은연이기ᄇᆞᆫᄒᆞᆫ굴노드러가ᄂᆞᆫᄃᆞᆺᄒᆞ고광활
ᄒᆞᆫ대로에사ᄅᆞᆷ의어긔쇠로와ᄯᅡ가ᄅᆞ니이고거쳡이
부ᄃᆡ져용나ᄇᆞ지못ᄒᆞ며우양과나타지쇽이간ᄀᆞ
이셕기여도로에분운ᄒᆞᆫ오셕시ᄀᆞ와ᄉᆞᆫ콤을도단
쳥ᄒᆞᆫ지ᄇᆞ드리며져ᄂᆞᆫ우에보지못ᄒᆞ더ᄂᆞᆫᄌᆞᆷ부ᄅᆞᆯ과비ᄉᆞᆫ
됴피ᄂᆞᆫ원근을연ᄒᆞ여삼ᄇᆞᆫ이세워시니ᄂᆞᆫ이어리고
졍신이어두어도로여일장ᄎᆞᆫ동을ᄉᆞᆺᄃᆞᆺᄒᆞ여

황홀난측ᄒᆞ더라대쾌ᄒᆞᆫ번삽강
이쳔칠빅니에무슨거시보음죽지아
은뇨동팔빅니에ᄒᆞᆯ연ᄒᆞᆫ화표쥬와게
산ᄒᆡ란만니쟝셩과동악묘와황셩
에분명쟝관이오ᄯᅩ늉복ᄉᆞ와뎡양문
과원명원능희와셔산도저륵다ᄒᆞ고
나와셰상사ᄅᆞᆷ드리됴은풍경을보고못보
와견ᄒᆞ면ᄀᆞ연과ᄒᆞᆫ말이이만코말이여
럼이오그림이여서ᄌᆞ셰ᄒᆞᆫ거ᄉᆞᆯ이로
풍경은소진의구변으로도라쳔ᄒᆞ을기

ᄌᆞ에 허탄으로도 일로 포장ᄒᆞ을 기ᄅᆞ어 ᄇᆞᆺ슬 거시오오
도ᄌᆞ의 명화로도 칠ᄇᆞᆫ 분을 글이ᄅᆞ 기ᄅᆞ어 ᄇᆞ고 퇴지의 문
장을 도반분을 협용ᄒᆞ여 거록지 못ᄒᆞᆫ 거시니
허믈 며 총ᄎᆞ이 지나가ᄂᆞᆫ 져 근눈으로 만ᄇᆞᆫ 문의 일을
엇지 가ᄆᆞ이 모방ᄒᆞ리오 만은 참아 그져 잇지 못ᄒᆞ여
연ᄒᆞ여 또 거록ᄒᆞ며 문ᄃᆞ러 사ᄇᆞ니ᄂᆞᆫ 가시ᄇᆞᆫ 가피
루ᄅᆞᆯ 지나니 제 이ᄅᆞ 문의ᄂᆞᆫ 니 인이라 두ᄌᆞᄅᆞᄅᆞᆯ 쓰고 제
이 문의ᄂᆞᆫ 힝인ᄃᆞ 두ᄌᆞᄅᆞᄅᆞᆯ 쓰고 동나ᄇᆞᆫ 문은 ᄒᆞᆼ 문이라
ᄒᆞ고 청썩 난간ᄒᆞᆫ 다ᄅᆞᆫ 이ᄅᆞᆯ 건 넘장 안 사라ᄒᆞ
ᄂᆞᆫ 문을 또ᄃᆞ러 황국 젼의 궁장 밧그로 지나니 열

기ᄅᆞᆫ은ᄒᆞᆫ다ᄇᆞᆼ을ᄇᆡᄅᆞ피ᄀᆞᆺ치ᄊᆡ고상ᄎᆞᆼ의ᄂᆞᆫ초ᄅᆞᆯ뿍
ᄌᆞᆯ뇨ᄒᆞᆫ께ᄅᆞᆯ올여화ᄋᆞ기야로이ᄅᆞ고안파ᄉᆞᆯ다다ᄋᆞᄌᆞ
ᄒᆞᆼ질ᄋᆞᆯᄒᆞ여시니일언ᄀᆡ구와일언ᄒᆞᆯ난ᄒᆞᆫ다ᄇᆞ이
ᄭᅦ샹에어티이시며ᄭᅢ켤ᄌᆞᆨ회ᄂᆞᆫ언마가죄ᄂᆞᆫ지아지모
로죄이다ᄇᆞ안의ᄯᅩ이와ᄀᆞᆺ든다ᄇᆞ이잇고그안의치쳐ᄇᆞᄒᆞᆫ
셩을ᄭᅡᆺ다ᄒᆞ더라ᄇᆞ로ᄆᆡ부로가제이문바ᄉᆡ기하마
ᄒᆞ여좌허ᄇᆞ문으로드러셔반쳥에안고통과ᄒᆞᆯ뎨
부당상의ᄭᅦ통ᄒᆞ니이윽ᄒᆞ여ᄆᆡ부시랑쳘명이
가대켤노셔교ᄌᆞᄅᆞᆯ타고졍문으로드러오ᄅᆞ셔젼비ᄒᆞᆫ
나이ᄇᆡᆨ마에한도ᄅᆞᆯ차고문안의셔배로쇼하

가ᄒᆞ인십여인ᄎᆞᆫ죵이젼도ᄒᆞᄂᆞᆫ쇼려구히웅장
ᄒᆞ더미ᄇᆞ로벽대쳥에ᄂᆞᆫ려인ᄒᆞ여뒹으로드려간
ᄒᆞ우대쳥가온대황대단보ᄅᆞᆯ상탁에피고쇼ᄎᆞ
문궤ᄅᆞᆯ차례로고ᄌᆞᆫᄒᆞᆫᄒᆞᆫᄒᆞᆫ동관더려시랑을쳥
ᄒᆞ라ᄒᆞ니답왈너의대인이몬져나오지엇지우
리대인이몬져나오리오ᄒᆞ기마지못ᄒᆞ여삼ᄇᆞᆫ신
이대쳥에올나와탁ᄌᆞ압희셔고시랑을쳥ᄒᆞ
니즉시쳔도쇼력나뗘벼ᄀᆞ뒤의로셔나와샹탁
머리에동향ᄒᆞ여션ᄒᆞ우슈여이ᄌᆞ문을차례로샹
의올여뫼시고ᄌᆞ신이삼ᄇᆞᆫ빅구고두ᄒᆞᆫᄒᆞ우시랑과

셔로샹응ᄒᆞ고비로쇼인ᄂᆞᆫ ᄒᆞ니시랑은아국차ᄇᆞᆫ
과ᄀᆞᆺᄐᆞᆫ지라의복을보니쇼위죠복이라ᄒᆞᆫᄂᆞᆫ거ᄉᆡ
겁부ᄅᆞᆫ근텨ᄅᆞᆫ을거ᄉᆞᆺᄎᆞ로내여기ᄅᆞ의발동이더ᄇᆞ피게
두로마기ᄒᆞ여이ᄇᆞ고우의죠금져ᄅᆞ게ᄒᆞ여여이ᄇᆞ고
동셕텨ᄅᆞ노머리쳔의ᄀᆞᆺ치밍그러목에걸고빅
팔엽ᄌᆞ르ᄅᆞ메고엽ᄌᆞᆺᄂᆞᆫ이에오셕구ᄉᆞᆯᄂᆞᆫ노역거ᄉᆞᆫ
을ᄒᆞ여밀와금피지속을금을로꼼여ᄀᆞ러ᄌᆞᆯ을
달고쳥옥에그리ᄆᆞ려셕시ᄅᆞ의ᄎᆞᆼᄀᆞ이케여머리와
ᄀᆞᆺ치뒤으로드리오고ᄆᆞ우라이우의블근시ᄅᆞ노송낙
ᄀᆞᆺ치역머쓰고ᄉᆞᆫ금징ᄂᆞᆫᄅᆞᆫ삼ᄎᆞᆼ지게ᄒᆞ여산

호마지와 ᄒᆞᆫ가지로 꼿고 어로굴은 셩긴거시젼
여흐려뵈고 겸ᄒᆞ여 ᄒᆞᆯ게 눈이니 대단치 아니ᄒᆞ
며 비록 쳥ᄉᆞ이 셩겨시나 종두지 쥭이다 터럭이니
엇지 눈셔지 아니ᄒᆞ리오 대쳥은 극히 놉고 북편은
벽에 오셕진 처로 운용을 그리고 금ᄌᆞᆯ 써 현판ᄒᆞ고 여ᄇᆞ
희ᄯᅩ 쳥ᄉᆞ셔로 써시나 씨샹을 ᄌᆞ가ᄒᆞᆫ가지로 대쳥ᄉᆞ셔ᄂᆞᆫ 우리
ᄂᆞ라 언문ᄀᆞᆺ 퇴여 알길 버터라 인ᄒᆞ여 ᄉᆞ문을 바ᄉᆞ치고 관을 로
ᄉᆞ라 오니 젼의ᄂᆞᆫ 옥하관에 들더니 중연에 대비 담ᄌᆞᆺ ᄉᆞ신이
보고 죠이여 셔져 의ᄌᆞᆯ게 다ᄅᆞ나ᄒᆞ니 쳥이 ᄂᆞᆯ도 달ᄌᆞ에 뜻ᄌᆞᆫ거
지 못ᄒᆞ여 즉고 죠셔ᄉᆞ신은 노젹ᄒᆞᆫ 여기가 와 밧고와 들게ᄒᆞ

여시나 동칭옥하 관이라 ᄒᆞᄂᆞᆫ지라 상방은 둘째
문안 쳑 캉의 들고 부방은 제이 캉의 들고 삼방은 제
삼캉의 들고 각방 서ᄌᆞ드리 몬져 와 피인을 ᄃᆞ리고 미리
슈리ᄒᆞ여 ᄯᅥ라 허다ᄒᆞᆫ 일힝들은 다 동셔 남북으로
간ᄂᆞᆫ이 허여져 들식 셋식 접을 쳐 캉을 꾸미고 들
셔 반ᄌᆞ도ᄒᆞ며 도비도ᄒᆞ며 각ᄀᆞ제 긔구를 ᄯᅡ라 ᄒᆞ되 우
리ᄂᆞᆫ 그듕 가딘거시 업ᄂᆞᆫ고로 삿ᄌᆞ리도 별ᄀᆞ이 치지 못ᄒᆞ고
위션ᄃᆞ니 브람과 음산한 긔운이 구련셩 한둔이 나ᄃᆞᆷ
디 아니ᄒᆞ더라 각 방마두와 마부ᄂᆞᆫ 다ᄯᅳ의 셔 삿ᄌᆞ리나
ᄒᆞ옥수ᄀᆞᆫ셔 나 잘고 엄동을 슈야 경과ᄒᆞ고 사상들과

쇄마구인들은너외졍듕에서막을짓고웅거ᄒᆞ고말
들은쳐마기을의미여먹이니듕원말은듁을이니
먹이는고로콩과집과나분황례가일부일부일ᄎᆞᄒᆞ
나듁져는아니주니ᄯᅡ왕과뉴관사십일은다각각ᄉᆞᆯ을
파라ᄌᆞ비ᄒᆞ여먹이더라황셩예탄운제득일원
과대통과이원과대ᄉᆞ일완과셔반삼인과황방
삼인과비부랑ᄌᆞ원과의랑ᄉᆞ원과필졉식ᄉᆞ인
과셔반오인과방물떤ᄌᆞ고셕낭ᄉᆞ원과셔리삼인과
고직삼인과피물고셕낭ᄉᆞ원과셔리삼인과고직삼
인과빅면지셕ᄌᆞ고셕낭ᄉᆞ원과셔리삼인과고직삼

안과 세폐미고셕낭ᄉᆞ원과 셔리일인과 고직일인과
환도봉상일인과 세찬영내관이원과 하인ᄂᆞᆨ명과
연상영거관이원과 하인십이명과 찬물관이원과
하인ᄂᆞᆨ명과 쇠초관일원과 하인칠명과 낭미관
일원과 하인ᄉᆞ명과 거명ᄎᆞ치셔 반이인과 쥬긱ᄉᆞ
쥬사낭즁과 원의랑필져ᄇᆞ식하ᄇᆞ시ᄂᆞᆨ명에 장지
ᄉᆞ빅시ᄇᆞᆫ각권빅지삼빅오전청셔피일빅사ᄆᆞ십팔
장대가ᄇᆞ초일빅십팔가ᄇᆞ쇼가ᄇᆞ초일천사ᄆᆞ빅봉ᄂᆞ초이
빅오시ᄇᆞ봉마ᄅᆞᆫ리ᄉᆞ시ᄇᆞᆫ각ᄇᆞ대모장도ᄉᆞ병청은장도
ᄂᆞᆨ병환도ᄉᆞ병오져장도ᄉᆞ병초도일빅ᄉᆞ십이병별선

삼빅칠여병현년즉일빅스시브이긔온향연즉일빅스
시브긔즉셕쟝연즉삼시브ᄂᆞᆨ긔별연즉시브ᄉᆞ긔은쟝연즉
ᄉᆞ긔은쇼연즉ᄂᆞᆨ긔화필이시브ᄉᆞ병진목이시브ᄉᆞ졍화철오
시브ᄉᆞ긔젼복시브일문어오미ᄌᆞ희삼시브ᄂᆞᆨ두꺼구오시브팔미
즉니라황셩의셔즉ᄂᆞᆫ냥찬과ᄉᆡ초ᄂᆞᆫ샹하ᄒᆞᆫ승여사브빅
삼시브팔인에봉셩으로즉ᄂᆞᆫ거시젼미시브구셕ᄂᆞᆨ두십
양셔이시브삼셕시브두산희관셔ᄂᆞᆫ것하ᄒᆞᆫ승여방
뇨군관이타가지고힝즉에지공승고찬ᄆᆞᆯ은ᄆᆡ일
ᄃᆞᆯᄂᆞᆨ슈와도야지일ᄉᆞ와피당즉ᄭᅳᆺ일빅시ᄇᆞᆨ
마초ᄆᆡ일ᄇᆡ피ᄅᆞ에가이ᄅᆞ속은봉셩붓터동쥐ᄭᅡ

지다진비ᄒᆞᆫ고ᄂᆞᆫ과ᄂᆞᆫ십ᄇᆞᆫ이ᄅᆞᆫ은삼ᄉᆞᆫ신과원ᄂᆞᆫ여에나ᄅᆞ
마다쥬ᄂᆞᆫ거시졍ᄉᆞ의게ᄂᆞᆫ게우ᄒᆞᆫ나셩계삼ᄉᆞᆫ쳬육오ᄅᆞᆫ
셩선삼미타라이ᄅᆞ거장삼ᄆᆞᆫ빅떤이ᄅᆞᆫ황즉ᄂᆞᆨ병
업쳐삼ᄆᆞᆫ타엽ᄉᆞᆫ냥장과ᄉᆞᆫ냥쇼금이냥쳥장ᄂᆞᆨ냥
토장파ᄅᆞ냥초십ᄇᆞᆫ냥향유이ᄅᆞ냥화초이ᄅᆞ돈동유삼
공ᄌᆞ나ᄇᆞ촉삼병가ᄅᆞ오이ᄅᆞᆫ근셩강오냥만을시ᄇᆞ리ᄂᆞᆯ
십ᄇᆞ오기비시ᄇᆞ오기쥰시시ᄇᆞ오기미ᄅᆞᆯ쇼ᄒᆞᆫ근ᄆᆞᆫ토ᄒᆞᆫ근ᄉᆞ과
십ᄇᆞ오기쇼쥬일병빅미이승피당즉삼시ᄇᆞᆫ근이오삼일
에ᄒᆞᆫ번식몽고양일슉식뜨즉ᄅᆞ사ᄆᆞ일마다쥬ᄂᆞᆫ양은
부방독ᄌᆞ고부ᄉᆞ와셔장의게미일ᄌᆞᆫ거ᄉᆞᆫ게우일

슈ᄃᆞᆯ일ᄉᆞᆨ셩션일미타라ᄀᆞ일괴고기사ᄆᆞᆫ비명
이근ᄃᆞ부일근어ᄆᆞ치각사ᄆᆞᆫ화초일근다여ᄇᆞ일양청장
뉵냥초시ᄇᆞ냥황ᄌᆞᆨ뉵벼장라ᄉᆞ냥항유ᄉᆞ돈등유일
죵ᄌᆞ비미이승쇼금일냥이오령관사ᄆᆞ시ᄇᆞᆫ각미일에
고기일근반비면반근업치이냥소금일양등뉴일냥
화ᄋᆞᆨ오병비미일승피당ᄌᆞᆨᄉᆞ근무샹죵인일비
칠시ᄇᆞ파일인은미일에뉵반근어ᄆᆞ치ᄉᆞ냥초일냥쇼금
일냥비미일승피당ᄌᆞᆨᄉᆞ근시ᄀᆞᆨ니황제에ᄒᆞᆫ번ᄉᆞ
힝ᄭᅴᄂᆞᆫ것시미비ᄂᆞᆫ적지아니ᄒᆞ되젼여하인의죠죵이
되여일ᄂᆞᆫ리차ᄉᆞ지못ᄒᆞ고부ᄇᆞ지다차져먹그려ᄒᆞ면원

망ᄎᆞᆼ셩ᄋᆞᄒᆞ니 이런고로ᄉᆞ시ᄇᆞ일ᄂᆞᆫ 과의 방ᄋᆞ초와 나모ᄅᆞᆯ다
ᄉᆞ비ᄒᆞ니 졀ᄅᆞᆼᄒᆞ나 엇ᄉᆞ지ᄒᆞ리오ᄆᆞ리 조리로ᄯᅳ셩ᄭᅴ 사ᄆᆞᆺ
식ᄌᆞᄂᆞᆫ거ᄉᆞᆫ더러 차져ᄯᅳ며 의쥐군로ᄅᆞᆯ 사ᄆᆞᆺ신과 히웃ᄉᆞᆼ
이젼ᄭᅴ로 찬ᄆᆞᆯ을 힝하ᄒᆞ니 ᄌᆞ오일을 ᄌᆞᆫ면 져차려온
빗아니 질마ᄂᆞᆫᄒᆞ고 ᄭᅴ오일 거ᄉᆞᆯ ᄌᆞᆫ면 샹덕이라ᄒᆞ더라도
라갈적 반샹은 사ᄆᆞ시ᄇᆞ졍과 ᄌᆞᆫ니 ᄌᆞ고로 ᄭᅴ방에 각ᄒᆞ나
식그졍과 ᄆᆞᆺ도러샹을 타면 비타ᄂᆞᆫ과 놋ᄌᆞᆫᄂᆞᆫ은 ᄭᅡ지하ᄇᆞᄒᆞ
면 시ᄉᆞ은이 일 빅오시ᄇᆞ여냥이나 되ᄂᆞᆫ거ᄉᆞᆯ 사ᄆᆞ시ᄇᆞ인이모
ᄌᆞᄭᅩ고 힝ᄌᆞᆼ이 일 벼ᄋᆞ평ᄀᆞᆫ분 쟉ᄒᆞᆫ면 미원의 은이오 십
여냥식 되니 이은ᄒᆞᆫ냥은 돈ᄇᆞᆨ냥식 무ᄂᆞᆫ은 이라 일ᄂᆞ가

지고야간슈으로ᄒᆞ고치항ᄒᆞᆫ밧도벗ᄉᆞ려나인
십세뫼날노변ᄒᆞ여금년팔월능힝시에슈약
장녑등이상언ᄒᆞ여삽십경관만을머고신
의죵인과난으지마란지라ᄒᆞ여몽은ᄒᆞᆫᄒᆞ우젼의
졍관에못ᄒᆞ던환ᄒᆞ다이일관과의원과ᄃᆞ과관등
이다가〻제쥬의경ᄒᆞ고연픔ᄒᆞ여츌입에사
은복명이〻시니한산인과로다ᄒᆞ여이일병졍
관에ᄒᆞᆫ게ᄒᆞ고샤부사방에셔라가ᄂᆞᆫ파관인은
변동ᄒᆞᆫ신의사인이라ᄒᆞ여못ᄒᆞ니득시ᄅᆞ의계
관ᄒᆞᆫ말이아니라누벅여금셕지 젼을일

쇼에 훼파ᄒᆞ나 그음ᄒᆞᆯ파 ᄎᆞᄒᆞᆫ 쇼위에시 지절[illegible]치
아나ᄒᆞ리오 ᄉᆞ힝에 포라ᄒᆞ는거ᄉᆞᆫ 당상은 산남쳔
냥이오 당하ᄂᆞᆫ 은이 쳔냥이나 이거ᄉᆞᆯ 호죠에 써
쥬는거시 아니라 물화드려가는 버븨 다령ᄒᆞᆫ일
시나 상고의 집을 져울의 다라 시보일지 셰ᄅᆞᆯ
바다 힝등이 쓰제ᄒᆞᆫ 이ᄅᆞᆫ이나 물화가만이 가피뇨
ᄅᆞᆯ 쳐오고 물화가 젹으면 그슈ᄅᆞᆯ 못쳐오는지라
근본은 인시보이고 약ᄒᆞ고 져려이 빈잔ᄒᆞ여 집상
ᄒᆞᆫ는 폐도 희마다 더ᄒᆞ고 힝화도 쳡쳡 갈ᄉᆞ록 [illegible] 여연
ᄒᆞ여 포로 뷔오니 이번 기ᄅᆞᆯ의 의 쥐쳐 권표ᄒᆞᆫ 거시

부로과오시ᄇᆞᆫ식된다ᄒᆞ니이거ᄉᆞᆯ가지고어ᄉᆞ
의ᄊᆞ리오젼례로ᄊᆞ던거ᄉᆞᆫ인ᄒᆞ여어ᄇᆞ셔지고젼
례로드ᄂᆞᆫ거ᄉᆞᆫ의구이폐치못ᄒᆞ고거시니필경낭
피ᄂᆞᆫ고사ᄒᆞ고도라가이ᄅᆞ가친쳑다이ᄂᆞ니붕우에득
다ᄇᆞᄒᆞ고이ᄅᆞ이시ᄇᆞ이관시ᄇᆞᆷᄒᆞ고노타가지여고히ᄒᆞᆫ신
병은다ᄅᆞ포미ᄅᆞᆺᄒᆞ여좌와거거에자ᄇᆞᆷ시편ᄒᆞ고ᄯᅢ
어ᄇᆞ고ᄒᆞ옥거려ᄯᅥᄅᆞ니가라ᄒᆞ면극히어려워가다가인
ᄒᆞ여도로올젹만ᄋᆞ니만날타국에와아니날녀ᄇᆞ
여어ᄇᆞ기마지못ᄒᆞ여야ᄒᆞ을시작ᄒᆞ라ᄒᆞ나약쵀
도구간ᄒᆞ고ᄉᆞᆫ아니라각ᄌᆞᆫ의ᄒᆞ여ᄌᆞ리도어ᄇᆞᄉᆞ니

고다마ᄂᆞ다셔ᄉᆞ시이ᄉᆞ니쟝ᄌᆞᄂᆞᆫ본대병신이오뎜ᄒᆞᆫ
ᄒᆞ여쥬셕이과ᄒᆞ니의논ᄒᆞᆫ거ᄉᆞ어보제ᄉᆞᄂᆞᆫ와제오
ᄉᆞ가위인이가쟝무던ᄒᆞ니이ᄃᆞᆯᄉᆞᆼ에쳔져되리라ᄒᆞ더
라지뎡연을타ᄒᆞᆫ면칙ᄉᆞ도ᄃᆞ어동나올거시오ᄉᆞ신도
누ᄎᆞ갈거시니아국에무한폐가죄로ᄃᆞᄉᆞᄒᆞ더라 이십
삼일신시ᄂᆞᆫᄒᆞ여셔ᄇᆡ부로공문이오되뎡일오셩두
에황샹이영안ᄉᆞ에거동ᄒᆞ시니죠션ᄉᆞ신이신문문밧
글로지뎡ᄒᆞ라ᄒᆞ여ᄉᆞ거ᄂᆞᆯ 이시보ᄉᆞ이로계뎡에삼ᄉᆞ신이
다퇴평차ᄒᆞ세내여타고우리ᄂᆞᆫ역관의보대로ᄅᆞᆯ비러
이부옥하관을나봉곡관을지나옥하관달이

로건녀의궁장밧그로셔동안문을드니궐문안의
도녀염과져겨ᄅᆞᄃᆞᆫ ᄒᆞ여시니이ᄂᆞᆫ다겨상의져겨라
왕공거겨ᄋᆞᆯ위ᄒᆞ여나라의셔지ᄇᆞ과젼을사쥬어
셰ᄅᆞᆯ바다먹게ᄒᆞ여시니우리ᄂᆞ라에공물과ᄌᆞᆺ튼
ᄇᆞᆸ이라궁셩안이십이너ᄅᆞ너아국장안지워만ᄒᆞ
고ᄯᅩ동안문을지나이윽이가니비로쇼ᄂᆡ궁장밧기
라ᄂᆡ궁장은담우의져ᄅᆞᆫ묘이치쳐ᄇᆞᆼ을ᄒᆞ여셩과
ᄀᆞᆺ치ᄒᆞ여시니가장ᄂᆞᆸ고졍겨ᄅᆞᄒᆞ며다ᄇᆞ미ᄉᆞᄒᆞ으로
ᄉᆞ면에장가ᄋᆞᆯ짓고외면화방벽에쥬ᄒᆞ옹칠
을ᄒᆞ여시니이장가은곡식찬ᄂᆞᆫ창고요장각

밧그로 히ᄉᆞᄅᆞᆯ기ᄇᆞ고 너ᄅᆞ게 파고 쳑ᄎᆞᆨ을 방졍이
싸고 연화ᄅᆞᆯᄀᆞᆮ이 싱겨 시니ᄉᆞ오 원ᄀᆞᆫ이 면연화가
만 발ᄅᆞᆫ ᄒᆞ여 ᄆᆞᆯᄒᆞᆫ은 향내 궁ᄌᆞᆼ에 ᄀᆞᄃᆞᆨ ᄒᆞ다 ᄒᆞ더라 ᄯᅩ
셕문과 져ᄌᆞᆫ 평문ᄃᆞᆫ 두어ᄉᆞᆯ 연ᄒᆞ여 ᄃᆞ러가니 그ᄉᆞ이 지
리 ᄒᆞ여 그ᄌᆡ 겨ᄅᆞᆯ 너로 가ᄂᆞᆫ지 겨ᄅᆞᆯ 문 밧긴지ᄂᆞᆫ 향을 ᄆᆞᆯ
로 더니 그ᄌᆡ 아신 무문 밧ᄉᆞᆯ 왓ᄂᆞᆫ지라 이 문을 황국
젼 복편 문이니 놉희ᄂᆞᆫ 우리ᄂᆞᆫ라 나ᄇᆞ대 문만 ᄒᆞ
고 좌우에 협문을 내고 문짝에 합 밧쇠ᄅᆞᆯ 도금
ᄒᆞ여 졍제이 밧고 문 압히 큰 다ᄅᆞᆫ이 가 잇고 다ᄅᆞᆫ이
ᄅᆞᆫ 건너ᄉᆞᄀᆞ시ᄇᆞ 보ᄂᆞᆫ지나 대로가 횡ᄀᆞᆼ ᄒᆞ여 시니이

길은 영안ᄉᆞ로 가ᄂᆞᆫ 기로이오 신무문을 대ᄒᆞ여 ᄯᅩ 북
상문이ᄂᆞᆺ 스니 대쇼제 도ᄂᆞᆫ 신무문과 이ᄅᆞᆫ 반이오 황
호ᄅᆞᆯ ᄒᆞᆫ 탄청은 거우ᄅᆞᆯ 을 대ᄒᆞᆫ ᄃᆞᆺ 사ᄅᆞᆷ의 얼굴이
비ᄉᆞ최고 그문 안의 ᄯᅩ 문이ᄂᆞᆫ 셔경 산이라 현판ᄒᆞᆫ
고좌우로 ᄯᅩ 피루ᄀᆞᆺ 치공중에 문을 지어 동셔ᄅᆞᆯ
통ᄒᆞ여 시니 곳고 광 활ᄒᆞᆫ 기로이 ᄉᆞᆫ 마장이나 멀니
뵈고 경산문 안의 쳐 각이ᄂᆞᆫ 시니 ᄎᆞᄒᆞᆫ 셕각에
옥셕난간이은 영이 뵈ᄂᆞᆫ 듸 뒤으로 놉ᄒᆞᆫ 조산이ᄂᆞᆫ
시니 금쳑은 만세 산이라 ᄒᆞ고 원쳑은 만ᄉᆞᆫ 산이
라 ᄒᆞ고 명쳑은 뫼 산이오 즉금은 경산이라 ᄒᆞ

ᄂᆞᆫ뫼라인력으로비록무은뫼나가장노부거이
ᄒᆞᆫ슈목을ᄀᆞᆯ두이시부고제이ᄅᆞ봉졀졍에뫼산작
을지어ᄉᆞ고쳥뇽과빅ᄒᆞ오에ᄯᅩ우산작을오셕기
아로ᄂᆞᆫ라가ᄂᆞᆫ듯시지어시니미산가은ᄉᆞᆼ졍황
제슌져ᄒᆞᆫ뜻단일라ᄒᆞᆼ신지ᄇᆡ이라오회라이ᄅᆞ이급히되
시ᄆᆡ이지ᄇᆞ의오로시ᄭᅵ지ᄇᆞ안의ᄒᆞᆫ죡겨거ᄅᆞᆯ엿ᄂᆞᆫ대쳐
음의간허ᄆᆞᆫ거동과ᄌᆞᆼ연에제왕되신것과말
연에져구에핍박ᄒᆞ여ᄒᆞᆫ바ᄅᆞ벗ᄉᆞ고목에ᄉᆞᄀᆞ건
걸고급ᄒᆞᆫ형상을그려시니창황ᄌᆞᆼ당신평셩
을져검ᄒᆞᆫ즉그리ᄇᆞ과ᄒᆞᆫ가지라쳥연이ᄭᅵᄃᆞ

르시고쳔의ᄅᆞᆯ슈ᄉᆞᆫ슈ᄒᆞ여ᄌᆞᆨ시ᄀᆞᆫ쳐ᄒᆞ신지라
슈목ᄉᆞ이로사ᄇᆞᆷᄎᆞᆼ화가ᄀᆞ이반공에ᄃᆞᆯ니인ᄂᆞᆫᄉᆞᆼ니
ᄒᆞᆫ번오ᄅᆞᆯ나보고시부나대궈ᄅᆞ가온ᄯᅢ이ᄆᆞ의로ᄃᆞᆯ려가
지못ᄒᆞ여ᄯᅥᄅᆞ니ᄇᆞ라볼분이며동방이오히려셔
지아니ᄒᆞ여ᄉᆞ기부상문미ᄉᆞ최안져ᄎᆞᆯᄒᆞᆼ을기ᄌᆞ리
ᄯᅢ비관의모이여오ᄂᆞᆫ거동을보니쳥인은지위차급
하도말을타고하안져상은ᄀᆞᆺᄅᆞᆯ타시니ᄀᆞᆺ모양은아
국텅ᄀᆞᆺ치ᄆᆡᆼ그러시죄조금적고ᄉᆞ면에ᄂᆞ거리ᄅᆞᆯ부ᄉᆞ치
고거ᄉᆞ최ᄒᆞ옥타ᄉᆞᆼ(석)ᄉᆞ로망을얼거네모에ᄂᆞᆫᄉᆞᆼ여ᄃᆞ리오고네
놈이ᄉᆞᆯᄋᆞᆯ머여시며아ᄇᆞ희ᄒᆞᆫ샹양가ᄃᆞᆼ을발기

고거라치ᄒᆞ나이 말타고젼도ᄒᆞ여오고뒤에ᄎᆞᆫ쥬죵은
슈시ᄇᆞ이라되ᄂᆞᆫ대다ᄌᆞᆫ총을타고ᄯᅡ로고터평차와
마ᄅᆞ타고오ᄂᆞᆫᄌᆞ도등부ᄅᆞ과ᄎᆞᆫ쥬죵이ᄒᆞ옥사ᄇᆞᆫ시ᄇᆞ명식
되여도다은안ᄎᆞᆫ총을타고오지ᄒᆞ나도거ᄉᆞᆫ이ᄂᆞᆫ업
고교ᄌᆞ멘놈은가ᄉᆞ옷ᄉᆞᆯ버서뒤에ᄒᆞᆫ바리ᄅᆞᆯ시러더
라이쳐로ᄉᆞ면의셔모이여ᄉᆞ나ᄒᆞᆫ마뒤ᄒᆞᆫ화쇼리
업ᄇᆞ고다만마제거쳐ᄅᆞᆫ쇼리만나니구ᄅᆞᆯ이구히
어ᄇᆞᆺ식ᄒᆞ여뵈더라나ᄅᆞ이러ᄇᆞᆺ ᄇᆞᆫ가지ᄯᅢ신무뭇
정문을여더니동셔혀ᄇᆞ문을도이ᄅᆞ진ᄒᆞ오인이나
와거동기ᄅᆞ노라ᄉᆞ더니미죠ᄉᆞ차황양산이나와정

노에셔고포졍이ᄎᆞᆫᄀᆞᆺ가이ᄃᆞᆯ니ᄂᆞᆫ홍관ᄂᆞᆫ리ᄉᆞ신과
죵이ᄂᆞᆫ들을면ᄂᆞ이당부ᄒᆞ여졍졔이안져ᄯᅡ가지영
ᄒᆞ고하인ᄃᆞᆯ도부대회복셕을가보ᄎᆞ고이러셔지
마ᄅᆞ나신ᄂᆞ부탁ᄒᆞ더라이욱고근시ᄒᆞᄂᆞᆫ대ᄌᆞ경신ᄃᆞ
리다가ᄉᆞ오ᄉᆞ스ᄅᆞ뒤지버이보고졍졔이거러나오며건
ᄂᆞᆼ이황옥쇼거ᄅᆞᆫ라고지나더니가노화신이어젼
에드러가부어시라두어마ᄅᆞ아ᄅᆞ외니교ᄌᆞᄅᆞᄅᆞᄌᆞ기시며
ᄆᆞᄅᆞ고거ᄂᆞᆫᄒᆞᆼ이머리ᄅᆞᆯ교ᄌᆞ바ᄉᆞ거자ᄇᆞ간내여ᄉᆞ신을
보며국왕아평안ᄒᆞ시냐부ᄅᆞ니홍관이더답
을화신의게젼ᄒᆞ대화신이즉시바다알왼

후지나갈셔지녕ᄒᆞ나대국에ᄀᆞᆼ졍ᄒᆞᄂᆞᆫ데ᄂᆞᆫ셔러
안젼ᄆᆞᆨ팔을여ᄇᆞ희ᄃᆞ리오고머리ᄅᆞᆯᄀᆞᆺ게가져치이다
보니ᄀᆞᆺ보기ᄂᆞᆫ극히ᄎᆞ운버ᄇᆞ이오ᄭᆞᆫᄒᆞᆼ의어ᄅᆞᆯ은잠ᄭᆞᆫ보니
썅면에ᄂᆞᆼᄎᆞᆼ이미간ᄇᆞᆺ터ᄇᆡ파여슈키야•쟝어ᄇᆞᄒᆞᆫᄃᆞᆺ
ᄒᆞ고ᄉᆞᆺ여ᄆᆞ이적어ᄯᆞᆯ니보면어ᄇᆞᄉᆞᆫᄃᆞᆺᄉᆞᆼ고얼ᄀᆞᆯ이오히려
살ᄃᆞᆯ자ᄇᆞ혀구시ᄇᆞ노쳔ᄌᆞᆺ지아니ᄒᆞ더라위의ᄂᆞᆫ거치ᄒᆞ
이어ᄇᆞ고다만옥셔시ᄅᆞᆫ달마에ᄒᆞ오린누ᄅᆞᆫ보ᄅᆞᆯ더ᄇᆞ피황오
뒤에세쌍이ᄯᅡ로고표ᄡᅢᆷ의ᄭᅩ리ᄅᆞᆯ창ᄭᅳᆺ치ᄭᅴ여ᄃᆞ쌍
세우고말타니ᄉᆞ오인이ᄯᅡ라가ᄅᆞᆫ분이라쳔겨문
안져ᄒᆞᆼ을ᄒᆞᆫ뎐ᄉᆞ문ᄡᅡᆺᄉᆞᆯ로쳘거가옹위ᄒᆞ고

교의서동은ᄉᆞ면사ᄇᆞ시ᄇᆞ니바ᄉᆞ그로군뼝이ᄃᆞᆯ넉다
ᄒᆞ니비록가젼의ᄂᆞᆫ귀구가어ᄇᆞᆫ듯ᄒᆞ니실즉
장ᄒᆞᆫ이라황제영안ᄉᆞ에간ᄒᆞ우죠젼ᄉᆞ신
을ᄎᆞ즐가ᄒᆞ여즉시파ᄒᆞ여오지못ᄒᆞ고이윽이기
ᄃᆞ리더니동관이동졍을탐지ᄒᆞ고도라가자ᄒᆞ
거ᄂᆞᆯ희ᄌᆞᆫ그ᄋᆞ로ᄉᆞ마장은거러죠고마문을나와말
을타라ᄒᆞ되동구에턴평차ᄂᆞᆫ뻘셔ᄅᆞ니듯ᄒᆞ고노겨
와말은구ᄅᆞᆷ치ᄇᆞᆯ겨사ᄅᆞᆫ이동ᄒᆞᆫ지못ᄒᆞ니ᄉᆞ신
ᄃᆞᆯ도오러지쳬ᄒᆞ다가가ᄂᆞ신이차ᄅᆞᆯ어더타고죵인
ᄃᆞᆯ은가ᄀᆞ이ᄂᆞᆫ바ᄃᆞᆷ으로혜치고나가께요어더타니

심이위턴ᄒᆞ더라이ᄅᆞ이ᄒᆞᆫ거마ᄎᆞᆼᄉᆞᆼ에이ᄅᆞᆫ프ᄆᆞ
벼슬ᄒᆞᆫ사ᄅᆞᆯ무이ᄯᅩ일이ᄂᆞᆫ마ᄅᆞᆯ차ᄉᆞ지못ᄒᆞ여방황
ᄒᆞ니나히ᄂᆞᆫ시ᄇᆞᆼ은퇴여뵈고어ᄅᆞᆯ굳이ᄀᆞᆨ히동탕
ᄒᆞ여버ᄆᆞ인과ᄃᆞᆯ듯ᄒᆞ거ᄂᆞᆯᄀᆞᆼ인ᄋᆞᆯ불ᄂᆞᆫ너보ᄅᆞ니
황상의다셋겨아이라ᄒᆞ더라ᄃᆞᆯ어가ᄅᆞ젹은밥
이어두어두ᄅᆞᆫ세이보지못ᄒᆞ엿더니바ᄅᆞᆫ후녀
궁장을머ᄅᆞ니ᄇᆞ라보니오셕기야에금취가휘황
ᄒᆞᆫ지ᄇᆞ이며파ᄅᆞ면화각에ᄑᆞᆼ마동ᄯᅳᆨ지와쳥ᄂᆞᆫ리
ᄯᅳᆨ지ᄒᆞᆫ지ᄇᆞ이며박궁머리에자지로일월셩신을
찬란이박은누각이ᄉᆞᆫ복ᄀᆞᆫ이로ᄎᆞᆼᄒᆞ이은영ᄒᆞ

여부슈이뵈니이거시아즈기로두피컬이라이를너
라오나ᄅᆞᆫ기ᄅᆞ의동편을도동화문을지나니마ᄅᆞ과
슈ᄅᆞᆯ네너ᄅᆞᆫ기ᄅᆞᆯ에쳐ᄂᆞ미마ᄂᆞᆫ ᄒᆞ여가위쳘옹ᄀᆞᆷ셩을
산거ᄉᆞ고쳐의복셕은다대공단바지에희ᄃᆞᆷ문
놓은
것을ᄂᆞᆫ가ᄉᆞ옷ᄉᆞᆯ두세겨ᄇᆞ니ᄇᆞ고돈피마을라기에
쳥ᄂᆞ다ᄂᆞ보션을신고은아ᄂᆞᆺ간총을타ᄂᆞᆫ안목을
우리ᄂᆞ라사ᄅᆞᆫ ᄆᆞ을보면동디서ᄉᆞᄃᆞᆯ에쥐ᄇᆞ반ᄃᆞᆺᄒᆞᆫ보시
ᄒᆞᆺ관대에두셕ᄒᆞᆫ휴ᄋᆞ비ᄅᆞᆯ뚜뚜ᄯᅵᆼ실노다라이갈
ᄯᅴ가ᄃᆞᆫ이두세시ᄯᅴ허ᄌᆞᆫ오동지ᄌᆞᆫᄯᅴ를빅쳘노셤
여허리에두로고칠셕날ᄀᆞ치머ᄀᆞᆺ치밧나마

버서진사모에창ᄭᅥ허지사ᄆᆞᆺ승휘ᄅᆞᆯ신고션ᄒᆞ
거리도어본ᄂᆞᆫ좀ᄆᆡ은안쟝을피골이샹연ᄂᆞᆫ말게
지어타고자ᄆᆞ쳔칠비니어ᄂᆞᆯ부푸러온얼굴에ᄯᅢ무
든모션을가리고숫ᄌᆞᆯᄀᆞᆺᄎᆞᆫ조ᄒᆞᆫ기ᄅᆞᆯ의아모쥬록ᄒᆡ
평ᄋᆞᆺᄀᆞᆯᄅᆞᆯ따라가랴ᄒᆞ여쳔방지방모라가니내거동내
도내보기우ᄉᆞᆸ거ᄃᆞᆫ져놈들은ᄋᆞᆫᄀᆞᆺ중연소자와아희ᄃᆞᆯ이
ᄯᅥᆯ노거리ᄂᆞᆫ든취ᄒᆞ여바쟝대쇼ᄒᆞ며창시간다도
ᄒᆞ고가오리팡ᄌᆞ라도ᄒᆞ니창시라ᄒᆞᄂᆞᆫ말ᄒᆞᆫ산되
노ᄅᆞᆷ에타ᄅᆞᆯ쓴거시라ᄂᆞᆫ말이오가오리팡ᄌᆞ라ᄒᆞᄂᆞᆫ말
은ᄂᆞᆫ려국죱ᄂᆞᆷ이란말이니어ᄉᆞ지ᄃᆞᆼ분치아

니ᄒᆞ리오황션을ᄃᆞᆯ며계지ᄇᆞ의어ᄅᆞᆯ굴을보지못
ᄒᆞ여ᄉᆞ더니맛차ᄇᆞ티펴ᄋᆞ차타고가ᄂᆞᆫ거ᄉᆞᄉᆞᆯ보니나이
ᄇᆞᆯ과이시ᄇᆞᆫ된ᄃᆞᆺᄒᆞᆫ부녀가니ᄂᆡ광다ᄂᆞᆫ바지에
진ᄒᆞᆼᄌᆞ우샤옷ᄉᆞ한ᄋᆞᆯ소거이ᄇᆞ고다ᄒᆞᆼ광직
ᄇᆞ션에ᄉᆞᆫ혀ᄅᆞᆯ신ᄂᆞ고ᄎᆞᆨ금단힝젼에ᄂᆞᆫ록빗ᄋᆞᆫ
다ᄂᆞᆫ의에아양피가ᄉᆞ옷ᄉᆞᆯ어ᄇᆞ고당사로어ᄅᆞᆫ녑ᄎᆞ
항을셕셕히쳐ᄉᆞ드려목에거ᄅᆞ고머리에삼셕가화
와ᄭᆞᆼ봉금잡을ᄭᆞᆺ고ᄒᆞᆫ을로ᄆᆡᆼ근ᄒᆞ쳐ᄇᆞ이ᄡᅥ옥
을사진원양을진ᄎᆞᆫ로어ᄅᆞ거냥ᄌᆞ에가ᄃᆞᆨ이
ᄭᆞᆷ이고ᄃᆞ귀에ᄭᅥ즈ᄆᆞᆯ금환을ᄎᆞᆼᄀᆞ이다ᄅᆞ고셥ᄇᆞᆫ

옥ᄉᆞ기예꼬리ᄅᆞᆯ자ᄇᆞᆫ ᄉᆞᆺ기고ᄃᆞᆫ졍이안져시니
나뷔ᄂᆞᆫ셔ᄇᆞᆫ과구ᄅᆞᆷ사ᄅᆞ자이ᄯᅥ홍아ᄂᆞᆫ다ᄉᆞᆫ에ᄯᅡ터와
화긔가어ᄅᆞ의여시위여긔ᄂᆞᆫᄅᆞᆫ이구ᄅᆞᆷ의ᄎᆞᆫ ᄒᆞᆫᄃᆞᆺ
꼿다운ᄒᆡ다ᄒᆞᆫ이화쵸로ᄅᆞᆫᄆᆞ그무ᄂᆞᆫᄃᆞᆺ션연ᄂᆞᆫ미지ᄅᆞ이보
던ᄃᆞᆼ쳐오ᄆᆞ이니여ᄂᆞᆫ져ᄋᆞᆼ을비ᄅᆞ옥셕항이라ᄒᆞᆫ나엇
지이러ᄂᆞᆫ계지ᄇᆞ이이ᄉᆞᄂᆞᆫ고이ᄉᆞᆺ ᄃᆞᆫ계지ᄇᆞᆼ을경국지셕
이라ᄒᆞᄂᆞᆫ가시부고차아ᄇᆞ희두나ᄉᆞ시녀ᄅᆞᆫᄅᆞᆫ안쳐시니
응당져상지ᄇᆞ부년가사부더라인ᄒᆞ여동안문
을로셔옥하관으로도라오니오히려바ᄇᆞᆫ뎨가못되
여ᄉᆞᄂᆞᆫ지라오나ᄅᆞᆫ부ᄉᆞ텨이ᄅᆞᆼ실과가오리ᄂᆞᆼ그ᄆᆞ과사과

와셩니와포도가ᄀᆡᄀᆡ셩ᄒᆞ여즉금따온것ᄀᆞᆺ고ᄎᆞᆫ
도동셔ᄉᆞ다ᄅᆞ거ᄉᆞᄀᆞᆺ지아니ᄒᆞ니엇지두어이러ᄒᆞᄂᆞᆫ
히ᄒᆞ더라 이시ᄇᆞ오이ᄅᆞ지ᄇᆞᆼ을떠난후하로밤ᄇᆞᆫ
길게자지못ᄒᆞ니ᄉᆞᆷ이부인의게극히길치아니
ᄒᆞ니무ᄉᆞᆫ우환이이ᄉᆞᄂᆞᆫ가ᄎᆞᆼ이ᄅᆞᆼᄋᆞ우가ᄯᅴ되더라여
러친구ᄃᆞ리기ᄅᆞ의가ᄀᆞ겨ᄒᆞ자권ᄒᆞ기마지못ᄒᆞ
여병을강이ᄒᆞ여관문을나니ᄉᆞ오시ᄇᆞ몽고놈이
약대ᄅᆞᆯ타고모라가니ᄃᆞᆫᄒᆞᆫ거름의몬져창쳔
ᄒᆞ여기ᄅᆞ오ᄅᆞᆯ아라볼기ᄅᆞ니ᄇᆞ셰지ᄇᆞᆫ이ᄃᆞ러쉬다가
졍양문을당ᄒᆞ니이ᄂᆞᆫ황셩남문이라뇨

희하놉하현판ᄒᆞᆫᄂᆞᆯᄀᆞᆯᄅᆞᆯ희미이보고문싹
에박쳘이ᄯᅥ누샹에셕쥬ᄒᆞᆫ제도가국히굉걸ᄒᆞ
여죠앙문과ᄒᆞᆫ가지오문바ᄉᆡ거ᄯᅩᆼᄋᆞᆼ셩을ᄯᅡ고ᄉᆞᄯᅥ에
큰문을내여시되졍앙문과마죠번문은뎡문이
라ᄒᆞ여여지아니ᄒᆞ여ᄉᆡ더라인ᄒᆞ여ᄋᆞᆼ셩등문을로
나대로ᄂᆞᆫ버리고져근골목을로드러가니ᄉᆞᆫ마장은ᄒᆞᆫ
동안에이ᄅᆞᆯ로지ᄇᆞᆼ을ᄃᆞᆫ쥬ᄅᆞᆯ노여ᄒᆞ여짓고두지ᄇᆞᆫ쳐마
ᄉᆞ이에거몬산ᄇᆞᆼ을로치이ᄅᆞᆯ은ᄒᆞ여치고좌우젼ᄒᆞ우
에가셕거ᄀᆞ괴ᄀᆞᆫᄒᆞᆫ둥시ᄅᆞᆯ가ᄃᆞᆫ히비려시니ᄂᆞ
둥아ᄂᆞᆫ거ᄉᆞ도만ᄭᅮ니와ᄒᆞ우무어시ᄯᅥ어ᄃᆡ ᄯᅳᄂᆞᆫ거

신지 모로는 거ᄉᆞ도 터반이나 ᄒᆞ더라 골목을 나정
양교다로 이르르 오니ᄉᆞ시 보오간 셕골로 하ᄉᆞ로 건너
노코 청셕으로 병풍ᄀᆞᆺ치 ᄒᆞ여 다로이 가으로 앙편에
세우고 가온대 옥도로 노난간을 ᄒᆞ여 어로로 내고 난
간기동마다 머리에 사져 르ᄅᆞ사져 안쳐시니 하ᄇᆞᄒᆞ여
사져가 일빅 머므고 병풍셕 머리에는 ᄇᆞ용을 사져 긴
성과 뉴동ᄒᆞ여 무ᄉᆞᆫ 조화가 이ᄉᆞᆯ ᄃᆞᆺᄒᆞ더라 伍피문
다셔ᄉᆞᆯ 지나ᄎᆞᆺ 구정ᄒᆞ며 가더니 신병이 더ᄒᆞᆫ ᄃᆞᆺᄒᆞᆯ
거마에 가리워 동힝을 다 일고 타 만초힝에 마주ᄉᆞ
엇과 부삼방 노속들 만다리고 오니 비록 피인

을대ᄒᆞ나엇지일언반사ᄅᆞᆯ셔로동ᄒᆞ리오
졸연이내봄이병인이되여ᄉᆞᆫ가마ᄅᆞᆼ을ᄒᆞ여도져사
ᄅᆞᆷ이못ᄃᆞᆺ고져의ᄒᆞᄂᆞᆫ말ᄅᆞᆼ을귀가이셔도아ᄅᆞ기ᄅᆞᆯ이업
ᄉᆞ니도로려일신이어려져실노자미가어ᄇᆞ지즉시
도라오니라황셩안은지대ᄅᆞᆯ모도회로노코대궐
과녀염지ᄇᆞᆯ들ᄒᆞᆫ굴을파무ᄅᆞ이ᄉᆞᆷ무여ᄒᆞᆯ너가게
ᄒᆞᆫ고로져근기쳔이어ᄇᆞ고ᄯᅩ골목마다병문의군포막
을지ᄉᆞ고창검ᄆᆞᆼ을가초아군병이ᄌᆞ기야로번을셔다가
밤이면초부ᄅᆞᆯ을ᄭᅥ셔울셔제골목안사ᄅᆞᆷ은ᄂᆞ아의
낭자이단며도금치아니ᄒᆞ고만일이골의사ᄂᆞᆫ사ᄅᆞᆷ

이져골을왕내、ᄒᆞ면잡고、ᄒᆞ야즁쇼공지에무뎐
ᄒᆞᆫ사ᄅᆞᆷ은타동녀ᄅᆞᆯ가도자ᄇᆞ지아니ᄒᆞ니슬나
법이업셔도졀노야금이되고가등에켜부ᄅᆞᆯ이축
히회쇼、ᄒᆞᆫ관등이나들지아니ᄒᆞ며목탁치ᄂᆞᆫ쇼ᄅᆡ
셔로응、ᄒᆞ여의연이쳔진을대、ᄒᆞᆫ듯、ᄒᆞ니셩사셩
하와가쳐번ᄂᆞᆫ군병을모도합ᄒᆞ면샹의시ᄇᆞ만
병을믜복、ᄒᆞᆫ작시라、ᄒᆞ니마ᄂᆞᆫ일쇼장지변이업
스면졸연이법、ᄒᆞᆯ겨뉘이스리오 아시ᄇᆞᆫ니일
풍일이불슌、ᄒᆞ여염문연ᄂᆞᆫᄅᆞᆯᄃᆞ라오고시ᄆᆞᆯ이
안졋더나삼방치진주ᄃᆞ리누릐창에가경、ᄒᆞᆫ

자ᄒᆞ되근력을ᄌᆞ랴ᄋᆞᄒᆞ니시ᄇᆞ니ᄅᆞᄅᆞᆫ거러가ᄅᆞ길
어ᄇᆞ셔못ᄉᆞ가ᄉᆞ더니졍양문안의셔거구이ᄉᆞᄂᆞᆫ지부아
희장가간다ᄒᆞᆺ기동구밧거나가보니신광아ᄇᆞ
희ᄇᆞᆷ모ᄌᆞ쥬장든놈슈삼ᄇᆞᆼ쌍이나셔고금핀멘놈
슈시ᄇᆞ쌍이니어것ᄉᆞᆫ두어ᄌᆞ씩ᄒᆞᆫ젼반에우ᄅᆞ용을
사기고ᄉᆞ면에먹과듀ᄒᆞ옹쳥화로셕ᄀᆞ이ᄉᆞ쥬보ᄀᆞᄌᆞ
와부귀다나ᄆᆞᄌᆞ덕담을무ᄉᆞ기이ᄡᅥ시며ᄒᆞ옹양산
이세쌍이오쳥대단빗탕에황금을도ᄅᆞ용그리거
가네쌍이오그림그린북이ᄒᆞᆫ쌍이오증이며져
피리힝금장고각ᄒᆞᆫ쌍식버러셔ᄑᆞᆼ뉴ᄒᆞᆫ고열

대여ᄉᆞ머근신랑은ᄉᆞᄉᆞ농은의복을겨ᄇᆞᆫ이이ᄇᆞ고터
평차에안쳐시니얼굴이극히어여ᄉᆞ버뵈며이러평
차ᄂᆞᆫ샹시에못보던거시라ᄉᆞᄉᆞ농은공단으로ᄯᅳ에
와ᄉᆞ면을싸고네기동에오셕ᄉᆞᄉᆞ랑을ᄌᆞᄉᆞ황사
씬에시ᄇᆞ띠ᄀᆡ시ᄂᆡ다르고양편에문ᄯᅡᆨ만ᄒᆞᆫᄂᆞᆫ거리
를부ᄉᆞ치고두쳐쳔ᄒᆞ우머리에도금ᄒᆞ여불근바을
흰마ᄅᆞ게메오고그뒤에신부친영ᄒᆞ여ᄃᆞ려올덩
을ᄯᅡ라시니이덩은더욱거록ᄒᆞ여초록유문단
장에오셕시ᄅᆞ노용봉비ᄎᆡᆫ와원앙을겨ᄉᆞ드려무를
ᄂᆞ아ᄯᅳ잉으로터ᄇᆞ고금ᄯᅳᆨ지ᄆᆡᄉᆞ티도금ᄒᆞᆫ여화로로

ᄎᆞᆼᄋᆞ이대 밧치고ᄃᆞᆫ게ᄉᆞ모편쳘에대ᄉᆞ연ᄲᅩᆼ을
무슈이ᄒᆞ여시니ᄭᅳᆺ지하ᄇᆞᆼ여언만지모로고ᄯᅩ네기
동에향낭을슈사ᄂᆞᆫ쇼에비ᄂᆞᆯ다라드리오고ᄀᆞᆯ
노역근발을쳐시며좌우에풍악을낭자이ᄒᆞ니
신낭가ᄂᆞᆫ거ᄉᆞᄀᆞᆺ지아니ᄒᆞ며ᄯᅩ그뒤에셩가ᄅᆞᆫ자
아지게부ᄅᆞ고ᄯᅡ라가ᄂᆞᆫ틔평쳐ᄉᆞ시ᄇᆞ이나ᄒᆞ니일
젼힝샹ᄒᆞ여가ᄂᆞᆫ군인들은머리에거문기ᄉᆞᆯ
ᄭᅩ쳣더니이번ᄒᆞᆫ인의가ᄂᆞᆫ노ᄆᆞᆼ은다가화ᄒᆞᆫ숑
이식ᄭᅳᆺ고가니보기가장조ᄋᆞ나이쳐로ᄒᆞᆫᄂᆞᆫ거시
만이로녜졀이면빈한ᄒᆞᆫᄌᆞᄂᆞᆫᄒᆞᆫ샹당ᄒᆞ여ᄭᅳᆺ

지ᄒᆞᄂᆞᆫ고ᄒᆞᆫ노라니부샹셔기ᄆᆞᆷ가ᄂᆞᆫ제증죠하라비
가우리ᄂᆞ라의쥐사ᄅᆞᆷ으로셔엇지ᄒᆞ여대국에드
러와우연이 쪗ᄉᆞᆫᄒᆞᆫ제지ᄇᆞᆼ을여더공교이국가
뉴모가드러터니그아ᄃᆞᆯ이일노샹ᄒᆞᆼ이ᄉᆞ셔벼샹을ᄂᆞᆸ
히ᄒᆞ고그ᄌᆞᆫ도저렬의오로고ᄌᆞᆼ손기ᄆᆞᆷ가ᄂᆞᆫ사ᄅᆞᆷ다문학
이더옥ᄃᆞᆫᄀᆞᆯᄂᆞᆺᄒᆞ여인ᄒᆞ여국가에쳐ᄇᆡ가죄여샹ᄒᆞᆼ이
뉴오ᄌᆞᆫᄒᆞ고자ᄀᆞᆸ이ᄂᆞᆸ하고ᄒᆞ부샹셔로히ᄂᆞ포이ᄉᆞ허니금
년이월에니부샹셔ᄅᆞᆯᄒᆞ여ᄉᆞᆫ지라제죠샹의분묘
가죠션의이ᄉᆞ다ᄒᆞ여죠션복셔을한별ᄒᆞ여ᄃᆞᆫ제
죠샹제에ᄂᆞᆫ그옷ᄉᆞᆯ이ᄇᆞ고지낸다ᄒᆞ니ᄀᆞᆯ노보아ᄌᆞ근본

을잇지아니ᄒᆞᄂᆞᆫ살ᄆᆞ이오칙ᄉᆞ가오면의쳐남산의
올나가고분묘에단니고우리ᄂᆞᆫ라의셔죠위ᄒᆞ여금화
금뻘을착실이ᄒᆞᄂᆞᆫ고로ᄉᆞ신이ᄃᆞ러가면지어부지간
몬져간살ᄆᆞ부려쳔갈ᄒᆞᄂᆞᆫ지라오ᄂᆞᆫ오후ᄂᆞᆫᄒᆞ여셔샹부
에각ᄒᆞ음식여셧하ᄇᆞ식ᄒᆞ고사ᄆᆞ방의메하ᄇᆞᄒᆞ여보내
고길의엇지온젼갈ᄒᆞ여시니하ᄇᆞ은안은프로고거ᄉᆞᄅᆞᆫ불
근ᄃᆞ에말ᄅᆞᆯ목하ᄇᆞ이오음식은산사원쇼병 속ᄀᆡ산사너어원쇼에먹ᄂᆞᆫ떡이라
죠리원쇼병ᄯᅢ오ᄂᆞᆫ가ᄉᆞᄒᆞᆫ하ᄇᆞ아쳐ᄀᆞ은거ᄉᆞᄒᆞᆫ하ᄇᆞ
기단가의ᄯᅢᄒᆞᆫ의알와져ᄭᅡ라ᄀᆞᆺ치간을고사당가로
ᄂᆞ소너은여ᄉᆞ라셔ᄅᆞ당무친강정ᄀᆞᆺᄂᆞᆫ려ᄒᆞᄂᆞᆫ하ᄇᆞ

ᄒᆞ고두편에연지치로ᄒᆞᆫ다식ᄒᆞᆫ하ᄇᆞᆸ와ᄂᆞᆫ문ᄂᆞᆫ하
지진ᄯᅥᆨᄉᆞᆫ하ᄇᆞᆸ이니몰고ᄅᆞᆯ은비록다르나맛ᄉᆞᆫ다
대동쇼이ᄒᆞ더라ᄌᆞᆨ시ᄉᆞᆫ여ᄀᆞᆨ이상하이ᄅᆞᆯ힝을난와
ᄌᆞᆫ고영거ᄒᆞ여온사ᄅᆞᆯ믕은쟝지ᄌᆞ관청심환오기와
ᄇᆞᆫ져이병ᄌᆞᆫ어보내고하ᄇᆞᆫ은세ᄒᆞ에건냥청으로음식ᄒᆞ
여보내라두니라 이시ᄇᆞᆸ팔일은외국ᄉᆞ신드리정조회
에혹실ᄅᆞᆫ가ᄒᆞ여본대홍노시에가열국ᄉᆞ신드리
몬져힝ᄇᆡ철차ᄅᆞᆯ미리ᄉᆞᆸ의ᄒᆞᆫ지라식젼의옥하
관셔사ᄉᆞᆸ의ᄒᆞᆫ셔ᄒᆞ여보고식ᄒᆞ에홍노시로가공정
문밧긔셔힝ᄇᆡᄒᆞᆯ셔몽고국과회ᄌᆞ국과회ᄌᆞ국라

셔양국은샹시에이ᄉᆞᆫᄂᆞᆫ라이기차ᄆᆞᆷ뼈ᄒᆞ고다마ᄂᆞᆫ죠
션ᄉᆞ신과ᄂᆞᆫ국ᄉᆞ신이ᄉᆞᆸ의에와시니ᄂᆞᆫ국사ᄅᆞᆷ의복
은머리ᄅᆞᆯ마지아니ᄒᆞ고샹ᄋᆞᆫ짜고기ᄅᆞᆷ을발나터럭
을져오고샹ᄉᆞᆫ자지비ᄉᆞᆼ은문ᄃᆞᆫ다ᄋᆞᆫ로사모동ᄀᆞᆺᄃᆞᆫ것ᄉᆞᆯᄎᆞᆺ
빗가ᄆᆞ아쓰고자지비단에나ᄆᆞ뒤단으로다ᄋᆞ기ᄉᆞᆺᄃᆞ라활슈
ᄃᆞ로맛기ᄅᆞᆯ바ᄅᆞᆯ등이러ᄇᆞ히게ᄒᆞ여이ᄇᆞ고ᄂᆞᆫ대단으로마
셰ᄉᆞ치너뷔ᄂᆞᆫ되게ᄯᅴᄅᆞᆯ져ᄇᆞ어셔너뻘가ᄆᆞ아ᄯᅴ여시니
인ᄂᆞᆫ일곱벼ᄉᆞᆯ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니셩명은몽국중이오부ᄉᆞ
졍위해후이곰이니셩명은몽국졍이라의복제조ᄂᆞᆫ
ᄒᆞᆫ가지로뒤머리에ᄯᅳᆫ거시ᄂᆞᆫ로ᄂᆞᆫ비ᄉᆞ치오ᄃᆞ로맛기에무ᄉᆞ

어브고신은옷씌러브히여무엇신지모로며죵인ᄃᆞᆯ은겻빗
뉸포ᄉᆞᄅᆞᆫ것ᄉᆞᄉᆞ로ᄒᆞ여이부고팔모죡도리쳐로ᄒᆞ여셔시
니복셕이즁의나아뵈고셩긴거슨긔ᄂᆞᆫ슌랑ᄒᆞ여뵈
나몰골이심이국쇽ᄒᆞ여뚝ᄂᆞᆫ지못ᄒᆞᆫᄃᆞᆺᄒᆞ더라언
어ᄂᆞᆫ즁원과죠고ᄒᆞᆫᄃᆞᆺ나대쳐가한어요글은한가지기
필목을어더조로원ᄉᆞᄅᆞᆯ무ᄅᆞ니져의ᄂᆞ라이즁원구쳔
칠빅니에슉로가ᄉᆞ쳔니오ᄂᆞᆫ가오쳔니되기져년팔
월에셔나금년지월ᄃᆞ러와ᄉᆞ노라ᄒᆞ니우리ᄂᆞ라
삼쳔여리도오기그리어려온대삼빅니어브ᄉᆞᆫ일
만니예어ᄉᆞ지온곳ᄒᆞ며영숑관은신장이파ᄅᆞ쳐

이나 ᄒᆞ고 얼구로 이둥그러 가장 비둔ᄒᆞᆫ지라 북
셕은 돈피에 남대단거ᄉᆞᆺ츨 올여 우의 이브ᄉᆞᆺ과
도다가 ᄉᆞ옷ᄉᆞᆯ 이브어 시니 거ᄌᆞᆨ은 오셕 실노 부로 결
과 구름과 가셕 ᄭᅳᆺᄎᆞᆯ 가ᄂᆞᆨ키 ᄉᆞᆫ로 노고 금ᄅᆞᆯ 좌
우 여기와 아브뒤에 뇽을 그리고 그 밋터 ᄯᅩ 자지 대단
ᄃᆞ로 마ᄂᆞᆨ 이로 이브고 보라 대단 바지로 이브어 시니
이ᄒᆞᆫ 사ᄅᆞᆷ의 이브은 의 복이 쳔금이 너물거 시니 사
치는 아마도 국진ᄒᆞᆫ고 지라 이우ᄒᆞ여 젼도 쇼럭나
며 녜 부상셔 덕명과 대ᄒᆞᆼ노위 빵국이는 브로대
쳥으로 드러가고 동관들과 ᄒᆞᆼ노관ᄉᆞᆺ 삼원이ᄃᆞ

러와ᄉᆞ신ᄂᆞᆯ을 각ᄀᆞ지ᄎᆞ로셰우고ᄒᆞ옹노관은뇽정
문대샹에 올나셔ᄀᆞ히ᄋᆡᆼ베ᄅᆞᆯ시길셔 사ᄆᆞ비ᄀᆞ고주
ᄅᆞᆯ동셔창을 부로다 일단장대ᄒᆞᆫ 뿐이오 죠금도정
청ᄒᆞᆫ셩음은 어ᄇᆞ고무어시라ᄒᆞᄂᆞᆫ 소리ᄂᆞᆫ지 종시모
ᄅᆞᆯ어라 몽고와 회ᄉᆞ국노ᄆᆞᆷᄃᆞᆯ은 비록아니와 시나져
의복셕은 일젼의 보니 몽고ᄂᆞᆫ 얼굴이 긔ᄀᆞ슈ᄋᆡᆼ
ᄒᆞ고ᄂᆞᆫ 알이ᄇᆞᆯ고ᄂᆞᆫ 비ᄉᆞᄎᆞ로 일신의 복을ᄒᆞ
고약대ᄅᆞᆯ 부리며 즉 바ᄅᆞᆫ 다 살 바ᄅᆞᆫ ᄒᆞ고 회져
국은 얼굴이 한 독ᄒᆞ여 목을 버혀 도즉시 죽지
아니ᄒᆞ고 이러나 사ᄅᆞᆷ을 가ᄅᆞ노지ᄅᆞᆫ 거동을ᄒᆞ

다가 죽으니 이는 왕화에 더욱 드지 아니ᄒᆞ ᄒᆞ기 견
능이 제ᄂᆞ라을 타 혁파ᄒᆞ고 즁쳥 최시보에 가솔
을 다 자보아 다가 황셩에 두어ᄉᆞ다 ᄒᆞ며 복셕은
머리에 블근 비단으로 ᄒᆞᆫ 지기ᄅᆞᆯ 위ᄂᆞᆫ 놉게 ᄒᆞ여 터ᄅᆞᆯ
노션을 두ᄅᆞ니 감ᄇᆞᆨ 치ᄒᆞ며 쓰고 옷ᄉᆞᆫ 보다 셕으로
ᄒᆞ여 이보 회ᄉᆞ국은 복셕이 쳥인과 일반이오셔 양
국 사ᄅᆞᆷ은 복셕이 ᄃᆞ른 것시 어ᄇᆞ스나 어ᄅᆞᆯ 이기ᄀᆞ
로 이노ᄇᆞᆫ 눈이 기ᄇᆞ허 국히 고귀로ᄇᆞ고 심이 녀위여 뵈
더라 연의로 파ᄒᆞᆫ 후ᄂᆞᆫ 국국ᄉᆞ신은 바ᄅᆞᆯ 아니
타고 그 긴 옷ᄉᆞᆯ 입고 두ᄉᆞᆫ으로 아ᄇᆞ자라ᄀᆞ을 거두어

ᄃᆞᆯ고거러져의관으로도라가니쇼젼이국히불샹
ᄒᆞ더라우리도오다가인ᄒᆞ여대쳥문밧글로항
ᄒᆞ여가니다ᄅᆞᆫ이도아니오마당도아닌곳ᄉᆞᆯ바ᄌᆞ셕
을ᄀᆞᆯᄃᆞᆨ히ᄭᆞᆯ고ᄉᆞᆨ셕으로어로ᄅᆞᆯ구문지게노코동
셔양편에흰도ᄅᆞᆫ노난간을ᄒᆞᆫ편에ᄉᆞ시보오간식
ᄭᆞᆷ여시니엇지ᄒᆞᆫ뜻진지보로며ᄎᆞᆫ젼진ᄒᆞ여정
양문밧거나오니뉴리창을로향ᄒᆞ여가ᄂᆞᆫ길이
쳔여보ᄉᆞᆨ ᄀᆞᆺ틔여무ᄉᆞᆫ ᄒᆞᆫ골과허다ᄒᆞᆫ길의삿
ᄀᆞ치ᄒᆞᆫ곳뷘터어ᄇᆞ시물화을버려지니젼마
다세운ᄃᆞᆫ피ᄂᆞᆫᄉᆞ푸ᄅᆞᆯ을니로고도금ᄒᆞᆫ지ᄇᆞ의완

ᄉᆞᆷ문쵸창을무른사와ᄆᆞᆯ근ᄂᆞ뉘리로간ᄂᆞ이셔구여ᄇᆞᆯ고긴탁
ᄌᆞ에홍젼이며운단이며ᄉᆞᆫ노ᄒᆞᆫ가셕담으로방셕을ᄒᆞ여
ᄭᅡᆯ고침향과ᄒᆞ옥가진향을ᄭᅳᆷ여그림ᄆᆞᆫ리등의오셕구슐노
ᄌᆞ리ᄆᆞᆫ여자기ᄅᆞᆯ므ᄅᆞᆯ여시며ᄒᆞ오ᄉᆞᆫ고은빅사증과양각등을
ᄌᆞᆫ금ᄒᆞᆫ들보에ᄀᆞᆫ득이다ᄅᆞᆫ고리인ᄒᆞᆫ노리리와이샹ᄒᆞᆫ거명은ᄎᆞᆯᄂᆞ
리벼러보코찰란ᄒᆞᆫ고의에후ᄀᆞᆫ강ᄒᆞᆫ의복을속ᄂᆞ드리입
고한가이거좌ᄒᆞ여시니아국저혁으로ᄂᆞᆫ여거ᄒᆞᆫ젼을ᄭᅳᆷ여
벌길어ᄇᆞᆺ스리라ᄒᆞ니엇지한심치아니ᄒᆞ리오거리로지나가
며반일을좌우고시ᄒᆞ니눈이ᄌᆞᆯ로여부ᄉᆡ고정신이혈란
ᄒᆞ여동힝을모와허불고조라오니역관에장무관

니시건이ᄂᆞᆫ본대우라ᄆᆞᄋᆞᆫ이ᄂᆞᆫ무ᄅᆞᆯ이과이ᄅᆞᆫ히ᄋᆞ이무
부ᄅᆞ져ᄅᆞᆯ즈ᄋᆞᆼ여ᄒᆞ더니피ᄅᆞᆯ경죄ᄅᆞᆯ버ᄆᆞᆫ여겨ᄅᆞᆯ곤
오도ᄅᆞᆯᄒᆞ니라 이ᄉᆡᆸ팔일황제죵묘거동ᄒᆞᄂᆞᆫ다
ᄒᆞ고ᄯᅩ문셔가와시니계명후공을뫼시고릴내에
드러가지영ᄒᆞᆯ셔밤이어두어문이ᄅᆞᆫ모로되
처음으로부ᄅᆞᆯ근목쳑문을드러죠금가다가셔편을
살창ᄒᆞᄂᆞᆫ문을드러ᄯᅩ이우이가왼편으로ᄯᅥᆨ거삼
문이익고삼문안의일반장은지나문누ᄒᆞ나에
졍문을다ᄋᆞᆺᄒᆞ여내고좌우에협문이ᄀᆞ시니
좌협문으로드러간ᄒᆞᆫ일ᄌᆞ로문다셧시이시되

이문은 졍문과 협문이어ᄇᆞ시대 쇠ᄀᆞᆺ고 굉걸휘
황ᄒᆞᆫ거 손외문에 비기지 못ᄒᆞ고 문드러 가ᄂᆞᆫ동안
이하지리ᄒᆞ거ᄂᆞᆯ 문ᄂᆞᆫ 동을 바로 노 바ᄅᆞ며 보니 스무ᄅᆞᆯ
여섯발이오 문짝마다 슈홍을 빗나게 칠ᄒᆞ고 함
박쇠에 조규ᄒᆞ여 ᄉᆞᆯ가지 박고 문 바ᄉᆞ긔 져근 지ᄇᆞ만ᄒᆞᆫ
셕사저ᄒᆞᆫ 쌍을 가로 안치고 존무ᄅᆞᆯ 건너 무지게 달이
ᄅᆞᆯ 노코 옥셕을 로 일ᄀᆞᆫ 보ᄀᆞᆯ을 난간ᄒᆞ여 다셧길을 내
고 난ᄃᆞ에 다사저ᄅᆞᆯ 안쳐서 로 조라 보게 ᄒᆞ고 히ᄌᆞ
가을 로 ᄃᆞ 편에 연ᄒᆞ여 병ᄒᆞ 셕을 치고 셕ᄎᆞᆺ을 방
졍이 싸시며 그달이 전너 흰 ᄌᆞᆯ 로 베모지게 우리ᄅᆞᆯ 짝

고소리 주총대로 무우고옥줄을 주을게 다름어뇽을
난만니 사기고 급희 열 길은 ᄒᆞᆫ정천주ᄒᆞᆫ쌍을 세
워 시니 이는 한을을 괴온다 마리라 이문안의 즈니져
와ᄀᆞᆺ든 정천주일 쌍이ᄯᅩ 셕고복으로 일마쟝은가니
오문이 쳐 사ᄂᆞᆺ치 삭니 보ᄒᆞᆫ고 문ᄃᆞᆫ허 주어 솔 바ᄉᆞ타
은가니 이ᄀᆞᆺ즌 화ᄋᆞ국 젼아보복문 바ᄉᆞ기니 중으로 공묘
ᄅᆞᆯ ᄃᆞᆼᄒᆞᆫ고 나ᄆᆞᆼ으로 정양문을 대ᄒᆞᆫ게 ᄒᆞ고 셔으로ᄉᆞ직
을 적ᄒᆞᆫ문이라 문지은 벼보은 정문은 나ᄆᆞᆼ항ᄒᆞ여 정
양문을 대ᄒᆞ여 ᄃᆞᆯ게 지ᄉᆞ고 좌우에 정문 양문을
대ᄒᆞ게 ᄃᆞᆯ져 지ᄉᆞ고 좌우에 정문과ᄀᆞᆺ치 크게 지은

문은시ᄇᆞ여보시ᄭᅵ ᄡᅵ그어지어시니웅장이ᄂᆞᄇᆞ은것시
한ᄂᆞᆯ의다을듯ᄒᆞ고동셔양편으로ᄯᅩ이와일체로지
어시니뫼을로니르면졍문은쥬산이오기여ᄉᆞ문은내외쳥
뇽빅호ᄅᆞᆯ겸ᄒᆞᆫ듯ᄒᆞ허라박셕은목척문안븟허
느리ᄭᅡ라ᄒᆞᆫ져ᄉᆞᄒᆞᆯ기어ᄇᆡ게ᄒᆞ고쥭셕으로졍이갈아
어로ᄅᆞᆯ내고황극젼븟허죵묘가지홍당지초롱을
ᄒᆞᆫ간동안식ᄉᆞ이ᄒᆞ여ᄌᆞᆨ쥭ᄅᆞᆯ노어로에다라시니화광
이혹희미ᄒᆞᆫ져ᄋᆞᆫᄌᆞᆯ기ᄆᆞ지게가ᄃᆞᆫ듯ᄒᆞ고화
광이ᄯᅵᆼᄉᆞᆼᄂᆞᆫ곡불근비단을던ᄃᆞᆺᄒᆞ여뵈더라ᄌᆞᆯ궁
을기ᄃᆞ리고셔젼월과ᄋᆞᆼᄂᆞᆫ간의안져더니ᄀᆡ치차지ᄒᆞ

ᄂᆞᆫ관원이라ᄒᆞ고모ᄅᆞᆯ골과거중이극히ᄎᆞᆫ자ᄇᆞᆫ거시ᄃᆞ
러와회옥ᄌᆞ거라ᄒᆞ여지각어ᄇᆞᆫ말노식ᄉᆞᆫ어려지리ᄉᆞᆫ
작ᄒᆞ니시모이괴로ᄇᆞᆷ더니맛ᄎᆞᆷ우ᄉᆞ간의ᄲᅵ부시랑철보
가이말을ᄃᆞᆺ고ᄌᆞᆨ시ᄇᆞᆯ어내여ᄭᅳ지져와ᄅᆞᆯ대인은우리
ᄂᆞ라대인이나남의나라대인이나ᄒᆞᆫ가지어ᄂᆞᆯ네엇지
ᄃᆞ러가ᄆᆞ려이ᄒᆞ리오ᄒᆞ니ᄀᆞᆺᄒᆞᆫ자ᄇᆞ인이라시ᄃᆞ러와난잡
히아니ᄒᆞ더라이ᄋᆞ고쇠복ᄉᆞ고리오문안의셔나ᄯᅵ가셕괴
칠ᄅᆞᆯ어로좌우에뷘ᄃᆞᆷ어ᄇᆞ시ᄭᅵᆼ우ᄀᆞᆺ홍당지ᄃᆞᆼ이일시
에어ᄇᆞ셔지며동의만ᄒᆞᆫ양각ᄃᆞᆼ을바ᄉᆞ고아져더니정문
을열며황양산뒤에황상이황옥ᄉᆞᆫ골ᄅᆞᆯ타고

나올셔이번은무슨의장이무슈이따라오되어
두어ᄌᆞ세이분간치못ᄒᆞ고황샹이지난ᄒᆞ운ᄂᆞᆫ등
부ᄅᆞᆯ을ᄎᆞᄂᆞ고자리에돌ᄂᆞᆫ려노코시위와ᄎᆞ쥬죵인
번은영안ᄂᆞᆫ거동이여셔빅빅터ᄒᆞ나ᄒᆞᆫ만되
훤화가어ᄇᆞ고다만마도발쇼리만ᄃᆞᆯ니러라죵
ᄇᆞᆯ러간지ᄒᆞᆫ식경은ᄒᆞ여셔죵ᄆᆞᆫ바ᄉᆞ기셔대
취타ᄒᆞ더니ᄯᅡ에노왓던양가ᄃᆞᆼ을이ᄅᆞ제이돌
ᄃᆞᆯ며황옥쇼고아ᄇᆞ희공ᄂᆞᆯᄅᆞ치고환궁ᄒᆞ니아셩
과황옥멘놉ᄃᆞᆯ은다블근옷ᄉᆡ머리에ᄒᆞ오슈ᄌᆞᆺ
치ᄒᆞ여ᄯᅳᆺ고갓옷도아니이ᄇᆞ여ᄉᆡ더라이ᄅᆞ젼지영

에ᄂᆞᆫ뉴국국ᄉᆞ신은아니와ᄉᆞ더니이번운차ᄇᆞ예ᄒᆞ나
죠션ᄉᆞ신뒤예셔지영ᄒᆞ더라인ᄒᆞ여구실을파
ᄒᆞ고쳣문을나오니비로쇼평명이되ᄂᆞᆫ지라관의
도라와죠반을먹고기ᄇᆞ사ᄋᆞ셔지ᄇᆞ의봉무로을텬평
차에너여타고동안문을지나십ᄇᆞ니넘은고죄가니
즉인은대궈로ᄂᆞ셔미ᄉᆞ쳐나오지아니ᄒᆞ여ᄉᆞᆫ지라
외당에안져기ᄃᆞ리더니이윽고상셔가와ᄉᆞ다ᄒᆞ
거ᄂᆞᆫ무ᄅᆞᆯ거ᄂᆞᆫ을져은단ᄌᆞᆫᄅᆞᆯ져ᄂᆞᆫᄒᆞ니그ᄌᆞᆼ이ᄅᆞᆯ오
마ᄂᆞᆫ사ᄅᆞᆷ이나와영거ᄒᆞ여온사ᄅᆞᆷ의셩명과지ᄆᆞᆷ
을져어다ᄅᆞ나ᄒᆞ오ᄭᅡ라온하이ᄂᆞᆺ기도다못고

드러가지 시ᄉᆞ나 문이 굿ᄃᆞᆫ히 잠겨 잇ᄉᆞ
곳ᄌᆞ로 안으로 거니와 슈하 ᄇᆞᆫ 완과 졔ᄌᆞ 등이 ᄆᆞᆫ히 잇ᄉᆞ
여 불가 ᄒᆞ엿ᄉᆞ나 ᄆᆞᆫ히 ᄆᆞᆫ드로 ᄒᆞ여금 ᄌᆞ유로이 ᄒᆞ엿ᄉᆞ
통관ᄉᆞ 이ᄅᆞ되 ᄌᆞ긔 ᄂᆡ인 ᄇᆞᆫ 완은 ᄇᆞᆯ과 ᄒᆞ엿ᄉᆞ
ᄆᆞᄃᆞᆫ ᄂᆞᆫ 쇼문ᄒᆞᆫ ᄂᆞᆫ 이ᄅᆞ되 ᄌᆞ긔 ᄂᆡ인 ᄇᆞᆫ 완은 ᄇᆞᆯ과 ᄒᆞ엿ᄉᆞ
은ᄆᆞᆫ 졍ᄒᆞ여 ᄌᆞ유로이 ᄒᆞ엿ᄉᆞ나 ᄆᆞᆫ히 ᄆᆞᆫ드로 ᄒᆞ여금 ᄌᆞ유로이
고아 직ᄒᆞ여 ᄆᆞᆫ히 ᄆᆞᆫ드로 ᄒᆞ여금 ᄌᆞ유로이 ᄒᆞ엿ᄉᆞ
니비ᄒᆞᆫ ᄉᆞᆷ 이ᄅᆞ되 ᄌᆞ긔 ᄂᆡ인 ᄇᆞᆫ 완은 ᄇᆞᆯ과 ᄒᆞ엿ᄉᆞ
ᄂᆞᆫ 가ᄉᆞ의 피ᄒᆞ여 ᄆᆞᆫ히 ᄆᆞᆫ드로 ᄒᆞ여금 ᄌᆞ유로이 ᄒᆞ엿ᄉᆞ
ᄂᆞᆫ 가ᄉᆞ의 피ᄒᆞ여 ᄆᆞᆫ히 ᄆᆞᆫ드로 ᄒᆞ여금 ᄌᆞ유로이 ᄒᆞ엿ᄉᆞ
ᄂᆞᆫ 가ᄉᆞ의 피ᄒᆞ여 ᄆᆞᆫ히 ᄆᆞᆫ드로 ᄒᆞ여금 ᄌᆞ유로이 ᄒᆞ엿ᄉᆞ

세두냥은무러즈고졍ᄉᆞ와ᄂᆞᆫ본대친ᄒᆞᆫ고로상
방의셔보낸거시다대국에긴귀ᄒᆞᆫ거시오영거
ᄒᆞ여간사ᄅᆞᆯ모ᄉᆞᆨ면이시내당으로청중여보고
즈기도ᄯᅳ리보단곱졀로이더ᄒᆞ더리지ᄇᆞᆫ기ᄇᆞᆫ
ᄅᆞ러가못보아시나대문바ᄉᆡ거사겨사기ᄂᆞᆫ하마
셕과문안판장에공부령당이라니부령당
이라각ᄂᆞᆫ뭐ᄀᆞᆯ즌피에크게ᄡᅥ가ᄅᆞᆯ오거ᄅᆞᆫ고ᄉᆞ환ᄒᆞᆫ
가졍과ᄉᆞᆨ청ᄒᆞᆫᄂᆞᆫ녀죵드리의복을다션명이
ᄒᆞ고시ᄇᆞᆫᄉᆞᆨᄒᆞᆫ지ᄇᆞ이가장웅장ᄒᆞᆫ여뵈고젼의
갓던사ᄅᆞᆷ의마ᄅᆞᆯ을ᄅᆞᆯ니각셕비단과ᄉᆞᆨ랑

여천은을노상에무슈이거러두어스다가이로언
슈응이ᄉᆞ스면즉시내여즉더라ᄒᆞ니그부지로
가이아로너라ᄂᆞ관ᄒᆞ을ᄯᅢ에제이로죠시ᄇᆞᆷᄒᆞ을거시화
져라군로와쇄마구이을존례로분비ᄒᆞ여가방
의슈관과ᄒᆞ며겨ᄆᆞᆷᄒᆞ여불을신칙ᄒᆞ고황셩이
빅물이다ᄒᆞᆷᄒᆞ을거시어ᄇᆞ스되다만물마시괴히
ᄒᆞ여힝ᄌᆞᆼ마두로ᄃᆞᆯ녀ᄂᆞᆫ시ᄇᆞ터죈ᄂᆞᆫ셔산보내여
물을말ᄯᅢ시러오나이도ᄃᆞᆼ간에간계이셔가다
가거리에셔기려오니ᄆᆞᆯ마시대단치ᄆᆞᄉᆞᄒᆞ더라
오날밤을당ᄒᆞ니십회셔로온ᄃᆞᆼ지ᄇᆞ의ᄌᆞ라

ᄌᆞ식이어ᄇᆞᆫ쇼헴셀지쳔이어ᄇᆞᆺ니더옥관삼ᄒᆞ
더라 회이ᄅᆞᆫ은황상이 황국젼뒤보화젼의셔
빅관을다리고연ᄌᆞᆼ연ᄒᆞ다ᄒᆞ죄여긔ᄂᆞᆫ여러이ᄃᆞ
러가지못ᄒᆞ고다만샹부ᄉᆞ두분이참ᄆᆡᄒᆞᆫ다ᄒᆞ니
비록젼정의ᄂᆞᆫ못ᄃᆞ러가나밧문ᄭᅡ지나가고시부
되신긔가일양블평ᄒᆞ여못가더니뫼시고가던사
ᄅᆞᆷ젼ᄒᆞ던말을ᄃᆞᆯ니이번ᄃᆞ러가던구ᄒᆞ궐은더우
볼거시만아쳐에휘화찰난ᄒᆞ고샹부ᄉᆞᆫᄃᆞᆼ
관이인ᄌᆞᆼ여보화젼바ᄉᆞ긔안져더니황제조션ᄉᆞ신
을진정ᄒᆞ라ᄒᆞ여어타ᄇᆞ에올ᄋᆡ고친이ᄉᆞᆯ잔

[illegible]
신을 주고 도로ᄂᆞ려 올셔 츄일 이ᄇᆞ의 인조ᄒᆞ기ᄂᆞᆫ 네 부시
랑이 ᄒᆞ고 황제 얼굴은 중시 존어ᄆᆞᆼ여 치야 다 못
보고 오날이 제셕인고로 추귀ᄒᆞᄂᆞᆫ 사ᄇᆞ회ᄅᆞᆯ 잔채 네
ᄆᆞ슈 이ᄒᆞ되 귀신의 얼굴은 탈ᄭᅴ여 오방을 응ᄒᆞ여
츄ᄆᆞᆯ츄이고 음식은 포고여 노와ᄉᆞ기 무엇시 지 모로ᄂᆞᆫ 너라
ᄒᆞ터니 식ᄒᆞ우에 잔샹을 두 가ᄌᆞ식ᄇᆞᆯ 근ᄇᆞᆯ ᄅᆞ터ᄇᆞ퍼 가
져와 시니 긔 떵은 쪽ᄲᅳᆫ 피대 져ᄇᆞ이 오음식은 하ᄇᆞᄒᆞ여
마은 일고ᄇᆞᆸ 가지 나ᄒᆞ안 예지와 밀ᄌᆞᆫ 비ᄋᆞ나 팔보다ᄋᆞ네
다 ᄯᅥᄉᆞ가지 외 예ᄂᆞᆫ ᄒᆞᆫ가지 하져 ᄒᆞᆯ 것어ᄇᆞ터라 두어친
구로 터부러 뉴구ᄉᆞ신이ᄉᆞᆫ 과ᄂᆞᆫ을 차져 가라ᄒᆞ다 가피인라

언어ᄅᆞᆯ동ᄒᆞ시못ᄒᆞ여ᄌᆞᆼ시찻지못ᄒᆞ고그저도라올
셔길가에ᄌᆞᆫ고만아ᄆᆞ저잇건ᄂᆞᆯ즈러가니관왕을뫼
뫼시고탁ᄌᆞ에가셔떡과실과ᄅᆞᆯ하ᄇᆞᆫ여ᄉᆞ시ᄇᆞ여긔
나ᄇᆡ려ᄂᆞ고ᄂᆞᆯ북ᄇᆞᆯ열샹을져고분향고ᄌᆞᆨᄒᆞ니응당
세시라ᄒᆞ고이리ᄒᆞᄂᆞᆫ가시부ᄯᅢ정당후면에즈러가니저
군방의청기야빗화분의모란ᄂᆞᆨ숑이가치고미화
ᄒᆞᆫ분과ᄒᆞᆼ화ᄒᆞᆫ분이바야으로피여시니
청ᄋᆞᄋᆞᆫ지여ᄇᆞ과다ᄆᆞᄋᆞᆫ향긔당져과다ᄅᆞᆷ이
어ᄇᆞ스니신긔ᄒᆞ더라옥하관을향ᄒᆞ고도라오더니장
과ᄂᆞᆫ집이극히웅장ᄒᆞ여뵈건ᄂᆞᆯ즈러가니안파ᄉᆞ마당에

대독슈빅을버리고쳥장이며토장을일면
거르며이로변파ᄂᆞᆫ거시가장분요ᄒᆞ고ᄒᆞᆫ편헛간의
ᄂᆞᆫ큰돌ᄆᆡ다셧ᄉᆞᆯ거르고노셔에멍에ᄒᆞ여가ᄉᆞᆫᄒᆞᆫ
필시ᄯᅢ여갈니ᄂᆞᆫ대곡식은나모졔술네에다ᄇᆞ아ᄆᆡ쌱
우의노아ᄉᆞᆫ로ᄒᆞ을너ᄃᆞ러가게ᄒᆞ고노셔ᄂᆞᆫ두ᄂᆞᆫ을
싸마여작난을못ᄒᆞ게ᄒᆞ여시며ᄯᅩᄒᆞᆫ편에ᄒᆞᆫ간
은ᄒᆞ게ᄉᆞ이ᄅᆞᆯ고졔ᄀᆞᆯ기ᄅᆞᆯ게ᄆᆡᆼ그러원간에건
너가게두ᄌᆞᆯ노ᄒᆞᆫ가ᄃᆞᆫ은ᄃᆞᆯ봄에ᄆᆡ고ᄒᆞᆫᄌᆞᆯ은
졔자ᄅᆞᆯ내쳐ᄆᆡ여바바ᄉᆞᆯ로내여ᄃᆞ피ᄂᆞᆫ중을도ᄅᆞᆯ의ᄆᆡ
고ᄒᆞᆫ놈이ᄃᆞᆼ방에거러어ᄇᆞᆫ여ᄃᆞᆸ두바ᄅᆞ노ᄇᆞᆯ보

지로ᄒᆞ드ᄉᆞ드ᄒᆡ면체가ᄎᆞᄭᆞ쳔ᄌᆞᄀᆞᆯ ᄒᆞᆫᄂᆞᆫᄃᆞᆺ세ᄒᆞ니ᄀᆞ
로가ᄂᆞᆫ요ᄃᆞᆺᄎᆞ이여경가ᄭᆞ에ᄭᆞ이곤ᄒᆞᆫ으로ᄂᆞᆫ노셔ᄉᆞᆷ
피ᄯᅳ금게을니도라가면쳐로치니다셔ᄉᆞ노셔가ᄒᆞᆫ
가ᄅᆞᆺ치쉬지못ᄒᆞ고도ᄂᆞᆫ지라이러ᄒᆞ면하로ᄒᆞ
ᄂᆞᆫ거시ᄯᅥᆺ셤이나되ᄂᆞᆫ날부ᄅᆞᆫ즉ᄉᆞᄇᆞᆯ하시ᄇᆞ셔은
가ᄅᆞ아ᄀᆞ나ᄅᆞᆯ내로다ᄎᆞ도라ᄒᆞ니이ᄅᆞᆯ노보면ᄒᆞᆫ사ᄅᆞᆷ
의하로ᄒᆞᄂᆞᆫ이ᄅᆞᆯ이아ᄀᆞᆨ사ᄅᆞᆷ의여ᄅᆞᆫ ᄒᆞᆯᄒᆞᆫᄂᆞᆫ거ᄉᆞᆯ랑
ᄒᆞ고ᄂᆞᆫ남은니ᄋᆞᆺ지감난ᄒᆞ리오이나ᄅᆞᆯ오ᄒᆞ우ᄂᆞᆫᄒᆞ여
셔황제가사ᄇᆞᆫ신의게가ᄀᆞᄅᆞᄂᆞᆫ뉴ᄌᆞᄉᆞ리와감ᄌᆞ삼지
와문원일지식ᄉᆞ숑ᄒᆞ여시니마ᄉᆞ츰남방에

셔죠공이드러온고로보내여다ᄒᆞ더라문원이
라ᄒᆞᄂᆞᆫ거ᄉᆞᆫ비ᄉᆞ관내가쳔연ᄒᆞᄂᆞᆫ뉴ᄌᆞᄌᆞᆫ되우이
젹이ᄲᅡ고크기사발만ᄒᆞ니이러ᄒᆞᆫ실과ᄂᆞᆫ듕
원의도어ᄇᆞᄂᆞᆫ거시라샹방에서녀여가고져ᄒᆞ
여즉시부방에친이와가져가시고셔장관에온건
ᄉᆞᆫ지ᄇᆞ의내여다가구경시이라ᄒᆞ기ᄒᆞ나ᄒᆞ마ᄉᆞ도
못보앗더니구ᄒᆞ우샹ᄒᆞ여가기ᄭᅴ여보나맛도ᄂᆞᆺ
와이ᄅᆞ반이오ᄭᅴᄇᆞ지ᄅᆞᆫ은진바ᄅᆞ노ᄉᆞ을너어졍이말
니여ᄲᅡ죽통ᄒᆞ라ᄒᆞ더라젼역에ᄯᅩ미부로셔
ᄉᆞ신의게하마샹이라도ᄒᆞ고셰찬이라도ᄒᆞ

ᄂᆞᆫ 잔샹을 ᄎᆞ려 와 시나 시ᄅᆞ과 외예ᄂᆞᆫ ᄒᆞᆫ가 지ᄂᆡ
ᄀᆞᆯ거ᄉᆞ어ᄇᆞ더라 만ᄂᆡ 타국에 쳐음으로 와 과셰로ᄒᆞ
니 우으로 사모ᄒᆞᄂᆞᆫ 회포와 ᄉᆞᆯ하에 권련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
을 ᄉᆞᆯ로 억제ᄒᆞ기 어려오나 오나ᄅᆞᆫ 이ᄆᆞᄋᆞᆷ을 아라
셔로 위로ᄒᆞ리 어ᄇᆞᄉᆞ니 더욱 초연ᄒᆞ여 단축을
ᄌᆞᆫ고 우열 어ᄇᆞ시 ᄒᆞᄂᆞᆫ 안져ᄃᆞᆫ 의 소리로 기ᄃᆞ러
죠 차ᄇᆞ의 나ᄃᆞ리 가쳔ᄎᆞ의 더죠의 져ᄅᆞᆯ 차로 보고져
ᄒᆞᄂᆞ라 가ᄇᆞ인 졍원ᄅᆞᆫ 조일ᄅᆞ파루 우관복을
비러 이ᄇᆞᆯ고 옥하관 다ᄅᆞᆯ이 에 나가니 황제가 죠 찹
젼에 원당에 몬져 거동ᄒᆞᄂᆞᆫ 다ᄒᆞ고 탄ᄒᆞ대로에

쳔ᄅᆞ망ᄃᆞᆼ과ᄂᆞᆫ뉴리ᄀᆞᆺ튼낭ᄀᆞᆨ ᄃᆞᆼ을ᄃᆞᆫ두ᄌᆞᆯᄂᆞ여
ᄒᆞ여ᄭᅥ시ᄯᅥ가온대왕내ᄒᆞᄂᆞᆫᄃᆞᆼ ᄎᆞᆨ이ᄉᆞᆫ미ᄅᆞᆯ
니어시니화광이표요ᄒᆞ여ᄃᆞᆯ비ᄉᆞᆯ대신ᄒᆞ고
병문바ᄃᆡ쳥삼ᄉᆞᆼ을로셔ᄅᆞ포장을ᄒᆞ여치고
군병이지ᄀᆞ희여시니어ᄇᆞᆺᄀᆞᆨᄒᆞᆫ벼ᄇᆞᆼ을비ᄒᆞᆫ
대어ᄇᆞ더라궁장바ᄉᆞᆯᄃᆞᆼ프리ᄅᆞᆫ지나오니은ᄎᆞᆺ오
십남시ᄀᆞ다ᄅᆞ나ᄒᆞ더ᄭᅡ셕ᄃᆞᆼ을ᄭᅥ가에셔ᄭᅥ여
거ᄅᆞ고ᄒᆞᆼ ᄌᆞᆨ을바ᄅᆞᄭᅥ시니황ᄒᆞᆯᄒᆞᆫ비ᄉᆞᆺ치이ᄅᆞᆼ
에ᄯᅩ이더라동안ᄆᆞᆫ을ᄃᆞ러ᄃᆞᆼ화문바ᄉᆞᆯ로져ᄀᆞᆫ
자ᄅᆞ문ᄃᆞᄅᆞᆼ을지나동궐ᄅᆞᆫ문을로셔쳔안문안

의셔편월랑에 안져 더니 이저 동의ᄂᆞᆫ지 영을아
니ᄒᆞᄂᆞᆫ지라 텩화문안의셔쇠부쇼력연ᄒᆞ여나
며 황제 황옥 좌룩을로나오니 시위와 의장은
죵묘거동과ᄒᆞᆫ가지오ᄉᆞ신ᄃᆞᆯ은ᄃᆞᆼ부ᄅᆞᆯ을가부초고
월랑안의안젓더니오력지아니ᄒᆞ여쳔안문
바ᄉᆡ셔쥬러소력나며 텩화문안의ᄯᅩ북을울
니더니ᄃᆞᆼ을ᄇᆞᆯ기고화궁ᄒᆞᄂᆞᆫ지라동방이오히
려ᄇᆞᆯ지아니ᄒᆞ여셔쳔안문으로오봉산ᄌᆞᆺᄃᆞᆫ거
시드러오거ᄂᆞᆯ놀나보니코키리게연을머여다셧
시오니이즘셩은ᄂᆞᆯ기쳔하에다시짝이업고

저로사방사ᄅᆞᆷ의말을분간ᄒᆞ고눈으로제왕될
이를알고몸으로셩신응ᄒᆞ니쳔졍으로
두골을박아뉴혈이임니 ᄒᆞ다가날이져므러
별을보면즉시아무라여샹ᄒᆞ고쳔ᄌᆞ가아니
면부리지못ᄒᆞ고죠션사ᄅᆞᆷ의발로등이아라듯
는고로역관을샹역이라ᄒᆞ니어시지영어ᄒᆞᆫ즘
셩이아니라오만은셩간거손극히용렬ᄒᆞ여
키는두길반은ᄒᆞ고길의는두발은ᄒᆞ고몸
은십이절너 야ᄇᆞ다리에 인ᄒᆞ여 붓ᄂᆞᆫ듯ᄒᆞ고
머리큰가는대족이얽여ᄆᆡ여ᄒᆞ고귀ᄂᆞᆫ젹은문짝만ᄒᆞ

고네다ᄅᆞ이 화복ᄒᆞᆫᄅᆞᆫ두리기동만ᄒᆞ고빠ᄅᆞᆫ은숏
쑤에만ᄒᆞ되발ᄅᆞᆸ이잇ᄂᆞᆫ듯시부고쏘리ᄂᆞᆫ두어
ᄌᆞᄂᆞᆫ되고누ᄂᆞᆫ예ᄉᆞ말ᄂᆞᆫ만ᄒᆞ니ᄀᆞ리ᄀᆞᆫ메예
샹졍ᄃᆡ못ᄒᆞ고임ᄇᆞ아리혀은부로과너덧쌤
은되고아금니ᄂᆞᆫ기ᄅᆞᆫ의너더ᄉᆞ자도녀곰몸뒤셔
너우음이나되여공ᄌᆞᆫ가ᄒᆞ예마죠쌧쳐시니이
ᄂᆞᆫ제게화근이오죠금도쏘이ᄅᆞᆫ곳어ᄇᆞ셔뵈고우ᄉᆞ턱
은인ᄒᆞ여코와ᄒᆞᆫ가지로셔ᄒᆞ려ᄎᆞᆯ가ᄂᆞᆫ러따에
다어시니ᄇᆞᆯ노셔너ᄇᆞᆯ이나되여지ᄇᆞᆫ흐ᄅᆞᆯ져근
안셕쳐로ᄆᆞᆷ쳐ᄌᆞᆫ며ᄂᆞᆯ오로마타니ᄇᆞᆸ의너을

졔 여ᄅᆞ번이 ᄯᅳᆫ셔ᄂᆡ ᄉᆞᆫ나 시ᄅᆞᆯ ᄉᆞᄒᆞ여 헛것ᄉᆞᄅᆞᆫ너
코소ᄅᆡᄂᆞᆫ나 귀와 방ᄋᆞ블ᄒᆞ고 몸의 한ᄂᆞᆺ 혈이
어ᄇᆞ셔 회셕 비늘이ᄀᆞᆺ ᄉᆞ니 보기 증그러 워 뵈고
ᄯᅩ치 위ᄅᆞᆯ 심이 타ᄂᆞᆫ고로 두귀예 비단으로
집을ᄒᆞ여 ᄭᅵ여ᄃᆡ라 본근셔 촉즘 셩이니
사ᄆᆞ의 궐이 나ᄯᅳᆫ 잡ᄇᆞ어 올젹 현ᄌᆞ의 표
셔ᄅᆞᆯ 가디고 사ᄅᆞᆷ이 가ᄯᅳᆫ동구에 나와 사ᄌᆞᄅᆞᆯ
코으로 마타 가디고 드러가여 코키리 가모이여
조셔ᄅᆞᆯ 보고 그듕ᄒᆞ으 나이 두므ᄅᆞᆷ플 쌀ᄯᅳᆫ 아ᄇᆞ졔
우고온 타ᄒᆞ더라 잔등이의 안장을 짓고 목의

사ᄅᆞᆷᄒᆞ나이타고안져오더니오문ᄇᆞᆺ긔셰우고
무어시라두어말ᄒᆞᆫ즉시ᄉᆞ러어ᄇᆞ드리니그제야ᄉᆞ
다다리ᄅᆞᆯ노코나려와ᄯᅩ무슨말ᄒᆞᆫ덕도로이러
나니만일쳥녕을잘아니ᄒᆞ면엇디이긔여부
리ᄀᆞ오션신이다기ᄅᆞᆷ이고ᄌᆞᆨ어도갑ᄉᆞᆫ텬금이된
다ᄒᆞ더라쳔ᄌᆞ의ᄐᆞᆫ는연을외위ᄲᅵ다다버려
노아시니향모련과냥모련과졍쳐로졍쳐로빙
글고마련은놉희두길은넘고장광이져근지ᄂᆞᆫ
ᄒᆞ니사면의난간을ᄒᆞ고운제ᄅᆞᆯ노아승강ᄒᆞ게
ᄒᆞ여시니ᄀᆞᆷ취로셤인거슨이로긔록디못ᄒᆞ나

젼여니금을써뇽봉사긴고즐칠흐고난간의도
다뫼(올나)시고할젹코키리하나이능이쓰을고가면뒤
예달마들은장다름흐여ᄯᅳ라간다흐니그뇽녁
을가이딤작흐거시오이것출입흐는문을
ᄯᅩ언(ᄒᆞᆫ)알디라동의(이)드고져흐며퇴(뒤)화문셔편으
로드러갈셔예는관복흐니외예는못드러가는고
디라흐손의방셕을들고흐손으로공을뫼시고문
턱의드니듕국버브은됴신이결녀예등촉을못
가지고드는디라문드러가는동안이기브흐굴속굿
트여겨벽이료되어듀기칠야나[illegible]드뽀디아

니ᄒᆞ니셔로븟들고목화ᄅᆞᆯ쏘으러ᄒᆞᆫ동안드러
가니황극젼이라ᄒᆞᄂᆞᆫ지ᄂᆞᆫ을퇴화젼이라현판
ᄒᆞ엿더라셜월이됴요ᄒᆞ엿거ᄂᆞᆯ고히ᄒᆞ여눈
을드러다시보니들빗치아니오다텬졍의난간ᄒᆞᆫ
돌비치라퇴화젼을반공의ᄂᆞᆫ게짓고옥도ᄅᆞᆫ
셤을구급을무으고층ᄒᆞᆫ이길을ᄂᆡ여구름과뇽을
사겨사면의난간을겨ᄇᆞᆫᄒᆞ여어로와동셔혀ᄂᆞᆫ
넷식니고샹층과듕층대샹에ᄒᆞᆫ난간기동밋마다뇨
듕의드리워니ᄇᆞᆫ으로물을로ᄒᆞ게[illegible]ᄒᆞ여시며좌우
젼후나ᄇᆞᆷ각으로도가며일례로난간을ᄒᆞ고너ᄅᆞᆫᄉᆞᆯ의

흰빗돌노방졍이다듬어가득이ᄭᅡ라시니찬ᄂᆞᆫ
돌빗츤샹셜과일반이오의ᄂᆞᆫ현각은화도듕에드
럿고졍노의ᄂᆞᆫ구름을무로노케그려사기고아홉뇽을버
리고우희동녀썹딜노힝보셕을벽거졍져리ᄭᅡ라
시니벽옥경을쳔샹의잇ᄂᆞᆫ가ᄒᆞ여ᄉᆞ더니아마도여긔
르니른거신가ᄒᆞ며이러ᄒᆞᆫ궁궐의도화져ᄅᆞᆯ오히
려념녀ᄒᆞ여두멍의념슈ᄅᆞᆯ쏙러ᄉᆞ면쳐마가으로
두간의ᄒᆞ나식누른보ᄅᆞᆯ덥허노아ᄉᆞ더라 묘시ᄂᆞᆫᄒᆞ여
셔연예와외장이드러셔니향보련이ᄒᆞᄂᆞᆫ히오냥
보련이ᄒᆞᄂᆞᆫ히오옥뇌와ᄃᆡ뢰각ᄒᆞᄂᆞᆫ힝오소마련과

디마련이 각ᄒᆞᄂᆞ히로 디교쏘ᄒᆞ나 히니 이ᄂᆞᆫ 난에ᄉᆞ와
슈마ᄉᆞ가 좌편의 듀댱ᄒᆞ고 우편에ᄂᆞᆫ 누른 빗츠로구
룡오린국병산이 둘샹이니 금방울사시ᄇᆞ오리를 다ᄅᆞ
고 방울은 어ᄂᆞ고 그리ᄇᆞ만 그린 일산이 네 쌍이오 황셔
초한 쌍이오 빅구룡산ᄒᆞᆫ 쌍이오 빅ᄉᆞ계 화산ᄒᆞᆫ
쌍이오 쳥구룡산ᄒᆞᆫ 쌍이오 ᄒᆞᆼ구룡산ᄒᆞᆫ 쌍이오
흑ᄉᆞ계 화산ᄒᆞᆫ 쌍이니 이ᄂᆞᆫ 경긔ᄉᆞ에셔 듀쟝ᄒᆞ고
큰칼여섯쌍이오 궁시십ᄇᆞ샹과 창시ᄇᆞ쌍이오 뇽두
병쳔 즉 비히오가 온 뎍셤 긔ᄂᆞᆫ 당번ᄉᆞ에셔 쥬장ᄒᆞ
고 신번이 두쌍이오 젼ᄅᆞ번이 두쌍이오 고지번이

두쌍이오강인번이두쌍이오황훠ᄒᆞᆫ쌍이
오의황창이네쌍이오즈작당이ᄒᆞ나이오신무
당과쳥뇽당과빅ᄒᆞ오당이가ᄒᆞ나이오금졀이
ᄒᆞᆫ쌍이오우분당이두쌍이오표미당과뇽두번
이가두쌍이오황초금뇽양두과졍초금뇽두
과빅초금뇽두과쳥초금뇽두ᄒᆞ우초금뇽두이
각두쌍이오황금소거ᄉᆞ거와빅금소거와쳥금
소거와ᄒᆞ옹금소거와각두쌍이오금월세쌍이오
뎡졍송니거ᄒᆞ나이오금안디은달바열필이
니이는월부ᄉᆞ의셔듀당ᄒᆞ고황ᄉᆞ로슈노은쌍뇽

면초금단뇽비션과불근챵뇽면초금단뇽비션가
네쌍이오슌금향노향하ᄂᆞᆫ각ᄒᆞᆫ챵이오금교의ᄒᆞ나
이오금타구ᄒᆞᆫ챵이오슌금분과슌금슐병각ᄒᆞᆫ챵
이오금거ᄒᆞᆫ쌍이오어랑ᄭᅵ쌍이오비두네챵이오도
편이시ᄂᆞᆫ오쌍이니이ᄂᆞᆫ반겁ᄉᆞ의셔듀당ᄒᆞ고ᄋᆞᆼ거
난거와인거와쳔녹거와쳔마거각ᄒᆞ나이오슈쟉
쳥뇽빅ᄒᆞ오거각ᄒᆞ나이오동셔남북ᄉᆞ악거각ᄒᆞᆫ
이오북두거ᄒᆞ나이오이십팔슈거ᄒᆞ나이오형슈
거각ᄒᆞ나이오풍운뇌우일월거각ᄒᆞᄂᆞ이오문거네
쌍이오빅틱거ᄒᆞᆫ쌍이오슉졍위ᄒᆞᆫ챵이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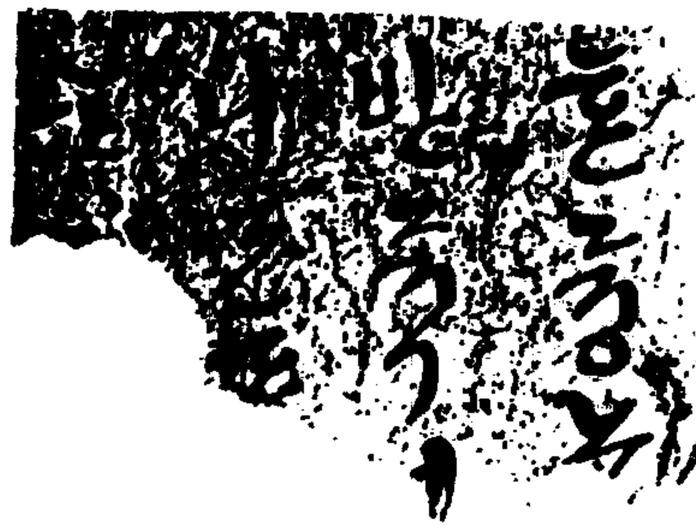
고긔ᄒᆞᆫ쌍이냅초삽쌍이오와초삽쌍에내이는좌
우ᄉᆞ이ᄢᅦ셔장ᄒᆞ고코키리다ᄉᆞ시니이는므슨과을이졍
슈가업고져븜보병이다서시오화가이스믈네에오덕동
호가여ᄃᆞᆫ이오소동ᄒᆞ오가여ᄃᆞᆫ이오곱증이네이오사면고
가마은이오장오가네쌍이오져가다섯챵이오친군
이사십명이오블근오석프른ᄲᅧᆫᄒᆞ오교고의팔십명
잇오표피마으락이에곰ᄉᆞ국지ᄒᆞ고누른깃ᄉᆞᆯ은집사
교위이빅팔십명이오고수팔십명이오ᄒᆞᆼ단
의에누듀더ᄲᅴ고쳥쳔모ᄉᆞ고구리곡더에누른깃ᄉᆞᆺ
존좌우젼ᄒᆞᆼ고위일쳔팔빅오십삼명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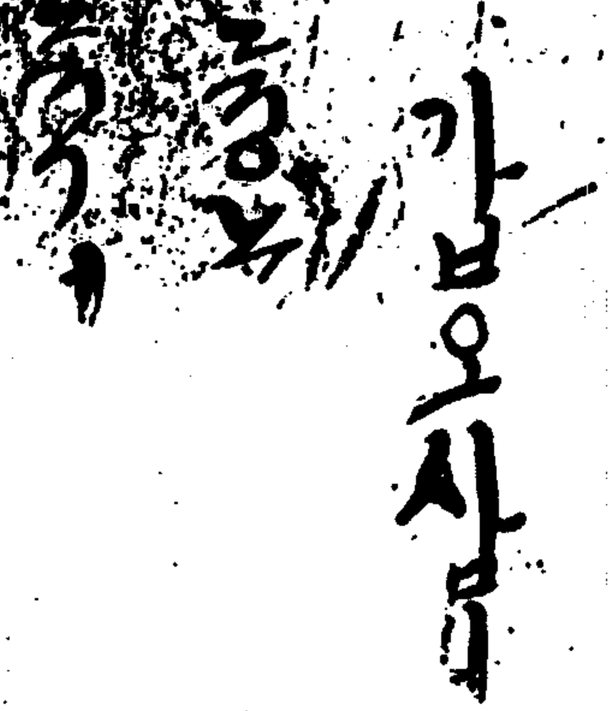
셔ᄅᆞᆯ갈나 졍제이셔고텬샹에 황냥산이당뚱ᄒᆞ고
나셔고ᄒᆞᆼ노관이무슨소릭길게 ᄒᆞᆫ마ᄃᆡ ᄒᆞ더니쇠부
다섯번과그져부다섯번치니텬관이문무ᄅᆞᆯ말ᄂᆞ동
셔반의분ᄒᆞ여서고당샹당ᄒᆞ에헌가소릭니러ᄂᆞ니
ᄃᆡ소강약은현수ᄒᆞ나의연이우리나라인졍전의셔셧덕조
회ᄒᆞᄂᆞᆫ졀차와갓ᄃᆞ여반가보고신ᄂᆞᆫᄒᆞ려라젼샹이노ᄇᆞ
고심슈ᄒᆞ여텬ᄌᆞᄂᆞᆫ어ᄃᆡ로셔나와어ᄃᆡ젼좌ᄒᆞᆫ디알
길어보스나폐와ᄋᆡ피ᄅᆞᆨ과공후경샹ᄃᆞᆯ은희도문비단
에금사로쌍동을슈노은오셔보셕징ᄌᆞ와산포징ᄌᆞ와
슈금이며딘옥딩ᄌᆞ에공쟉우ᄅᆞᆯ다라스고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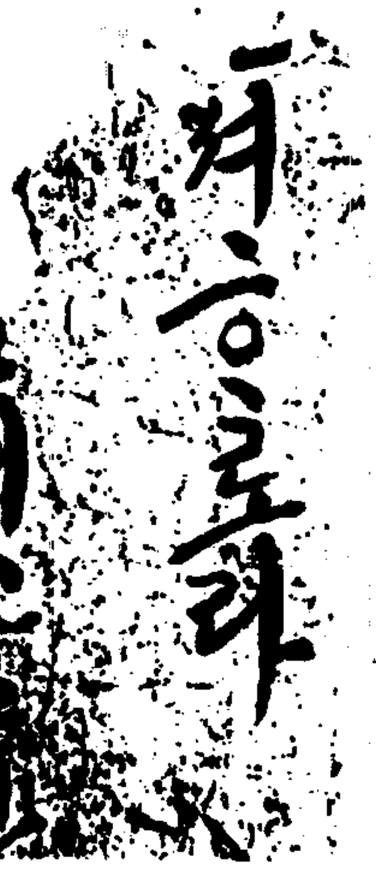
화금피디속으로녀ᄂᆞᆫ듀ᄒᆞᆫ여 목의걸고마뎨구브도
슈에니과ᄋᆞ단보셔을신고아ᄂᆞᆫ슐에셔고디신이하문
부빅관도무비슉노은됴복에가셕징ᄌᆞ와각셕녓
듀며학그린흉비와범과사겨노은것과빗노여갈마
귀노은흉비ᄯᅡᆨᄀᆞ졔디픔을ᄯᅳ라억기ᄅᆞᆯ마초아졍
이써시니무ᄀᆞᆫ위의와슉ᄀᆞᆫ졀조ᄅᆞᆯ뉘오랑키로
ᄒᆞ리오외국사신은셔반말단에참녜ᄒᆞ고뉴구국
사신은됴션ᄉᆞ신뒤에셔ᄉᆞ더라이윽고령젼샹층의
셔두길식ᄒᆞᆫ고동향노에침향을피우며홍노관
이쏘무슨소리ᄅᆞᆯ웅쟝이ᄒᆞᆫ번ᄒᆞ니명편관셰이

피쳐ᄅᆞᆯ세번ᄃᆞᆯ너치고부ᄋᆞᆯ우ᄅᆞᆯ니며ᄀᆞ져야노창
창을부르니쳔관이이ᄅᆞᆫ시에안져노창쇼력ᄅᆞᆯ
응ᄒᆞ여세번고ᄃᆞ두ᄒᆞ고쏘니러나곳쳐안져세
번고ᄃᆞ두ᄒᆞ오ᄭᅴᄅᆞᆯ하ᄇᆞᄒᆞ여삼ᄎᆞᄅᆞᆯᄒᆞ니이거시삼
비구고ᄃᆞ두ᄒᆞᄂᆞᆫ녜라시ᄇᆞ삼셩도하ᄀᆞ관이라ᄒᆞ
ᄂᆞᆫ벼슬은우리ᄂᆞ라감차ᄅᆞ과ᄀᆞᆺᄅᆞᆫ관원이라십
여인이동셔ᄅᆞᆯ부ᄂᆞᆫᄒᆞ여힝녜ᄅᆞᆯ아니ᄒᆞ고셔ᄉᆞ
쳔관의힝녜ᄒᆞᄂᆞᆫ져ᄅᆞᆺᄅᆞᆯ신칙ᄒᆞ니눈ᄀᆞᆺ치
힌ᄯᅳᆯ에ᄉᆞ기노은의복과ᄇᆞᆯ근마을락이죠양에
빗치여눈이부ᄉᆡ고아ᄅᆞᆷ다오나ᄅᆞᆯ빗과상셔

로온안개젼샹에 엉겨여인간이ᄀᆞᆺ지아니ᄒᆞ
더라구실을화ᄒᆞ고나올져ᄀᆞ퇴화문령ᄂᆞ에세
질은ᄒᆞᆫ쳥셕샤져ᄒᆞᆫ샹을좌우에안쳐시니
사김이신동ᄒᆞ여은연이산거ᄉᆞᆺ고쳔안문을
나올셔화제손ᄌᆞ졍치왕이나오니ᄂᆞ히블과
연대여ᄉᆞᆫ되고어ᄅᆞᆯ이옥ᄀᆞᆺ퇴여나믄ᄒᆞᆼ일셕
이오거ᄇᆞᆼ은의복에블ᄅᆞᆫ마ᄋᆞ라이ᄅᆞᆯ쓰고빅마
ᄅᆞᆯ타시니더옥빗나뵈고져의ᄃᆞ죠셜사ᄅᆞᆷᄃᆞᆯ
을구경ᄒᆞᆫ노라고마ᄅᆞᆯ을거ᄉᆞ자ᄇᆞ고완ᄂᆞ이가며심
이ᄉᆞᆨ시ᄒᆞ더라위위ᄂᆞᆫ뒤에마ᄅᆞᆯ탄ᄎᆞᆨ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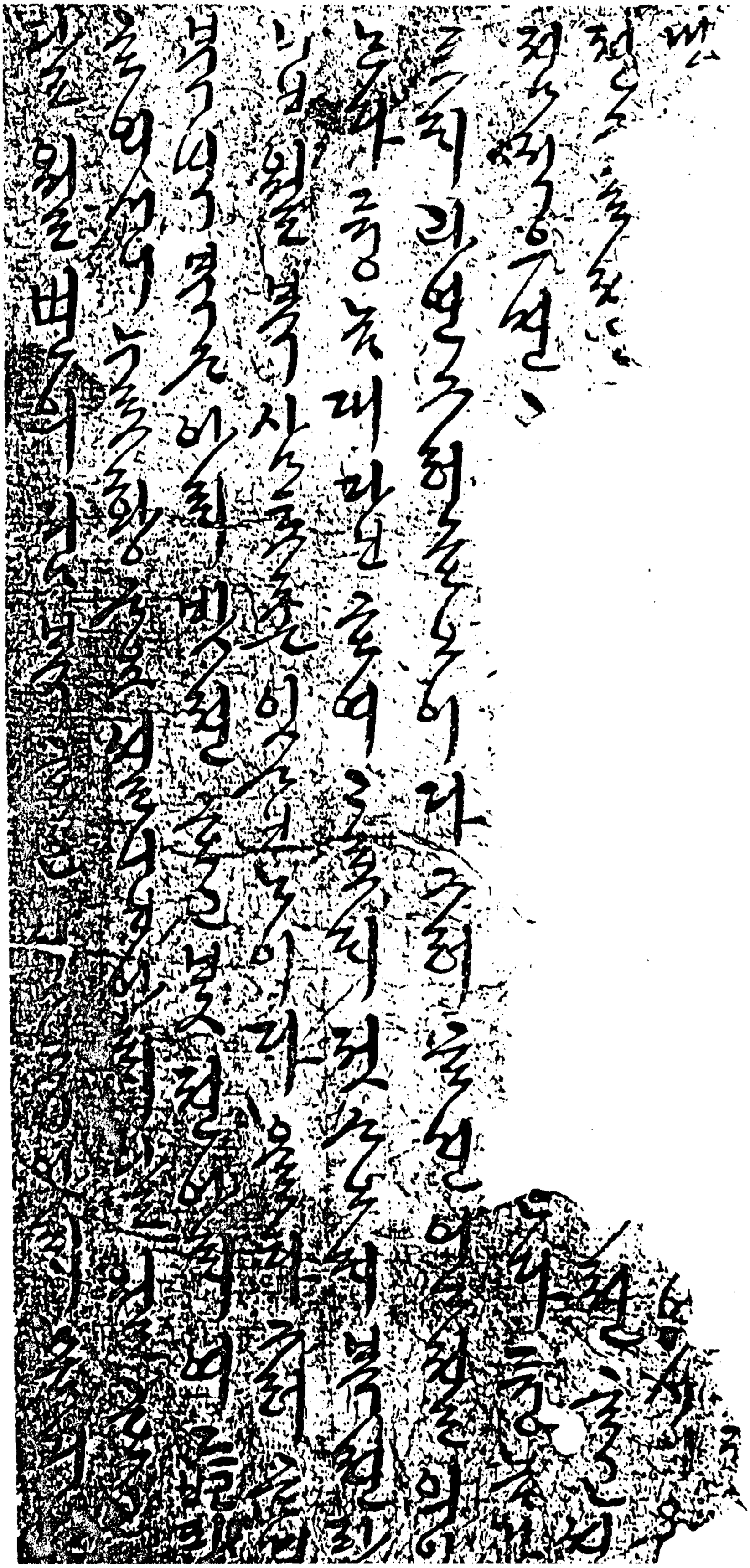




오시녀이나 되더라 여러 풍속이 셧달졍월
이면지 총노기로 숭상은 여흔져에 셔흔희
놀화야 가보시은 슈빅냥 식이 된다 흔니
연흥여들로 제는 귀에 익어오히려 심상흔
더니

가보오사뵤

져흥로라



燕行錄 智

ᄂᆞ고려화젼조차법을두고치ᄂᆞᆫ길이ᄅᆞ슈ᄅᆞᆯ지어
왈텨 화화 쳔상에 뎐ᄌᆞ미가무로노가ᄂᆞᆫ것 사희로
시법을삼아시니뎨의험이웅댱ᄒᆞ도뎐[illegible]의
관은좌우에난아셧고쳔관에거마ᄂᆞᆫ동셔[illegible]화
텨졋ᄉᆞ도다ᄯᅧᆼ평도두어마듸여죠의ᄅᆞᆯ졍ᄒᆞ고쳔이셔
너소리에하례ᄅᆞᆯ마시쳐ᄉᆞ도다보뷔여좌탸ᄇᆞ이깁
고기법허사ᄅᆞᆷ을분별지못ᄒᆞ니ᄂᆞᆼ안이아ᄅᆞ화라
쳐운ᄂᆞᆼ에이ᄉᆞ도ᄉᆞᆫᄒᆞ려추이인[illegible]이지광
가어셔잔쳐ᄒᆞ니ᄒᆞ니계ᄯᅧᆼᄒᆞ[illegible]로련
만슈산즁을로지나ᄅᆞᆷ다로[illegible]ᄅᆞᆫ

연ᄒᆞ여ᄉᆞᆫ로ᄉᆞᆫ표ᄅᆞᆯ지ᄉᆞ고상셔에[illegible]다즉이
셔셔뫼허리ᄅᆞᆯ두ᄅᆞᆯ너ᄉᆞᆫ대금꼭지[illegible]을
꼭지ᄒᆞᆫ지ᄇᆞ에자지비ᄉᆞ기야로도이ᄒᆞ고[illegible]화ᄒᆞ기야
ᄒᆞ국초록기야로도셔쥐여인쳐각이반공에은연
ᄒᆞ고ᄯᅩ텨국션리ᄇᆞ이라ᄒᆞᆫ나니블그바탕
에플은돌노허리에ᄒᆞᆫ께싸고황기야로인다ᄇᆞᆫ
의쳥ᄉᆞᆫ졍과황금으로대밧쳐중ᄒᆞ이꼭지[illegible]
쳐각이반은뵈곳ᄉᆞᆫ용치로ᄒᆞᆫ문안의[illegible]
송박이뼝낭ᄒᆞᆫ옥계ᄅᆞᆯ가리와시뼈이[illegible]ᄉᆞᆫ즘
셩과괴이ᄒᆞᆫ셔ᄂᆞᆫ타ᄇᆞᆫ로졍ᄒᆞᆫ여ᄋᆞᆫ니과연

퇴국션리부이라 ᄒᆞ기고히 치아니ᄒᆞ더라
그리로ᄆᆞᆫ니아니가셔부ᄒᆞ화문을드러금요ᄇᆡ루
ᄅᆞᆯ지나옥동교다로이ᄅᆞᆯ당ᄒᆞ니흰돌노ᄂᆞᆫ
하슈ᄅᆞᆯ건너구시부간을노코원체와ᄒᆞᆫ
노팔모지게다듬어좌우에난간을ᄒᆞ여시니멀
니셔보면흰부지게ᄌᆞ다ᄒᆞ여옥동교라ᄒᆞ여셔
라이무은은퇴의ᄀᆞ지로셔온무ᄅᆞᆯ이니셔을로ᄉᆞ시부니
셔산무ᄅᆞᆯ을인ᄉᆞᄀᆞᆼ여만ᄉᆞᄉᆞ산을ᄅᆞᆯ동ᄌᆡᄉᆞ
시부니ᄅᆞᆯ동ᄒᆞ여시니가장너ᄅᆞᆯ고자하슈
오다ᄅᆞᆯ이ᄅᆞᆯ건너죠금기다기죠은고졀

엽희또화옹올、ᄒᆞᆫ지비이〻쳐가오[illegible]ᄂᆞᆫ다ᄇᆞ밧
거푸른져(젼)나보숩히오스(샤)푸르브[illegible]고만
뫼이〻시나뫼에쳐가올지、고지보은[illegible]다ᄒᆞᆫ을
무으고라브우의또파르면져를밍그러면、에우풍
경올다라보름의수、로우나이후오룽경이라ᄒᆞ、
는지브이나최외、ᄒᆞᆫ누대는구쇼에다은듯、ᄒᆞ고쥐고
ᄒᆞᆫ제도는그려도지를분을월기[illegible]어려오는지
풍광이가술로황、ᄒᆞ오ᄒᆞ기말ᄋᆞᆯ자[illegible]
로고는을드려부니하슈에빙셜이구[illegible]밀고
곳치、ᄒᆞᆫ졉되식리어니재연대을연、ᄒᆞ여

홍장화옥이며빅난취벼이여ᄂᆞᆫ무간에ᄎᆞᆯ
몰ᄒᆞ고하ᄉᆞ셔편에자괴각이ᄂᆞ시니셔끼ᄅᆞᆯ
ᄂᆞᆷ히도ᄂᆞ고이ᄎᆞᆼ젼을나ᄂᆞᆫ듯시지어시니ᄉᆞᆫ오은
지게와아로사긴창은사ᄅᆞᆷ의ᄂᆞᆫ을현황
ᄒᆞ고옥ᄭᅴ기야로겻드려지ᄇᆞ을이ᄋᆞ고기야ᄀᆞᆯ마다
마ᄌᆞ마장의ᄂᆞᆫ함박쇠에도금ᄒᆞ여바어시며대
상에ᄂᆞᆫᄉᆞ변을ᄃᆞᆯ너빅셔난가에운ᄅᆞᆼ을사
기고젼내에ᄂᆞᆫᄒᆞᆫ발식ᄒᆞᆫ황ᄂᆞᆫ리ᄅᆞᆼ을진ᄌᆞ
드리ᄇᆞᄒᆞ여좌우에라셧상을라ᄅᆞ고리에ᄂᆞᆫ금
항노항합을노코아탑ᄇᆞ아렵ᄂᆞᆫ가ᄋᆞ셔

을ᄀᆞᆺ득히 ᄯᅡᄅᆞ고ᄯᅳᆯ의ᄂᆞᆫ ᄎᆞᆯᄒᆞᆨ다ᄇᆞᆷ에 뇽괴[illegible]부을잡
도리슈노아펴고하대에ᄂᆞᆫ대단휘장[illegible]ᄂᆞᆫ장
막에금꼭지ᄅᆞᆯᄒᆞ여셔너곳치고슈[illegible]에금ᄌᆞᆨ
보피로지ᄋᆞᆫ ᄒᆞᆫ관원이근쳔명이나젼상젼하에
버러서시니복셕도화ᄋᆞᆼ ᄒᆞᆯᄒᆞ거니와괴골이무
비일등졍병이러라이번잔져에ᄂᆞᆫᄉᆞ신외에ᄂᆞᆫ
죵인ᄅᆞᆯᄅᆞᆯ동관ᄃᆞᆯ리금ᄒᆞ고져ᄒᆞ나져의엇지[illegible]
로ᄒᆞ리오ᄯᅡ라가ᄉᆞ던사ᄅᆞᆷᄃᆞᆼ에반이못[illegible]
고불과ᄉᆞ오인이올나가젼비비셜ᄒᆞᆫ벼브과버
린위의ᄅᆞᆯ구경ᄒᆞ더니ᄒᆞᆯ연황상이오신

타ᄒᆞ기혀ᄇᆞᆫ문으로나지여ᄋᆞᆫ셔벌셔황옥이
ᄀᆞᆺ가이이ᄆᆞᆫᄒᆞ여오니ᄉᆞ신ᄂᆞᆫ들도라ᄅᆞᆷ박질ᄒᆞ여께
오타빅은면ᄒᆞ고죄인도다부ᄎᆞᆷ이덤벙여ᄇᆞᆯ
ᄃᆞᆺᄒᆞ니ᄉᆞᆺ여ᄀᆞᆺ장여ᄆᆞᆫ통관과부동ᄒᆞ여우리
못오ᄂᆞᆫ나보게ᄒᆞ더니그앙화로셔ᄅᆞᆯ포장ᄌᆞᆯ의길
니여너머져ᄉᆞ모가두쪽에나고몸이두로발피여하
마즉ᄉᆞᆫᄒᆞᆯ번ᄒᆞ고ᄉᆞ신ᄂᆞᆫ들도ᄒᆞᆨ상ᄒᆞᆫ번ᄒᆞ니라
어라ᄇᆞ에젼좌ᄒᆞ더니ᄒᆞᆫ기ᄅᆞᆫ은ᄒᆞᆫ구리하오에침
향을퓌오니향거콜로거ᄉᆞ리고여ᄋᆞᆫ아
을시작ᄒᆞ며악장을외오니셔[illegible]와옥

경고죠에셔안악이표묘ᄒᆞ여은연인요라연을임
ᄒᆞᆫᄃᆞᆺᄒᆞ니이러ᄒᆞᆫ장관을평셩의ᄭᅵ치다
시보리오ᄉᆞ시동셔ᄎᆞᆼ계로셔그러ᄒᆞᆫ차죵
에보이다ᄅᆞᆯ다려두ᄌᆞᆯᄂᆞᆫ올나오며지어ᄒᆞᆫ차
ᄂᆞᆫ황금병에너어두손으로밧ᄃᆞᆯ고령ᄂᆞ로올나
와영(역)내로ᄃᆞ러가더니여내영의애아ᄂᆞᆫ왕공거
경과외국ᄉᆞ신의게차례로ᄃᆞ리니잠간일
곧두ᄒᆞ고마신후당하에ᄯᅩ풍뉴ᄒᆞ여
ᄅᆞᆯ시작ᄒᆞ니쳐음의ᄂᆞᆫ오병(방)지신을타고쇠여일
시에ᄃᆞ러와ᄒᆞᆨ겨죠ᄂᆞ뎌으며ᄒᆞᆨ바ᄅᆞᆯ도타고

젼상을향ᄒᆞ여다르니ᄯᅥ사ᄇᆞ도어ᄯᅵ놀라가
도로ᄂᆞ려간후ᄯᅩ시ᄇᆞ여인이회셕옷쇠누른관
을부ᄅᆞᆯ근ᄉᆞᆫ거ᄋᆞᆫ로동여ᄯᅳ고나ᄉᆞᆫ치사ᄇᆞ가ᄉᆞᆫ
거ᄉᆞ리고올나와ᄎᆞᆷᄇᆞᆫ츄ᄯᅥ황제폐하만
놀내ᄒᆞ여외오고불근옷쇠거문복건ᄯᅳᆫ놈시ᄇᆞ여임
과거문옷쇠흰구ᄉᆞᆯ올관의드리오고타ᄅᆞᆯ국ᄉᆞᆼ
ᄀᆞᆺᄒᆞ게ᄒᆞ여ᄯᅳᆫ거ᄉᆞ도이ᄉᆞ고오쳐로영농이ᄒᆞ여이ᄇᆞᆫ은
놈도무ᄉᆞᆫ ᄒᆞ여ᄉᆞᆫ의범부쳐ᄀᆞᆺ트ᄂᆞᆫ쳣과그림그리
ᄎᆞᆨ리러ᄀᆞᆺ트ᄂᆞᆫ거ᄉᆞᆫ놈도만로오셕ᄂᆞᆫ바ᄉᆞᆫ
놈은ᄉᆞᆫ기ᄅᆞᆯ모로ᄂᆞᆫ지라ᄒᆞᆫ편에가ᄆᆞᆫ기ᄯᅥᄂᆞᆫ찬

을ᄂᆞ리오니탕제ᄀᆞ이ᄅᆞ거와 ᄯᅥᆨᄒᆞᆫ져ᄇᆞ시와 바ᄇᆞ두보
오와제ᄋᆞᆨᄒᆞᆫ져ᄇᆞ시와 쇼쳐ᄒᆞᆫ져ᄇᆞ시와 상버려겹
상ᄒᆞ여이ᄅᆞ시에 아ᄇᆞᄅᆞ히 ᄃᆞ리더니 젼지ᄋᆞ으로셔외
국ᄉᆞ신ᄂᆞᆫ이ᄇᆞ시ᄒᆞ란ᄇᆞᆼ이ᄂᆞ리니 즉시 츄창ᄒᆞ여
나아가어ᄅᆞᆯ 바다자 신ᄂᆞ우도ᄂᆞ려와 좌에 안져참
ᄇᆡᄒᆞᆯ셔고이ᄒᆞᆫ북셕ᄒᆞᆫ놈이ᄅᆞ대가 일시에 당상
에올나와ᄒᆞᆫ놈이ᄒᆞᆫ놈의등의어ᄇᆞ듸여져죠ᄒᆞᆫ
번식너ᄇᆞ고인ᄒᆞ여고두ᄒᆞᆫ고ᄂᆞ려가더니 [illegible]
ᄒᆞᆫ놈ᄃᆞᆯ이웃옷ᄉᆞᆯ다벗고반물바지에야청
보쉰에ᄒᆞᆨ져사ᄇᆞ만이ᄇᆞ고ᄯᅱ여드러초록

담우희셔로붓들고시름ᄒᆞ다가지니ᄂᆞᆫ도로
즉시ᄂᆞ려가고이거니ᄂᆞᆫ상ᄌᆞ이로빈고두ᄒᆞᆫ번ᄒᆞ곤
려가니이쳐로ᄒᆞᆫᄂᆞᆫ놈은다셧쌍이오치로잘장이
나죄ᄂᆞᆫ왕대로여러이공ᄃᆞᆼ에붓드러세우ᄂᆞᆫ샵
여세ᄂᆞᆫ벅은놈이나보광직바지로이보고쳥리고
리ᄀᆞ치거여올나가온ᄀᆞ져죠로다ᄒᆞ니보기사마ᄂᆞᆫ
ᄒᆞ고대소금쳔국놈들은머리에흰기ᄉᆞ슬ᄀᆞ득히
ᄭᅳᆺ고ᄒᆞᆫ손의칼을들고ᄯᅩᄒᆞᆫ손의화로을들고시붜
인이올나와ᄒᆞᆫ다리로갓치거로ᄒᆞᆫ벅두어박
퀴돌며ᄎᆞᆷᄀᆞᆸᄎᆞᆷ다가ᄂᆞ려가고회ᄌᆞᆨᄂᆞᆫ부ᄅᆞᆫ별

멍덕쓰고손의각셕귀를들고뎌놀다가파ᄒᆞ더
니푸른사겨ᄒᆞᆫ쌍이뛰여와이ᄇᆞ을버리고눈을부
릅쓰고셔로싸옷ᄂᆞᆫ혜ᄒᆞ다가즉시나려간후헌반도
하ᄂᆞᆫ노름을시쟉ᄒᆞ니오셕부져가세곳식모이여
찰ᄂᆞᆸᄒᆞ라나즈라ᄒᆞ여셕가산이되며건ᄒᆞᆼ
만복슈라써무슈이들고ᄭᅳᆺ과쳔도를셔기여
슈어ᄇᆞ시밧드러시니지여ᄇᆞ이셔로어리ᄭᅵ여ᄒᆞᆫ
도원을니ᄅᆞ고그ᄃᆞᆼ변화와졀차가이셔
에모이락허여지락ᄒᆞ여부ᄯᅳᆫ죠화가잇ᄂᆞᆫᄃᆞᆺᄒᆞ
나제반희야ᄀᆞ을다자ᄇᆞᆫ싼식ᄒᆞ니도로여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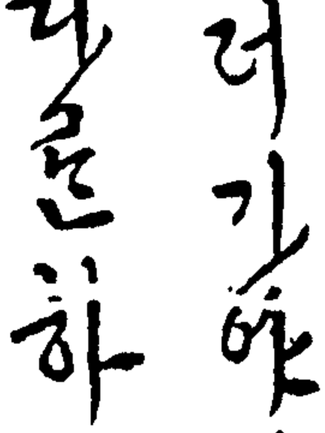
이오기외예긔ᄀᆞ괴ᄀᆞᄒᆞᆫᄎᆞᆺ시무ᄉᆞᆫᄒᆞ나이로형
용못ᄒᆞ며잔ᄯᅡᆼ을파ᄒᆞ고차ᄅᆞᆯᄯᅩ드리더니인ᄒᆞ
여환궁ᄒᆞ며갹노세을머믈너제신ᄯᅳᆯ을반상
ᄒᆞ게ᄒᆞ니아계라ᄒᆞᄂᆞ니ᄂᆞᆫ나이치ᄅᆞ시ᄇᆞ이나ᄒᆞ여
뵈고북강언이ᄂᆞᆫᄉᆞ시ᄇᆞ이너ᄆᆞᆼ은ᄃᆞᆺᄒᆞ고화신이ᄂᆞᆫᄎᆞᆯ
더졔ᄆᆞ고샹흉이제일이여내각학ᄉᆞ에벼ᄉᆞᆯ을
ᄉᆞ무나ᄆᆞᆼ은마을이나겨ᄇᆞᆼ여시니본근오부상셔
에ᄌᆞ식으로셔가ᄇᆞᆫ치노ᄒᆞ여거동에연메ᄂᆞᆫ군
ᄉᆞ되여ᄉᆞ더니건ᄂᆞᆼ이ᄒᆞᆫ번보고사랑ᄒᆞ여셩원
과거ᄅᆞᆯᄌᆞᆨ어인ᄒᆞ여벼ᄉᆞᆯ을ᄂᆞᆯ히시겨ᄎᆞᆫᄀᆞ

자급이놉하소면령승오로이르죵이된여탄니ᄀᆞ
겨국은어저ᄒᆞᆫ지어ᄅᆞᆯ이화슈ᄒᆞ여국히길ᄒᆞ
여뵈고복강언이ᄂᆞᆫ눈의살긔가마아시ᄆᆞ이
불울ᄒᆞ여뵈니ᄒᆞᆫ번곡경을당ᄒᆞᆯ듯ᄒᆞ고또상
시셩품이화슈치못ᄒᆞ여ᄒᆞᆫ번우스면사
름ᄒᆞ나식ᄌᆞᆨᄂᆞᆫ다ᄒᆞ더라오날잔져ᄌᆞᆷ네
한겨샹은다비단과돈피를샹ᄉᆞᄒᆞ고다비단
과자ᄇᆞᆸ죵을등분ᄒᆞ여ᄌᆞᆯ셔표션ᄉᆞ신도[illegible]ᄂᆞᆫ
각셕비단여ᄃᆞᆯᄯᆞᆼ과슈랑여섯ᄉᆞᆯᄌᆞ고샹
사ᄂᆞᆫ열여셔ᄉᆞᆼ과슈랑열긔ᄅᆞᆯᄌᆞ니이ᄂᆞᆫ

연부년슈ᄂᆞᆫ졀녜라 황뎌 단당막에 탁
샤노코가셕ᄃᆡ단이며대소수머니와왼그ᄉᆞ
비단을누쳔동을차엇ᄂᆞᆫᄃᆡ요양이마ᄉᆞ
비최니그ᄒᆞ올난ᄒᆞᆫ광쳐를엇지다이로ᄅᆡ오
셔벽의자랑가뒤에디은졀의드러가ᄇᆞᆫ
기를기ᄃᆞ릴셔뉴구국사신이ᄯᅳ라드러오거
ᄂᆞᆯ필타ᄆᆞ으로셔로슈작ᄒᆞ니례용인ᄒᆞ여
ᄃᆡ다ᄇᆞ을시기되서로난만이의논ᄒᆞᆫᄒᆞ써
니글시가무던ᄒᆞ고글도족히더부러말ᄒᆞ온만
ᄒᆞ며져의ᄂᆞ라왕은나이ᄂᆞᆫ국사ᄇᆞᆫ이셰오즈위ᄒᆞ

연지ᄉᆞ시ᄇᆞᆷ사ᄇᆞᆷ변이라ᄒᆞ고ᄉᆞ신은사ᄇᆞᆷ변이로ᄎᆞ식
오고공물을구리와쥬셕과셩뉴화왕이라ᄒᆞ더
라우리ᄂᆞᆫ라사ᄅᆞᆷ은변동ᄒᆞᆫᄂᆞ라사ᄅᆞᆷ도ᄎᆞ희여출
이ᄇᆞᆷ을이ᄇᆞᆷ의로ᄒᆞ여아니가ᄅᆞ고지어ᄇᆞ스나라국ᄉᆞ
신은구실은예ᄂᆞᆫ다가ᄀᆞᆫ관에자ᄇᆞᆷ아너은후
잡시내여노치아니ᄒᆞ기ᄂᆞᆫ구국관의ᄒᆞᆫ번가
보고져ᄒᆞ나아ᄅᆞ기ᄅᆞ어ᄇᆞ더니셔화무바ᄉᆞ거ᄂᆞᆫ
ᄂᆞ라ᄒᆞ기ᄉᆞᆫ이ᄅᆞ간차져가마ᄒᆞ니져의[illegible]실
ᄂᆞ원ᄒᆞ노라ᄒᆞ더라 초사ᄇᆞᆷ일연ᄒᆞ여이ᄅᆞ거음
산ᄒᆞ니허ᄉᆞᆯᄒᆞᆫ허ᄉᆞᆯᄒᆞᆫ방의하고ᄌᆞ싶ᄒᆞᆫ

반찬이 졈ᄂᆞ고이ᄒᆞ여 쇼셕을 딕ᄒᆞ면 비위
거스려 병든ᄀᆞ미가 날ᄂᆞ보변ᄒᆞ고 어듸 ᄒᆞ구 경
을 갈셔 한어ᄒᆞᄂᆞᆫ 하인을 어더 가야 갈보로 있
시되 비ᄭᅮᄂᆞᆫ 변중 벙어리 오라ᄅᆞᆫ 하인을 빌리
갈 인심이 ᄂᆞᆯ ᄌᆞᆨ ᄒᆞ여 ᄂᆡ ᄂᆞᆫ 의료은 것도 표치 아
니 타ᄒᆞ고 언ᄯᅡᄂᆞᆫ 것ᄉᆞ도 ᄌᆞᆺ 타ᄒᆞ여 부ᄃᆡ 내 마음을
거스리고 ᄒᆞᆨ 무슴 ᄒᆞᆼ 져ᄋᆞᆼ ᄒᆞ려 ᄒᆞ면 피인과 셔
로 손ᄌᆞᆺᄒᆞ며 말을 여류이 ᄒᆞ되 ᄒᆞᆫ 귀 졀 아라
ᄃᆞᆯ 길 어ᄂᆞ셔 ᄀᆞᆷᄀᆞᆷᄒᆞᆫ 보음을 이긔 지 못ᄒᆞ여 피인
은 무어시라 ᄒᆞ고 너ᄂᆞᆫ 무어시라 ᄒᆞ난 니 무른 즉



ᄒᆞᆫ동안ᄒᆞ더마ᄅᆞᆼ을불과ᄒᆞᆫ마ᄃᆡ나ᄎᆞᆯ이대답
ᄒᆞ고돈으로ᄒᆞᆫ냥이나ᄌᆞᆯ듯ᄒᆞᆫ것시면은으로두
셔냥다ᄅᆞ나ᄒᆞᆫ다ᄒᆞ니쇼위로ᄌᆞᆯ통ᄒᆞ여차라
리아니샤면모로ᄃᆡ만이ᄅᆞ샤면아ᄅᆞ고속을바쉬
슈가어ᄇᆞᆫ지라병세가종시무가ᄇᆞᆫᄒᆞ기파ᄅᆞ미
탕ᄒᆞᆫ제ᄅᆞᆯ시작ᄒᆞ니야겨가국히ᄇᆞᆯ가ᄒᆞ
니효허ᄇᆞᆼ을어ᄉᆞ지ᄇᆞ라허오젼의ᄂᆞᆫ들면셔화
ᄅᆞᆯ귀이여기다ᄒᆞ더니ᄌᆞ면이러로병화[illegible]
이라도은젼만치못만다ᄒᆞ니등원도져ᄇᆞᆫ간
안ᄒᆞ여가ᄂᆞᆫ가시부더라 초ᄉᆞ일부방고마

구인망련이라ᄒᆞᄂᆞᆫ놈은젼나도정앙여놈
이러니듕노부ᄉᆞ터병드러신음ᄒᆞ여ᄂᆞᆫ지오리더
니필경오나로ᄌᆞ식으니사라도라가지못ᄉᆞᆼᄒᆞᆫ
이로ᄌᆞ구은ᄒᆞ며여놈은ᄌᆞ식으면가져온불우
인
비은으로셔이시ᄇᆞ냥ᄌᆞ슈ᄂᆞᆫ버ᄇᆞ이라쇼렴ᄒᆞ여절
의두엇다가ᄉᆞ힝회환시ᄉᆞ러내여가ᄂᆞᆫ다ᄒᆞ
며대체ᄑᆞᆼ토가부상ᄒᆞ여병ᄃᆞᆯ기처ᄇᆞ경이
오반이로병곳들면ᄌᆞ기쉬온곳지라국ᄉᆞ로
드러오기ᄂᆞᆫ고히치아니ᄒᆞᆫ나귀경을위ᄒᆞ여두
번올기로은아니오ᄯᅩ관쇼가헐ᄇᆞᆼ여누비인마

가ᄌᆞ아ᄆᆡ무ᄂᆞᆫ곳지나바ᄆᆞ이ᄇᆡᆫᄌᆞ연훠ᄀᆞᆺ여
즉금도한인ᄒᆞ나이바ᄆᆞ의놀난ᄇᆡᆼ이나ᄅᆞ포낫
지못ᄒᆞ고피인드리젼ᄒᆞ되ᄉᆞ힝이ᄯᅥ난후츄ᄀᆞᆺ
ᄒᆞᆫ곡셩이ᄉᆞ이ᄅᆞ바ᄇᆞ이나난다ᄒᆞ니이ᄂᆞᆫ희마
다죠션사ᄅᆞᆷ이드러와ᄌᆞᆨ은ᄒᆞᆫ빅이도라가
지못ᄒᆞ여그러ᄒᆞᆫ가시부터라기ᄆᆞ샹셔지ᄇᆞ의
약반ᄒᆞᆫ하ᄇᆞ과권모ᄯᅥᆨ과인졀미가ᄒᆞᆫ하ᄇᆞ
과희삼ᄒᆞᆼ하ᄇᆞ겨ᄉᆞ드러ᄒᆞᆫ하ᄇᆞ과건치[illegible]
젼복ᄒᆞᆫ하ᄇᆞ을차려보내여터니영거ᄒᆞ여
갓던사ᄅᆞᆷ의게몬져와ᄀᆞᆺ치ᄌᆞ어보내여

더라 초오일졍양문밧의 희ᄌᆞ노름이보음
죽ᄒᆞ다ᄒᆞ기슈삼인으로터부러나가니깁
흔지ᄇᆞ의부ᄅᆞᆫ난간을도라가며ᄒᆞ고교의에
각셕방셕을ᄭᅡ라사ᄇᆞ시ᄇᆞ을느러노코난간에
ᄒᆞᆼ양산과오셕ᄀᆡ치ᄅᆞᆯ두로ᄭᅳᆺ고온갓타ᄅᆞ과
자ᄇᆞ동산이악ᄀᆡ ᄅᆞᆯ버리고져본놈을곱게
단장ᄒᆞ여녀복을식여놀나ᄒᆞ거ᄂᆞᆫ드러가
보라ᄒᆞ니굿보ᄂᆞᆫ가ᄇᆞᆺ슬ᄒᆞᆫ사ᄅᆞᆷ의게ᄒᆞᆫ냥밧
식밧고드려보내기마ᄉᆞ자ᄇᆞ가져온돈이어ᄇᆞ셔
못ᄉᆞ드러가보고ᄂᆞᆫ기리창으로항ᄋᆞᆼ여갈셔좌

우에뵈ᄂᆞᆫ문방지구와은금보퇴ᄂᆞᆫ고ᄅᆞᆯ목마다
눈의현란(황)ᄒᆞ니다시발ᄒᆞᆯ것사어보ᄎᆞ젼
진ᄒᆞ여이ᄅᆞᆯ쳐에니ᄅᆞ니사ᄅᆞᆷ이운지ᄇᆞᆫᄃᆞᆼ죠
션사ᄅᆞᆷ도마이셧기여셧건ᄂᆞᆯ모ᄂᆞᆫ사ᄅᆞᆷ을
헤치고ᄃᆞ러가보니ᄒᆞᆫ편의ᄂᆞᆫ광대겨죠ᄅᆞᆯ녕
기ᄀᆞᆺᄒᆞᆫ편의ᄂᆞᆫᄒᆞᆫ놈이경반만ᄒᆞᆫ화대쳡
을바ᄅᆞ가옷ᄉᆞᆫᄒᆞᆫ대막대셧(ᄉᆞ)치(ᄒᆡ)올벼노코쇼ᄋᆞ
로두어번치더니져ᄇᆞ시가도로ᄅᆞᆷ이[illegible]삼
시긋치지아니ᄒᆞᆫ고ᄂᆞᆯ며구대ᄅᆞᆯ쇼바다에
도세우고바ᄅᆞᆯ등의도세우고엑미며등이며

비곱까지두로세워되ᄂᆞ려지ᄀᆞ아니ᄒᆞ고이로
양도라가더니인ᄒᆞ여대져ᄇᆞᆼ을공ᄌᆞᆼ에치ᄀᆞ고
두어ᄌᆞ은되ᄂᆞᆫ대로바다돌니다가ᄎᆞᆫ근대로
일변니으며이ᄅᆞ변돌니ᄀᆞ막대놉히파
장이나되ᄀᆞ대져ᄇᆞᆼ은죵시아니ᄂᆞ려지고ᄯᅩ긴
대져치쳐공ᄃᆞᆼ에ᄂᆞ려오ᄂᆞᆫ대져ᄇᆞᆼ을ᄒᆞᆫᄀᆞ은
ᄒᆞᆫ막대로바다연ᄒᆞ여돌려다가져ᄇᆞ뉘
여돌니되일양도라가니ᄀᆞ히신통ᄒᆞ여
뵈고ᄯᅩᄒᆞᆫ놈은동의만ᄒᆞᆫ빅항을ᄉᆞᆫ으로놉
히공ᄃᆞᆼ에치쳐니마와억리와코와ᄀᆞ지빅

희로이리밧고쳐리치쳐로죵시ᄂᆞ려지ᄂᆞ아
니ᄒᆞ며화환도셰병을ᄃᆞᄉᆞ숀으로ᄯᅩ치쳐좌
우로바듀ᄂᆞ카로이장공동에ᄯᅥ노ᄅᆞᆫ숀목
이뵈지아니ᄒᆞ니보기ᄅᆞᆫ라ᄒᆞ여도라오기를
잇고안즛더니ᄯᅩ동편의셔둔가ᄇᆞᆫ다ᄒᆞ거
ᄂᆞᆯ즉시ᄌᆞ자가니ᄉᆞ면의줄을ᄂᆞ려자ᄂᆞᆫ인이
잇의로들게못ᄒᆞ고ᄒᆞᆫ놈이분의셔ᄂᆞ드러오
ᄂᆞᆫ사ᄅᆞᆷ을돈을밧거ᄂᆞᆯ약간ᄌᆞ고드러[illegible]니
ᄀᆞᆺ보ᄂᆞᆫ사ᄅᆞᆷ이벽녁ᄒᆞᆫ동에ᄒᆞᆫ마ᄉᆞ이여원
놈이탁ᄌᆞ에블근보ᄅᆞᆯ더ᄇᆞ혀노코이ᄇᆞ을버

리고혀ᄅᆞᆯ내여바닥에ᄒᆞᆫ셔ᄆᆞᆷ은ᄒᆞᆫ쇠못ᄉᆞᆯ
문젹귀지ᄅᆞᆯ시박고쳔연이안져시니벌
셔이거ᄉᆞ도환슈ᄅᆞᆯᄒᆞᄂᆞᆫ버ᄇᆞ이라두어치ᄂᆞᆫ된
막대네을가지고두ᄅᆞᆼ은두눈구억에ᄒᆞ니
식너코두ᄅᆞᆯ은두코셩거너으며거ᄌᆞᆺ아ᄇᆞ파ᄒᆞ
ᄂᆞᆫ체ᄒᆞ다가이우ᄒᆞ여셔다목궁으로내여
비야ᄉᆞᄂᆞᆫ며ᄌᆞᆼ은셔ᄅᆞᆯ무ᄅᆞᆯ의여러ᄅᆞᆯ담가다
가ᄒᆞ나을건져터ᄅᆞᆯ을숀으로쥐ᄇᆞ자탁ᄀᆞ에
노로죠고만보오로터ᄇᆞ고가ᄅᆞ치며이ᄇᆞ으로무ᄉᆞᆫ
진언을외오터니터ᄇᆞ은보오ᄅᆞᆯ여니ᄌᆞᆼ

은셔가 쇼릭를 지르나 머리를 드나
활 나ᄇᆞᆯ즉 흔 ᄇᆡ 목슈여ᄆᆞᆯ 형즁
ᄒᆞᆫ 살로 ᄇᆡ 목슈의 ᄆᆞᆫ 가ᄆᆡ 에 ᄆᆞᆺ치 ᄆᆡᆼ그러 ᄂᆡ 려 ᄇᆞᆫ 고
ᄉᆡ 딥 ᄆᆞᆫ 로 ᄉᆞᄃᆞ 에 ᄃᆞᆯ 나 ᄇᆡ 뇌 ᄂᆞᆫ ᄯᅳᆫ 이 ᄆᆞᆫ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진 언 을 ᄉᆞᆼ 긔 고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ᄇᆡ 라 라 ᄂᆞᆫ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압 희 의 ᄇᆡᆫ 그 릇 ᄉᆞᆼ 니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어 ᄃᆞ 에 ᄅᆞᆯ ᄐᆡ 보 고 ᄌᆡ 아 ᄇᆡ 라 ᄂᆞᆫ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나 ᄅᆞᆯ ᄂᆞ 어 ᄂᆡ 어 ᄂᆞᆫ 그 릇 ᄉᆞᆼ 긔 고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흐 고 ᄉᆞ 사 ᄇᆞᆷ 희 ᄀᆞᆯ ᄉᆞ 긔 ᄎᆞᆫ 흔 ᄉᆞᆼ 을 ᄂᆞᆫ 그 ᄂᆞᆯ 셔 ᄇᆡ 라 ᄂᆞᆫ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ᄂᆡ 니 ᄃᆡ 단 니 ᄃᆡ 왕 ᄇᆡ 흐 ᄯᅥ ᄉᆞᆼ 긔 고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ᄒᆡ 의 ᄂᆞᆫ ᄆᆞᆫ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ᄉᆞᆼ 긔 고 ᄃᆞᆫ 이 ᄯᅥ 가 ᄉᆞᄃᆞ 에 ᄃᆞᆯ 은 ᄉᆞᆼ 이 ᄃᆡ 눌 ᄂᆞᆫ 가 ᄯᅳᆫ 에 갑 아

너은대ᄂᆞᆫ ᄒᆞ도가가ᄃᆞᆨᄒᆞ고제아ᄇᆞ희ᄒᆞ오도
너은그ᄅᆞ시ᄂᆞᆫ돈이가ᄃᆞᆨᄒᆞ며ᄯᅩ마다ᄋᆞᆼ을졍
이쓸고푸른보ᄅᆞᆯ방졍이펴고진언을오림
ᄒᆞ더니보이져ᄅᆞ노부로동ᄒᆞ며큰와ᄀᆞᆫ에
ᄆᆞᆯ이ᄀᆞᆺᄃᆞᆨᄒᆞᆫ듸부ᄅᆞᆯ근부ᄋᆞ어셔너이ᄯᅥᆫ
거ᄂᆞᆯ더옥간계가잇ᄂᆞᆫ가ᄒᆞ여ᄯᅩ지ᄇᆞ어내
라ᄒᆞ니연ᄒᆞ여세번을지ᄇᆞ어내되물이
다완ᄀᆞ에쳐ᄅᆞᆯᄀᆞ너무고붕어가쳣번과ᄀᆞᆺ치
ᄯᅥᆫ노니고히ᄒᆞ며바ᄅᆞᆯ은나모ᄒᆞᆫ가지ᄅᆞᆯ ᄯᅡ에
박고뵈ᄀᆞᆫᄅᆞᆯ더ᄇᆞ헌지이우ᄒᆞ여푸른이ᄇᆞ히

도드며 도화 두어 숭이가 뛰니 아모리 요술
노사ᄅᆞᆷ의 눈을 어리오나 연ᄒᆞ여 ᄒᆞᄂᆞᆫ 겨져
다 신통그이ᄒᆞ니 ᄒᆞᆫ가지 ᄒᆞ고 돈서 푼식
바드나 앗가ᄇᆞ지 아니ᄒᆞ더라 일ᄭᅴ 젹ᄂᆞᆫ져
가기 그만 보고 도라오더니 옥하관을 ᄀᆞᆺ가이
와셔 원승이 놀니ᄂᆞᆫ 놈이 지ᄂᆞ가 거ᄂᆞᆯ 돈을
모와 주고 져 표ᄅᆞᆯ 시기라 ᄒᆞ니 ᄒᆞᆫ 놈은 증
을 치며 도라 단니고 ᄒᆞᆫ 놈은 쳇ᄇᆞᆨ 회[illegible]
을 ᄒᆞᆫ 일ᄌᆞ로 버려 노터니 목에 방울 단 됴
고만 거 문긔가 원승이와 ᄒᆞᆫ가지로 ᄯᅡ

라와ᄉᆞ터니그장ᄋᆞ지가제이ᄆᆞᆫᄅᆞᆯᄒᆞᆫ번치
아다보고쳬ᄉᆞ박회ᄅᆞᆯ두어번박그로도ᄅᆞᆯ다
가인ᄒᆞ여궁그로이리드러져리나가고져리
드러이리나오기ᄅᆞᆯᄉᆞ유사ᄆᆞᆫᄌᆞ다가인
니그져야쳬박회ᄅᆞᆯ네귀에세운즉강
아지가즉시이러나가온대궁귀ᄂᆞᆫᄒᆞᆫ번식
나ᄃᆞᆯ고양편두궁귀ᄂᆞᆫ세번식곱ᄃᆞᆫ도라나
ᄃᆞᆫ후원ᄉᆞᆼ이ᄅᆞᆯ노ᄅᆞᆯ니ᄅᆞᆯ셔이ᄆᆞᆫ가무어시라
ᄒᆞ더니제ᄅᆞᆯ제가여ᄅᆞ고샹모단벙거지ᄅᆞᆯ
내여쓰고노다가벗고쏘사모ᄅᆞᆯ내여쓰고건니

며노더니 벗ᄉᆞ고 쪼금관을 밧고아 쓰고아 밧
놋쥬령을 지보고 거ᄉᆞ에 형용을 ᄒᆞ다가 리
게 장기를 메여 바ᄉᆞ가는 거동을 ᄒᆞᆫ 후 대
로 세우고 쥬릉을 뎌여 온 것 져 죠ᄅᆞᆯ 다 ᄒᆞ니
원승이 놀니는 버보 죠션사ᄅᆞᆷ이 여셔 낫
거니와 강ᄋᆞᆫ 지기ᄅᆞᆯ 드린 거시 더옥 신통ᄒᆞ
더라 쵸ᄂᆞᆨ이로 원명원 거동이 되니 감
지영이나 ᄒᆞ고 시부나 나로 치보시 [illegible]
도ᄌᆞ연 불가ᄒᆞ여 아니 갓더니 이번은 발
근ᄒᆞ 쥬ᄅᆞᆯ 궁ᄒᆞ기 시위와 의장을 다

ᄀᆞ채이보고와ᄉᆞ더라어제회ᄀᆞ노름을못
보고와통분ᄒᆞ더니오날ᄯᅩ여러어가며전
ᄒᆞ거ᄂᆞᆯᄒᆞᆫ가지로졍양교다ᄅᆞ이ᄅᆞᆯ건너ᄒᆞᆫ
집어드러가니누샹누하에젼후좌우
로교의ᄅᆞᆯ무슈이노ᄅᆞᆯ곳보ᄂᆞᆫ사ᄅᆞᆷ이사ᄇᆞᆫ
벽어나모이여다가ᄃᆞᆨ간와교의에차
봉ᄒᆞ나식ᄀᆞ버리고지좌ᄒᆞ엿ᄉᆞ더니쥬인
이누ᄅᆞᆯ됴의예구보ᄂᆞᆫ가ᄇᆞᄉᆞᆯ쳐어ᄯᅩ아볼
히농으나민평에ᄒᆞᆫ낭시ᄀᆞ을ᄇᆞᆺᄂᆞᆫ지라
노ᄅᆞᆷᄒᆞᆫ더에ᄂᆞᆫ자ᄇᆞᆸᄒᆞ와그린라ᄇᆞᆼ을ᄀᆞ득히

샬고긔치와교의ᄂᆞᆫ어제와이ᄅᆞ반이오쳣
번ᄒᆞᆫᄂᆞᆯᄅᆞᆷ은한젹반쵸에ᄒᆞ우봉ᄒᆞ던
거동과장사ᄂᆞᆷ에차비던형용이며뉴
관장삼원이아고죠쵸사죄ᄒᆞᄂᆞᆫ보양을
ᄒᆞ더니ᄯᅩ명젹영낙황제즉위ᄒᆞᄂᆞᆫ
위의와영역황제옥셔이러버리고바
다을도망ᄒᆞ던이ᄅᆞ라ᄉᆞᆫ치등국ᄒᆞᄂᆞᆫ
형상과ᄎᆞ례로ᄒᆞᆯ셔ᄒᆞ옥곤외의옥죄[illegible]곡
관아ᄒᆞᆯ노근시ᄅᆞᆯ다리고용상에오며빅
관이만ᄯᅢ ᄅᆞᆯ부ᄅᆞ고사비ᄅᆞᆯᄒᆞ니사산

션시위와 홍양산은 무비 차ᄇᆞ버ᄇᆡ이나
한당의 관은 죠션과 방부로ᄒᆞ더니 졈ᄆᆞᆯ
변ᄒᆞ여 ᄉᆞᆫ치ᄂᆞᆷ국ᄒᆞᆯ제ᄂᆞᆫ져의 복젹
이되니 어ᄉᆞ디 한삽치 아니ᄒᆞ리오 대체
이놀ᄆᆞᆼ은 금ᄒᆞᆯ만ᄒᆞ되 아니ᄒᆞ고 도로여죠
신ᄃᆞ리와 구경ᄒᆞ니 고히ᄒᆞ고 죠션사ᄅᆞᆷ은
더옥아니 볼거시 벼우ᄉᆞᆼ은 마ᄅᆞ이 무슈ᄒᆞᆫ
가시부나 우리ᄂᆞᆫ ᄒᆞᆫ마 되아라 못ᄃᆞᆺ고 다
만져의 간ᄀᆞᆫ대 쇼ᄒᆞᆫᄂᆞᆫ거 동ᄋᆞᆼ을 보고 공ᄃᆞᆼ우
ᄉᆞ니 진지ᄉᆞ쇼경에 시ᄅᆞᆷ굿 본ᄂᆞᆫ거 동과 ᄀᆞᆺ더

라 초치로이로셰폐바ᄋᆞᆷ믈을오나ᄅᆞᆫ이야밧
치라ᄒᆞ여이거ᄉᆞᆯ영거ᄒᆞ여가면궐내ᄅᆞᆯ
결녀ᄅᆞᆯᄌᆞ시본다ᄒᆞ기됴반을일먹고ᄃᆡᆫ
와피ᄇᆞᆯ과명지모시등ᄇᆞᆯ을슉네에
실니고동안문과피문두어ᄉᆞᆯ드러신무문
을디나ᄅᆞᆯ셔하바ᄒᆞ고ᄯᅩ피문셔너을나ᄅᆞᆯ
ᄉᆞ이좌편에안ᄆᆞᆺ황ᄒᆞᆯᄒᆞᆫ피문이ᄯᅳᆼ
시니밧문의ᄂᆞᆫ셩텩영슈라ᄒᆞ고안의
텩뉴구류랑금ᄌᆞ로써시니국히화려
ᄒᆞ여비고고라로셔옥동교다리나ᄇᆞᆫ편

을로오리나가셔ᄀᆞᆫ화문밧긔니르러슈네
오기ᄅᆞᆯ기ᄃᆞ리고안자ᄉᆞ터니문직흰관원
의게방셕을빌니라쳥ᄒᆞ니조ᄒᆞᆫ낫ᄎᆞᆯ쥭
시녀여슈고다ᄆᆞ비ᄅᆞᆯ달나ᄒᆞ거ᄂᆞᆯ쌍지ᄅᆞᆯ여
니사면의뎍와손을ᄃᆞ미니쳐ᄉᆞᆯ모ᄉᆞᄒᆞ여
한ᄌᆞ머니핸ᄌᆞ먹향ᄎᆞᄅᆞᆯ편각의말니오니
여긔사ᄅᆞᆷ다ᄆᆞ비와쳥심환달나ᄒᆞᄂᆞᆫ뻐ᄂᆞ은
가위녀치ᄅᆞᆯ모ᄅᆞ더라방ᄆᆞᆯ을밧긔셔다부
리워피인ᄒᆞ여난와마ᄃᆡ ᄃᆡ ᄆᆡ이여셔화문
을ᄃᆞ리ᄅᆞ셔굿보라간사ᄅᆞᆷ들은무ᄉᆞᆫ소이ᄆᆞ이잇

시니 끼ᄂᆞ셩 귀ᄂᆞ동 ᄒᆞ여 쇼릭ᄅᆞᆯ ᄃᆞᆫ을 ᄃᆞᆺᄉᆞᆼ
고ᄃᆞᆼᄎᆞᆼ의ᄂᆞᆫ두기ᄅᆞᆯ은ᄒᆞᆫ ᄎᆞᆼ동화로두ᄯᅡᆼ이
오하ᄎᆞᆼ의ᄂᆞᆫᄒᆞᆫ ᄯᅡᆼ이니 다사긴 버ᄇᆞᆷ이ᄂᆞᆫ샹
ᄒᆞ고하ᄎᆞᆼ의셔ᄯᅡᆼᄎᆞᆼ을나가기 옥셕ᄎᆞᆼ
계가ᄉᆞ시ᄇᆞ오ᄎᆞᆼ에ᄉᆞᆼ가ᄋᆞᆼᄒᆞᆫᄂᆞᆫ길다ᄉᆞᆺ슬내
고가온대어로ᄅᆞᆯ내여 시니비ᄉᆞ이뷔여ᄀᆞ
러ᄎᆞᆼ계ᄅᆞᆯ걸쳐농은ᄃᆞᆯ이하길거던발
노발머보니너뷔ᄂᆞᆫᄒᆞᆫ발이ᄂᆞᆷ고길의ᄂᆞᆫ열
ᄒᆞᆫ발가옷신되ᄆᆡᆺ되오봉산을사기고가
온되도희도문을그리고아ᄀᆞᆼᄇᆞᆷ이구ᄅᆞᆷ쇼

긔셔러게양가ᄋᆞᆼ으로ᄃᆞᆫ샤겨시니ᄃᆞᆯᄅᆞᆯ쳔
하에제일인ᄃᆞᆺᄒᆞ고화법과각겨도ᄀᆞᆷ
에대가어ᄇᆞᆺᄅᆞᆯᄃᆞᆺᄒᆞ며좌우ᄎᆞᆼ계에ᄂᆞᆫᄒᆞᆫᄎᆞᆼ에
사겨ᄒᆞ나식사겨시니ᄆᆞᆯ리ᄂᆞᆫ화ᄅᆞᆯ동ᄒᆞᆼ여
움즉이ᄂᆞᆫᄃᆞᆺᄒᆞ터라좌익문밧ᄀᆞᆯ보니금
ᄭᅳᆨ지ᄒᆞᆫ지ᄇᆞ이며삼셕기아로인지ᄇᆞ이쳐
ᄀᆞ에영ᄂᆞᆼᄒᆞᆼ고ᄃᆞᆼ좌문안으로ᄃᆞᆫ러간ᄌᆞᆨ
황국젼뒤은ᄃᆞᆼ화젼이오ᄃᆞᆼ화젼은
은보화젼이니ᄌᆞᆼ화젼은지ᄇᆞᆫ봉마로오
ᄅᆞᆯ풍마동으로텅ᄭᅳᆨ지ᄌᆞ게ᄒᆞᆼ고세ᄎᆞᆼ

매를밧쳐시니풍바동이라ᄒᆞᄂᆞᆫ구리ᄂᆞᆫ푹ᄋᆞ
우에가ᄅᆞ니이면누ᄅᆞᆫ빗치일비더ᄒᆞ나ᄂᆞᆫ쇠
니쳔하에귀ᄒᆞᆫ보뷔오옥셕난간을두젼
이다황국젼과ᄒᆞᆫ가지오더문의ᄂᆞᆫ문쌱마다
빙능바탕황뒤단션을ᄃᆞᆯ너신션을진쳐
로그려하ᄆᆞ바쇠ᄅᆞᆯ눌너족ᄌᆞ곳치ᄒᆞ여걸
고창호에ᄂᆞᆫ각셕문단을로훼장을ᄒᆞ여
각ᄂᆞᆫ이치고뒤화젼은가동하ᄇᆞᆫᄒᆞ여일빅
여ᄃᆞᆫ뿐니ᄉᆞ면을다분ᄒᆞᆫ이ᄇᆞᆫ을ᄒᆞ고ᄆᆞᆫ쌱마다
황태단을로장을ᄒᆞ여ᄃᆞ리워신니상셜

ᄀᆞᆺ든젼졍에황와홍장이셔로연ᄒᆞ여
시니아국궁궐을여거비ᄒᆞ면빈한ᄒᆞᆫ집
힝낭ᄒᆞᆫ간만ᄒᆞ거나못ᄒᆞᆫ거나ᄒᆞᆯ거
시니셔로이한시ᄇᆞᆫ더라피물은텩화젼
남편에바더너코죠의ᄂᆞᆫ듕좌문안셔편
고에셔밧거ᄂᆞᆯ드러가곳지ᄇᆞᆼ을보니우리ᄂᆞᆫ
라죠의가부ᄉᆞ이싸여시니시ᄇᆞᆫ연에ᄒᆞᆫ번
식발ᄅᆞᆯ뵈ᄒᆞᆫ다ᄒᆞ며텨화젼동셔에가ᄀᆞᆺ져
각이ᄀᆞ시니ᄉᆞ면이각아ᄒᆞᆸ간식이오ᄎᆞᆼ
은ᄃᆞ츙으로지어시니셔편은ᄒᆞᆼ외각이

니이ᄂᆞᆫ은금넛ᄂᆞᆫ대타탕고오동평은체인각
이니이ᄂᆞᆫ비단넛ᄂᆞᆫ고이어명지ᄀᆞ속도여거바
다너커ᄂᆞᆯ올나가보니쳑장쳐로타ᄅᆞᆫ
ᄉᆞ오ᄎᆞᆼ밍그러ᄉᆞ면에노코각셕비단을ᄎᆞᆼ이
싸어시니샹ᄋᆞᆼ의도운제ᄅᆞᆫ노아올나가게
ᄒᆞ여두ᄎᆞᆼ의싸인것시언만ᄌᆞᆯ보ᄅᆞᆯ너라
ᄃᆞᆼ화젼샹대에올나무경ᄒᆞᆼ기ᄅᆞᆯ금ᄒᆞᆼ나
쳥십환기로인졍을ᄌᆞᆫ고올나보니
을만ᄉᆞᆫ산이아ᄇᆞ니ᄒᆞᆼ으로멀니셔산이은영
ᄒᆞ여거ᄅᆞᆨᄒᆞᆫ경기ᄅᆞᆯᄎᆞᆨ냥ᄆᆞᆺᄒᆞᆯ너라죵

이ᄅᆞᆯ볼고ᄉᆞᆺᄌᆞᆯ다보고도로나오니거가ᄅᆞᆯ이시ᄂᆞᆫ
여셔화문밧긔셔실과ᄅᆞᆯ사먹고시부나
더초ᄒᆞ나의ᄒᆞᆫ푼이오곳가ᄆᆞᆫ나의너푼을
달나ᄒᆞ니가ᄂᆞᆫ시극히노ᄇᆞ고요긔ᄒᆞᆯ것어ᄂᆞᆫ셔
연ᄉᆞ오ᄅᆞᆷ지ᄅᆞᆯ사먹고도라오니라 초팔일
은쇽다ᄇᆞ의오날일긔가온화ᄒᆞ여야됴타ᄒᆞ
더니여긔ᄂᆞᆫ셔벽부터터풍이이러ᄂᆞ니우리
나라ᄂᆞᆫ어ᄉᆞ터ᄒᆞᆫ고ᄒᆞ며가을건너뼈연노안싱
과중원사ᄅᆞᆷ들을그만치나지니여보니한인
은비록살이쪄부터ᄒᆞ나얼굴이통시

믈근거운이이셔 조촐ᄒᆞ고 쳥인은 두귀 밋
치 옥을 ᄭᆞᆨ근듯ᄒᆞ고 미목이 극히 쳥슈ᄒᆞᆫ듯
ᄒᆞ나 피〻간을로기 기름이 ᄲᅧ시나 퉁나이
아마 다른거시오 위인도 한인은 관곡ᄒᆞ기
쳥인과 넉동ᄒᆞ나 텬간에 경ᄉᆞ 도오히려 공번
치 못ᄒᆞ여 쳥인은 난지 십세가 못되여셔
군ᄉᆞ에 바ᄀᆞ어 젼ᄐᆡᆨ을 ᄌᆔ어 살게 ᄒᆞ나 ᄒᆞᆫ
놈도 란안ᄒᆞ나 가어보고 벼슬도 일비더 시기
ᄂᆞᆫ 등병권은 쳥인을 다 쥬고 문이ᄆᆞᆼ은 한인
을 시기나 가계가라 요부치 못ᄒᆞ고 남녀에

힝거러시ᄒᆞᄋᆞᆫ니ᄂᆞᆫ다 한인이오ᄒᆞ옥졍별을
당ᄒᆞ면반드시 한인으로션봉을사ᄆᆞ여ᄉᆞ지
에보라너코공을니로면상ᄌᆞᆫ즈ᄅᆞᆫ거ᄉᆞᆫ도로여
쳥인의뒤ᄅᆞᆯ지니ᄌᆞ연슈분원망이이ᄉᆞᆫ
가시부터라건ᄂᆞᆼ의근력이즉금도강건ᄒᆞ
여젼의ᄒᆞ던거동과젼좌와노름을다의
구이ᄒᆞ나ᄌᆞ연노망이ᄉᆞ셔젼연ᄎᆞ가간에아
젹밥을먹고인ᄒᆞ여이젼버려슈라차지
ᄒᆞᄂᆞᆫ내관을치죄ᄒᆞ니그내관이죄ᄅᆞᆯ입
공우스며이러난데건ᄂᆞᆼ이부러왈

네어ᄉᆞ지죄ᄅᆞᆯ이브고로ᄒᆞ여웃ᄂᆞᆫ다ᄒᆞ나대
왈폐히쇼반을진여ᄒᆞ시고이ᄉᆞ셔쇼신을
치죄ᄒᆞ시나신이나ᄅᆞᆯ마다죄ᄅᆞᆯ아보으면슈라
딘어ᄅᆞᆯᄌᆞ로ᄒᆞ시ᄅᆞᆯ거시나ᄌᆞ연기ᄉᆞ녁기ᄅᆞᆯ이거
디못ᄒᆞ여우ᄉᆞᄂᆞᆫ이 파 ᄒᆞ니건뉴ᄋᆞᆼ도이마ᄅᆞᆯ을ᄃᆞᆺ쇼
딕쇼ᄒᆞ더라전ᄒᆞ되언ᄀᆞᆯ과동쟉ᄒᆞᄂᆞᆫ거슬
보니그러ᄒᆞ니어ᄇᆞ슬ᄃᆞᆺᄉᆞᄒᆞ더라 오날도ᄋᆞᆼ일이
블슌ᄒᆞ여츌일보을아니ᄒᆞ고안져시나상ᄀᆞ흐
는되놉ᄃᆞᆯ이ᄌᆞ바라ᄃᆞᄅᆞᆯ가지고본ᄉᆞᆺ이왕녀ᄒᆞ여
사라ᄒᆞ나그ᄃᆞᆼ의홍간ᄒᆞᆫ것도만ᄒᆞ나힝ᄃᆞᆼ

아소연ᄒᆞ니 헛뇩화ᄅᆞᆯ서여엇지ᄒᆞ리오
초구일치위어졔여셔져기ᄂᆞᆫ으니늉복ᄉᆞ쟝
이유명ᄒᆞ다ᄒᆞ기보라가쟈여러이믓쵸잇
더니못ᄎᆞᆯ일이ᄀᆞ셔ᄒᆞᆫ가지로가지못ᄒᆞ여추
후ᄒᆞ여가다가길을몰나못고져ᄒᆞ나마두
와마부가벙어리라듕노의혁을겨스리고
방황ᄒᆞ다가다힝이한어ᄒᆞᄂᆞᆫ놈을만나
영청피문으로셔시니나ᄒᆞᆫ고져간신이차자
가니우리나라사ᄅᆞᆷ도무수이와ᄉᆞᆫ지라셔로
만나졀안의드러가니음식의복과셔쳑도

화와 피로연지 목(묵)과 단ᄌᆞ 포져와 은금ᄌᆞ
옥이며 인믈금슉가지다아니버린거시업
ᄉᆞ나 형용을 엇디다 긔록ᄒᆞ리오큰졀을ᄂᆞᆫ
져근 압ᄃᆞ에 드러가니 불근옷이ᄇᆞᆫ은 둥두어시
잇다가 나와 마죠숀 목줘 곳ᄒᆞᆫ관이 영졉
ᄒᆞ여 안치고 차ᄅᆞᆯ 가ᄀᆞᆫ 젼ᄒᆞ거ᄂᆞᆯ 청십환
ᄀᆡᄅᆞᆯᄌᆞᆺ고 도라오라ᄒᆞᆫᄌᆞᆺ 숀을 자ᄇᆞ아 말ᄂᆞᆫ ᄒᆞ
니여 긔사ᄅᆞᆷ들은 본대 친구ᄅᆞᆯ 만나 면열
이라 도낫ᄉᆞ치ᄉᆞ 두숀을 마죠 부ᄎᆞᆫ들고 ᄒᆞᆫ들 며머
리ᄅᆞᆯ ᄯᅳ덕여 웃ᄉᆞ고 인ᄉᆞᄒᆞᄂᆞᆫ 버ᄇᆞ이니 이거시 다인

후ᄒᆞᆫ풍쇽이라 쥬인이 임의ᄒᆞ오의로 죠금
안즈라ᄒᆞ기 자ᄇᆞᆫ 만교의 예거좌ᄒᆞ여 ᄉᆞ러니여
러가지 시ᄅᆞᆯ과 와지지 ᄯᅥᆨ을 마ᄂᆞᆫ내여 태접
ᄒᆞ고ᄯᅩ차ᄅᆞᆯ드리니 풍쇽이 극히 후ᄒᆞ더라 인
ᄒᆞ여 화초ᄅᆞᆯ 푸리에 드러가니 열대엿 간은ᄒᆞᆫ
장막을 지ᄉᆞ고ᄂᆞᆫ 면에 두ᄎᆞᆼ으로 대ᄅᆞᆯ 무웃고 각셕
화초분에 온 갓ᄀᆡ 화이 초ᄅᆞᆯ 싱거시니 빅뫼
홍뫼와 니화도 화며 목단 쟈약과 타화계화
와 모면 화영산홍과 그나마 각셕 꼿치 난만
이 퓌고 뉴ᄌᆞ 감ᄂᆞᆫ 와 청귤 가ᄇᆞ귤이 푸ᄅᆞᆫ이ᄇᆞ

희ᄶᅡ이여극히열여가지가휘여지고난초
와셰파는셩긔가바ᄅᆞᆯᄒᆞ여두셔자길이나술
장ᄒᆞ여시나ᄭᅩᆺ츤이삼월ᄀᆞᆺ고풀은ᄉᆞ오월ᄀᆞᆺ
고실과는파ᄅᆞ구월이오미화는동셧ᄃᆞᆯ이나효
고만집의ᄉᆞ시ᄅᆞᆯ겸ᄒᆞ여두어시나쳔지조화
ᄅᆞᆯ사ᄅᆞᆷ이능이아ᄉᆞᆫ일러옥시긘ᄒᆞ여뵈더
라웃노라ᄒᆞ고목란ᄒᆞᆫ분을사자ᄒᆞ나조은
은시브여낭을다ᄅᆞ나ᄒᆞ더라그집밧ᄉᆞ거는가화ᄅᆞᆯ
도분에싱거가셕가지ᄅᆞᆯ노아ᄉᆞ거ᄂᆞᆯ동형ᄒᆞ
고갈도화ᄒᆞᆫ분과향화ᄒᆞᆫ분을사가지고

더니 하인이 잘못가지고오다가는리 쳐버리고쳔
흥은쳥뉴리 병에 진ᄒᆞᆼ붕어ᄅᆞᆯ너어공ᄭᅦ갓다
드리러오더니 밋쳐보시도못ᄉᆞᆼ여셔ᄂᆞ리쳐ᄭᅵ
치니ᄭᅢ가지가이ᄅᆞ시에다버리일ᄒᆞ고ᄒᆞ더라쳔
하에일셕이등원이졔이ᄅᆞ이여니와오나ᄅᆞ우
연이오다가차타고가ᄂᆞᆫ낭ᄌᆞᄒᆞ나ᄅᆞᆯ보니어ᄅᆞᆯ이
과연보던등ᄋᆞᆺ뜸이여화걸ᄒᆞᆫ용모와ᄂᆞᆺ슌
ᄒᆞᆫ터도와현연ᄒᆞᆫ거동이탕ᄌᆞ의ᄂᆞᆫ을부ᄉᆡ여
브로보지못ᄉᆞᆼ을듯ᄒᆞ니아ᄅᆞ어ᄒᆞᆫ뇨죠ᄉᆞᆨ녀ᄅᆞᆯ평
셩쳐금으로구경ᄒᆞ니ᄭᅳᆺ치비기ᄯᅥᆫᄭᅳᆺ치쇼

셔ᄒᆞ고ᄃᆞᆯ에 젼죠면ᄃᆞᆯ이 도로여 완ᄌᆞᆼᄒᆞᆫ거시
니 진소위 경국경셩지셕이라 만일계 지ᄇᆞᆫ을
가ᄉᆞ가이ᄒᆞᄂᆞᆫ법이면셩 환고국ᄒᆞ리져ᄉᆞ을거시
니금ᄒᆞᄂᆞᆫ법이엇지다 힝치아니ᄒᆞ리오 초
십이로 황제가 원명원을 셔거곡대 제지니
러보로 쳔단으로 환궁ᄒᆞ다ᄒᆞ니 지영에가
보고시부나날이극히 치보고일즉 타약을
먹기 못가ᄉᆞ러니 구ᄉᆞᄃᆞᆯ잘보고 왓허라 환
ᄉᆞᆯᄒᆞᄂᆞᆫ놈ᄃᆞᆯ을 블너 볼셔ᄒᆞᆼ라이놀니
ᄂᆞᆫ금이 잇다ᄒᆞ러니 큰호랑이ᄂᆞᆫ이 달초생

에ᄌᆞᆨ고져근법이ᄀᆞ셔도뎌ᄅᆞ니이셔ᄇᆡᆺ쳐오지못
ᄒᆞ고다만ᄉᆞᆯ법ᄒᆞᄂᆞᆫᄂᆞᆷᄉᆞ오인이와시나온가ᄉᆞ겨
죠가다ᄂᆞᆫ뉴리장셔보던것만못ᄒᆞ고ᄒᆞᆫ번관
의셔북ᄅᆞᆯ너오면은치ᄅᆞ파ᄅᆞ냥식ᄌᆞᆫ다ᄒᆞ니잇디
여러번보리오기ᄇᆞᆷ샹셔지ᄇᆞᆷ의셔ᄯᅩᄒᆞᆷ식을차
려보니여시니황제진어ᄒᆞᆫ다ᄒᆞᆫ쎡은과
ᄌᆞᆯᄀᆞᆺ치지져뎡근거시연ᄒᆞᆫ도아니ᄒᆞ고맛도
대단치못ᄒᆞ며쇼어ᄇᆞᆫᄉᆞᆫᄌᆞᆼ편과지ᄇᆞᆸ며죠ᄀᆞᆺ치뎡
근쎡과셩션탕제유ᄀᆞᆨ탕여ᄅᆞ구ᄌᆞ타ᄒᆞᆫᄃᆞᆯ탕각일
긔와구ᄒᆞᆫ도야지ᄒᆞ나오리ᄂᆞᆫ와시나마시다누

려비위에맛지아니ᄒᆞ여라영거ᄒᆞ여온사ᄅᆞᆷ은
젼과곳치지션과환약을쥬어보ᄂᆡ니라 십
이ᄅᆞᆯ황셩북편에ᄀᆞᆺ장감이시니아국분묘와
ᄒᆞᆫ가지라공과셔장관을조차시ᄒᆞ후에황렬
의궁강을로말뮈ᄆᆞᆷ아중안문아보ᄒᆞ으로안졍
문을향ᄒᆞ여가실싀중북ᄃᆡ이조ᄒᆞᆫ피로가이시
니비ᄒᆞ셔셩현가라ᄒᆞ고안의극ᄀᆞᆺ감이라ᄯᅩᄡᅥ다
라녀ᄋᆞ문을지나동편현문으로ᄂᆞ우편ᄂᆞᆼ각
에지겨쇼라ᄒᆞᆫ지보의ᄉᆞ신느리드러가관복
을밧고아이보고위판에쳠비ᄒᆞ구경ᄒᆞ라

ᄒᆞ시ᄅᆞ셔국ᄀᆞ젼부라ᄒᆞᄂᆞᆫ관원이나와ᄉᆞ신을
인도ᄒᆞ더라내혐문안의령문이이셔대셩
문이라ᄒᆞ고현판ᄒᆞ여시ᄯᅥ문밧ᄀᆡ태ᄯᅩᆯ우의
두기ᄅᆞ시ᄀᆞᆫᄒᆞᆫ셕빈ᄉᆞᆨ시ᄇᆞ여명셔공우편에사ᄇᆞ십
구좌가ᄯᅩ셔고령노동셔에비가ᄃᆞᆯ이ᄂᆞ시니ᄒᆞ나
은대명원연에셰운비오ᄒᆞ나은건ᄂᆞᆫᄒᆞᆼ오ᄒᆞ연에
셰운비오비가ᄇᆞᆺ그로북편은스ᄆᆞᆯ아ᄒᆞᄇᆞ이오
남편은스ᄆᆞᆯ셰이셔시되다ᄀᆞᆯᄀᆞ가완ᄒᆞ여언제
ᄯᅥᆨ빈지모로나빅여남은비가다과거ᄒᆞᆫ셩
진방목ᄋᆞᆯ귀록ᄒᆞ여ᄉᆞ더라부편냥각에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귀신을 거느리고 있었다. 내가 일찍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귀신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내가 일찍이 그 사람의 글을 보니 귀신을 위하여 글을 지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그 사람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안가) 비가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은 비가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은 비가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죽으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죽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병들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병드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가난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가난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근심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근심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기뻐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즐거워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부유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부유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귀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귀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벼슬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벼슬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다스리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다스리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죽으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죽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병들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병드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가난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가난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근심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근심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기뻐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즐거워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부유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부유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귀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귀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벼슬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벼슬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다스리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다스리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 비가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은 비가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은 비가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죽으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죽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병들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병드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가난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가난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근심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근심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기뻐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즐거워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부유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부유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귀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귀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벼슬하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벼슬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장차 다스리려 하면 신은 비가 장차 다스리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비가 비록 착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신은 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말하고 있었다.

판을 뫼셔시니 위판에 불근칠ᄒᆞ고 젼면에
샤져시되 지셩션사 공ᄌᆞ진 신위라 ᄒᆞ여 ᄉᆞ감
실우의ᄂᆞᆫ 만셰사표라 쎠시니 강희글시오동
편에ᄂᆞᆫ 셩민미유랑 쓴거슨 옹졍의 글시오셔
의여 젼지 차ᄇᆞ이라 쓴글시ᄂᆞᆫ 건ᄂᆞᆼ 위피로 이라
다금ᄌᆞ로 폐오고 좌편 감ᄇᆞ실의 두 위판이ᄀᆞ시
니ᄒᆞ나은 복셩안ᄌᆞ지 위라 ᄒᆞ고 쪼ᄒᆞᆫ나은 숄셩
ᄌᆞᄉᆞ지 위라 ᄒᆞ고 우편 가ᄆᆞ실에ᄂᆞᆫ 연경증ᄌᆞ지 위라ᄒᆞ고
아셩 밍ᄉᆞ지 위라 ᄒᆞ고 죠고금나 려와 우의 각ᄀᆞᆫ
가ᄆᆞ실이ᄀᆞ시니 좌에ᄂᆞᆫ 미ᄌᆞ손 라여ᄆᆞᆷ 옹과 탄

목ᄌᆞᄉᆞ와 유ᄌᆞ유와 복ᄌᆞ상과 유ᄌᆞ약의 위
판이오 우편은 여ᄆᆞᄌᆞ경과 겨ᄌᆞ여와 ᄆᆞᆺ ᄀᆞ와 손ᄌᆞ사
와 쥬ᄌᆞ의 위판이 뫼셔 ᄉᆞ러라 공ᄌᆞ판 위ᄂᆞᆫ 네
기동에ᄂᆞᆫ 용을ᄉᆞ면에 그리ᄆᆞᆷ으로 칠ᄒᆞᆫ 널의 ᄭᅴ
시 되 거비ᄉᆞ시여 쳔지 귀신일월 합기 덕이라
ᄒᆞ고 두ᄅᆞ겨 기동에ᄂᆞᆫ 교슈 만세 계요슌 우탕 문무
작지사라 ᄒᆞ고 쳇겨 기동에ᄂᆞᆫ 제가 치국평쳔하
신샤 언이 포겨 방쳑이라 ᄒᆞ엿고 네겨 기동에ᄂᆞᆫ
숄셩슈 ᄀᆞ도 치ᄌᆞᆼ 화 득기 문겨 비지궁 장이라
ᄒᆞ여 시니 다 덕 화ᄅᆞᆯ 숑찬ᄒᆞᆫ 을이오 졍졔 제도

ᄂᆞᆨ히사려ᄒᆞ여금쳐가황ᄒᆞᆯ영농ᄒᆞ고위판
압ᄇᆡ희상탁이며오동향노네쌍과홍사초롱
네쌍이오동셔비위에각ᄀᆞ향노와좌초롱ᄒᆞᆫ쌍
식노코바닥에ᄂᆞᆫ죵녀멉치ᄅᆞᆯ방셔ᄋᆞᆯᄅᆞᆨ이ᄯᅡᆯ
고졍젼바ᄉᆞᆯ의ᄂᆞᆫ돌난간이옥밧ᄏᆞ고동셔
에각ᄀᆞᆫ힝각을열여셧간식지어시니동편은
구양슈ᄉᆞ마광왕동제가ᄅᆞ냥졍강셩고셜
모장공안국ᄀᆞ공앙고졍ᄌᆞ공손ᄎᆞᆼ공도ᄌᆞ목
ᄌᆞ피원헌담대멸명남궁괄치ᄅᆞ됴리ᄉᆞ마
경안신됴휼공손룡양샤젹공하슈후건

안죠 늑시ᄇᆞᆷ 삼인이오셔
즁엄 한슈 동즁셔
공야장 늑시ᄇᆞᆷ이인의 외
탁과향노ᄒᆞ나ᄎᆞᆫ대ᄒᆞ
희옹졍건ᄂᆞᆼ에어제ᄒᆞ
각남대문만치비각을
벽돌노싸고쳥기야로이
셩문령노원광의셕고
갓초아쎄워시니부놉
아름은ᄒᆞ고ᄉᆞ면의젼

발셔왼ᄒᆞ여 몰나 보고글시ᄂᆞᆫ듀션왕띄의ᄯᅳᆫ
거시오예젹은공ᄌᆞ사당의잇다가듕간의이
러브려더니숑인죵젹의어더금으로글ᄌᆞ르ᄅᆞᆯ
며워보화젼의두엇더니후에휘죵이오뮤
명ᄂᆞᆫ당의두엇다가젼강지난에금인이가
셔갓더니원인죵띄예우지ᄇᆞ이라ᄒᆞᆫᄂᆞᆫ사ᄅᆞᆷ
이존ᄒᆞᆯ의셔어리비로쇼티셩문안의두어시
니뎌[illegible]목슈이열거보ᄒᆞᆫᄃᆞᆯ이라다섯쌍듕
의[illegible]이셜고ᄅᆞᆯ파시니이ᄂᆞᆫ촌간의셔어
더온[illegible]신가시뷰더라안ᄑᆞᆺ바당의희바셕

이쥬ᄅᆞ이ᄂᆞ러서고숑빅이을ᄅᆞ창ᄂᆞᆫᄒᆞ여령이
시ᄆᆞ슈ᄒᆞ더라그리로서ᄯᅥᆫ긴당에드러가니령
당에벽옹이라금ᄌᆞ로써현판ᄒᆞ고ᄉᆞ면에희
ᄉᆞᄅᆞᆯ파고가을로빅셕난간을ᄒᆞ라며찬란ᄒᆞ
고아ᄇᆞ희피문사ᄆᆞ간에젼ᄯᅥᆷ은학ᄀᆞ희졀관
이라ᄯᅳᆯᄒᆞ우면은환ᄭᅳᆯ틱이라ᄯᅳ고피문바ᄉᆡ동
셔로냥각을지어복과죵을각ᄀᆞ다ᄅᆞ고죵각밧
거ᄯᅩ졍사ᄆᆞ문이ᄋᆡ고좌우로오십간식장각이ᄀᆞ
시거셩시ᄆᆞ당과증지당과광어ᄇᆞ당과슈도당과
셩슈당과ᄯᅳᆯ셩당과지의당이ᄂᆞᆫᄒᆞᆫ간의밀

밥식ᄒᆞᆫ셕비ᄅᆞᆯ셋식세오고예거와의례와
ᄉᆞ셔ᄅᆞᆯ방장이샤기고부편으로쇼벽대청이ᄂᆞ
시니안의비셕이여려이오당중ᄒᆞ여돌노병
풍으ᄅᆞᆫ여치고대학셔ᄅᆞᆯ쇠샤져시니좌우에
박ᄉᆞ청과승건청이오사샤로이ᄎᆞᆯ이ᄇᆞᆼᄂᆞᆫ문
은경일문이라ᄒᆞ엿더라오히려못다본거시
이셔문바ᄉᆞ거이우이안젓더니죠션사ᄅᆞᆷ으로굿
보라온퍼가문안문바ᄉᆞ거미만ᄒᆞ여리야이청
로엉거ᄂᆞᆫ듕의ᄉᆞ오쇄치ᄂᆞᆫ아희ᄃᆞᆯ도이여죠곰
도어려워아니ᄒᆞ니응당열인을만이ᄒᆞ여그

려ᄒᆞᆫ가시부더라 ᄀᆞᄀᆞᆫ감셔머지아니ᄒᆞᆫ곳져
용화궁이〻시나졀승ᄒᆞ라 ᄒᆞ기본져샹을동ᄒᆞᆫ마
두ᄅᆞᆯ보내여문을여ᄅᆞᆫ나ᄒᆞ고미쵸차가나바샤져
불근살문을ᄒᆞ여피록ᄅᆞᆯ놉게짓고시ᄂᆞᆫ니원동
이라 ᄎᆞᆷ고마ᄌᆞᆫ편의ᄯᅩ피문짓고금취 로[illegible]훌
이ᄒᆞ여시되샹게며려무여시라 ᄎᆞᆫ지모로고ᄌᆞ져
문도이름이〻셔도쳥문인고로그려드려가지아
나ᄒᆞ시문ᄯᅧᆼ을보지못ᄒᆞ고제셥문은쇼련문
이나국히웅장ᄒᆞ고졔ᄉᆞᆷ문은웅화문이나문
안보희ᄎᆞᆨ 길식ᄒᆞᆫ구리샤겨ᄒᆞᆫ샹을안쳐

시니버린니ᄇᆞ과 허위ᄂᆞᆫ 바ᄅᆞᆯᄃᆞᆸ이셩귀유동ᄒᆞ
고좌편에파ᄅᆞ모쳑가ᄃᆞᆫ이이ᄉᆞ고우편에네모
비가ᄃᆞᆯ을지어시니다긔묘여ᄋᆞᆼᄒᆞ고문혁
의ᄂᆞᆫ귀신이칼을지ᄇᆞ고ᄭᅵ로게ᄒᆞ여ᄭᅥ시며그
문안은옹화궁이니지ᄇᆞ지은제되궁가ᄉᆞ극치ᄒᆞ
여ᄉᆞ면화ᄇᆞᆼ을초록벽ᄃᆞᆯ노귀문을ᄂᆞ아ᄯᅡ고
상하마구리ᄂᆞᆫ다울용을사기고ᄯᅳᆯ의ᄂᆞᆫ오ᄉᆡᆨ
ᄃᆞᆯ노와ᄂᆞᆺ문을노아ᄉᆞ면에ᄎᆞᆼᄋᆞ이난간을ᄒᆞ
여시며진ᄒᆞᆼ기종과조금ᄒᆞᆫ창ᄒᆞ호ᄭᅴ사ᄅᆞᆷ의얼
굴이비ᄉᆞ치고흰ᄃᆞᆯ노깐ᄯᅳᆯ의오차가영농ᄒᆞ

여농ᄒᆞ여셕ᄀᆞ이 빗치나니 시로노ᄇᆞᆫ로ᄇᆞ기ᄒᆡ 황
ᄒᆞ고 졍듕의 곡동 향노ᄒᆞ나을 셕하ᄂᆞᆫ의 빗져노
코젼니ᄲᅵ 금불셋과 십팔나한이 버럿고ᄒᆞᆫ길
이 넘은 산호슈의 비단가ᄉᆞᆯ 걸쳐시ᄇᆡ 오셕
으로 구은 향노두 창이오 길넘은 초뎌ᄭᅴ 뇽ᄒᆞᆫ
립ᄒᆞ여ᄒᆞᆫ 창이오 불타ᄇᆞ우 희ᄀᆞ득이 버린
거ᄉᆞᆫ 슈졍 붓쳐 ᄀᆞᆺ든 것도 잇고 두ᄋᆞᆫ 거ᄋᆞᆯ ᄀᆞᆺ든
것도 이셔 형ᄀᆞ셕ᄀᆞ이 다 그이ᄒᆞ되 일오 무어신
지 이름을 모로고 젼안의 뇽문슈노은 다ᄆᆞᆷ을 ᄭᅡ
라시니 신을 벗고드러가 포ᄆᆞᆷ이 극히 불

안ᄒᆞ며 옹화궁뒤에 여옹우젼이라ᄒᆞᄂᆞᆫ지 ᄇᆞ은옹
화궁이여셔 터크고 부처와 좌우에 버린거ᄉᆞ들
은옹화궁과 일반이오 여옹우젼뒤에ᄂᆞᆫ 벼ᄇᆞ뉸젼
이이시니 이지ᄇᆞ제 ᄯᅩᄂᆞᆫ 형용이 극난ᄒᆞ여 젼젼을
가온ᄃᆡ 죠곰 놉게 지ᄉᆞ고ᄉᆞ면으로 날긔라ᄒᆞ지
게ᄯᅩ지어 시니 지ᄇᆞ옹 ᄇᆞᆯ니 하ᄇᆞᆼ여 다셧시라 가온
ᄃᆡ마로ᄂᆞᆫ 쳥뉴리ᄀᆞᄉᆞ든거 ᄉᆞᆯ두ᄒᆞ글게 ᄀᆞ라ᄒᆞᄂᆞᆫ중
ᄒᆞ고도금ᄒᆞᄂᆞᆫ연화ᄃᆡ ᄅᆞᆯ붓치고 그우의 ᄯᅩ차지벗구
ᄉᆞᆯ노ᄎᆞᆫ 젹게 ᄎᆞᆼ디웨ᄒᆞ여 시니 젼후좌우에ᄃᆡ쇼
꼭지가오셕이 얼의여 나ᄉᆞᆫ치 영농휘황ᄒᆞᆫ

고련안의금부로은어보소면벽에텅을무슈이
그려붓치고바닥에긴탁ᄌᆞ로ᄅᆞ두로버려노코이졀
의잇ᄂᆞᆫ듕이일쳔명이넘다ᄒᆞ되다만오빅여
명이모다머리에누른것ᄉᆞ로겨보ᄉᆞ리ᄀᆞᆺ치빙은관
을쓰고누른치바ᄅᆞᆯ목에거로졍졔이안져젼
역식당을ᄒᆞᆯ셔념부로ᄒᆞᄂᆞᆫ쇼력지봉을우묵
이고몽고에계지보두어시와ᄯᅩ한네ᄇᆞᆯᄒᆞ니ᄌᆞᆫ
곰ᄌᆞ녀ᄌᆞ에복셕이어보셔만면살긔에몽둔
ᄒᆞᆫ거ᄌᆞᆼ이청녀당녀기의씻기지아니ᄒᆞ여가쟝
우슈어뵈더니송경ᄒᆞ기ᄅᆞᆫ파ᄒᆞ고삼빅명ᄒᆞᆼ

이이ᄅᆞ시에ᄉᆞᆫ벽을치ᄆᆞ니그소리극히ᄂᆞᆯ나ᄇᆞ거이
와거ᄒᆞᆼ이ᄯᅩ한쟝관이러라ᄯᅩ벼ᄇᆞᆫ전뒤에삼ᄆᆞᆼ
걸가이ᄂᆞ시니하ᄎᆞᆼ에ᄂᆞᆫ원관응쳥이라ᄒᆞ고ᄌᆞᆼᄒᆞᆼ
에ᄂᆞᆫ쟝여ᄒᆡ인이라ᄒᆞ고샹ᄒᆞᆼ에ᄂᆞᆫ만복간이라
ᄒᆞ여더라ᄀᆞᆷᄌᆞ로현판ᄒᆞᆫ고ᄌᆞᆼ셔에ᄯᅩ누가이ᄂᆞ시니
ᄌᆞᆼ편ᄌᆞ여강가이니만복가을셔운ᄒᆡ로ᄌᆞᆯᄎᆞ
올나우으로세지ᄇᆞ이ᄒᆞᆼᄒᆞᆼ여난간을ᄎᆞᆼᄒᆞᆼ이ᄒᆞ고사
ᄉᆞᆷ이란니께ᄒᆞ여시니ᄂᆞᆸ희반공에라어ᄯᅥᆺ길인지
ᄆᆞ로ᄂᆞᆫ대만복가에쟝ᄋᆞᆫ부ᄇᆞᆯ이라ᄒᆞᄂᆞᆫ부쳐가ᄭᅵᆫᄎᆞᆼ
지ᄇᆞ을ᄭᅵ쳐ᄒᆞ을연이셔시니신쟝이ᄉᆞᆫ시ᄇᆞ길이나ᄅᆡ

고몸퓌여르믄은아롬이오파로목이ᄒᆞᆫ아롬이
되고눈이경반만ᄒᆞ고코이져르구통만ᄒᆞ고어긱
에올나셔지르ᄅᆞᆯ제요만치니붓쳐ᄒᆞᆫ보던ᄇᆡ쳐음보ᄂᆞᆫ
것시오탁ᄌᆞ에노인ᄎᆞᆺ터항노지속이무비보
뷔오금셕연화와연니ᄇᆞ히불타ᄇᆞᆼ을ᄀᆞ리오고
구남은거ᄉᆞᆫ괴ᄀᆞ괴ᄀᆞᄒᆞᆫ거ᄉᆞᄅᆞᆫ은무ᄉᆞᆫ ᄒᆞ나무ᄅᆞᆯ명을
터반모로고나ᄉᆞᆫ치거ᄅᆞᆯᄒᆞᆫ기도도로여신ᄂᆞᆫ치아
니ᄒᆞ더라만복각뒤에유셩젼이라ᄒᆞᆫ지ᄇᆞ의
ᄂᆞᆫ관왕을위ᄒᆞ여시나부ᄉᆞ쳐위ᄒᆞᆫ지ᄇᆞ만못ᄒᆞ
더라ᄃᆞ러오던문은하ᄇᆞᄒᆞ여ᄡᅳᆺ친지모로나뎡

젼이여셧겨ᄇᆞ이오여ᄂᆞᆫᄒᆞ여좌우에타낭박
이ᄀᆞ셔지ᄂᆞᆫ간ᄯᅳᆫᄅᆞᆫ언반ᄌᆞᆯ모로니시ᄉᆞᆷᄒᆞ고다
굉거ᄅᆞᆫᄒᆞ기ᄂᆞᆫ동악묘만못ᄒᆞᆫ나번화ᄒᆞ고사려
ᄒᆞᆫ거ᄉᆞᆫ자ᄂᆞᆫ만나은듯ᄒᆞ더라셔ᄀᆞ이리보고시부
나도라가ᄅᆞᆯ기ᄅᆞᆯ이ᄉᆞ시ᄇᆞ니나되고이ᄅᆞᆯ세도벌서
져모러가기이ᄅᆞᆯ힝ᄋᆞᆯ겨ᄎᆞᆨᄒᆞ여오다가문쳔샹
의사다ᄋᆞ이기ᄅᆞᆯ가의잇다ᄒᆞ기드러가니대문에
문승상사라현판ᄒᆞ고령당에승상을뫼시
고암희송승상문국공문공지위라써위파ᄒᆞ
고상력아력돌노판장쳐로ᄒᆞ고젼면에승

상의ᄌᆞ찬ᄒᆞᆫ글과 화샹을그려인ᄒᆞ여 샤기
곤들보에 만고ᄎᆞᆼ간이라 써시니 쳔ᄎᆞᆨ에 거록
ᄒᆞᆫ졀기가 지금쇼멸치아니 ᄒᆞᆫ듯ᄒᆞᆫ나 지ᄇᆞ이
다 최라ᄒᆞ여 옹화궁에 비ᄒᆞ면 불폐풍우
라 가이일을 거시니 어ᄉᆞ지 불샹치아니 ᄒᆞ리오
벌셔 어ᄃᆞᆫ어 총ᄀᆞ이 ᄇᆞᆯ옥하관에 도라오니 초
경이 되여ᄉᆞ더라 시ᄇᆞ이 일졍월샹신이로에 거
곡대제지ᄂᆡᄂᆞᆫ 버ᄇᆞᆫ만 국이ᄒᆞᆫ가 다라 초사ᄇᆞᆯ일
신일은 이ᄇᆞᄎᆞᆫ젼이라 ᄒᆞ여 시ᄇᆞ삼일ᄌᆞᆼ신일
의 친제로 희ᄋᆞᆼ기온ᄅᆞᆫ 쳔단의 거동ᄒᆞᆫ셔오

셩두의 공을 뫼시고 동안 문으로 드러가오
문밧긔셔 춤굴 궁을기ᄃᆞ려 더니 나ᄅᆞ이 굽
흔 후 버브 가ᄅᆞᆯ ᄃᆞᆫ 고오 문으로 나오니 두려 숨
어ᄅᆞ고ᄅᆞᆯ이 산하디 긔ᄅᆞᆯ 셔여 죠고ᄆᆞᆫ 후라
흔 거셕이 어브ᄉᆞ니 엇디 구시ᄇᆞ텬 겨라 니ᄅᆞ
리오디 날ᄃᆡ 외국 숫신ᄃᆞᆯ 지영ᄒᆞᆫ ᄂᆞᆫ 거ᄉᆞᆯ 주셔
히 보더라 위의ᄂᆞᆫ 다 만누ᄅᆞᆫ 낭산의 구룡을 그리
고 년ᄃᆡ 문(군)은 블근 문노흔 오셕누ᄅᆞᆫ 깃쇼즌 놈ᄉᆞᆷ을
식셰ᄌᆞᆯ 외메여 시니 ᄒᆞ브ᄒᆞ여 ᄂᆞᆨ 신ᄇᆞ 명이라
한 마러 경경 칠소리도 어브시 바ᄒᆡ 인 젹 만ᄃᆞᆯ

니고젼후시워ᄒᆞ여가ᄂᆞᆫ관원이시부ᄅᆞᆯ뻐
러시니블은마으라기죠양의비최여더욱
빗나더라지영을파ᄒᆞ고저ᄅᆞ좌문으로나ᄯᅢ
묘뒤ᄒᆞ으로져동화문밧ᄉᆞᆯ디나니빌ᄀᆞᆫᄒᆞᆫ숑
삼과은ᄀᆞᆫᄒᆞᆫ누가ᄀᆞ이쳐ᄀᆞᆫ의신ᄀᆞᆫᄒᆞ더라십
삼이ᄅᆞ괴곡제파ᄒᆞ우에인ᄒᆞ여바로원명
원으로거동ᄒᆞ니여거ᄂᆞᆫ년부년뎡원이
면인신을몽ᄒᆞ여공ᄉᆞᄅᆞᆯ폐ᄒᆞ고등희와
뫼화노ᄅᆞᆷ과온갓자ᄇᆞᆫ희ᄅᆞᆯ라ᄒᆞ고노ᄂᆞᆫ되
니외국ᄉᆞ신도근니ᄂᆞᆫ년ᄒᆞ여차ᄇᆞᆫ폐ᄒᆞᆫᄂᆞᆫ지라

올은더욱졔샹치ᄒᆞ여오ᄂᆞᆫ이야비로소놀
나가니언졔환궁ᄒᆞ을지모로나공고가날
마다죠쳐ᄇᆞᆫᄒᆞ니민망ᄒᆞ고거거ᄂᆞᆫ이셜고지
더욱쳑박ᄒᆞ여ᄀᆞ러히가용나브ᄒᆞ기어렵
다ᄒᆞ기나ᄂᆞᆫ니일가라ᄒᆞ며ᄃᆞᆯ이운지오란
고로통라ᄂᆞᆫ들이년ᄒᆞ여드러와힝ᄎᆞᄒᆞ기
ᄅᆞᆯ겨촉ᄒᆞ더라건냥관니광ᄌᆞ는본뒤
참(청)야ᄒᆞᆫ사ᄅᆞᆷ이라워연이병이드러졉ᄆᆞᆯ
ᄀᆞ가뷔ᄋᆞᆫ지못ᄒᆞ니ᄌᆞ연관념이되며슈
토가고이ᄒᆞ고음식이유이ᄒᆞ여사ᄅᆞᆷ마다

격타부이 증건ᄒᆞ여 시ᄀᆞ쳬가 죵ᄂᆞ나 터라오
후에 유리 창의 나가니 가셔 노리ᄒᆞᄂᆞᆫ고
지만 커ᄅᆞᆯ 가ᄇᆞ시ᄅᆞᄌᆞ고 ᄒᆞᆫ고 되드러 간 대나
키만 ᄒᆞᆫ 곰을 쇠사 실노 목을 뭐여 노ᄅᆞᆯ 니ᄅᆞ셔
님자ᄂᆞᆫ 어ᄅᆞ골 에분 죄ᄅᆞᄒᆞ고 ᄌᆞᆷ 토로 광태ᄅᆞᆯ
ᄀᆞ리고 당거ᄆᆞ과 젹지 아니 ᄒᆞᆫ능 장을 공증
의 더지 면곰이니 러나 두 발노 바다니 마의
연고 창도ᄎᆞ며 카ᄅᆞ도 ᄃᆞᆯ고 ᄌᆞᆷ ᄌᆞᆷ며 겨조 동넘
어온 가ᄉᆞ거ᄉᆞᆯ 다사ᄅᆞᆷ 로 치노ᄅᆞᆯ 니ᄅᆞ셔 ᄒᆞᆫ가지
겨조ᄅᆞᆯ ᄒᆞᆫ면 부ᄉᆞᆯᄅᆞᆫ 뒤 바ᄇᆞᆷ ᄒᆞᆫ 수ᄅᆞᆯ 을 ᄯᅥ 럭

이고 휘장 친 뒤 흐을로 셔 쏜오공과 례파례
계 등 물의 타를을 쓰고 추례로 나와 노터니 홀
연 흔 놈이 뉴의 흐상으로 빅 학을 ᄒᆞ
고 나오니 학의 다리는 비록 나므로 ᄒᆞ여시
나 놉희는 두 기로 온 ᄒᆞ고 ᄂᆞᆯ 리는 두 발은 ᄒᆞ
여은 연이 화학ᄒᆞ는 신션인 ᄃᆞᆺ ᄒᆞ여라 ᄯᅩ
긋 ᄒᆡ 사ᄅᆞᆷ 운 집 ᄒᆞ여ᄉᆞ거ᄂᆞᆯ 가보ᄉᆞᆫ 쥬고 ᄃᆞ러
가니 셕가산을 놉히 무으고 젼면의 쳑 각
을 ᄎᆞᆼᄀᆞᆼ이 쌉미고 인형을 무슈히 ᄒᆞ여 칼
춥도 ᄎᆞᆫ 며 그녀도 셔며 씨아 지로도 ᄒᆞ며

믈네지ᄅᆞ이며나 귀로매ᄅᆞᆯᄂᆞ니고사ᄅᆞᆷ은
귀로ᄭᅡ부ᄅᆞ며ᄯᅩ죠고만사장을열고ᄒᆞᆫ계집
이아희ᄅᆞᆯ아ᄂᆞ고나와오ᄌᆞᆷ도그ᄅᆞ며온갓거동
을다ᄒᆞ더니셕가산아러샹탁을노코샹
우희모판ᄃᆞᆯᄒᆞᆫ년ᄒᆞ여언고부ᄉᆞ두거ᄇᆡ이
여셔죠곰큰빅쳐ᄅᆞᆫ벼ᄋᆞᆯᄒᆞᆫ모판의다셧식
셰우고믈을모판에부으며ᄒᆞᆫ노ᄆᆞ이증치고무
슨소러ᄅᆞᆯᄒᆞᆫ죽병마다ᄃᆡ즐기ᄅᆞᆫ믈이
너덧자ᄂᆞᆸ희나소사셔로어금맛셔공동의
소사ᄒᆞᆫ다가손으로ᄅᆞᆫ치며ᄯᅩ무슨마ᄅᆞᆫ을

ᄒᆞ면여ᄅᆞᆯᄌᆞᆯᄀᆡ ᄆᆞᆯ이 방ᄋᆞᆯᄀᆞᆫᄒᆞ려 져슈졍
도ᄀᆞᆺ고 진ᄌᆞᆨ도ᄀᆞᆺᄒᆞ여ᄉᆞ면의 편산ᄒᆞ다가
ᄯᅩ진언을ᄒᆞ면ᄌᆞᆨ시그치고ᄯᅩ무어시라ᄒᆞ
면경각의 도로그차 나니아 모리 부고 다시
보아 도엇지ᄒᆞᆫ이ᄅᆞᆯ안ᄌᆞᆯᄋᆞᆯ모로나이ᄃᆞᆫᄋᆞᆼ
당요슈ᄅᆞᆯ인가 시부며ᄯᅩ져ᄀᆞ근개만ᄒᆞᆫᄌᆞᆷ
셩을쇠사시ᄅᆞ노목을ᄆᆡ여안져시니ᄆᆡ리
ᄂᆞᆫ되야지오이봉은ᄌᆡ로고아ᄇᆞ타리이하ᄂᆞᆫ
흑빅이셕기인허ᄅᆞ이기리와 몸피물
네가락만ᄒᆞᆫ데지에쇠부을차면

모셰ᄅᆞᆯ거스려고솜ᄃᆞᆺ ᄒᆞ여지니ᄀᆞ장오
이ᄒᆞ여이ᄅᆞ옴을무로ᄃᆡ살ᄃᆞᆺ치라ᄒᆞ되
어듸셔나시며무어셔속ᄒᆞᆫ거시ᄂᆞᆯ모
ᄅᆞᆯ너리ᄯᅩᄒᆞᆫ고터ᄂᆞᆫ셔양구ᄒᆞ츄쳔을ᄯᅥ고
ᄒᆞᆫ고듸ᄂᆞᆫ강나ᄭᅴ셔나온ᄌᆞᆨ은셩ᄀᆞ이ᄅᆞᆯ노ᄒᆞ
ᄀᆡ경을시ᄀᆞ이며가ᄇᆞᆺ슬바ᄃᆞᆫ나여러노ᄅᆞᆷ등
의ᄇᆞᆯ거시ᄡᅳᆫ노어ᄇᆞ터라 시ᄇᆞᆺ일부겨관
등은본터상원에ᄒᆞᆫ지라황제아ᄇᆞ희
셔ᄒᆞᆫᄂᆞᆫ등희ᄅᆞᆯ물져ᄒᆞ여아적을일명
고셔지ᄀᆞ문을나ᄉᆞ시ᄂᆞ니원명원의오시가

못퇴여니르니그듕안져재무르화의번
화와촌나의즐비ᄒᆞᆫ거ᄉᆞᆫ비록죠양문
령양문밧만못ᄒᆞ나인가ᄀᆞ져로녀ᄂᆞᆼ여
ᄉᆞ시ᄇᆞ니의ᄉᆞᆫ허진고지어ᄇᆞ고기ᄅᆞ회ᄯᅳᆫ박
셕은ᄉᆞ면이타ᄒᆞᆫ가디러라ᄒᆞ오권이하
처의셔머티아니ᄒᆞ기ᄉᆞ신을ᄯᅳᆫ라거러
힝ᄋᆞ여영ᄉᆞ아ᄅᆞ플디나동구의니ᄅᆞ
니타ᄇᆞᆼ을노ᄇᆞ게ᄯᅳ고문을구디다다ᄉᆞ거ᄂᆞᆫ
상ᄒᆞᆼᄉᆞ마두ᄅᆞᄅᆞ분부ᄒᆞᆼ여문을여ᄅᆞ고ᄅᆞ
러가니이곳사ᄅᆞᆷ들도이ᄇᆞ의로보터못

ᄒᆞ다가우리ᄇᆞᆫ셔ᄅᆞ라ᄃᆞ러오ᄂᆞᆫ재누시ᄇᆞᆸ쌍이
러라문안의이ᄅᆞ자낭가ᄉᆞ을디ᄉᆞ고지ᄇᆞᆫ안
희박쳐ᄅᆞᄒᆞᆫ나므로우리ᄅᆞᆯ ᄯᅩ곰네ᄒᆞᆯ각
ᄀᆞ너허기ᄅᆞ니비록그러코돈못ᄒᆞ나살창
으로바ᄅᆞᆯ내여사ᄅᆞᆷ의오ᄉᆞᆯ자ᄇᆞᆼ으려ᄒᆞ고
우리마다모음터ᄉᆞ아모ᄂᆞᆫ모년모워ᄅᆞ의
자ᄇᆞ아보낸치ᄉᆞᆫ오ᄒᆞᆼ탕지의ᄭᅴ부치고ᄀᆞ리
로셔ᄀᆞᄒᆞ으로져ᄀᆞ은문을드러목으로돌ᄉᆞ닥
다리ᄅᆞᆯ올나가니장광이대엿간식
ᄒᆞ고놉희셔너길죄게돌노지하ᄆᆞᆸ을

쓰고우희쳔만ᄒᆞᆫ나ᄆᆞᆯᄀᆞᆺ로ᄃᆡ르고구리망
을두세겨ᄇᆞᆼ여더ᄇᆞᆼ은고ᄃᆡ녜희셔세고
더법세ᄒᆞᆯ가ᄀᆞᆺ가도아시니셋재간법
은젹고여의여거운을슈슙ᄃᆡ못ᄒᆞ여ᄒᆞ
고ᄃᆞᆯ깨간법은젹ᄃᆞᆫ아니ᄒᆞ더그리사오
나ᄇᆞ리봇ᄒᆞ고가온대간법은콩고사오나와
사ᄅᆞᆷ을보고나ᄅᆞᆺ슬거ᄉᆞ리며ᄃᆞᆼ잔ᄂᆞᆫᄃᆞᆫ눈을
ᄇᆞᄅᆞᆷ쓰고두바ᄅᆞᆼ을허뭐여고함을지ᄅᆞᆫ으며침
쓰리ᄀᆞᆫ리쓰락광분디ᄅᆞᆯ쥬ᄒᆞ니우레ᄀᆞᄅᆞᆫ쇼
려ᄂᆞᆫ여ᄋᆞᆼ신이어ᄃᆞᆫ ᄒᆞ고험난ᄒᆞᆫ대가리

ᄂᆞᆫ바로보기ᄉᆞᆯᄒᆞ나 ᄆᆡᆼ회ᄉᆡᆷ산을ᄯᅥ나 합
졍의ᄃᆞᆯ어시니ᄃᆞᆯ로혀불샹ᄒᆞ고고기ᄉᆡ너ᄂᆞᆫ
을ᄂᆞ리티니지ᄇᆡ어먹은ᄎᆞᆷ도변ᄀᆞ이아니
무치고ᄉᆞᆷ키더라나라희셔쥬어먹인ᄂᆞᆫ
거ᄉᆞᆫᄒᆞᆯ로가ᄭᅥ여ᄉᆞᆺ근ᄉᆡᆨ차하ᄒᆞᆫ다ᄒᆞᆫ나ᄒᆞ
권셕무가ᄯᅥ이ᄂᆞᆫ즐을어이아ᄅᆞ이오즉시
도라와산고ᄉᆞᆺ장각의ᄃᆞ러가니심슈
ᄒᆞᆫ동산의슈목이번셩ᄒᆞ여의연이아ᄀᆞᆫ
ᄎᆞᆫ당대와바ᄇᆞᆯ ᄀᆞᆫᄒᆞ더라산고ᄉᆞᆺ장각
압히ᄃᆞᆼ희ᄒᆞᆫᄂᆞᆫ고지라이ᄌᆡᆸᄋᆞᆫ이동연

간지ᄇᆞ이나 그리 놉ᄒᆞ야니 ᄒᆞ고 타ᄂᆞᆫ 쳥도아
니ᄒᆞ여 시나 젼졍 아ᄇᆞ 희 치ᄆᆞ 항비ᄉᆞᆺ로 남
글 취셕ᄒᆞ여 삼면을 둘너 ᄌᆞᆫ문으로 궁을
내여 판장을 ᄒᆞ고 판장 안의 타셕 간식
동셔에 각쳐 각을 짓고 쳐 각 안의 타ᄀᆞᆫ
ᄅᆞᆯ 셤이고 타ᄀᆞᆫ 우희 푸른 빗돌노 셕가산
을 밍글고 온 갓인 불과 각셕가 화ᄅᆞᆯ 난
만이 ᄭᅩ고 첨아 압희 ᄒᆞᆫ 간에 셋식 뉴리등
을 타라 시며 산고 슈장 각상 층의 ᄂᆞᆫ 누른
실노 뉴죠ᄉᆞᆯ ᄒᆞ여 여러 간지ᄇᆞ에 비 간에 뉴

리등ᄒᆞᆫ니 시ᄀᆞ다ᄅᆞ고 한ᄎᆞᆼ압희좌우로십
여장식ᄒᆞᆫ도개ᄒᆞᆫ쌍을세우고등대우희
빅쳘도년봉을밍ᄀᆞᆯ루거봉을쇠워파ᄅᆞ로
덕지봉을밍ᄀᆞᆯ고미모의오셕ᄂᆞ뉴쇼ᄒᆞᆫ뉴리
등가ᄀᆞ연시ᄀᆞ들고동ᄌᆞᆯ은구리거복이붓
들게ᄒᆞ여시며판장바ᄉᆞ로지ᄉᆞ슈ᄅᆞᆯ놉
게세워져인의ᄌᆞᆯ을ᄇᆡ고거ᄉᆞ게ᄒᆞ고ᄯᅩ슈
시ᄇᆞ장이나되게왜듕ᄒᆞᆼ치ᄅᆞᆫ기동네ᄒᆞᆯ
세우고우희서너니ᄇᆞ너ᄅᆞᆼᄀᆞᆯ셜아네지예ᄒᆞᆼ
두ᄅᆞᆯ사ᄀᆞ여도곱을찬난ᄒᆞᆼ게ᄒᆞᆼ고골희

ᄅᆞᆯᄃᆞᆯ아 두ᄌᆞᄌᆞᆼ을ᄂᆞᆫᄃᆞ리 위시ᄒᆞ며 좌우의셔
양국그니ᄅᆞᆯ을 셰워시니 이그니ᄂᆞᆫ ᄒᆞᆼ살
문쳐로 문ᄯᅳᆯ을 네 간을 셰우고 사리ᄇᆞ자ᄀᆞ
ᄅᆞᆯᄀᆞ티 ᄇᆡᆼ글 아가온대 두ᄎᆞᆼ은 놉게ᄒᆞ고 동
셔 두ᄎᆞᆼ은 놉게ᄒᆞ여 하ᄇᆞᆫ ᄒᆞ여 열네 싹인ᄃᆡ
ᄒᆞᆫ 싹의 사ᄅᆞᆷᄃᆞᆯ식 아력우 화올나셔여
ᄃᆞᆯ이 믈네 살쳐로 돌며 ᄯᅱ게ᄒᆞ고 ᄯᅩ아
ᄆᆞᆯ로 시ᄇᆞ여 쟝되게 쥬ᄆᆡ ᄒᆞᆫ 쟝을 셰우고 우
희 일산ᄂᆞ티 파ᄅᆞᆫ 모지게 ᄭᅮᄆᆞ여 각ᄆᆞ 화골
희ᄅᆞᆯᄃᆞᆯ아 그니 쥬ᄅᆞ여 ᄃᆞᆸ을 ᄆᆡ여 시되 비

쥴은져르고 네 쥴을 쥐르게 ᄒᆞ여 세니 등
때와 등쥴이라 블게 ᄒᆞ고 쏘그안ᄅᆞ 피호살
문ᄒᆞᆫ 쌍을 동셔 ᄅᆞᆯ 분ᄒᆞ여 세우고 농즉ᄌᆞᆺ
ᄐᆞᆫ 것ᄒᆞᆫ 싹 식ᄃᆞᆯ고ᄀᆞ 뒤 회ᄒᆞᆫ 간 넙의
넘고 칠파ᄅᆞ 장이 나 되게 터시 집을 세워
세면을 삿자리의 운동을 ᄀᆞᆯ여 치고 져면
은 누ᄅᆞᆫ 비단 장을 드리우고 ᄌᆞᆯ 구녀 우회
와 큰 등 때 우회ᄂᆞᆫ 오셕 동ᄌᆞ와 사ᄆᆞ셕 천
학을 모ᄀᆞ 허안 치고 회ᄌᆞ 노ᄅᆞᆷ 제구ᄂᆞᆫ 외 평
의 등 때 ᄒᆞ여 서니 회ᄂᆞᆫ 구ᄌᆞ과 회ᄌᆞ 구ᄌᆞ과

셔양국과 대쇼금쳔국이 다 각각 제나라
복셔올로 아니 가지고셔 시니 바지
긋티오셔을로 니뎐은 놈도 잇고 머리 ᄅᆞᆫ풀
고슈건을로 동히 놈도 이ᄉᆞ고 시름ᄒᆞ라 ᄒᆞᄂᆞᆫ
놈은 들쎄만 ᄎᆞ고 젹신으로 더령ᄒᆞ여 시며
그녀 쎄는 져동셜ᄒᆞ은 두ᄅᆞᆫ은 가셔비 다바
지에 블근옷 니뎐고 목과 허리의 금셔비
단으로 연여ᄇᆞ을ᄒᆞ여 거르고 ᄂᆞᆫ 보션의 셔실
놀리ᄆᆞᆫ ᄒᆞ여 누여 머리ᄅᆞᆫ ᄒᆞ여 쓰고 안팟ᄉᆞᆯ
의 무슈ᄒᆞᆫ 상타 의 개쇼디 ᄎᆞᆼ 제거를

버려노코호부샹셔와공부샹셔등이알
피셔로터ᄒᆞ여셔ᄂᆞᆫ젼샹을우러ᄂᆞᆫ동졍
을솔피더니셔양이되며황제가대단
문연ᄀᆞᆯᄅᆞᆯ들고나와산고슈장하ᄎᆞᆼ의젼
좌ᄒᆞ며왕공거경들이관장안젼졍의
버러셔고죠션ᄉᆞ신과뉴ᄀᆞᆨᄉᆞ신도진젼ᄒᆞ
여반녈ᄯᅳᆺ터안치고풍악을베프며희ᄀᆞ
놀롬을시자ᄀᆞᄒᆞ니ᄀᆞ광가자쳐예셔ᄒᆞ던
ᄌᆞᆺ과ᄒᆞᆫ가지라ᄀᆞ례로식여보고ᄌᆞ시파
ᄒᆞᆫ후ᄌᆞᄅᆞᆯ을거ᄅᆞ니ᄂᆞᆫᄌᆞᄅᆞᆯ타ᄂᆞᆫ버브은죠션져

인만바이못ᄒᆞ더라이우고지ᄎᆞᆼ의불
을지ᄅᆞ우니쳐음은포셩은그리대단치아
니ᄒᆞ고불이타방우ᄅᆞᄅᆞ흐터져왔마당의
구ᄉᆞᆯ눈이문ᄀᆞ이오ᄂᆞᆫᄃᆞᆺᄒᆞ고ᄒᆞ옥공등의불
쥴기오ᄂᆞᆯ나가별이ᄒᆞᄅᆞᆫᄃᆞᆺᄒᆞ며ᄉᆞ면에
편산ᄒᆞᆫ부ᄅᆞᆯ방우ᄅᆞᆯ이만졍죠신의헐옥
부터치면벽역ᄒᆞ여더ᄇᆞ히ᄂᆞᆫ거동이ᄯᅳᆫ
가판이오일변쳐동이이ᄅᆞ시에그ᄂᆡ를ᄯᅱ니
셔양구ᄂᆡᄂᆞᆫᄒᆞ나은올나가면ᄒᆞ나ᄒᆞᆫ
ᄂᆞ려와좌우에가ᄀᆞ파ᄅᆞ지동ᄌᆞ가서로이

금마셔ᄂᆞᆫ 존락ᄂᆞᆸᄒᆞ라ᄒᆞ 반공의 ᄯᅥ시니 황
연이셔ᄂᆞᆫ 동이구쇼로셔ᄂᆞ려오ᄂᆞᆫ ᄃᆞᆺᄉᆞᆼᄒᆞ고 ᄌᆞᆯᄒᆞᆫ
ᄂᆡᄂᆞᆫ 채가 돌게 ᄒᆞ여 공중의 비 야ᄆᆞᆫ 돌매
ᄌᆞᆯ을 붓ᄉᆞᆯ고 ᄒᆞ옥 거ᄉᆞ고로 셔ᄂᆞᆫ 놈도 이ᄉᆞ고 ᄒᆞ옥
ᄀᆞᆯᄅᆞ 누은 놈도 이셔 타가ᄀᆞᆺ ᄌᆞᆯ을 붓ᄉᆞᆯ고 온
갓 져쇼ᄅᆞᆯ ᄒᆞ니 보기 졀도ᄉᆞᆼ 며누 샹누 하
와 좌우 쳠하의 ᄃᆞᆫ등과 파ᄅᆞ모의 각 열식
ᄭᅦ여 ᄃᆞᆫ등두등 ᄭᅦ 하ᄇᆞᆸᄒᆞ여 이ᄅᆞ빅 누ᄒᆞ 십
리와 판장우 희노ᄒᆞᆫ ᄉᆞ믈네 챵뉴리등
의 일ᄭᅦ 예ᄇᆞᆯ을 혀고ᄅᆞᆯ ᄒᆞ되 의 두 제 만ᄒᆞᆫ

죠희글을올니테니 밋바닥에 흔쎔
은흔화승에 불이 붓터드러가자 것
밋바득이 공듕의 떠러지고 무슉흔조희
쏘각이 날니며 흔뭉치등이 펴이며 팔
모등수 빅이 출두리 워흔등에 대초
씨만흔불 이두 쎄시시 일시의 져노켜
이여시 피불치다은 빅을여 방울져주
줄이 흔고 동쌔 알 퇴 홍사로 문의
트동짝ㄱ른 것도 화승의 불이 붓터바
닥이 떠러지며 동화문으로 쓰민

대족ᄃᆞ가 펴이니ᄒᆞ나은만ᄌᆞ이니ᄂᆞ
라ᄯᅳ고ᄒᆞ나은천하ᄐᆡ평ᄎᆞᆫ이라ᄯᅳᆯᄎᆞᆼ
시ᄒᆡᆨ바ᄃᆡᄀᆞᆫ블이ᄃᆡ고ᄂᆞᆼ화ᄆᆞᆫᄃᆞ블이
되여ᄀᆞᆯᄃᆞ와변ᄌᆞᆨ이가ᄀᆞ와연ᄒᆞ여
화광이ᄑᆞ요ᄒᆞ더니큰등ᄯᅢ의ᄆᆞᆫ치현등
은ᄂᆞ려지고이우ᄒᆞ여ᄯᅳᆫ영ᄎᆞᆼ이ᄯᅥ러지며
ᄯᅩᄒᆞᆫᄎᆞᆼ이ᄯᅥ이ᄒᆞ여ᄂᆞ려오고ᄯᅩᄒᆞᆫ
ᄎᆞᆼ이ᄯᅥ러지며ᄉᆞ오ᄇᆡᆨ리등이ᄎᆡ음
과ᄀᆞᆺ게이ᄅᆞ시에ᄯᅥ인ᄂᆞᆼ우ᄆᆞᆫᄂᆞ리오고ᄯᅩ
ᄃᆞᆼ근ᄀᆞᆯᄉᆞᆯ시ᄇᆞ여이ᄂᆞᆫ이ᄌᆞᆯᄋᆞᆯ나구어올니

더니 처음 처로 화승이 당거여 하층이
떠러지며 인형으로 민든등이며 혹물
형으로 흔등이다 이 목구비의 불을 혀
고무슈이ᄂᆞ려오며 가온대층과 마ᄌᆞ막
등켜이ᄂᆞᆫ등이 번ᄀᆞ이 각셕으로 밍그러
ᄉᆞ슈를 혜지 못ᄒᆞ며 삿자리로 쌋던
거셔 전면에 드리온 장을 거드니 흔
편은 화덕진 군이오 흔편은 남국노
인이 즈령을 지보셔 시니이ᄂᆞᆫ 신체
발부를 다 불노그려 콩만식 흔불

이서로 년속ᄒᆞ여 쳔만낫치이로시에
명ᄀᆞᆺ ᄒᆞ니 그조화로ᄅᆞᆯ 아모리 궁니ᄒᆞ여도
신통ᄒᆞ더라ᄉᆞ신들의게ᄂᆞᆫ 차ᄒᆞᆫ슌타
락ᄒᆞᆫ슌과 찬하ᄇᆞᆫ기이와 앙육두텅
이시ᄂᆞ리오고 황제의 안즌것과 것
ᄂᆞᆫ거ᄉᆞᆯ이번의 야다ᄌᆞ셔이보니 쾨ᄂᆞᆫ즁쾨
로 피ᄒᆞᆷ지ᄇᆞ이부대ᄒᆞ고 어로ᄀᆞᆯ은 슈엽
이ᄑᆞ부러 머로니셔보면 어ᄇᆞᆫ듯ᄒᆞ고 모
진어로ᄀᆞᆯ에 수세야 장ᄋᆞᆫ로이 눈셔봄
이부러ᄂᆞ리 삼겨시ᄇᆞ이 콜고눈이 기로게

붓괘ᄲᅡ혀골격극히버ᄆᆞ상치아니ᄒᆞ나
다만복식은군신이ᄒᆞᆫ사지여목의
여몸쥬ᄅᆞᆯ거ᄅᆞᆯ고마으라기ᄅᆞᆯᄎᆞᆫ고마졔구ᄇᆞ도
슈예고기ᄆᆞᄅᆞᆯ구ᄇᆞ혀거러가ᄂᆞᆫ거동이중
과죠곰도ᄃᆞᄅᆞ지아니ᄒᆞ여만승쳔ᄌᆞ의북ᄀᆞᆫ
ᄒᆞᆫ긔상이이ᄅᆞᆯ분어ᄇᆞᆺ니이거시ᄒᆞᆷ이오
희지며파ᄒᆞ여너젼으로드러가중인
으로더부러이와ᄀᆞᆺ치ᄂᆞᆫ다ᄒᆞ더라동
회ᄅᆞᆯ파ᄒᆞ고도라와셕반을먹고안
ᄌᆞ니월셕이ᄀᆞ장죠코빙셔ᄅᆞ이가ᄂᆞᆫ

이푸니여 믈흐ᄅᆞᄂᆞᆫ소리신ᄀᆞᆫ흐고숑뷕
이셔로가지ᄅᆞᆯ년흐여그리ᄆᆞᆷ재의ᄂᆞᆷ
니그우ᄒᆞᆫ흐응을아거디못흐여셔장
관과여러동힝으로자반흐여거고
흐ᄂᆞᆫ리도ᄇᆞᄅᆞ며ᄆᆞᆯ근시내도이ᄆᆞᆼ며
ᄌᆞᄌᆞ와보흐여호전을디나니쳘망
의ᄉᆞᆺ이버ᄆᆞ이츄호도년ᄆᆞᆫ어ᄇᆞᆷ슨ᄉᆞᆯ알
것마ᄂᆞᆫ세마리산버ᄆᆞ을아져의분
명이보고간ᄆᆞᆼᄆᆞ이라오히려무심치
아니ᄒᆞ더라호전으로부텃오리ᄂᆞᆫ을

곳의여ᄅᆞ무정이ᄀᆞ시니이지ᄇᆞᆷ은우리
나라ᄒᆞ운년원과그ᄃᆞᆫ고디라지ᄇᆞ도ᄀᆡ
특ᄒᆞ고안세도광화ᄒᆞ여그장ᄉᆞ창
ᄒᆞᆫ고디라ᄒᆞ기나아가니두ᄉᆞᆼ누각이
국히웅위ᄒᆞ고ᄉᆞ면의옥돌난간이찬ᄂᆞᆫ
ᄒᆞ며훤ᄎᆞᆯᄒᆞᆫ사장의가히쳔병만마
ᄅᆞᆯ죠련ᄒᆞ여ᄆᆞᆺᄌᆞᄒᆞᆫ듸가지여월셕
이죠요ᄒᆞ여경이가장아라ᄆᆞ다온지
라마ᄎᆞᆷ노ᄅᆡ부ᄅᆞᆫ재가ᄉᆞ다가나사간
을의지ᄒᆞ여두세장을불이고도라

올져ᄯᅩ ᄒᆞᆫ고ᄌᆞᆯ ᄆᆞᆯ을 겨ᄒᆞ여 ᄇᆞᆯ라ᄇᆞ
니지 ᄇᆞᆫ은 ᄉᆞᆫ지ᄇᆞ인지 ᄆᆞᆯ로나 기ᄇᆞᆫ ᄒᆞᆫ희ᄌᆞ에
다 연ᄎᆞᆺ 그리ᄇᆞ그린 ᄇᆡ가 마이여ᄉᆞ더라 바ᄇᆞ
든 후도라와 ᄋᆞᆫ고 마ᄂᆞᆫ 아ᄇᆞᆺᄌᆞ의 누어 바ᄇᆞᆫ을 지ᄂᆡ고
보름을 타ᄋᆞᆫ니 화ᄒᆞᆫ 향ᄒᆞᆫᄂᆞᆫ ᄆᆞᆫ음이 더
옥 시ᄇᆞᆫ고 여거ᄂᆞᆫ 치ᄇᆞᆫ 시ᄀᆡ이 구히 구간
ᄒᆞ여 변동 긱ᄃᆞᆼ지 긱ᄀᆞᆯᄂᆞ니 옥하관
으로 도라가고 져ᄒᆞ나 오나ᄅᆞᆯ 바ᄇᆞᆫ등 회
ᄂᆞᆫ어 제 밤이 여서 빅송ᄒᆞ니라 ᄒᆞ기
머무니 오나ᄅᆞᆫ 령 대광명전의 셔방

셩연을ᄒᆞ니 방셩연이라 ᄒᆞᄂᆞᆫ 잔쳐
ᄂᆞᆫ 산즘셩을 자보어ᄉᆞ다가 도로 놋ᄂᆞᆫ 잔쳐
라 상부ᄉᆞ두분 반셔 벼ᄀᆞ에 드러가식
젼의 즉시 파ᄒᆞ여 도라오셩우 잔샹
을 버여 보내여 시나ᄉᆞ시ᄂᆡ여 긔음식
의 ᄒᆞᄂᆞᆫ가 지머ᄀᆞ을 거시어ᄂᆡ시다 쥬인
을 쥬니라 ᄉᆞ시ᄂᆞᆫ ᄒᆞ여셔 등희ᄅᆞᆯ두
골을 지어바티라 ᄒᆞ기 칠언뉼시
ᄒᆞ나 식저어 황지의 졍이 써 밧쳐ᄉᆞ뎌
니뉴구구ᄉᆞ신의 풍월이여셔 닷다

ᄒᆞ고황제가칭찬ᄒᆞᄃᆞ다ᄒᆞ더라 신시
ᄒᆞ여셔산고슈장각의드러가니문을들
제삼인을어ᄂᆞᆷ금ᄒᆞ여죠션사ᄅᆞᆷ도슈
ᄅᆞᆯ혀여드리고제곡사ᄅᆞᆷ의관광ᄒᆞ
라드러가ᄂᆞ니ᄂᆞᆫ채ᄯᅥᆨ을모ᄆᆞ슈이치
니시ᄇᆞ이위ᄐᆡᆨᄒᆞ더라젼좌젼가가
이드러가ᄃᆞᆯ너보니등ᄯᅢ들은다어제
와ᄒᆞᆫ가디오슈목ᄉᆞ이로이ᄅᆞ야지간의
공등ᄒᆞ누각을무슈히ᄭᅮᆷ이고젹은등
ᄃᆡᄅᆞᆯ죠쳡ᄇᆞ히제위인형과금슈ᄅᆞᆯ

민ᄃᆞ라 등ᄯᅢ마다 ᄉᆞᆺ희 안치고ᄂᆞᆫ 쥴
을 수ᄑᆞᆯᄉᆞ이로ᄀᆡ 믜ᄌᆞᆯᄂᆞᆯᄃᆞᆺ시 셔로얼
키ᄭᅵ 무슈히 믜고 대쇼지 쵱을 사ᄆᆞᆫ시ᄇᆡ
시ᄒᆞ옥 치ᄅᆞ 파ᄅᆞ시ᄇᆞ ᄌᆞᆯ로 식ᄭᅵ 엿거 무슈히
ᄃᆞᆯ고 ᄯᅡ 희 ᄯᅩ 쥴을 어ᄌᆞ러이 늘어지 쵱
못고 어ᄭᅵ 쒸던 그ᄂᆡ 예ᄂᆞᆫ 쥴을 그ᄅᆞ고 팔모의
등 머ᄒᆞᆫ 그ᄅᆞᆫᄉᆞᄒᆞ나 식ᄌᆞᆫ고ᄋᆞᆯ 대의 ᄯᅩ 세ᄌᆞᆼ을
믜여 두 쥴은 젼좌 ᄒᆞᆫ지ᄇᆡ기 동의 믜고 두 쥴
은 나모 슈ᄑᆞᆯ노 보내여 젼ᄒᆞ우 좌우와 상
하 원ᄌᆞ에 다년ᄒᆞ게 ᄒᆞᆫ엿더니 이유

고텬겨어제ᄀᆞᆺ치나오ᄅᆞᆯ셔냥산도어ᄇᆞ고
ᄂᆞᆫᄌᆞᆫ교외예불은상타ᄒᆞ나만노코각노
둘이좌우의뫼셔시니좌의ᄂᆞᆫ경연일
상거거쥬관어젼대신태ᄌᆞ터부녕시위
ᄇᆡ터신문화젼태ᄒᆞᆫᄉᆞ문연가제거
각ᄉᆞ과ᄅᆞ니ᄂᆞ부로부니번원태의원악
방호부사ᄇᆞ고ᄉᆞ부총관ᄂᆡ부대신한남
원장원ᄒᆞᆫᄉᆞ교숩셔시ᄅᆞᆫ관니상ᄉᆞ원
부비원어젼쳐항도쳐ᄉᆞ무졍빅ᄀᆡ만
쥐도동ᄒᆞᆼ니건예영원명원팔ᄀᆡ니부

삼긔관병딕신보군동영삼등등냥
빅화신닌만쥐황긔사ᄅᆞᆷ으로셔졔슈
셩진ᄒᆞ니오우면은어젼딕신태ᄌᆞ태부
명시위니대신무령젼태ᄒᆞᆫᄉᆞ과ᄅᆞ니
ᄉᆞ쳔ᄎᆞᆼ동이ᄅᆞ등ᄎᆞᆼ예가용공부강안이
니이도마ᄒᆞᆫ이라이ᄃᆞᆯ이ᄀᆞᆫ시ᄒᆞ여ᄉᆞ다가
쳔겨무ᄉᆞᆫ마ᄅᆞᆼ을ᄒᆞ며ᄌᆞᆫ즉시ᄒᆞᆫ무ᄅᆞᆷ호
ᄭᅳᆯ어뒤다ᄇᆞᆼ고니러나더라자ᄇᆞ된노ᄅᆞᆷ
과음식은다어졔와ᄒᆞᆫ가다오아ᄅᆞ피등
들은졀노켜이며ᄉᆞᆺ로ᄭᅥ러지ᄂᆞᆫ버브도

어제와 그믄여 흔승의 사ᄂᆞᆫ 빅시이 삼
빅시ᄃᆞᆯ니 인되고기 자ᄇᆞᆫ그믈그ᄅᆞᆫ등오
ᄃᆞᆯ니여 그믈ᄯᅩ마다 슈은빗그ᄅᆞᆫ블이 명
이겨이고 청의 청건을쓴 놈슈사ᄂᆞᆫ 빅이
고미러 정ᄌᆞ그ᄅᆞᆫ나 모의 앙머리에 파로모
홍당지등 흑낫시ᄃᆞᆯ과 녀 ᄯᅡᆯ지ᄂᆞᆫ도ᄎᆞ고장
ᄉᆞ진도가ᄉᆞ과 모히ᄅᆞᆯ혀여지 라ᄃᆞᆯ시
셋시ᄯᅡ 짜을지어셔ᄅᆞᆫ되흥여 원문도지
우며 타ᄌᆞ로ᄎᆞᆼ이 노코ᄎᆞᆫ오ᄅᆞᆯ나셔 등으로 미ᄂᆞᆫ
형상을 밍그러 장대ᄀᆞᆺ치도ᄒᆞᆫ며 나ᄉᆞᆫ치

흣터져 평ᄉᆞ나 안가ᄉᆡ치도ᄒᆞᆫ며 ᄒᆞᆫ줄
노모히 여동셔 나ᄆᆞ부ᄀᆞ의 가ᄀᆞᆫ문을 내여
셔의 셧던등이 등문으로나 와 혹ᄒᆞᆫ줄
도뒤고 혹셔 너 쥬ᄀᆞᆯ도 되여 반은누어 셔등
바ᄂᆞᆯ고 반은 뎌봉으로 오ᄒᆞᆫ 네 문도 다 으며 혹
일시의 놉게 도들고 ᄂᆞᆺ게 도들어 변화불
추ᄒᆞ여 뵈고 ᄯᅩ 청용과 황용이 좌우로
셔드러오니 기리ᄂᆞᆫ 대엿 바ᄅᆞᆫ은 ᄒᆞᆫ고 모ᄆᆞᆷ피
ᄂᆞᆫ ᄒᆞᆫ아ᄅᆞᆷ은 너ᄆᆞᆷ은 티라여 회쥬ᄅᆞᆯ두ᄅᆞᆯ
이ᄃᆞ로 아구 뷔ᄀᆞᆫ ᄃᆞ러 하ᄇᆞᆼ 라ᄒᆞᆫ 허여

지라ᄒᆞ니 황연이 구름과 안개가 조
차 이ᄂᆞᆫ듯ᄒᆞ나 속의 켜인 불은 ᄒᆞᆫ ᄀᆞᆯᄀᆞᆺ
치 붙아 머리로 부터 ᄯᅩ리 ᄭᅳ지 화광이
횡긍ᄒᆞ니 더옥 신통ᄒᆞ며 인ᄒᆞ여 젼
졍의 셔 일셩 포향이 니리나 며ᄒᆞᆫᄂᆞᆯ
기불이 셰층으로 죠차 쳐ᄅᆞ 환가ᄉᆞ 치 ᄯᅡᆫ
니 흘너가 등ᄯᅢ의 부ᄃᆞ치 터니 죠곰지
졍이 다가 져편ᄌᆞᆯ노 ᄒᆞ을 너슈 목ᄉᆞ이
로ᄃᆞ러가며 포셩이 시 작ᄒᆞ고 ᄯᅩᄒᆞᆫ ᄌᆞᆯ
기불이 몬져 불과 ᄀᆞ리 구을 너어 ᄌᆞ러

이어러은 주ᄅᆞᆯ 속의 다치며 ᄉᆞ면의 대쇼
블ᄌᆞᆯ기 오락가락ᄒᆞ면 이ᄅᆞ시의 화광
이 효요ᄒᆞᆫ 홍수쳐 쳐쳐 가지 동ᄒᆞᆯ뼈 두
귀가 벌ᄒᆞ며 연무가 창쳔ᄒᆞᆯ뼈 원ᄂᆞᆫ
을 분변치 못ᄒᆞ고 만마쳔병이 좁은
골의 셔싸ᄒᆞ오ᄂᆞᆫ듯ᄒᆞᆫ 즁승거져 블은 연
ᄒᆞ여 하ᄂᆞᆯ노 올나가 무슈ᄒᆞᆫ 셩신이 난
만이 흘ᄂᆞᆫ듯ᄒᆞ니 현하에 이러ᄒᆞᆫ 장
관이 쏘어 듸이 시리오 신동ᄒᆞᆫ 법과
황ᄒᆞᆯ ᄒᆞᆫ거동을 시부분의 일을 형

용ᄒᆞᆯ기ᄅᆞ어ᄇᆞ더라 이ᄃᆞᆼᄃᆞᆯ을 믿ᄃᆞᆯ기
ᄂᆞᆫ이ᄃᆞᆯ부터 ᄃᆞᆯ로 시ᄭᅴ 작ᄒᆞ여 여ᄀᆞᆺᄒᆞ니
ᄇᆞᆯ여ᄋᆞᆫ 죠은ᄉᆞᆫ 슈시ᄇᆞ만 낭이 ᄃᆞᆫ다 ᄒᆞ더
라 파ᄒᆞ여 황ᄒᆞᆫ의 나ᄋᆞᆯ셔 인마ᄂᆞᆫ 관
관의셔 아니가져 오ᄅᆞ 태평ᄅᆞᆫ 세ᄌᆞᆯ거
시어ᄇᆞ셔 가ᄌᆞ지 안ᄇᆞ고 티거러왕 반ᄒᆞ니 비록 곱휘
ᄒᆞ나 오ᄂᆞᆯ 밤ᄃᆞᆯ을 엇지 헛도이 보내
리오 셕시 후의 죽시 삼ᄉᆞ신과 칠
팔종인으로 원ᄉᆡ을 ᄃᆡ고 ᄃᆞ리의 나
와거ᄉᆞ니 대강이ᄋᆞᆼᄒᆞ여 길노ᄅᆞ러 젼방

관등을 ᄒᆞ니 간ᄂᆞ이 ᄒᆞ옥 가셔 등을
만이 ᄃᆞᆫ곳도이 시나 황셩의 비ᄒᆞ면 극
히 쇠자ᄒᆞ여 ᄂᆞ니 믈가 을로 년ᄒᆞ여ᄂᆞ려
오타 가난 ᄒᆞᆫᄃᆞ라 ᄀᆞ죠고 만지 ᄇᆞ의 관
셰를 위ᄒᆞ고 마당의 터ᄇᆞ지 ᄇᆞ을 짓고 늑
모등을 셔지로 바ᄅᆞ나 슈십 쌍을 ᄃᆞᆯ아
시니 믈의 비쳐여 ᄒᆞ나 히 둘 식 되여
뵈니ᄀᆞ 장볼 만ᄒᆞ터라 십늑 일새
벽의 워ᄅᆞ 식ᄒᆞᆫ 쏫치라 죠반 젼이 거
심이 음치ᄒᆞ더니 ᄂᆞᆫ즌 후 쳥 명ᄒᆞ

터라 오나ᄅᆞᆯ은 다 옥하과 ᄋᆞᆫ 도라가ᄂᆞᆫ 길
이라 생ᄉᆞ공은 ᄇᆞᆫ로 가시고 공과 셔 장과 온
셔 산을 구경ᄒᆞ라 가ᄒᆞᆫ 자지로 밋쳐 갈
셔 인마ᄃᆞᆫ 식젼의 옥하관 것와 셔 대령ᄒᆞ
엿기 여ᄅᆞᆫ 무정 뒤을로 지나 오리ᄂᆞᆫ 혀 편을
향ᄒᆞ여 ᄒᆞᆫ 피 뒤 문을 두 힝궁이 잇ᄂᆞᆫ 지라
문 아ᄅᆞᆯ 피 뒤 구리 사겨 ᄒᆞᆫ 쌍을 안 치고 자져
아ᄅᆞᆯ 희 ᄇᆞᆯ은 사ᄅᆞ 문을 ᄒᆞᆫ 여시며 그리 부터
남으로 사ᄇᆞ니ᄂᆞᆫ 와 져 산으로 드러가ᄂᆞᆫ 져
근ᄃᆞᆫ이 ᄭᅡ에 이르니 예셔 부터ᄂᆞᆫ 대소인

원이다 것ᄂᆞᆫ고자 라 인마ᄂᆞᆫ총쳥피문
밧그로가 이시라 ᄒᆞ고이ᄅᆞᆯ 힝이다 거러쇼
곧ᄅᆞᆯ건너니 어ᄅᆞᆷ의 양편을ᄃᆞᆯ노 싸고길
바다ᄀᆞ을ᄂᆞᆫ 회로 바ᄅᆞ나 ᄒᆞᆫ 저ᄇᆞ 뎌ᄉᆞᆯ이 업
ᄉᆞ니 회기ᄇᆞᆼ을 펴ᄂᆞᆺᄒᆞ고 길좌우로 슈양을
싱거근ᄂᆞᆯ을 이ᄅᆞ고 아ᄇᆞᄒᆞ로 하슈ᄅᆞᆯ 인ᄒᆞ여 방
태양을 믹오러 일음을 곤명호라 ᄒᆞ여 시니
서산의 셔호가 쳔하의 제일승셩이라 호슈
마을로 ᄃᆞ라가며 벽셕난간을 차ᄅᆞ난 이ᄒᆞ고
이사ᄋᆞᆫ지ᄇᆞ과 긔고ᄒᆞᆫ 정ᄋᆞᆫ 져ᄎᆞ의 버러

시니이곳즐션경이라이르ᄂᆞᆫ더라셔부
을로문창가이셔곤명호ᄅᆞᆯ이ᄆᆞᆼ여놉게
디어시덕하층은네모이오둥층은뉵
면가이오샹층은팔면가이보오셕기
와로일고금꼭디ᄅᆞᆯ세층을로더밧쳐짓
ᄃᆞᆼ샹을로향ᄒᆞ여슈마쟝을가셔건눙
의어팔셕비ᄅᆞᆫ세우고밧치ᄆᆞᆷ돌의
노종을좌우로싱거두길은ᄒᆞ여ᄉᆞ곳
피문안의구리쇼ᄅᆞᆯ민그러셔하ᄆᆞᆷ
의안쳐시니셩거뉴동ᄒᆞ여사ᄅᆞᆷ을

바들돗ᄒᆞ고 명을 지어 젼ᄎᆞ로 등의 사것
더라 그리로 셔 ᄯᅩ 일 마장은 가셔 파ᄅᆞ면
쳐 각이ᄂᆞ 시니 이ᄂᆞᆫ 학여 평이 오ᄀᆞᆺ 집
아ᄅᆞ피 시ᄇᆞᆸ 치ᄅᆞ고 가이 시니 우ᄒᆞ로 빅셕
난 가ᄂᆞᆫ이 여든 두 간이 오아 러로 무지게
문이 여ᄅᆞᆫ 니ᄅᆞ곱의 다은 대세 문은 돗ᄃᆞᆫ 비
가 왕녀ᄒᆞ게 놉고 젼 후 양편의 대ᄀᆞᆯ
ᄒᆞᆼ을 쳐 ᄯᅡᄭᅥ 즉 ᄒᆞᆼ을 메워 시셔 두라 버
리에 망셩 각이ᄂᆞ 시니 셕 각 우 희 지
은 지ᄇᆞ이라 거구ᄒᆞᆫ 돌은 분두 어ᄒᆞᆫ 을 지

나굴곡ᄒᆞᆫ아ᄆᆞ혀ᄅᆞ노ᄃᆞ러ᄃᆞᆯ수가ᄃᆞ리로
올나가니동셔로북도ᄅᆞᆯ짓고그리ᄆᆞ리
난간을ᄒᆞ여ᄂᆞᆺ라ᄂᆞᆫ ᄒᆞ라구뷔ᄅᆞᆯ껏
거디리이올나가니거울ᄀᆞᆺ든ᄒᆞ오슈의어ᄅᆞ
나리ᄒᆞᆺᄂᆞᆫ여평반의ᄆᆞᆯᄃᆞᆷ은ᄃᆞ샹고슈노은
창호와아로사긴다ᄆᆞ의우이굴ᄀᆞᆺᄉᆞᆫ여그림
속ᄀᆞᆺ고ᄉᆞᆼᄋᆞᆫ처ᄇᆞᆫ지ᄇᆞ우ᄒᆞᆫ다금과구슬비ᄂᆞᆫ
로ᄃᆞᆼ글게ᄒᆞ여시니휘황찬난ᄒᆞᆫ거ᄉᆞᆫ니
ᄅᆞ도말고사ᄅᆞᆷ의겨ᄌᆞ긔교이샹ᄒᆞ며ᄇᆞ구ᄯᆞᆫ
의ᄂᆞᆫ희용이라처시니바다뒤ᄂᆞᆫ다마ᄅᆞ이오

중편은유중이라ᄒᆞ여시니무지게가ᄒᆞ른
다말이오나ᄆᆞ의ᄂᆞᆫ쳔ᄂᆞᆫ가라ᄒᆞ여시니하ᄂᆞᆯ
의ᄂᆞᆫ다말이오셔희ᄂᆞᆫ언중이라ᄒᆞ여시니
무지게가누은ᄃᆞᆺᄒᆞ다말이라누샹의ᄂᆞᆫ올
나가지못ᄒᆞ나창ᄒᆞᆯᄅᆞᆫ고은기ᄇᆞᆸ을로ᄇᆞᆯ나거ᄂᆞᆯ
유연이손을로만져보니기ᄇᆞᆸ이아니오구리쳘
사ᄅᆞᆯ머리텔가치ᄀᆞᄂᆞᆯ게셥아세망을ᄒᆞ
여가리워시니바ᄅᆞᆷ을족히ᄀᆞ리워비비샹
샹치아닐너라셔북으로믈을젹ᄒᆞ여만
슈산이시니뫼ᄂᆞᆫ그리놉지아니ᄒᆞ나아

ᄅᆞᆷ다온ᄂᆞᆫ나무ᄃᆞᆨ히시ᄇᆞᆫ거ᄇᆡᄅᆞᆫᄒᆞᆫ슈푸ᄅᆞᆯ니
ᄅᆞ고볼항각이라ᄒᆞᆫᄂᆞᆫ지ᄇᆞᆯ을미ᄒᆞᆯ의거
ᄒᆞ고물을니ᄆᆞᆷᄒᆞᆫ여지어시니기동우희
기동을셰우고지ᄇᆞᆯ우희지ᄇᆞᆯ을지어반
공의소사시니거긔도황태휘ᄂᆞᆫ리ᄒᆞᆫ
인고로동구의도외이이드러가지못
ᄒᆞᆫ다ᄒᆞᆫ더라망셤샥을호슈ᄅᆞᆯ
격ᄒᆞᆫ여뇽쥬을셔로왕내ᄒᆞᆫ며힝
낙ᄒᆞᆫᄂᆞᆫ고지니올나가진복도로죠ᄎᆞ
ᄂᆞ러오니망셤닥뒤희죠고만아ᄇᆞ저

이셔니관이지ᄇᆞᆼ을ᄒᆞ오위ᄒᆞᆫ고ᄅᆞᆺ에서
ᄂᆞᆯ자ᄆᆞ간드러가보니만ᄡᅥᆨ도셔와야
간셔치ᄀᆞ이노이고찰을다ᄅᆞ여며ᄂᆞᆫᄀᆞᆫ권ᄒᆞ
니우리도셔ᄂᆞᆫ와환약낫ᄎᆞᆯ쥬니나고
암ᄆᆞᆺ알ᄆᆡ의ᄆᆡ무ᄂᆞᆫ네을ᄂᆡ지ᄡᅳᆯ고ᄆᆡ무ᄂᆞᆫ바ᄉᆡ리ᄅᆞ고
마ᄂᆞᆫ다ᄂᆞᆫ을모와나ᄀᆞ시질ᄒᆞᄂᆞᆫ되ᄅᆞᆯ만ᄂᆞᆫ달
아시며젼ᄒᆞ우ᄉᆞ힝이다시ᄇᆞ치ᄅᆞ교의마히이
여망셔ᄆᆞ꽉도면ᄂᆞᆫ이드러와보지모ᄉᆞᄒᆞ여
다ᄒᆞ더라도로시ᄇᆞ치ᄅᆞᆫ고ᄅᆞᆯ거ᄂᆞ며ᄉᆞ마
장을ᄇᆡ들ᄉᆞ이로힝ᄒᆞ니고ᄂᆞᆫ명ᄒᆞ오가온

대쏘누가 을 짓고 집우 희 봉황을 안
쳐 이ᄂᆞᆼ여 봉황 졍이라 ᄒᆞ여 시나
뵈ᄅᆞᆯᄃᆞᆫ고ᄂᆞᆺ슬 입ᄒᆞᄂᆞᆫ고지 ᄭᅵ드러 가지 못
ᄒᆞ고 물우 희 슈 의 고가 이 시니 무디 게 본
을 돗ᄉᆞᆺ 벼 가 왕녀 ᄒᆞ게 놉게 ᄒᆞ여 올ᄂᆞᆫ
가기 이 시ᄇᆞᆫ 간이 오나 려 가기 ᄯᅩ 이 시ᄇᆞᆫ 간이 되
ᄂᆞᆫ 터 ᄎᆞᆼᄋᆞᆫ ᄒᆞᆫ 난 간이 빅ᄋᆞᆼ 인 의 ᄭᅳᆺ 이ᄂᆞᆺ ᄒᆞᆫ 로
젼 후 교 면 의 영 쳐 진 계 라 도 쳐 사 기
꼬ᄒᆞᆫ 봉 내 풍 셩 이 라 도 ᄒᆞᆫ 여 시 니 알 피
옥 젼 산 이ᄂᆞᆺ 젼 뫼 허 리 로 져 ᄂᆞᆫ 너 중 회

표쥬가 뵈거ᄂᆞᆫ힝보ᄅᆞᆯ져 흑ᄒᆞ여나아
가니 불근도ᄉᆞ대셰우ᄂᆞᆫ용그리ᄂᆞᆫ뵈셰칙이
뫼이여ᄉᆞ더라동힝슈강ᄒᆞ다ᄂᆞᆫ과ᄂᆞᆫ과황진
ᄉᆞᄂᆞᆫ가ᄯᅵ이밋쳐살기ᄀᆞᆫ여ᄇᆞᆫ슈의고ᄒᆞ의셔
셔러지고그남은일힝은ᄎᆞᄎᆞ져ᄂᆞᆫ지ᄂᆞᆫ힝여
드러가니물우히셕ᄎᆞᆨ을무ᄋᆞᆫ셰ᄀᆞᆼ뎡
누ᄀᆞᆫᄀᆞᆫ지어좌우의쳐가을ᄂᆞᆫᄂᆞᆫ대쳐로달
고ᄯᅳᆯ의두뼈구리양을아ᄂᆞᆫ치ᄆᆞᆯ뚫ᄒᆞᆫ노ᄒᆞᆫ뼝
을놀고뫼화와쳐ᄉᆞ남글자ᄇᆞᆫ동이십뭐신나직힌
놈이죵시드려보니져아ᄒᆞ니ᄒᆞ시니ᄋᆞᆼ뎡지졍

이다가ᄉᆞ시나오ᄂᆞᆫ데 요ᄃᆞ려지ᄇᆞ안을도라가다고
우리ᄂᆞᆫ여ᄅᆞᆷ을도거ᄂᆞᆫ더갈셔셔나면을도쳐
근뫼히이시ᄂᆞᆫ되초목이무셩ᄒᆞ고참치ᄒᆞᆫ
누뎐풍의제일놉흔이ᄅᆞ흠을부ᄯᅢ우
지ᄀᆞ힌놈드려굴조로무려 본즁표ᄃᆡ당
이라ᄒᆞ나ᄃᆡ초ᄒᆞᆫ와블결ᄉᆞᆫ글쇄뵈
나분병치아니ᄒᆞ더라슈마쟝유가
다가뉘고라ᄒᆞᄂᆞᆫ다이 시나ᄃᆞ리우희
숑갈져ᄉᆡᆼ을다ᄉᆞ고ᄂᆞᆫ련하려팝방청ᄒᆞ은
계문을ᄂᆡ고자우의쇼ᄒᆞ옹예문을ᄂᆡ여

시니셔산ᄋᆡ안의ᄂᆞ구고ᄅᆞᆫ니ᄅᆞᆫ디이ᄃᆞ라
부려쳐음혜ᄂᆞᆫ지라ᄯᅩ이우이가다가연
교의나ᄅᆞᆫ나좌우의쳥셔으로나간을
ᄒᆞ고교샹의파ᄅᆞᆫ편쳐가울ᄂᆞ라가ᄂᆞᆫ시지
고ᄅᆞᆯ리아라모ᄅᆞᆫ마ᄅᆞᆷ나고과부려진녀쥴
기물으희ᄅᆞᆯ구희ᄯᅥ시나츄하가강은항
의와픙경이ᄯᅥ옥아ᄅᆞᆫ다올너라ᄯᅩ졉
ᄌᆞ깁희드려가셔젹ᄅᆞ리져고의나ᄅᆞᆫ나고
하의ᄒᆞ옹예삼문을내고우희쳐가이
ᄯᅩᆼ을연ᄒᆞ여시나이ᄃᆞ리ᄅᆞᆫ셔산등간

이피ᄂᆞᆫ지라뒤ᄒᆞ으로향산과옥천사이
풀넛고아ᄅᆞ프로만슈산과곤명호ᄀᆞᆫᄀᆞᆫ깨ᄒᆞ
여시니정영ᄒᆞᆫ셕난이며황ᄒᆞᆯᄒᆞᆫ져화
ᄂᆞᆫ ᄎᆞᆼᄀᆞ이슈ᄆᆞᆫ수이로ᄋᆞᆫ영ᄒᆞ고평연ᄒᆞᆫᄒᆞᆫ슈
ᄂᆞᆫ망ᄀᆞ이누터아ᄇᆡ로ᄂᆡᄅᆞᆫ시며시ᄇᆡ치ᄀᆞᆫ고ᄂᆞᆫ
ᄆᆞᆯ우회빗ᄌᆞᆺᄂᆞᆫ의흰기ᄅᆞᆼᄋᆞᆫ슈양을ᄃᆡ여ᄆᆡᄅᆡ
ᄃᆞᆼᄒᆞ여시며망셕산과불항가ᄂᆞᆫ동셕ᄅᆞᆯ
ᄂᆞᆫ와운뭐간의ᄎᆞᆺᄅᆞᆯ을ᄒᆞ여시니ᄎᆞᆫ요ᄒᆞᆫ금병
은셩원이니ᄆᆞᆼᄂᆞᆫᄌᆞᆼᄒᆞ고고겨ᄅᆞᆫᄒᆞᆫ대해ᄂᆞᆫ슈
졍발을ᄃᆞᆫ리온ᄂᆞᆺᄒᆞ고최외ᄒᆞᆫ빅타보은

곳제ᄒᆞᆯ연ᄒᆞ니야ᄉᆞᆫ슈봉사ᄂᆞᆫ어머지아ᄂᆞᆫ
돗ᄒᆞ여선옹을은연이만나상제풍광을
셔로의논ᄒᆞᆫ듯ᄒᆞ니둥원의드러와셔산
을못보며둥원을보아다ᄒᆞᆯ거시어ᄂᆞᆫ고
쎄상의나셔둥원을못보면세상의난
보라ᄂᆞᆫ이어ᄂᆞᆫ리로다또셔복간으로ᄉᆞᆫ십
장이나되ᄂᆞᆫ셩을무ᄅᆞᆯ속의둥을ᄭᅦ밧ᄀᆞ
동셔나ᄂᆞᆫ북을분ᄒᆞ여불리은옹예분을구
지닷고셩우희도ᄅᆞᆷᄒᆞᆫ고창을셩처ᄇᆞᆸ안ᄒᆞ
로둘ᄂᆡ판장쳐로ᄒᆞ고네모희쳐깍을

지소가온대사ᄆᆞᆫ층지ᄇᆞᆫ을표ᄆᆞᆫ이지어여러
층금즁리가바로현상의다은듯ᄒᆞ니ᄃᆞᆯ
가ᄒᆞᆫ번보고시부ᄂᆞᆫᄆᆞᆷ이간젼ᄒᆞᆫ을ᄎᆞᆫ어
ᄅᆞᆷ이마ᄎᆞᆷ굿고샹ᄒᆞᆼᄉᆞ마두사ᄆᆞ바계신정
직이용문이가아ᄅᆞᆯ셔본져건너거ᄂᆞᆯ
ᄯᅡ라셩하에가니ᄒᆞᆫ편문이여ᄅᆞ녀시니이
지ᄇᆞᆫ슈졍궁이라쓰고샹ᄒᆞᆼᄉᆞ마두가ᄅᆞ
러가고ᄯᅩ셔장계셔와용문이가마자ᄅᆞ로
러가거ᄂᆞᆯ마죠차문을ᄃᆞ니좌우와운제
가이셔어더로올나간지보로ᄒᆞᆫ편운

제로올나 둡층의 니르러파 장을의지
ᄒᆞ여 셩하ᄅᆞᆫ 굽이 보니 셔 쟝관이 오라가
셧거ᄂᆞᆯ 손을 쳐오라ᄀᆞᆫ ᄒᆞ고 도라가 며 둘
너보려 더니 쳥슈피 ᄒᆞᆫ 쌍이 뭐가 두아름이
나ᄡᅡᆫ ᄒᆞ고 과ᄂᆞᆺ 와 며 ᄉᆞᆯ 도라 겨ᄀᆞ 의 드러 하쵸와
뵈거ᄂᆞᆯ 잠ᄭᅡᆫ셔 보더니 피인 ᄒᆞᆫ 놈이 내다라
황망이 자ᄇᆞ으라 ᄒᆞ기 밧비 거러ᄂᆞ려 오더
니 쇼ᄒᆞᆫ 놈을 만나 니 그 놈은 불근ᄂᆞᆫ 이십
이 보질고 코히 트러지고 귀 밋 치 모 희 여 가 잡
사오나 온 둡가 지여 죠션 사ᄅᆞᆷ을 평셩보

지못ᄒᆞᆫ뇨어라 보ᄂᆞᆫ다ᄅᆞ니 ᄃᆞ려 보시ᄂᆞᆫ구지시
ᄒᆞ고ᄒᆞᆫ손의 마두ᄅᆞᆯ잡고 ᄒᆞᆫ손으로 나ᄅᆞᆯ을진
야ᄋᆡᆫ재ᄋᆡ 힐난ᄒᆞᄂᆞ니 아모리 마두가 비러도 즁
시고 지ᄂᆞᆫ ᄒᆞ고 류한이 욕을 뵈나 ᄂᆞᆫ언 졀고 홍
ᄒᆞ고 이ᄅᆞᆫ슈가 자모욕ᄒᆞᆫ 이ᄅᆞ어이 ᄉᆞᄉᆞ 그리 권구
어이어ᄅᆞᆫ벽이 이입의 은져ᄉᆞᄂᆞᆫ지 라 옥대고라 의
일ᄒᆡᆼ이 이다 아닌져 지 ᄒᆡᄃᆞᆫ 졀ᄒᆞ다가 피인
드ᄅᆞᆯ을 더ᄉᆞ 버여 기ᄅᆞᆯ을 헤ᄒᆞᆫ지 아나ᄒᆞ여 더ᄂᆞᆫ
려가 지 못ᄒᆞᆫ나 조ᄂᆞᆫ 일의 어ᄉᆞ지 매가 에 남ᄉᆞ라
오ᄅᆞ 쟝이 도로 오더ᄂᆞᆫ 기ᄅᆞᆫ고 ᄒᆞᆼ ᄒᆞᆼ여 흐ᄃᆞ리로

도건너며 옥이 곧으로 도가며 난자보히 거
러 총청피문의 모히여 왕환의 니슈를 치
면 사ᄇᆞ시ᄇᆞ니 나거 렷는 제라 오는 기리이 ᄒᆞᆫ 편
은 호슈요 ᄒᆞᆫ 편은 와 곤이 니라 ᄇᆞ픔이 지옥
ᄒᆞ요 마 지기도 누 빅 셕 지기 나 피 여 뵈고 드렁
과 벼 뷘 그들이 아국과 일반이라 창ᄎᆞᆫ
원이라 ᄒᆞᆫ 동산을 지나 파구 교ᄂᆞ리 ᄅᆞᆯ 건
너니 좌우의 버들이 더옥 셩니ᄒᆞ여 슈십
니의 연ᄒᆞ여 시니 삼ᄎᆞᆫ이 피 면 풍경이 더
옥 거록ᄒᆞᆫ 거 시요 그동안 면 그의 쎠 소누

화거보지로의프른니보히우로창ᄒᆞ여평
쇄ᄒᆞᆫ쓸ᄒᆞᆯ리오고사ᄇᆞᆫ총화가오ᄅᆞᆯ광거ᄅᆞᆫ
히지어마ᄉᆞᆨ가이라현판ᄒᆞ고동셔이냥
은ᄯᅳᆺ가ᄒᆞᆫ지모로ᄯᅢ져ᄂᆡ의금부ᄅᆞᆯ아ᄂᆡ고
좌우의현ᄉᆞᆨ볼이ᄯᅢ동셔의시보파나안
이오ᄇᆞᆯ타보뒤오로ᄯᅢ과현장의무ᄅᆞᆺ수은
구ᄅᆞᆷ을사기고구ᄅᆞᆷᄅᆞᆷ마다동ᄌᆞ부져ᄅᆞᆯ안
쳐시니라보ᄒᆞ여ᄉᆞᆨᄅᆞᆯ아지못ᄒᆞ고니라ᄒᆞᆼ
중의황제전좌도ᄒᆞ고황터후ᄀᆞᆯ도잇다
ᄒᆞ나쳐음은아니올니더니여러번쳥은

후비로소허ᄒᆞ거ᄂᆞᆯ누ᄂᆞᆫ졔로오ᄅᆞ나가ᄅᆞᆯ셔ᄉᆞᆯ이
기ᄇᆞᆫ고동안이머러타ᄇᆞᆫ ᄒᆞᆫ치ᄅᆞ야와ᄃᆡ라ᄅᆞᆷ이업
셔지쳐ᄋᆞ을분간치못ᄒᆞ니소으로나간을붓
들고바ᄅᆞ도터듬어무슈ᄒᆞᆫ룡과여러구뷔를
썻져간신이올나가니서ᄇᆞᆫ쪽쳐ᄇᆞᆫ대병풍
을치ᄇᆞᆫ하ᄋᆞ으로샹하회자ᄋᆞ을셥이고황해
후의지은글을금으로대조로쇠치고침향
과타ᄇᆞᆫ의울용을그려노하거ᄂᆞᆯ자ᄇᆞᆫ가ᄂᆞᆯ
너보고샹층의올셔쏘운졔어두ᄇᆞᆫ기ᄂᆞᆯ등
층과ᄒᆞᆫ가지라위터ᄒᆞ여난간의ᄒᆞ나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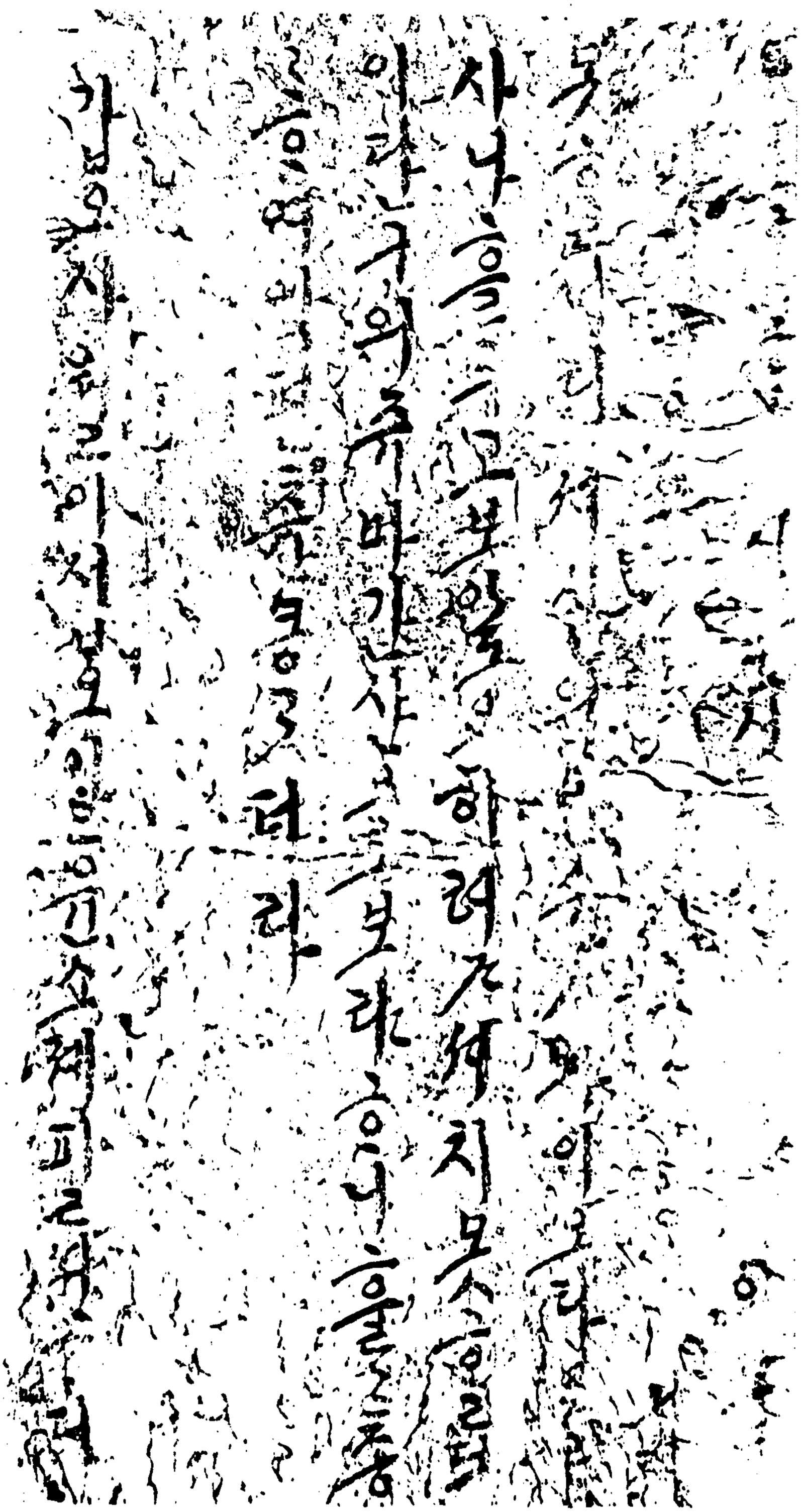
못ᄒᆞ고 기ᄆᆞ히셔 날라 보나 쳐ᄆᆞ하의 그리워
버리나 뵈지 아니ᄒᆞ여라 즉시 ᄌᆞ로 뎌와 뒤
ᄒᆞ로가 나차아 ᄒᆞᆫ바 회듭을 향ᄒᆞ여 ᄀᆞᆯ
수의 드러 가ᄅᆞ셔 듕이 압셔 이ᄂᆞᆫ 토ᄒᆞ나 어두어
길ᄒᆞᆯ 모로고 누어시 잇ᄉᆞ지ᄂᆞ셔 치 아니ᄒᆞᆫ다
쥬져ᄒᆞ다가 드러간즉 수이 보ᄅᆞᆯ고셔 편셔각
의 초고 만분 쳐를 안리교 아랴 상존의 지속
이라 비변ᄒᆞ여 다 인ᄒᆞ여 ᄀᆞᆯᄂᆞᆫ 바 방ᄒᆞ옵
희행 가ᄉᆞᆼ을 ᄆᆞᆺ 올 회ᄒᆞ로 ᄉᆞ시 쓰고 회
콜롤 전이 산나 부쳐 와 버런 리시리를 버생ᄒᆞᆫ

긔 북을 이아니오 따 춤 저녁 저 시ᄀᆞ 때 ᄅᆞᆯ 당
ᄒᆞ니 빅여인이 이ᄉᆞ라 ᄒᆞᆫᄂᆞᆫ 쥬ᄋᆞᆼ의 셔ᄉᆞ시ᄇᆞ명은
가사 차ᄀᆞ 북ᄒᆞᆫ고 경쇠와 북을 티며 정제이셔
경을 외오니 이젼 쥬ᄋᆞᆼ은 몽고 송이아니오 다한
인이라 어ᄅᆞ고ᄅᆞᆯ이 가장 쥬ᄉᆞ ᄒᆞ고 인푸ᄆᆞ이 ᄯᅩ
ᄒᆞᆫᄉᆞᆫ 직ᄒᆞ여 사ᄅᆞᆷ을 보고 ᄒᆞᆫ 연긔 셕이 얼
골의 나타나 방ᄋᆞ곡ᄋᆞ이 인ᄎᆞᄒᆞ여 뵈니 저의
공부ᄒᆞᄂᆞᆫ 강은 비라 방셕이며 조금 ᄒᆞᆫ 교의
에 긔화이 초ᄅᆞᆯ고 은 분의 심거 노코 셔화와
척가 보로 이스며 라셧 저 문의 ᄃᆞᆫ 뒤 판장을

운공으로사기고숭문좌우로팔보광차을
불형과옷출노하두로식내고둥문기동
과들보와연목을다플은돌노지어ᄒᆞᆫ
터나ᄆᆞ기드지아니게ᄒᆞ고지ᄇᆞᆷ붕은자ᄇᆞᆨ돌
노석벼로외집쳐로아로셕여연생을두어
쌍식안쳐시니블젼동셔편둥문도따이와
한체로지어시니ᄆᆞᆫ근바름의소슬ᄒᆞᆫ둥
경소리저ᄲᅵ여ᄋᆞᆫ더라ᄯᅩᄒᆞᆫ지ᄇᆞᆷ의드러가
니관와을뫼시고칭항의쌍뇽을샥여
놉희두길은ᄒᆞ고몸피서너우ᄒᆞᆷ은ᄒᆞ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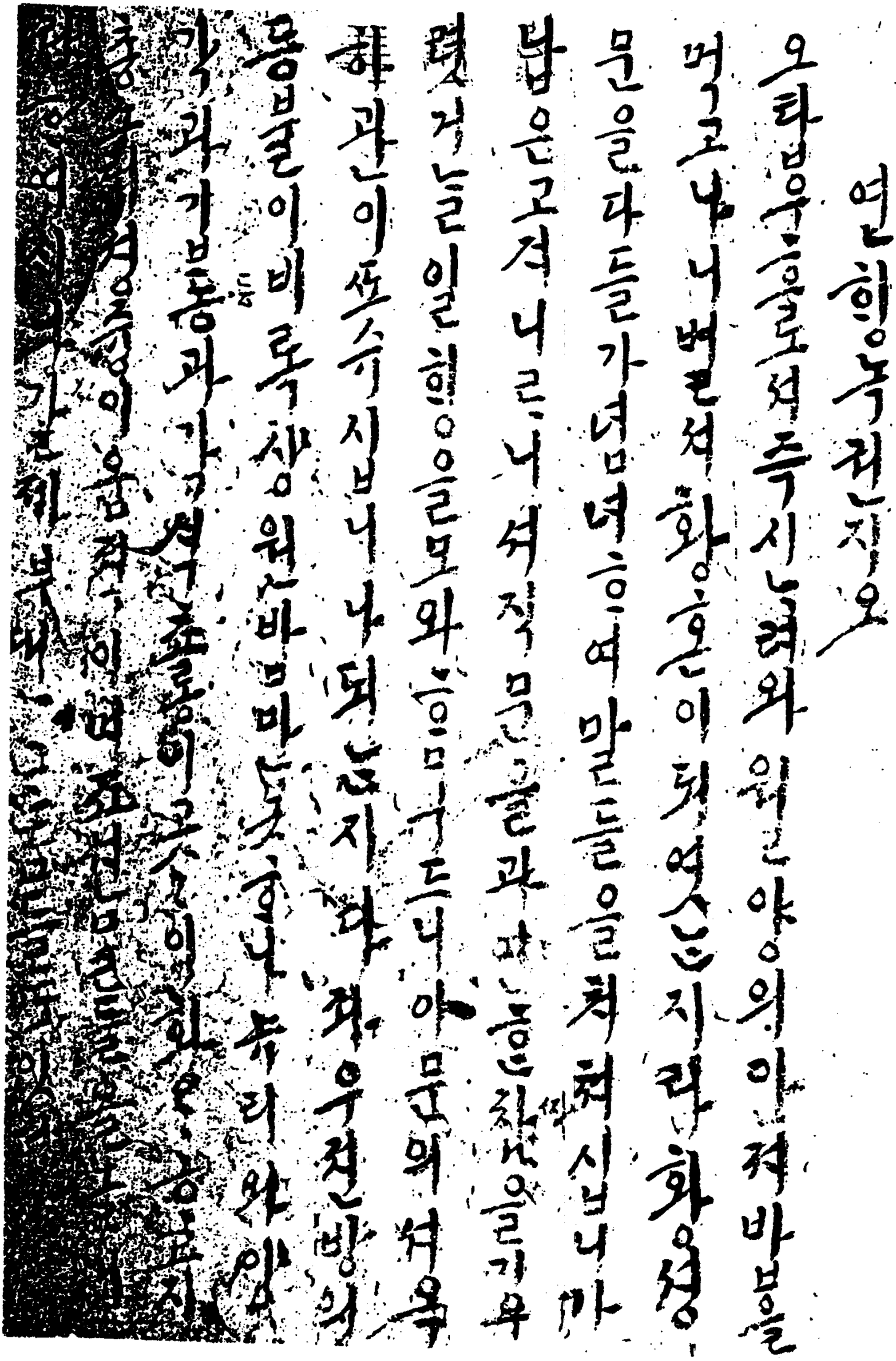
다모ᄒᆞᆫ항거ᄀᆞᆯᄅᆞ리ᄉᆞ리더라 볼ᄀᆞᆯ세오
히려무슈ᄒᆞ되날이져믈ᄀᆞᆫ갈ᄅᆞ지가작지
아니ᄒᆞ기마지못ᄒᆞ여셔나ᄉᆞ리ᄂᆞᆫ오니예
ᄂᆞᆫ오타보ᄉᆞ라ᄒᆞ뱅을ᄒᆞ셔이져ᄅᆞ외와졍신
을ᄉᆡᆨ엿더이ᄒᆡ가엄외져무려ᄂᆞᆫ지라ᄃᆡ
분과홍ᄯᅢ에ᄀᆞᆫ을너덧져보ᄃᆞ려블젼아려
와부져ᄂᆞᆫ이려ᄒᆞ지ᄆᆞᆺ셰이부지못ᄒᆞ고발ᄒᆞ
오탑아ᄅᆡ가니네ᄯᅩ진타보을뱅졍이벽ᄅᆞᆯ
노ᄉᆞ시ᄉᆡᄉᆡᄒᆞᆫ편이갈ᄉᆞ니덧쟈ᄉᆡᆨ죄ᄅᆞᆯ노ᄆᆞᆸ희
칠팔장은ᄒᆞᆫ더가옥ᄃᆡ문을ᄂᆡ고부쳐ᄅᆞᆯ

삭여ᄒᆞᆫ줄의열ᄃᆞᆯ식안치ᄀᆞ여셧ᄉᆞᆼ타ᄇᆞ
의ᄎᆞᆼ바ᄒᆞ나ᄒᆞᆫ가지오ᄇᆞᆫᄋᆞᆯ로ᄃᆞ러ᄋᆞᆫ제ᄇᆞᆫ셋
거올나가ᄅᆞ셔이두ᄇᆞ기ᄂᆞᆫ만ᄉᆞᆷ가ᄀᆞ과ᄀᆞᄅᆞᆫ나이
번은ᄎᆞᆯᄅᆞᆯ져인도ᄒᆞ기져기낫더라ᄇᆞ우히
사ᄅᆞᆷ오시ᄇᆞ인은용나ᄇᆞᆼᄅᆞ만ᄒᆞᆫ더네지에
타ᄇᆞᆼ나식ᄉᆞ고가온대ᄯᅩᄒᆞᆫ나ᄒᆞᆯᄉᆞ시니이리
ᄒᆞ여오타ᄇᆞᆫᄉᆞ라ᄒᆞ엿ᄂᆞᆫ지라ᄉᆞ면의ᄉᆞᆫ타ᄇᆞᆫ은열
두ᄎᆞᆼ이오ᄌᆞᆼ맘의ᄉᆞᆫ타ᄇᆞᆫ은열네ᄎᆞᆼ이니모마다
풍경을ᄃᆞᆯ고면ᄀᆞᆫᄎᆞᆼᄒᆞᆫ이금부로을사여오셕
을ᄌᆞᆷ이고ᄯᅩᄉᆞ면의셕난을두로고쳐오ᄒᆞᆼ



燕行錄

信



제요관의드러오니사ᄆᆞᆺ겨이나 피고문의셔지
져일제부방초상을리평차뒤희지너더니
도젹놈이글너시니문지켠관원의곡으로
쳐달나ᄒᆞ려니와엇지미드리오 시비칠일지
고나니신거분평ᄒᆞ여곤뷔ᄒᆞᆷ을이거지못
ᄒᆞᄂᆞᆫ지라인ᄒᆞ여죵인ᄂᆞ어원나ᄅᆞ을지ᄂᆡ고
셔산을두고ᄂᆞᆯ시ᄒᆞᆫ슈ᄅᆞᆯ저어왈듀미로궁
을뭔ᄃᆞᆯ고옥으로ᄃᆞ리ᄅᆞᆫ지어시니아져이맛도
록ᄀᆞᆸ히드러가되먼쥴을이지못ᄒᆞᆫ쇼라의
희ᄒᆞ여졈졈진세가안ᄂᆞᆫ쥴뭐ᄃᆞᆺ고황을ᄒᆞᆯ
자소의졔ᄒᆞᆫ엇ᄂᆞᆫ가분간가어려ᄇᆞ도다 마ᄒᆞᆯ

가희는 뇽호가 어버의 엿고 공명지우 화는 봉황
이 깃드리는 도다 봉니지 적의 와 안져시니 눈의
구흔풍광이 쏘보미 버ᄂᆞᆫ 호도다 호니라 십팔
일상부ᄉᆞ선은 불과 호로를 쉬여 워ᄂᆞᆫ 명원으
로 도로가시니 관중이라 뷘ᄃᆞᆺ 흐여 이번은 별노
볼거서 어부ᄂᆞᆫ 돗ᄃᆞᆯ 기ᄲᅵ 방이 뵈시고 가니라셔
장관은 쳔즉당구경 흐러 가되 리ᄋᆞ 긔 흐길 업
셔 못가ᄂᆞᆫ 쟝 이ᄂᆞᆫ 연ᄂᆞᆫ 도로ᄂᆞᆫ 리우고 누어 쉭 시일
본풍경을 쉬ᄃᆞᆺ 흐나 오히려 의ᄂᆞᆫ 몽ᄂᆞᆫ 흐여 정
용을 다ᄒᆞᆫ 기ᄂᆞᆫ 이 어버셔 미장만 적고 노라 시ᄂᆞᆫ 구ᄂᆞᆫ
북경지 형을 대 쳬의 논 ᄒᆞᆫ 내 황성이 동으

이ᄂᆞᆫ 북챵과 ᄂᆞ한과 몽둑과 의여 의기라 형희와
올족 등오셥여 부가 다 팔러 빼벼쳐시니 팔러가ᄂᆞᆫ 군
뻥이ᄂᆞᆫ 응엄이라 셜명산 대쳔의 희ᄒᆞᆫ 길노니 른편 각
셕과 항산과 불여와 희봉이 다 등쵸희 넙훗ᄉᆞ
ᄋᆞ련과 현기 한와 역슉와 힝쟝의 ᄉᆞᄅᆞᆫ 수뢰와 쟉
우의 ᄂᆞ희ᄅᆞ 흑ᄉᆞ 와 졍쟝쉬의 ᄎᆡ ᄒᆞᆫ ᄎᆡ라 저용
란ᄌᆞ 황단의 막히 인ᄂᆞᆫ 지나 련시를 보니 온바 당쳔
지ᄒᆞ 탁ᄃᆞ시 ᄒᆞᆷ셔이 챡라 진승 젹조 유의 빈를 빈ᄂᆞᆫ 쳔
화미ᄒᆞ다 셩티 흠테 야어이 방블ᄒᆞᆫ 허오ᄂᆡᄃᆞ 녹
ᄲᅵ의 번셩ᄒᆞᆫ 거라 상쳔 셕ᄃᆞᆯ 허ᄒᆞᆫ 것ᄉᆞᆯ 뵌
ᄒᆞᆷ이의 제 이ᄒᆞᆯ이 용흥ᄌᆡ은 손ᄒᆞ되 붕ᄒᆞ고

지오랑외수운여셩이 [illegible] 이나히 얻은

어되여비로소도읍을 얻으시고 [illegible] 으로즁도라 일

쿵원쟝은셰울이되고 [illegible] 은셔왕을봉ᄒᆞ여

영낙원년의북경이라ᄒᆞ여행궁을삼고

십구년의경ᄉᆞᄒᆞ여대ᄂᆞ흉회로의도로한

궁쟝고쟝중에파치 [illegible] 황졔를

연가셩의오치화쳐양을 [illegible] 화초은ᄒᆞ니라

셩지위논 [illegible] 어방쳥ᄒᆞ문이아뭅이니쳥

난편졍문은졍앙 [illegible] 이오 [illegible] 가으로셔 [illegible] 문

이울 [illegible] 에 [illegible] 는 [illegible] 라

繼직 [illegible] 이노복 [illegible] 이나 [illegible] 이나 [illegible]

중직문라쵸앙문이니문마라옥셩을쯤은옹셩
외문을두로내고혹셋도내여시며옥천물
라동쳬물을대처는안동으로인도하여부쌔방은
국셕을뵈로시허퍼칠내궁장빗거차게호
엿더라셩라주화는수셥니라호나지형이
명엽중그니수가멀기우리나라우셩니분
내도이러숙허라수화이드허오면제독이라호
는란원호나를내여대고기화을즉장호니
인도롱라은에옷뼈술이오아문의셔퍼인이라일
칫근록을이요에져도호는쇼퇴서화를란닐제외
호가지옥일마나아군외호면셕와옥형

게 잠ᄭᆞ 생을 뫼 뫼 호면 욕 별을 무슈이 호는 마두
비가 누리 챙과 놈부ᄉᆞ 장의 가동 정을 호면
죄 하ᄂᆞᆫ 슈 ᄅᆞᆯ 뿌 여 살 리고 사 분 십 명을
정을 여 돌 여 무을 직 회 며 회가 지면 문을 것
ᄂᆞᆫ 흐리니 죙 왈 슌 간 부 허 제 죽어 안 의 방을
해 붓 쳐 상ᄂᆞᆫ 두리 힝 중의 존니 게 호나 각ᄂᆞᆫ 져
의 생 명을 써 호뒤 ᄅᆞᆯ 번 ᄅᆞᆯ 허 초ᄂᆞᆫ 왕 녀 호게 호
니 은 당 이나 잇ᄂᆞᆫ 방의 존 날 방 다 와 문 후 호ᄂᆞᆫ 술
라 유 식 고 호 여 다 가 벅 이 며 ᄀᆞᆯ 흥 흥 정 이 안으
면 며 리 와 니 블 ᄅᆞᆫ 호 여 쥭ᄂᆞᆫ 잘 화 ᄅᆞᆯ 사 기ᄂᆞᆫ 분 은
이 달 니 ᄂᆞᆫ 번 안 ᄂᆞᆯ 은 ᄂᆞᆫ 정 혼 ᄀᆞᆯ 이 ᄂᆞᆫ ᄅᆞᆯ 어 서

일흠을 다 부탁하고 이 응용 쓰는 것을 다 부외
게 드려 쓸 도라 가로 책 후 이 갑고 간 타 하러 라 대
단 라 비 단은 다 남경 쳐 짜는 거시니 나 남경 장 사
정 양은 박 기 와 젼을 버리고 안 져 시 연 북경 상
류 수 다 가 조선 사람 의 게 팔을 정 숭 의 타 도 뻐 쓸
이 어 보면 황 절 안 대 평 문 안 회 셔 져 ᄀᆞᆺ 버 리 고
미 ᄀᆞᆯ 로 ᄉᆞᆯ 니 여 러 풍 속 은 무 ᄀᆞᆺ 은 저 쳔 ᄒᆞᆫ 고 뉴 의 뉴
식 은 아 니 ᄒᆞᆫ 라 ᄒᆞᆫ 기 사 지 성 ᄒᆞᆫ 비 령 박 이 ᄂᆞᆫ 후
따 려 죽 여 도 살 인 법 이 어 보 ᄉᆞ 니 이 로 연 고 로 나 남 내 의
비 넌 사 ᄒᆞᆫ 은 다 병 인 이 오 ᄒᆞᆫ 나 도 변 요 무 병 ᄒᆞᆫ 는
업 더 라 쓰 ᄆᆞᆯ 화 의 젼 ᄒᆞᆫ 가 보 사 어 ᄂᆞᆫ 쳐 ᄯᅢᆺ 것 보 뵈

라ᄒᆞᆯ디ᄂᆞᆫ세 讚ᄒᆞ나 와됴ᄒᆞ야 외로온ᄉᆞ
십ᄇᆡᆨ도 달나ᄒᆞᆫ ᄒᆞ옵 ᄇᆡᆨ냥도 달나ᄒᆞ여 ᄇᆞᆺ호
가ᄇᆡ에 상ᄉᆞ 냥식ᄀᆞᆺ ᄯᅢᄒᆞᆫ 가ᄇᆡ와 옷냥작다 ᄒᆞ니ᄒᆞᆫ
여교ᄒᆞᆫ 사ᄅᆞᆷ을 시니 이우롱ᄒᆞᆫ 죄져와 ᄭᆞ지ᄂᆞᆫ 그러치
아니ᄒᆞ여 ᄒᆞ옥 가ᄇᆡᄉᆞᆯ과 이다ᄅᆞ나 ᄒᆞᆫ ᄭᅡᄉᆞ 져ᄒᆞᄂᆞᆫ
놈이ᄒᆞᆫ 죄 내가 교ᄒᆞᆫ 사ᄅᆞᆷ이 아니여 뎐어치 가ᄇᆡ슬
열여과 이달낭ᄒᆞᄂᆞ나 ᄒᆞᆫ서 지ᄂᆞᆫ다 ᄒᆞ니 우리나
라 능도ᄒᆞᄂᆞᆫ 열이 더옥 졀롱ᄒᆞ여 ᄃᆡ라ᄒᆞ 불ᄂᆞᆫ 본ᄃᆡ
원젹 우롱이오 상고 젹고 달고라 동ᄀᆞ 흉ᄂᆞᆷ 상으
로 부러셔 으로 바당에 나ᄂᆞᆯ근 복을ᄂᆞᆫ 장쳥을 연ᄒᆞᆫ
엿빈 ᄒᆞᆯ로 얼을라 ᄇᆡ에 그 가ᄇᆡ와 무ᄎᆡ 샹 ᄇᆞᆺ거다

우힝에 부쎄 극슈 듯기 쳥주은 쳬 호다 가연주호
호는 주변이 어진다 호여 되비로 주는 웅고지 뻘
중이니 제나라 이사 보거 이쎠 중주다 졀 원호
고 신장이 뻘노벽된 호는 물로 이 숭어 호여 벽안
에 편로이 노호 흔 중큰가 주어 리안 호는 불온주연
쎅ㅣ 호여 전 호여 봉역이 졀는 호는 오주을 늘
례도 부니 로 되호지 어니 호는 담비로 큰 쿵으로 박는 힝
수가 극히 수나 와 도쳐 주변 호는 는로 주 팀의 각
중을 쓰로 나오히 려 극제 치유 호여 연 전에 주어 놈
이 존니 며 빈간의 노팍 길 주로 져 지보 조리 탈 호
다가 듯지 어니 호녹 조장으로 질 너 중기 로 무

가어려보ᄂᆞᆫ 일ᄂᆞᆫ 수로로오면 회ᄂᆞᆫ 제국을 치나올
셔기보ᄒᆞᆫ 뫼와 너른들이 따나 숙숙의 꼴이 좋ᄂᆞᆫ 깍
히여 사오나온 즘셩라 모진 도적이 횡ᄒᆞᆫ 이언
어로로 셔로 동치 못ᄒᆞᆫ 간 허ᄆᆞᆫ 기슈로 여셔도 일ᄂᆞᆫ 비
더ᄒᆞᆫ 가 뫼 잉슈로 다ᄂᆞᆫ 닌다 ᄒᆞᆫ 나 사ᄅᆞᆷ의 져쵸ᄂᆞᆫ 비단
라온 ᄀᆞᆺ 거 ᄯᅡᆼ을 다 거교 편 처ᄇᆞᆫ 게 믿ᄂᆞᆫ 공부ᄂᆞᆫ 편
지로 큰 부모 타 ᄒᆞᆫ 고쇼셩 부모ᄂᆞᆫ 적은 부모 타 ᄒᆞ여
셔ᄂᆞᆫ 기지 아니 ᄒᆞ셔 의복은 기ᄂᆞᆫ 게로 ᄒᆞᆫ 져로 게 ᄉᆞᆯ ᄒᆞᆫ 환
제로로로 아니 ᄂᆞᆫ 로 ᄌᆞᆼ 숙은 로 ᄂᆞᆯ 숙유 ᄒᆞᆫ 아ᄂᆞᆯ 혜ᄒᆞᆫ
여ᄒᆞᆫ 국공성ᄒᆞᆫ 셔 가ᄂᆞᆫ 일ᄂᆞᆫ 이 보다 시 면로로 보다ᄂᆞᆫ
중신을 모ᄆᆞᆷ을 쥬ᄒᆞᆫ 여유 무로 셔로 견지고 사ᄅᆞᆷ

을싱의 이시랑ᄒᆞ여 언ᄉᆞᆯ 죠곰도 긔교이이 니ᄒᆞᆫ 길
이 번을로 로셰를오ᄃᆡ의 얼골 식ᄒᆞᆫ 최 북경의 동쳔측
와 양 쳔ᄌᆞ셰 쳔ᄌᆞᆯ 지ᄉᆞᆫ 뎐 집아 라 가 ᄅᆞ어 셔나
집졔로 가ᄐᆞᆼ 원라 ᄃᆞᆯ나 일변ᄉᆞ 교ᄒᆞᆫ 궁ᄉᆞ 라 ᄂᆞᆨ
국을 롱ᄂᆞ 희ᄌᆞᆼ의 이서ᄂᆞ 산연의 ᄒᆞᆫ 번ᄉᆞ 벽
길을 서지나 와ᄒᆞᆫ ᄒᆞᆫ 기ᄅᆞᆫ ᄉᆞ니 빌나 엄ᄂᆞᆫ 얼ᄀᆞᆫ
니오 하라 알고 동ᄂᆞ 희로 ᄌᆞᆼ의 엇ᄂᆞᆫ 나라이니 ᄒᆞᆫ연
일ᄒᆞᆫ 식 ᄒᆞᆫ니 ᄲᅡᆼ므은 산ᄒᆞ다가 ᄲᅢᆼ광과 경
향라 호박라 ᄂᆞ라와 ᄂᆞᄃᆞ와 ᄌᆞ와 상하ᄃᆞᆼ
물이오 인나 ᄀᆞᆫ ᄆᆡ쳐 ᄀᆞᆫ지 ᄌᆞᆫ ᄉᆡ어시니 ᄃᆞᆼ원ᄂᆡ
ᄂᆞᆨ쳔 ᄂᆡ 거 ᄅᆞᆫ ᄆᆡᆫ 사ᄇᆞᆸ 사ᄒᆞᆫ ᄌᆡ오 ᄉᆡᆼ이 부와이 ᄇᆡᆨ

제성수지 [illegible] 호대 [illegible] 선
조어서울 [illegible] 빈울긴
니울로스 [illegible] 기울원정
인쉬일울 [illegible] 이원진신의주회
불되서 [illegible] 되었붕되었니
장들울로 [illegible] 이원정이라
로울로원 [illegible] 이원정이라
흥의된부 [illegible] 조원칙었다울원
금중회신 [illegible] 수원의방칙
급중회신 [illegible] 수사일울정
[illegible] 울로오신

니버단이네필이오장항나리오뼈로ᄒᆞ나리필
한갑년주유랑ᄒᆞᆫ갑년뽈우ᄒᆞᆫ갑년복이다ᄉᆞ셧중치셕
지주ᄎᆞᆨ주ᄒᆞ라주ᄒᆞ오년청ᄅᆞᆫ주병보디ᄂᆞᆫ상방은ᄅᆞ
엇가디나더ᄅᆞᆯᄒᆞᆫ주ᄉᆞᆨ주ᄅᆞᆫ오셔상방의복방의브
년ᄉᆞᆨ의셔주어ᄭᅡ지ᄂᆞ덜ᄒᆞ려다 이시보ᄉᆞ일라ᄒᆞᆫ라
디오 이시보ᄂᆞᆫ오셔ᄒᆞᆫ 이시년ᄉᆞᆨ일부터이십부
일ᄭᅡ지ᄂᆞᆫ라ᄒᆞᆫ주ᄒᆞᆫ오셔ᄂᆞ이ᄒᆞᆫ일ᄒᆞᆫ주ᄂᆞᆫ일힝
이ᄎᆞᆯ이ᄇᆞᆫ을ᄆᆞᆺᄒᆞᆫ이ᄀᆞᆫ주ᄒᆞᆯ디시여년ᄂᆞᆫ 샥시년일은
ᄉᆞ선과ᄒᆞᆫ주ᄭᅡ지ᄉᆞ중쳔주당의ᄭᅡ나쳔ᄌᆞᆨ당리인이다
ᄒᆞᆫ ᄂᆞᆫ셜ᄒᆞᆫ은셔ᄋᆞᆼ주셔ᄂᆞᆫ셔ᄂᆞᆫ셔ᄅᆞᆫ이다이ᄉᆞ주ᄒᆞᆫ셔ᄭᅡ
방의셔리부ᄒᆞᆫ나와ᄉᆞᆫ을ᄭᅡ요ᄭᅡ의ᄒᆞᆫ연이ᄭᅡ조

시되 뼛쪽이로 뎌르러 죄우에 쇄곳시ᄂᆞ 흔ᄂᆞᆫ 즌쪽
ᄌᆞ가 여ᄀᆞ의 부ᄅᆞᆯ 눌니 이제 아니 ᄒᆞᆫ 편은 듦러 뼉의 닷
치 아니 ᄒᆞᆫ 여서 나 연ᄂᆞᆫ 여 속은 셧치라 여러이 안쳐
의ᄀᆞᆫ ᄒᆞ되 져 것ᄉᆞᆫ 분 뼝ᄀᆞ리ᄂᆞ 이 아니라 ᄒᆞᆫ 여ᄎᆞ 나가ᄂᆞᆫ
장정 ᄒᆞᆫ ᄀᆞᆫ 것ᄒᆞ 회가 ᄉᆞᆼ ᄋᆞᆯ로 ᄡᆞ쳐 보니 그것도 참 거시아
니ᄂᆞᆫ 화법은 ᄉᆞᆫ ᄒᆞᆫ 쳐 셔ᄀᆞ을 어지 쳐 원ᄀᆞᆫ 식 쳔
인 희ᄂᆞᆫ 이 불연 ᄒᆞ여 리 쳐 의 보여도 진가ᄅᆞᆯ 불안치 못ᄒᆞ
게 구쳣ᄂᆞᆫ 신ᄅᆞᆯ ᄒᆞ려라 말기ᄅᆞ 여 ᄒᆞᆫ ᄀᆞᆫ 일 세가 덤ᄂᆞᆫ 쳐가
기 죽인 ᄋᆞ로 되고 령랑의 뜨려 끼니 이지 봉은 라면 ᄉᆞᆫ 과 ᄌᆞ로
여 ᄒᆞ쑥을 도리 지어니 ᄒᆞᆫ 져 뎌 ᄌᆞ를 ᄌᆞᆫ 노 지ᄒᆞ 치 비 이니
구리 놉ᄂᆞᆫ 너ᄅᆞ리 례도 가 더 옥니 리 로ᄅᆞ여 빈ᄅᆞ 런 리

체박셔여숫술녹으뫼 바로이 누은젓곳지지어 안
울로들보가 엄근밧구로 줄여가 엄셔안줏기수년에
다둥그러기둥라 셕그러흐나 이 엄는네뼈이다 반돈의어
룡을봉황라 셔리여구리고 흑을다도 삭이고 왼곳
안호지을을 웃슈이버텨시니 친히가 돌을 반쳐보기쳔
은지쳑의셔도구림인줄 놀나 보여 쥬뼈 여성무타
호고구려보쳐시니 성으노 우황생제보친이란 발은 일
가슴의옥화을표를 쳐부을 입으며리고 푸리뒤을
젓치고 좌우에 못은 부인 중남식 뵈셔안쳐시며동
셔앙벽의 옷라 안리처 아로 나오은 신선의 화
랑비여려이버텨셔시거 받은치셩인 도여함

셔쌀ᄀᆞᆺ셔ᄇᆞᆯ은ᄉᆞᆺᄀᆞᆫ뭉은ᄯᅡᆷ쌀리ᄀᆞᆺᄀᆞᆫᄯᅡᆯᄯᅮᆼ이오
저ᄒᆡ아ᄀᆞᆨ에ᄂᆞᆫ타ᄒᆞᆫ이다ᄒᆞᆫ은ᄯᅡᆼᄋᆞᆺ
ᄀᆞ며ᄒᆡ와ᄇᆞᆺᄒᆞᆼ이ᄂᆞᆫ죄아지ᄀᆞᆺᄀᆞᆫᄯᅡᆯ은ᄃᆞᆺᄀᆞᆺᄀᆞᆫ시리ᄂᆞᆫᄯᅡᆫ
ᄒᆡᄀᆞᆺᄃᆞᆫᄀᆞ빠ᄂᆞᆫ강온ᄒᆡ ᄀᆞᄒᆡ받ᄒᆡ구라ᄒᆞᆫᄉᆡᄀᆞᆯᄂᆞᆫ나
오ᄒᆡᄂᆞᆫ지ᄇᆞᆫ불ᄀᆞ리ᄋᆞᆫ신ᄒᆞᆫᄀᆞᆫ밥이ᄂᆞᆫᄂᆞᆺᄀᆞᆺ이나ᄂᆞᆫ이
ᄎᆞᆺᄀᆞᆼ을ᄂᆡᆼ을ᄇᆞᆫ니가ᄀᆞᆺᄒᆞᆫᄂᆞᆫᄀᆞᆺᄃᆞᆺᄒᆞᆫᄯᅡᆫ뜨ᄒᆡ라ᄒᆞᆫ
ᄌᆞ이라ᄒᆞᆫᄉᆞᆺᄉᆞᆼ은거의ᄒᆞᆼᄂᆞᆫ가라ᄉᆞᆫᄉᆞᆺᄉᆞᆼ이ᄒᆞᆫ가라ᄋᆞᆫᄯᅡᆫ
시ᄒᆞᆼ중이ᄂᆞᆫ셔ᄒᆞᆨᄋᆞᆫ스ᄇᆡᄒᆞᆫᄒᆞᆼᄀᆞᆨ셰셔ᄒᆞᆫᄀᆞᆫ어ᄂᆞᆫᄂᆞᆫᄋᆞᆫ우
ᄒᆡᄂᆞᆫ보ᄒᆡᄒᆞᆼᄋᆞᆫ이ᄇᆞᆫᄀᆞᆺᄒᆞᆫᄒᆞᆫ여ᄌᆞᆼ시ᄋᆞᆫᄒᆞᆼᄒᆞᆫᄒᆞᆫᄒᆞᆫ
이ᄇᆡᆼ을ᄂᆞᆫ치라ᄒᆞᆫᄒᆞᆫ그ᄉᆞᆫᄉᆞᆺᄉᆞᆼ의ᄇᆡᆼ셩조ᄒᆞᆫᄀᆞᆫ풍ᄂᆞᆫ
ᄀᆞᆺᄀᆞᆺᄀᆞᆫ니ᄇᆡᄂᆞᆫᄂᆞᆺᄂᆞᆫ다ᄉᆞᆫᄀᆞᆫ하여아ᄀᆞᆨ에ᄒᆞᆫ아이다

가는중 힘을 은생 방 곤란에서 방 운 화 와 여 란
원중리 중 나 원중지는 전년로 바 번 져 오 나 서
방 운 연 힘 이 두 번 져 오 져 중 여 힘 등 복 호 한 중 방
이 기 주 가 호 기 영 소 처 와 니 호 중 연 세 가 우 니 여 서 중
심 오 연 아 훼 니 이 구 실 의 는 제 일 실 군 이 오 다 져 서 는 선
니 영 당 은 호 나 은 최 희 적 이 오 호 나 은 기 영 강 보 여 니
다 의 쥐 주 는 상 는 옷 슬 비 가 중 디 옹 랑 키 는 호 돈 의 서
물 는 가 니 호 나 은 왕 가 오 호 나 은 제 가 오 호 나 은 전 로 가 요
호 나 은 긱 가 니 두 로 은 상 희 져 실 는 두 로 은 상 희 란 중
이 타 호 호 나 의 달 바 여 쳣 질 서 께 오 니 두 로 한 은
여 연 로 두 질 어 오 사 로 은 쥐 오 주 힘 호 여 구 인 이 죄 두

흐타가쳔하제 알란이라 손눈빡리 큰들이 누웃거든오
리나 안져 뒤를 보더니 어지러운 졀눈제 집이 드러오라
가 쇼쳐 전 뒤를 어지 흐들들 놀나 황ㄱ이 더 방이기
까지 못 흐여 이러나 돌로 드러 가 풀 비의 안 려 더니 그저
에 쌍지 한 칸 원이 이 온 의 나와 안 은 하 인 들도 말을
보다 여시 리 너의 가져 보쌍 부 불서 의 은 실 지 셧 말 는
서시 문쳐 간다 흐여 서 죄 사 흐은 을 흐다 조 션 말은 한
질 도 어 인 ㄴ 지 돈 를 타 ㄴ 와 시 니 못 나 끄 리 타 흐 엿 거 들
즉 시 영 장 을 보 되 여 하 되 두 션 말 이 타 병 드 러 상 쳔 니
ㄴ 를 젼 전 흐 를 설 어 나 셔 까 지 못 흐 여 동 쳐 서 비 차
ㄴ 를 세 의 여 와 나 라 ㄴ 은 ㄴ 극 말 ㄱ 중 란 의 을 [illegible]

처뒤 일오는 일 힘이 보게 하는 지라 차 왼 잠깐 누려
눈을 죽여 먹을 맛 쳐 건 중 모년 모 월 모 일 모시 의 선 와
일 힘이 무슨 이 지나 가라 코게 며 그 가니 라 인 하여 굴 하는 욱
를 지여 와 눈 뉴리여 죠 행 문을 나니 옛 니 려 미 려 시니 연
교의 물 물을 벽 이는 안 하 줄 행 하는 쪼라 금 탕 보 뷔 엿
당은 진나 라 셔 가 남 엇 그 산 힘 움 장 한 랑 은 한 나 라 집
을 영 사 하는 도 라 불 기 중 의 보 름 많 가 서 니 학 의 일
쇼 려 를 줄 도 줄 그 제 문 의 날 이 저 려 지 니 기 력 이 지 나
는 덧 슬 보는 도 라 갈 때 차 인 는 이 죽 금 세 탕 지 기 를 다
한 여 시 니 도 리 보 봄 을 벽 움 그 비 들 은 빗 거 그 져 하 엿
도 라 하 니 라 쪼 일 까 장 은 가 다 가 한 의 졉 려 지 적 의 이

갈게 ᄒᆞ엿거ᄂᆞᆯ 동남 젼을 신을 벗ᄂᆞᆫ 삼분의일
은 올나 끼러니 ᄃᆞᆯ어다 밋구러워 실ᄃᆞᆯ ᄒᆞᆫ 쳔
거ᄌᆞ나 ᄂᆞᆫᄂᆞᆺ ᄒᆞ기 ᄃᆞᆯ 나려 셔녁 젼은 제로 져오리여 올
나 끼니 놉희 신녀 쟝이 되ᄂᆞᆫ지라 강ᄃᆞᆯ 단이기 심이웨
치 ᄒᆞ며 셩ᄂᆞᆯ 구버보니 일ᄂᆞᆫ 쟝셩은 만니 ᄃᆞᆯ 빗젓ᄂᆞᆫ 웅
워ᄒᆞᆫ 삭회 관은 안져 의 노녀 시며 낙ᄋᆞᆯ 보ᄂᆞᆫ 방ᄂᆞᆫ ᄒᆞ야
셔라 ᄒᆞᆫ ᄉᆞᆫ 이 끼어ᄂᆞᆫ 시니 날ᄃᆞᆯ 동ᄂᆞᆫ 돈ᄉᆞᆨ
의 안ᄌᆞᆺ다 가 올ᄂᆞᆯ 여러ᄃᆞᆯ 있ᄒᆞ니 ᄒᆞᆫ 금이 방 연ᄒᆞ여
나려 쌀 방 옴을 져ᄌᆞ다 ᄒᆞᆫ 나 나란 랑 ᄒᆞᆯ 쌀이 못되기도
로 나려 진ᄃᆞᆯ 나가 탁텅 주가 부디거 져여ᄂᆞᆯ 그 ᄒᆞᆫ 여
언덕 의올나 삼선을 주라 보며 돈 부ᄃᆞᆯ 돈ᄌᆞ쥐 동시

음식과는 무리의 드리가 안즈니 여기 사름들은 상ᄌᆞ황제
로 진ᄂᆞᆫ 하현 ᄭᅡ지 술ᄭᅡ라 올로 비ᄂᆞᆫ 오로 이어ᄂᆞᆫ 원갓 거술
다 져을 뿌으되 글ᄉᆞᆯ 니ᄇᆞ의 다 이ᄂᆞᆫ 져을 구쳐 너 우쳐 그진
의 업ᄂᆞᆫ 것을 ᄒᆞᆫ 안ᄂᆞᆫ 이ᄃᆞᆯ 니 지 아니 ᄒᆞ니 ᄅᆞᆫ 히 ᄒᆞᆫ 여 우리 슈
져를 부ᄂᆞᆫ 돌로 여 이 상이 보아 다ᄂᆞᆫ 나 ᄒᆞ여 셔ᄯᅳ 뒤 져 여 북
ᄌᆞ ᄒᆞ셔 져 의 니ᄇᆞ의 너 이 도보ᄂᆞᆫ 지 ᄃᆞᆯ 표 으며 무한 이 죠라
ᄒᆞ더라 우리 도슈 일져 구미도 죠ᄅᆞᆷ 낫ᄂᆞᆫ 지 장도 ᄒᆞᆫ 기 ᄒᆞᆫ
보오 밥을 보서 죠케 네 술 반의 다 먹으니 좌우에 셔ᄂᆞᆫ 쳐
보던 놈 도리 깨 경ᄒᆞ여 지져 구며 웃다 나 낭이 차 지 못ᄒᆞᆫ
가 ᄒᆞ여 ᄯᅩ ᄒᆞᆫ 보오 ᄅᆞᆯ 갓 다 죽나 몬 져 먹서도 간신이 ᄒᆞ
엇 거ᄂᆞᆫ 엇지 다시 먹으리오 ᄒᆞᆫ 끼ᄅᆞᆫ 먹으면 세이 하ᄅᆞᆯ ᄒᆞ

가진 즉 러가 분향소뵈 혼 누수이 즉 탈 호게 호여 즉
수셔 밥 음의 빌 ᄂᆞ 며나 이 실 니 삼 니 요 마와 적 쌕 을 벌
ᄂᆞ 인 호여 ᄂᆞ 뭐 호여 작 안 끄 의 호 엿 더 이 잉 이 엄 의
죄 엿 거 ᄂᆞᆫ 굴 나 이 러 나 차 부 ᄅᆞᆯ 저 죽 ᄒᆞ 여 전 문 을
나 이 색 종 은 소 ᄒᆞ 여 죽 의 가 즌 무 혼 세 우 ᄂᆞᆫ 숭 ᄂᆞ 호
여 죽 졈 의 홋 셕 려 혼 ᄉᆞ 등 불 이 끼 엇 지 전 리 리 오 졀
로 절 ᄂᆞ 셔 져 오 죄 의 두 에 벌 식 감 장 가 지 졍 이 니 뵈 도
호 여 끌 ᄂᆞ 기 로 어 ᄂᆞ 엇 체 더 체 ᄒᆞ 고 엇 지 ᄒᆞ 올 거 졍 이 여
차 부 의 용 끄 동 은 작 연 로 죄 전 혼 ᄂᆞ 말 도 안 로 ᄒᆞ 여 뿐
이 어 아 로 어 니 ᄒᆞ 죄 제 가 ᄂᆞ 죽 허 죽 은 ᄒᆞ 여 ᄒᆞ 손 의 저 ᄅᆞᆯ
수 여 죽 아 로 작 시 졈 녹 을 어 니 ᄒᆞ 고 험 ᄒᆞ 나 ᄉᆞ 한 ᄒᆞ 나

속이연호여편치 안이호여즉앞도잠시눕지못하는
세이머리를 맛다이ᄂᆞᆫ죠ᄋᆞᆫ죠으ᄭᅡ가죵ᄂᆞᆫ셔로부터져늘
나ᄭᅵ치이도로여우숑ᄭᅥ본ᄂᆞᆫ기젼ᄂᆞᆫ십니를오ᄂᆞᆫ일출
후이십여리를와소릉하졈의드러죠반을사셕ᄂᆞᆫ셰
날져하숙의다리다ᄆᆞᆫ어져사ᄅᆞᆷ은ᄭᅵ요거러건너
ᄂᆞ찬ᄂᆞᆫ물노건너대릉하졈의드러분탕일ᄭᅴ와탕보
ᄂᆞ두낫ᄌᆞᆯ사요거ᄒᆞᆫ우연ᄂᆞᆫ마탕을ᄂᆞᆯ너보니ᄃᆞᆯ
지우여든다셧라나ᄆᆞ지우니ᄂᆞᆯ두ᄂᆞᆯ을차우의거ᄂᆞᆫ축
축이다변졍ᄒᆞᆫ등등우리ᄌᆞᆯ황제사ᄆᆞᆫ숙ᄒᆞ니우
리ᄃᆞᆯ져ᄂᆞᆫ을뵈면오주죠와ᄒᆞ탄ᄒᆞ노라안동여대
릉하ᄂᆞᆫ을오니다리까ᄯᅩ몬어져두편언덕의왕여

젼을주피로아쳐ᄒᆞ다가파ᄒᆞᆯ즉시ᄲᅡ져ᄂᆞ려안치
ᄀᆞ제ᄭᅦ지ᄇᆞ다두ᄯᅥᄂᆞ리ᄃᆞᆯ두ᄂᆞ와불인ᄉᆞᄒᆞᆫ후셔ᄀᆞ반
을차려올니ᄂᆞ쌀은빅ᄅᆞᆨ살ᄒᆞᆨ벼나제법지어알이허여
지ᄂᆞ아ᄂᆞᆫ ᄒᆞᆯ쵸은셩젼을ᄃᆞ장의ᄇᆞ려큰와ᄉᆞ의ᄯᅳᆫ젱ᄒᆞᆨ
ᄃᆞ여장을ᄲᅡᆺ초아ᄲᅡ서ᄂᆡ리ᄂᆞ ᄲᅡᆺ서이셔밥ᄒᆞᆫ봉오반다ᄒᆞ
두와ᄀᆞᆯᄂᆞᆯ다ᄯᅥᄋᆞ니비위가ᄯᅳᆯ니여날ᄂᆞᆫ ᄀᆞ리던셧최
ᄒᆞᆨ히ᄉᆞ부ᄀᆞ이죄ᄂᆞ다어히ᄂᆞᆯ기ᄂᆞᆫ문ᄂᆞᆫ비ᄒᆞ이가쟁졍졀ᄂᆞᆫ
어ᄂᆡ의ᄯᅥ체ᄇᆞᆨ케ᄒᆞᆫᄂᆞᆫ거ᄉᆞᆯ도농짝쳥로ᄯᅳᆫ구러ᄉᆞ면의구림
을구리ᄂᆞ네ᄇᆞ의ᄂᆞ리ᄅᆞᆯ ᄇᆞᆨ아셩리ᄌᆞᆯ노리더ᄂᆞᆫ보
의라ᄂᆞᆯ ᄂᆞ아희ᄅᆞᆯ구ᄒᆞᆨ의ᄂᆞᆫ이ᄂᆞᆫ을거ᄃᆞᆫ그니ᄯᅳ이ᄂᆞᆺ시
ᄒᆞᆫᄂᆞᆯ변ᄋᆞᆫᄒᆞᆫᄂᆞᆯ주시굿치ᄂᆞᆫ리다이주인의

개오이 린 수수이셔 구쳐로 ᄒᆞᆫ 엿 더니 제어미나 다 출우
희 업ᄂᆞᆫ 듀 젓ᄉᆞᆯ 먹이 걷ᄂᆞᆫ 아희ᄅᆞᆯ 어 엿부 다 걸이
저의ᄅᆞ 부가 다 꼿거 ᄋᆞᆫ 더라 밥ᄀᆞ 보ᄂᆞᆯ 줄ᄉᆞ이 ᄉᆞᆫ 차ᄂᆞᆫ 다
타 ᄒᆞ더니 죠션 란 뒤의 셔 아희ᄃᆞᆯ 글 쓰러 낭자이나 건ᄂᆞᆫ
러가 부니 시ᄇᆞ 여 세 시ᄀᆞ 되ᄂᆞᆫ 앞 희ᄃᆞᆯ이 여ᄂᆞᆫ 네이 안 져ᄉᆞ셔 삼
경ᄃᆞᆯ을 이런 다가 일 시의 ᄀᆞᆺ 지ᄂᆞᆫ이 러나 황셔을 셔은
나 ᄒᆞᆫᄅᆞᆫ 죠평안이 왓ᄂᆞᆫ 나 무거ᄂᆞᆫ 손을 잡어 안 치ᄂᆞᆫ 글
을 이ᄅᆞ라 ᄒᆞ니 ᄀᆞ음ᄃᆞᆫ ᄅᆞᆯ ᄃᆞᆯ도 아니ᄃᆞ 다 일ᄂᆞ 나 귀절
붓치ᄂᆞᆫ 법 다 일리ᄂᆞᆫ 쇼 뒤 다 끼리 ᄒᆞ지 아니ᄒᆞ니 아오ᄂᆞᆫ 동
원 아희 다 일ᄌᆞᆨ 되ᄂᆞᆫ 가 시부 더 다 여러 아희ᄃᆞᆯ 을
버리ᄅᆞ 다ᄉᆞ 리ᄃᆞᆯ 다ᄉᆞᆯ 나 ᄒᆞ지 ᄒᆞᆫ 대 식ᄌᆞ 쥬ᄂᆞᆫ 나 와 여리 가

지붕에오날은일을젹어쥬인을이ᄉᆞ신이알세ᄒᆞᆫ
ᄂᆞ셩문을나셔산의희가지ᄂᆞᆫ동방의ᄃᆞᆯ이오나팔
빅니랑야의죠요이빗최니표쳥이장란이오내일ᄒᆞ
ᄂᆞᆫ길이졈ᄒᆞ여호환이죵ᄂᆞ비상ᄒᆞ니밤길이위
터ᄒᆞ여겸ᄒᆞ여젼역을차셜이멱ᄋᆞᆫ기의쉬지ᄯᅡᆯᄂᆞ인
ᄒᆞ여갈시부나ᄆᆞᆯ을벽ᄂᆞ이못ᄯᅥ엿기이시ᄇᆞ니빅탑
포의ᄃᆞ허잠깐쉬니오날은일빅삼ᄉᆞ시ᄇᆞ니ᄃᆞᆯ주야오
ᄂᆞᆫ도밤이야직기ᄇᆞ지아니ᄒᆞ여시이분ᄀᆞ기젼ᄉᆞ십니ᄂᆞᆫ
갈ᄃᆞᆺᄒᆞᆯ쳔명ᄒᆞ이시ᄇᆞ오리ᄂᆞᆯ다와ᄯᅡ복고의죠반
ᄒᆞᆫ오더니심양장군이의기ᄃᆞ라야오ᄂᆞᆫ터압희ᄃᆞᆼ리
쳐여젼비ᄒᆞ나세우ᄂᆞ거ᄅᆞᆨᄒᆞᆫ터평차ᄂᆞᆫᄂᆞ뎌ᄭᅡ삐여ᄒᆞᆫ

표동여 집 쳐 곳치 십니 나 싸아서니 뫼 어브는 쇠
셔여 뒤 사이리 장이 버여온 지 ᄒᆞ 히 ᄒᆞ터라 죠 반 후
오십니 ᄃᆞᆯ 오니 거 살이 셔ᄒᆞ여 죤 산 젼 방 의 두 터
아모 터로 어버리ᄃᆞᆯ 도로 차의 올 나 일 마 장은 가니 뜨ᄃᆞ
어 집 음 식 한 ᄉᆞ 맥 의 두 터 ᄭᅴ 탄 ᄉᆞ 리 식 라 쉬 ᄒᆞ
ᄀᆞ 밥 ᄒᆞᆫ 보 오 석 사 ᄆᆞᆯ 의 쇠 져 먹 ᄀᆞᆫ 쓰 린 가 스 ᄋᆞᆼ 을 진 정
ᄒᆞ 다 동 힝 들 은 ᄀᆞᆯ 사 이니 먹 ᄂᆞᆫ 날 을 도로 여 신 동 ᄒᆞ
다 ᄒᆞ 터 타 셕 ᄆᆞᆫ 령 이 라 ᄒᆞᆫ ᄃᆞ 리 로 올 나 오 터 니 명
가 뫼 허 리 로 지 나 오 신 ᄃᆞᆫ 영 쟁 ᄒᆞ 나 이 놀 지 ᄂᆞᆫ 산 영
리 로 은 두 냉 동 ᄀᆞᆫ 사 오 ᄂᆞᆫ ᄃᆞᆯ 로 밧 비 불 너 리 로 ᄂᆞᆯ 서
허 ᄒᆞ 여 부 타 ᄒᆞ 니 영 쟁 이 죽 서 리 로 ᄃᆞᆫ 라 져 ᄀᆞᆫ 올

녕을 츈경낭의 가신이 넘어 손가의 졈의 드ᄅᆞ야
합ᄒᆞ여 온 기ᄅᆞᆯ 열ᄒᆡ ᄒᆞ셧ᄂᆞ니 오ᄆᆡ 하슈ᄅᆞᆯ 여ᄃᆞᆫ 번
펀너고 농부ᄒᆞᆫ 녕을 ᄒᆞᆯ 녀ᄂᆞ니 그신ᄂᆞᆫ 흔 횡ᄉᆡ이 일ᄒᆞᆯ
것이 업ᄂᆞᆫ지라 ᄌᆞ연의 집이 빈ᄒᆞ고 살ᄂᆞᆫ 원의서 나 집을 경
ᄒᆞᆫ 반찬도 ᄒᆞᆫ 치 아니ᄒᆞ여 ᄌᆞᆼ의 넘ᄉᆡ ᄯᅥᆯᄂᆞᆫ 진ᄯᅡ
셔슈ᄅᆞᆯ 살ᄀᆞ가ᄒᆞ나 시ᄅᆡᄂᆞᆫ 나 여ᄒᆞᆫ 여어 ᄯᅢ 오ᄂᆞᆯ 날
치ᄆᆡ 으ᄐᆡ 무어선 근심ᄒᆞᆫ ᄃᆡ 길ᄒᆞᆯ 넘ᄋᆞᆯ 젹을 ᄒᆞᆯ
ᄒᆞᆫ 슈ᄅᆞᆯ 지어 왈 ᄌᆞᆼ 셔ᄉᆞ의 셜 ᄂᆡ ᄒᆞᆯ 제ᄂᆞᆫ ᄎᆞᆫ 죠ᄅᆞᆯ 풍이
일으의 도라 온 ᄌᆞ 지ᄅᆡ ᄒᆞᆫ 노ᄅᆞᆯ 이 다ᄒᆞᄂᆞᆫ 간 ᄒᆞᄂᆞᆫ
셔ᄉᆞᆫ 그리 가 ᄆᆞ음 못 ᄒᆞ나 ᄯᅩ 이에 ᄀᆞ히 노라 ᄒᆞᆫ 길ᄂᆞᆫ 셩
각ᄒᆞᆫ ᄯᅢᄂᆞᆫ 두 젹죠ᄅᆞᆯ 지 못ᄒᆞᆫ 거ᄉᆞᆯ 보ᄂᆞᆫ ᄃᆡ ᄒᆞ

로다 어져 미티 로탄 뒤는 속 로 말로 이니 평지의
늘 거시 지산 협 외는 박 현에 거시 러라 이 로 어 호기
혹 퇴 퇸 호여 퇴 지 명 어 쥐 에 우니 발 셔 인 마 쾌
로 로 러 다 중 원 셔 쳔 니 를 넘어 오 쥐 호 정 눈 을 숫 보
어 러 니 졀 쳔 의 로 쥐 소 셜 의 쳑 셜 이 꼭 호 시 되 의
빙 화 어 무 슈 호 중 혹 항 앙 호 로 즌 눈 이 누 져 이 평 호 뒤
만 우 다 슈 로 에 더 욱 꼬 리 숫 호 여 혹 복 혹 동 호 로 꼬 심 어 영 을
넘 우 니 일 제 어 의 미 리 기 울 로 쌀 동 의 꼬 동 호 뭐 여 회 평 ㄷ
로 리 벗 쳐 와 무 슈 요 리 로 시 부 나 다 안 슈 로 라 뗑 꼭 이 어
시 니 할 일 어 보 셔 기 탄 쓰 리 석 쌀 아 벽 은 혹 즐 로 호 로 리
로 라 지 숫 호 여 즌 눈 쥐 의 셔 다 오 다 호 로 저 러 올 나 깔

서여러 당부기 잇는 줄 알게 정성을 뿔 서 불바 음
이 서 불 아 의 상 비 수 호 ᄂᆞᆫ 소 쳔 호 영 을 ᄭᅮᆺ 저 ᄂᆞᆫ 주 어 즈 줄
을 성 ᄭᅮᆺ 호 여 ᄭᅮᆺ 되 ᄂᆞᆫ 관 뇨 의 ᄃᆞᆯ 터 ᄭᅮᆺ 와 ᄆᆞᆫ 오 원 ᄆᆞᆫ 이 의
쥬 쳔 쥭 ᄃᆞᆼ 지 ᄂᆞᆫ 의 셜 서 일 ᄒᆞᆫ 모 ᄃᆞᆼ 은 한 ᄉᆞ 쳥 ᄒᆞᆫ 무 안 왕
단 ᄃᆞᆼ 지 위 에 ᄭᅮᆺ 히 ᄂᆞᆫ 호 여 와 불 이 신 중 이 모 의 ᄃᆞᆼ 흔 소
잇 을 ᄯᅴ ᄂᆞᆫ 셩 야 ᄎᆞ 달 내 ᄌᆞ 타 갈 니 쳔 뵈 우 히 허 벌 ᄀᆞᆫ 座
발 ᄒᆞᆫ 기 의 익 지 못 호 지 타 갈 이 ᄉᆞ 쳥 을 ᄃᆞᆯ 러 신 엇
호 ᄂᆞᆫ 죄 ᄌᆞ 욕 ᄒᆞᆫ 나 니 업 ᄃᆞᆯ 여 원 호 단 져 ᄂᆞᆫ 분 ᄒᆞᆫ 신 영 은
ᄃᆞᆯ 터 외 어 여 ᄉᆞ 비 여 기 셔 [illegible] 호 ᄒᆞ 여 무 ᄉᆞ 이 ᄌᆞ 라 가 근 친
게 뵈 오 브 게 ᄒᆞᆫ 면 ᄒᆞᆫ 회 ᄌᆞ ᄂᆞᆫ 여 ᄀᆞᆯ 동 정 을 만 분 지 일
이 나 감 기 ᄀᆞᆯ 조 모 ᄒᆞ 리 ᄌᆞ 타 쳔 ᄌᆞ 히 일 빅 창

을주어 말공을 보내여 시어 리옥 등 이 드리고
졍의 듀 구현선 말은 이 셔보듀 등산 호여 밤중
의 오면 거 동을 어지 타 적을 리 오차의 누리 며다
기오리 를 못 호 강의 누 엇더이 전 제을 살아
주게 빅을 두 글 여을 숙 답 호 여 무 환 호 고 셍을
셔로 슈졍 호 셔 두 번 온 어나 세 번 지 낸 사 흘 이
나 다 쳐음 을 주 다 는 오히 려 여 셔 모이
삐 전 호 여 우 리 가 오 노 타 범 살을 호 연 전 쳥으
로 말 여 일 날 은 명 두 의 김 히 녕 여 호 여 더 니 킬 정
무 수 이 오 다 당 호 여 져 이 오 일 의 오 흘 졍 두 환 을 던
지 다 탕 이 타 호 는 이 가 공 연 이 우 미 로 내 여 양 비

어여러하슈와 쪼개 소텀영과 뿔뿔졍을 서
봉셩을 저 외로셔 최의 쳑을 드려 보시여 문 단을
붓치고 오타 호고 셩 빗 글로 오타가 김 밍 감분을 기
드리더니 셔 둑 판 의 ᄒᆞ 저 ᄅᆞᆯ 드리 나라 볼 언ᄌᆞ 호셔
제 집을 로 드려 감사 ᄒᆞ 쳥 호 아 이 셜 의 어 제 일 보
저 전 ᄒᆞᆯ ᄉᆞ 거 ᄅᆞᆯ 을 호 되 오 져 근 ᄃᆞᆺ 호 여 셔 ᄅᆞᆯ 시 이
다 ᄯᅳᆺ 건 ᄂᆞᆯ 다 되 고 오 타 가 기 ᄒᆞ 이 쇼 삽 日 호 여 항 번 셔
찰 ᄅᆞᆯ 호 되 다 되 이 언 마 가 생 치 아 이 호 여 사 아 ᄯᅳᆺ 법
호 아 을 맛 아 죄 언 가 저 쳑 이 기 더 욱 ᄀᆞ 여 보 치 아 이
호 ᄅᆞᆫ 호 졍 말 은 호 여 비 로 소 쳑 꾼 악 가 의 지 日 의 ᄃᆞᆼ
어 제 ᄂᆞᆫ 이 ᄅᆞᆯ 비 기 시 보 이 ᄅᆞᆯ 오 ᄅᆞᆫ 오 ᄂᆞᆯ 오 ᄅᆞᆫ 호 ᄀᆞ 시 日 니 ᄅᆞᆯ 오 ᄋᆞᆫ

나 일즉 못ᄒᆞ여 길로ᄒᆞ미 、 ᄒᆞᆫ지 제로 여러 번이니 네
이ᄅᆞ여면 우리 나라 ᄯᅩ의 ᄒᆞᆯ 리시오 ᄉᆞᆺ이ᄅᆞᆫ 혹 ᄒᆞᆫ ᄯᅩ 지나의
도리ᄒᆞᆯ 시어 지로 치 ᄋᆞ니 ᄒᆞ리오 이 흐엿 ᄒᆞᆯ 그
변 ᄉᆞᄅᆞᆷ을 치는 집이라 ᄒᆞ는 어 우리 거ᄅᆞ에 오ᄅᆞᆯ 어ᄅᆞᆫ 요
셩ᄉᆡᆼ을 어ᄯᅥ ᄒᆞ여 ᄒᆞ다가 ᄯᅩ 졍 ᄯᅥᆨ이 ᄒᆞ여 ᄒᆞᆫ 도ᄅᆞᆯ 살ᄒᆞ여
여러거 지ᄋᆞ여 다 ᄂᆞ여 병 ᄎᆡᆼ을 ᄀᆞᆺ초아 반찬을 ᄒᆞ여 주니
달레 ᄇᆡᆨ 기ᄅᆞᆯ 시ᄋᆡᆼ ᄒᆞ 쳠ᄋᆞ로 ᄒᆞᆫ 불만 ᄒᆞᆫ 지졀
이라 그ᄅᆞ의 편 어ᄂᆞ ᄒᆞᆫ ᄂᆞᆯ은 ᄆᆞᆺ지라 ᄅᆞᆯ 아니 ᄋᆡ 어ᄯᅡ도
괴쳐ᄅᆞ 여 보 회 ᄒᆞ다 그 ᄇᆞᆫ ᄒᆞᆫ 친 ᄒᆞᆫ ᄂᆞ리 ᄒᆞᆼ 에 ᄒᆞᆯ 엇 어보는
ᄒᆞᆫ 졍ᄒᆞᆫ ᄉᆞᄅᆞᆷ ᄀᆞᆺᄒᆞᆫ ᄂᆞᆷ이 그리 부친들은 ᄋᆞᆺ제 쟝ᄎᆞᄒᆞ
어ᄂᆡ 수 되오 ᄅᆞᆨ 흔티 놓은 뒤 ᄇᆞᆫ 조선 ᄉᆞᄅᆞᆷ의 ᄌᆞ식 어오

학셩도졍흥쟝셩 샹을 웅뢰ᄒᆞᆫ의 가시기 이 업ᄉᆞ하ᄒᆞᆫ
텨 그ᄅᆞᆯ ᄡᅥ ᄃᆞ어지어 나ᄂᆞᆫ 여화 북방 에 슉ᄂᆞᆫ도ᄂᆞᆫ 치 지
변방의 국장 선조ᄭᅴ 이ᄅᆞᆯ ᄡᅥ 이시던 나오 젼ᄌᆞᆫ 제 식양
이샹ᄭᅴ 졀쳠ᄇᆡᆫ란ᄋᆞᆯ 나오 시행 ᄒᆞ셔 ᄉᆞᆷ히 ᄋᆞ여 잘 변ᄒᆞ샴
나ᄂᆞᆫ 이 돈ᄲᅮᆫ은 본곤 이얼 편ᄒᆞ기 ᄅᆞᆯ 그럿 ᄃᆞ 허 ᄒᆞᆫ고 산ᄒᆞᆫ
라 셔 부평 에 ᄂᆞ리 벌ᄂᆞ리 시보 젼ᄋᆞᆯ 노ᄋᆞ 셩샹 의 취가 일
쳔 일흘 ᄂᆞ리 시보니 믈 ᄒᆞᆫ 훈련 샹련 ᄋᆞᆸ게 다 ᄒᆞᄂᆞ
실ᄅᆞᆫ 손훤 나ᄂᆞᆫ 더ᄒᆞᆫ ᄒᆞ다 ᄒᆞ여 다 지 ᄯᅦ ᄂᆞ 도를 가ᄒᆞ실
울 이 신분 이ᄅᆞᆯ 에 못 ᄒᆞ여 지 보뢰 ᄃᆞ려 ᄒᆞᆯ 터셔 ᄂᆞ 은 ᄆᆞᆺ ᄒᆞᆫ
ᄒᆞ소 의 ᄒᆞᆫ편 은 ᄒᆞᆯ만 ᄒᆞᆫ ᄋᆞᆯ 여 화 칙ᄉᆞᆯ 결 ᄒᆞ는
못 ᄒᆞ온 ᄌᆞ시ᄅᆞᆯ 어런 다 ᄒᆞ ᄋᆞ야 ᄆᆞᄌᆞ 처 ᄒᆞ여 오라 가나 ᄅᆞᆯ 의 ᄃᆞ려

이날나 쳐문을 항공도로 셰여 두려 가니 조연 번리는
가지못 하여 영장 두로 올나 떨의 친근 올셔나 탄달이
빨져의 산영 호도 밀 이오국 셔 쓰이 쳐 기를 이무던
호기 시엽 호여 흔흡을 놓니 구령과 인덕 의 수장호
는 뵈보이 아마 도쥬 연 발라 다르는 경 흑 호 뉘를 의 쇼리개
쳐로 지나갈 국 허령리 호더라 져 그릇 호여 구현 선을
다 그 큰 디 시의 주퇴 그로 이 만 쳔 신 쓰 의 두로 혀여 져 혹
나 모 도 뵈 이 뎌 즉 셩 도 잡 놓나 소 변 의 불 을 지 르니 연
여 이 창 쳔 호 는 도 셩 이 진 중 호 니 그 적 그 는 아니 호나
혹 선 불 밀 이 뎌 라 그로 가 내 여 호 로 쥰 길 가 의
벽 이 로 지 나 가 셔 동 의 더 인 기 이 오 히 려 나 방 뭄

실라 강판 단의 쳐녀이 주어 다 죽다 하니 불상하
며 셜리 가로 강하는 의 쳐셔 분다 찬 물셔 니를 정
하여 본 터 펴지 를 쥬어 마주 보니는 지라 주어 자안
부를 부지 치고 길의 이 보고 오던 하 옷 슨 목 이 무거워
솜을 것고 여뿐게 하려 하니 깃가 이 하는 께 집을 불어
시기고 서부나 한 가지 정표 하고 거서 여부 못 하는 다는
기영을 불어 주치니 도라 깃 하 음 당원 망 하 주 승
더라 서부 열의 쳐 부은 의 게 동강 쟁 지 를 맛 다 비지
뻑동 쳐를 지우고 전서 는 하여 셔 발 다 를 타 니 이 물
은 세상의 타 가 어려 은 물 이라 안 장의 불 거을 뫼우 붓
치면 주여 지 가 여 부를 가 더라 비셔 지고 불 길을 붓

오히니 소홀ᄒᆞ옵기셔 병을 ᄒᆞ시니 나 병인의 죽을 못ᄒᆞ
나 ᄯᅢ에 놀나다 ᄒᆞ니 ᄒᆞ지 노쇠지 아니ᄒᆞ고셔
문의니로다 이 졍ᄒᆞᄂᆞᆫ듸 써러와 장례를 보는
을 보ᄒᆞ려 보시ᄂᆞᆫ 인ᄒᆞ며 길의 누어 ᄒᆞᆫ참을 조하니 이른
형이 ᄒᆞ려야 다 오려 놀ᄅᆞ려 ᄂᆞᆫ 러ᄂᆞ네 드려다 건낭져
의 아ᄒᆞ여 이 보셔 ᄒᆞ다 병이 ᄂᆞ니 기드려 가지ᄀᆞ 셩ᄒᆞ
병을 붓들신 후 근니 선ᄃᆡ 등리 ᄂᆞᄒᆞ여 왓ᄂᆞ ᄒᆞ시
근본 직수 승젼을 나포ᄒᆞ라 ᄋᆞᄉᆞ니 평경의 강당지
못ᄒᆞᄂᆞ 구시ᄒᆞ올 누어나 서서 낫지와 죄를 ᄋᆞᆷ어 나보ᄂᆞᆫ
줄외 전무후무ᄒᆞᆫ 현도를 니본이 엇지 졍슈가 ᄒᆞ
니ᄒᆡ로 이겨ᄅᆞᆯ 진셜ᄒᆞ연 ᄒᆞ연 이 피연을 ᄒᆞ논

卷 七十二

일이 맛키 어눈 올로 호여 오니 도무 쥬 호다 호은 젼
호여 누천라 쳐 수석 줄 불러 줄을 위 호여 이리 호여서
나 어눈 도셔려 뻔 이 못 호니 혹 불는니 우 숨가
호 누라

가보오오 월 지보 칠 일 윤소 제 필 셔 호다
츄길 사표 한승상 부 하승우 제 갈랑
선제 창업미 반이 중도 붕 효고 시 중천 하 삼 부애 익
츄리 제 내 쳐 성 위 좁 존 상 지 쥬 아래 연 뎨 시 위 지 선
이 불 회 어 내 고 충 저 수 맛 선 어 외 수 는 리 중 선 제 [illegible]
지 구 운 아 오 옥 보 지 어 제 화 아 니 성 의 리 상 [illegible]

이랑선제유덕고ᄒᆞ시 회흥지ᄉᆞ지리요불의
비빡야ᄒᆞᆫ 인유실의야ᄒᆞᆫ 이역ᄒᆞᆫ 쓰지ᄂᆞ야 이니라
부둑이 구위일혜니 쳑벌창부ᄅᆞᆫ 불의이
중라이 앗유쟉선벙라ᄀᆞᆮ 위흉션ᄌᆞ현여 의부유
사야ᄒᆞᆫ 논시형상야ᄒᆞᆫ 이요제하명명지리고ᄒᆞ시 불의
사야ᄒᆞᆫ ᄉᆞ뇌의이뼈야이니라 시중시랑락유지
위중윤중은 쳐리랑실ᄌᆞᆫᄒᆞᆫ 지혀충슌일시이로선
로빨사ᄒᆞᆫ 어유제하ᄒᆞ여니 운은 읽위궁중지ᄉᆞᄂᆞᆫ
뎌쇼히 실ᄌᆞᆫ 저연두에 시힝벌이 필능비오 릴두야ᄒᆞᆫ
ᄉᆞ랑억오이 장군 항흥은 셩힝이 슈풀ᄀᆞᆫᄒᆞᆫ 효창군
시용어쳑얼의 선제 징지왈ᄂᆞᆫ 시이ᄂᆞᆫ 시이ᄂᆞᆫ
라흥위록ᄂᆞᆫ 논어읽엉ᄃᆞᆫ 지ᄂᆞᆫ ᄉᆞ부 제요휘

編者略歷

•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學 國文科 敎授
韓國文學硏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硏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硏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体歌 硏究』, 『韓國歌辭文學 硏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鄕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硏究』, 『佛敎歌辭硏究』,
『燕行歌辭硏究(近刊)』, 『燕行錄硏究(近刊)』 등의 책을 펴냈음.

燕行錄全集 97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 者 : 林 基 中
發行人 : 宋 錫 球
發行處 :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帙 (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7-8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